

金 周 姬 教授指導
博士學位 請求論文

18 · 19世紀 朝鮮 知識人의 茶文化 研究

2013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生活文化消費者學科

韓 基 貞

18 · 19世紀 朝鮮 知識人の 茶文化 研究

金 周 姬 教授指導

이 論文을 博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2年 10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生活文化消費者學科

韓 基 貞

認 准 書

韓基貞의 博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인)

審査委員 _____ (인)

審査委員 _____ (인)

審査委員 _____ (인)

審査委員 _____ (인)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논문개요

본 논문은 조선 후기의 차문화가 중흥할 수 있었던 배경과 차문화 향유의 중심 세력인 지식인층의 다사(茶事)를 통해 조선 후기 차문화의 전개 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조선 후기 명말청초 문화의 수용과 국내 사회경제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식인들의 문예적 경향을 살피고, 차문화와 관련한 대내외적 기반을 고찰하였다. 이어서 차문화 중흥의 기저(基底)를 밝히는 한편, 실제적 다사를 통해 통시적으로 지식인층의 다사 전개 양상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대외적 활발한 교류 속에서 명말청초 문인문화의 유입과 수용은 조선의 문화 예술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심에 있던 지식인층은 이전 시기와는 다른 문화역량을 진작시키며 문화의 성격과 경향을 변모시켜 나갔다. 18·19세기 조선의 차문화는 이와 같은 문화적 신조류 속에서 전개되었다.

18·19세기는 차문화에 있어서 차문화의 중흥기로 평가받는다. 그 배경에는 차문화 수용 중심세력이 이전시기에 비해 제한된 계층 내에서도 그 층이 두터워지고 확대되었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시 난숙(爛熟)한 문화를 바탕으로 한 차에 대한 취향의 확산과 즐기는 풍조가 확대되었다.

차문화가 중흥할 수 있었던 국내 구조적 기저(基底)로는 가전다풍(家傳茶風)의 다력(茶歷)과 문화 동호인 집단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 활동 및 교류의 장에서 음다라는 공통된 생활양식을 매개로 하여 문화적 소통을 모색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아갔다. 집안의 다력이 지식인들의 차의 일상화를 공고히 하는 종적(縱的) 반석(盤石)이라면 동인회 성격의 집단모임 및 이외 모임에서의 차문화 교섭은 일상화를 좀 더 단단히 하고, 차문화 향유의 공간적 확대를 가져 온 횡적(橫的) 반석이었다. 대외적으로는 청과 일본과의 교류를 통한 다양한 차문화의 견문과 경험이 국내 차문화의 내용을 보다 다양하게 조직하고 확대할 수 있는 유효한 코드로 작용하였다.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차에 대한 약리적 인식은 선험적(先驗的) 지식과 의학서 및 백과사전, 양생서 등에서 얻어진 지식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차와 다사는 약치(藥治) 이상의 심치(心治)를 위한 방편이었고, 더 나아가 고답적

(高踏的) 정신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매개로 인식되었다.

18·19세기 지식인들의 다사 전개 양상은 일상성, 전문성, 종합예술성으로 확인된다. 지식인들에게 다사는 일상생활과 유리(遊離)된 문화가 아닌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이입된 일상의 생활문화였다. 일상 속 다사관련 양생측면 추구는 단순히 차의 약리적 효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다 과정에서의 집중, 조절을 통한 성정(性情) 단련 측면이 반영된 것이다. 접빈객 측면에서 손님접대에 차가 올려지는 것은 단순 음료로서의 기능과 함께 다사 정경(情景)의 아취를 통해 상대와 청담(淸談)의 소통을 원하는 의지가 안배된 최적 음료로의 성격이 함의되어 있다. 전문성의 측면은 다사의 택수(擇水), 탕변 감별(湯變鑑別), 화후(火候), 품다(品茶)에서 더욱 정밀하게 드러난다. 이는 백과전서적 성격의 총서 출간과 전문적 다서 등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다. 다사가 공시적(共時的)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취미는 차문화 현장에서 종합예술로서의 아취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차문화의 내용을 더욱 품격 있게 주조(鑄造)하는 배경이 되었다.

오늘날 시공간을 초월하여 누군가와 한 공간에서 차를 함께 마신다는 것은 물리적 시간의 개념을 넘어 서로에게 심신의 여유로움을 구하는 의미가 더 크다. 몸(身)과 마음(心) 챙김에 집중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차와 다사는 더 이상 약치(藥治)와 심치(心治)의 효과로 제한되지 않는다. 일상 속 여유와 대인 관계의 소통에 맞춰진 생활문화로서 정서적 공간으로서의 적용이 요청된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선행 연구 검토	3
3. 연구 개관	9
II. 조선 후기의 사회·문화적 배경	13
1. 18·19세기 사회·경제 변화	14
2. 대외 문화 교류의 활발	17
1) 서적 수입과 유통	19
2) 古董書畫의 수입과 교류	22
3. 문화 예술계의 동향	25
1) 明·淸 文人文化의 수용과 영향	25
2) 성리학적 관념의 재해석	28
3) 취미 생활의 다양화	31
4) 文化同好人 집단의 활성화	35
4. 지식인 계층의 문화적 성향	37
1) 博學 중시의 경향	37
2) 藏書家의 출현	39
3) ‘好古’ 취향의 高潮	42
III. 조선 후기 차문화의 국내적 기반과 교류	46
1. 家傳茶風	46
1) 金尙容·金尙憲 가문	50
2) 洪仁謨·洪顯周 가문	53

3) 徐有榘 가문	57
4) 丁若鏞 가문	59
2. 동호인 집단의 차문화	65
1) 詩社	67
2) 雅會	77
IV. 조선 후기 차문화의 대외적 교류	84
1. 청과의 인적 교류를 통한 차문화 수용	84
1) 청조 차문화의 경험	85
2) 차의 수용	92
2. 일본과의 인적 교류를 통한 차문화 경험	100
1) 공식적 다례의 경험	101
2) 茶饗應의 경험	104
3) 飲茶風俗의 경험	108
V. 조선 후기 지식인 계층의 다사 인식 경향과 다사 전개 양상	112
1. 茶事 인식 경향	112
1) 정신적 측면	115
2) 약리적 측면	128
2. 茶事 전개 양상	140
1) 일상성	140
2) 전문성	151
3) 종합 예술성	173
VI. 결 론	182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 목적

18·19세기는 한국 차문화사의 중흥기이다. 어떠한 이유로 18·19세기를 차문화의 중흥기로 평가하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서 본 논문은 시작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물은 조선 후기 차문화사에서 두드러진 견인차의 역할을 한 개인에게 한정시키거나 그가 교유했던 인물들과의 관계성을 들어 차문화가 흥성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주목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 방식으로는 한 시기의 문화 흥성여부를 판가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문화의 흥성 여부는 우선 사회경제적 구조와 변동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 진단하고 파악되어야 한다. 이어서 문화 주체 세력의 사적(私的) 배경이 파악될 때, 보다 정확하게 그 흥성 여부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조선 후기 차문화사에 있어서 그 주체세력은 차문화 중흥의 추동(推動)세력으로 대변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차문화 중흥의 추동세력을 한 개인이나 소수의 인물로 대표성을 두지 않고, 조선 후기 차문화를 향유했던 다수의 지식인¹⁾으로 연구 대상을 두고자 한다. 이는 조선 후기 차문화의 보편성을 보다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차문화사는 몇몇 소수의 다인들에 의해 주도되고 형성된 문화가 아니다. 다수를 차지하는 차 애호가들의 단단한 다사(茶事)²⁾의 일상화가 끊임없이 오늘날에 이어지면서 이루어진 문화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다수의 지식인들에 집중하여 18·19세기 조선의 차문화를 연구하고자 한다. 18·19세기 이르러 차문화는 이를 향유하는 주 계층인 지식인들에 의해 그들의 문화적 성향과 더불어 일상 속에 수용되고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

1) 지식인은 여러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다. 김영미(2007: 9-10)는 지식인에 대해 한문이나 한글을 익혀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지식인으로 분류하였다. 본고에서도 이와 같이 당시 사회에서 文識이 있어 본인의 생각, 의견 등을 글로 표현, 표출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지식인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2) 茶事란 ‘人’이 주체가 되어 객체인 ‘茶’와 관련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다. 차를 만들고, 차를 끓이고, 차를 내고, 마시는 등의 행동거지 일체를 의미한다.

다. 이들은 일상성에 주안한 차생활을 통해 차문화 중흥의 기반을 구축하여 나갔다. 조선 후기 음다(飲茶) 현상을 대중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제한된 계층적, 지리적 조건하의 향유에도 불구하고 차문화 수용의 세력이 확대되고, 이전 시기에 비해 제한된 계층 내에서도 그 애호층이 두터워졌다는 점은 보다 대중성을 띤 문화로 발전할 수 있는 저력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지식인 계층 안에서 당시 난숙한 문화를 바탕으로 한 차문화에 대한 취향의 확산과 이를 즐기는 풍조는 차문화 중흥의 일면으로 읽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지식인층의 다사 향유는 집안에 내려오는 애음다풍(愛飲茶風)과 망형지교(忘形之交)와 같은 폭넓은 교유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안으로는 일상적 차생활 영위를 도모하고 밖으로는 다양한 문화 활동 및 교류의 장에서 음다라는 공통된 생활양식을 매개로 하여 문화적 소통을 모색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아갔다. 이 시기 지식인들은 차를 기호음료나 약용으로 인식했을 뿐 아니라 정신적 차원의 신성한 음료로 인식하고 향유하였다. 또한 취향의 공유를 통한 문화적 공간에서 신분 및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통합시키고 교류하는 주요 매개체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아취(雅趣) 있는 문화를 발전시켰다. 더불어 다사(茶事)와 공시적(共時的)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문화 활동들과의 어우러진 경향은 오늘날 종합예술 성격의 차문화가 잉태되는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18·19세기 조선의 차문화가 중흥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조선 후기 명말청초 문화의 수용과 국내 사회경제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식인들의 문예적 경향을 살피고, 차문화와 관련한 대내외적 기반을 고찰하여 차문화 중흥의 기저(基底)를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지식인 계층의 실제적 다사를 통해 지식인 계층의 차에 대한 인식 경향과 다사 전개 양상을 고찰하여 조선 후기 차문화의 보편적인 모습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선행 연구 검토

그동안 조선 후기 지식인 차인에 대한 다사 연구는 대부분 몇몇 중심인물과 그 인물과의 교유관계에 있는 인물을 위주로 논의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연구는 조선 후기 차문화사의 중흥 주체세력인 지식인들의 전반적인 다사의 고유한 특성과 상대적 가치를 종합적, 통시적으로 규명해 내기에는 미흡하였다. 또한 이를 통한 18·19세기 차문화 중흥에 대한 성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미흡하였다. 이에 18·19세기 지식인들의 다사에 대한 전반적 배경과 실재를 다각적으로 접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선 후기 차문화 주체 세력의 다사 전개 양상을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차문화사에서 조선시대 후기의 차인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 결과물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시기는 2001년 후반에 이르러서였다. 그 이전에 역사학이나 한문학, 국문학과 같은 인접학문의 연구 성과가 있었으나 차와 관련 독립적인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차학(茶學) 전문과정이 개설³⁾되면서이다.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한 지식인들의 다사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과 연구서의 주 경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적 혹은 학파적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전적(典籍)과 교유를 통해 다사와 차정신을 규명하는 인물 중심 연구이다. 둘째, 주변 국가들과의 차문화와 그 교류사를 통해 당시 국내의 차문화를 조명하거나 국내 일부 제한된 계층을 상정하여 그들의 전반적 문화흐름 속에서 차문화를 고찰하는 문화사적 접근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후기 서화(書畵)에 나타난 다사(茶事)를 확인, 검토하여 당시 차생활을 규명한 연구 방식을 들 수 있다. 이들 선행 연구의 전거가 되는 기본 자료는 시문(詩文)이 주를 이루며 산문(散文), 편지글, 일기류, 묘지명(墓誌銘), 서화(書畵), 사행록(使行錄)과 같은 기록물 등이 제시되었다.

선행 연구논문 가운데 조선 후기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차문화를 조명하

3) 차학 전문과정의 개설은 대학원의 차문화 교육과정을 이른다. 대학원에서 차문화 교육이 가장 먼저 개설된 곳은 성신여자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전통문화산업학과와 예절다도학 전공이다. 차학 전문 과정은 1999년 성신여자대학교의 개설을 시초로 하여 2000년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의 생활예절다도 전공, 2002년 한서대학교 건강증진대학원 건강관리학과 차학 전공 설치가 이어졌다.

고 있는 연구물은 대체적으로 다산 정약용(丁若鏞, 1762~1836), 초의 의순(意恂, 1786~1866)에 관한 연구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그 외 담헌 홍대용(洪大容, 1731~1783), 연암 박지원(朴趾源, 1737~1805), 신위(申緯, 1769~1845),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 오주 이규경(李圭景, 1788~1856), 치원 황상(黃裳, 1788~1870), 우선 이상적(李尙迪, 1803~1865), 이유원(李裕元, 1814~1888), 금명보정(錦溟寶鼎, 1861~1930)에 대한 다산 연구가 있다. 먼저 선행 연구에서 한국 차문화의 중흥 중심세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약용·초의에 대한 연구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을호(1963; 1990)는 전남 강진(康津)에 남긴 다신계절목(茶信契節目)과 정약용의 차(茶)와 선(禪)에서 정약용이 유배시절 불가(佛家)의 상통함을 깨닫고, 차와 불교의 선이 함께 하는 다선일여(茶禪一如)의 세계에 들어서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명배(1996)는 정약용의 다도(茶道)에 관한 연구에서 정약용의 문헌을 고찰, 그의 다도를 차 만들기, 감별, 그릇, 불, 물, 굽기, 가루내기, 달이기, 마시기, 덕성 등의 시각으로 살펴, 전통다도의 본모기를 찾아내는 데 주목하였다. 정영선(1998)은 다산 정약용과 초의 의순의 다력(茶歷)을 중심으로 한 한국 차문화의 중흥조론(中興祖論)에서 한국 다문화를 중흥시킨 사람은 초의 의순이 아니라 다산 정약용이며, 승려 혜장과 초의는 정약용으로부터 다도를 배운 일가에 속함을 주장하였다. 나남미(1997)는 조선 후기 다도사상 연구에서 조선 후기 다도학의 형성 배경을 크게 시대상황과 조선의 다도학으로 연결해서 살펴보면서 정약용과 초의 선사, 그리고 김정희를 중심으로 우리의 다도학이 재정립된 과정을 고찰하였다. 고준희(2002)는 정약용의 차에 대한 이해와 차생활을 실학적 수기치인관과 관련시켜 실천다도에 대한 다양한 면을 조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저자는 음다 생활 시작에 대하여 유배이전의 음다 생활을 인정하되, 이는 주로 조선 유학에서 이루어진 다도를 습득하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유배 이후의 음다 생활은 그러한 유가다도의 입장을 바탕으로 불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다선일여(茶禪一如)의 불교 다도철학이 더해지는 과정으로 본다고 주장하였다. 박말다(2009)는 다인 정약용 연구에서 정약용의 유배이전 음다 사실 고찰과 함께 강진 시절 실제 제다 및 연구를 통해 본인의 제다법을 초의선사와 다신계 제자들에게 전수함으로써 18세기 차의 중흥기 도래에 중요한 구실을 한 차의 중흥조였다고

평가하였다. 정정미(2011)는 차생활이 점차 쇠퇴해가던 조선 후기에 선비들과 승려들을 중심으로 정약용이 차를 통한 불교와 유교의 교류를 갖게 함으로써 차가 더욱더 발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차의 실용성을 알게 하여 차가 우리 일상에 더욱더 다가서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그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특히 초의 의순에 관한 연구는 그의 차정신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일찍이 김상현(1976)은 『동다송(東茶頌)』을 중심으로 초의의 다도관을 고찰하였다. 그는 초의의 다도관이 조주선사의 다선일미(茶禪一味) 사상의 영향을 받았으며, 주요한 다도관의 특징으로 깍다를 통해 법희공선열식(法喜供禪悅食)하여야 하며, 다도에 있어서도 묘원을 다할 때 곧 무착바라밀(無着波羅密)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김명배(1997)는 초의선사의 다도 연구에서 차 만들기, 마신 차의 종류, 찻그릇, 차 달이기, 차 마시기, 차에 관한 지식, 차관계의 저술, 다도관 등을 연구 범위로 하여 선사의 차의 행장과 교유를 통한 차의 행적을 살펴 차에 관한 특성을 찾아 오늘에 계승 발전시켜야할 것으로 보았다. 박동춘(2004; 2010)은 2004년 연구에서는 초의의 다도사상을 선사상(禪思想)과 그의 저서 『동다송』 중심으로 분석하여 초의의 다도사상이 불교의 근본사상인 중도(中道)를 바탕으로 한 다선일미 정신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이어서 2010년 연구에서는 초의선사가 조선 후기 차문화를 중흥할 수 있었던 배경과 그의 차이론 정립 및 초의차의 완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자는 차이론 정립을 통해 완성한 초의차가 북학과 경화사족들의 차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과 이들 경화사족들과의 교류 확대는 차의 애호 기층 확대로 이어져 조선 후기 차문화를 중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의의 선다사상(禪茶思想)이 불이선(不二禪)을 바탕으로 한 다삼매(茶三昧)와 명선(茗禪), 전다삼매(煎茶三昧)로 드러났음을 밝혔다. 김영희(2004)는 초의 선사의 다도관 규명에서 그의 차생활이 선종(禪宗)의 일상적인 선수행에서 나온 실천다도라고 주장하였다. 송해경(2008)은 초의의 다도관 연구에서 기존의 초의의 차정신 연구와는 다른 관점의 차정신을 주장하였다. ‘취도의 미학’이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교적 정신도 초의의 차세계를 형성한 중요한 정신이라고 하였다. 심향옥(2009)은 초의의 다론(茶論)은 선종의 다선일미를 표방하는 선수행의 관점에서 시작되어 차생활의 실천적 체험과 확고한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김정희에 대한 연구로는 김명배(1997)와 오명숙(2006)의 연구가 있다. 김명배는 승설 김정희의 다도 연구에서 김정희의 다도와 관련된 시문서화 및 관지를 범위로, 그의 다력을 고찰하여 다도 특성과 지향한 다도관을 살피는데 주안 하였다. 오명숙은 ‘추사 김정희의 차문화 연구’에서 김정희의 정신세계와 예술세계는 차생활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신분과 종교를 초월한 그의 교유관계는 학문과 선·다·시·서·화를 통해 차문화를 꽃피우고 차를 통해 정신세계와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고 학문과 예술의 깊이를 더욱 깊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탁효영(2004; 2008)은 신위의 시집인 『경수당전고(警修堂全藁)』에 있는 다시(茶詩)들을 통해 자하의 음다 생활에 중점을 두어 고찰하였다. 그의 다도관은 새로운 작품창작 세계의 원동력이자 조선 후기 대다인(大茶人)으로서 학문적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고, 다산 정약용과 초의선사와 교유하면서 당대 다도문화가 중흥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그의 한시에 나타난 선사상과 자연관조의 심미의식을 고찰하여 예술정신에 내재된 문화사적 특징을 규명하였다.

오주 이규경에 대한 연구는 그의 주저인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수록되어 있는 차에 관한 세편의 변증설 「도다변증설(茶茶辨證說)」, 「종다의이청양변증설(種茶薏苡青囊辯證說)」, 「사시십이시청취변증설(四時十二時清趣辨證說)」을 통해 이규경의 다문화관과 차생활을 규명한 연구들로서 정영선(1996), 최향옥(2006), 김희자(2008)의 연구가 있다.

치원 황상에 대해서는 유홍숙(2012)과 김규선·구사회(2012)의 연구가 있다. 유홍숙은 황상의 차생활은 정약용과의 만남과 당대의 명사들과의 폭넓은 교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일속산방에 살며 시를 짓고 차를 마시며 신선처럼 차생활을 즐겼다고 평하였다. 김규선·구사회는 황상의 만년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치원소고(卮園小藁)』 5~6권을 발굴하여 이 속에 실린 30여 편의 차시를 통해 일속산방에서의 일상화된 차생활을 규명하고 19세기 차문화에 대하여 조명하였다.

중인 출신 우선 이상적의 연구로는 김현정(2004)의 국제적 다가(茶家)로서의 이상적 연구가 있다. 김현정은 이상적의 다시문(茶詩文)을 통해 그의 음다생활은 검소하면서도 철학적이었고 다도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지식의 바탕위에 한·중 다문화 교류에 교량적 역할을 한 점이 큰

업적이라고 평하고 있다.

노향미(2009)는 실학과 중 이용후생학과를 중심으로 조선 후기 다문화를 조명, 고찰하였다. 그 중심인물로 홍대용·박지원·이규경을 들어 이용후생학과의 차문화를 정리하고 그 후래적 영향까지 고찰하였다.

이윤경(2011)은 이유원의 『임하필기(林下筆記)』와 『가오고략(嘉梧藁略)』를 중심으로 다사를 살펴 차에 대한 관심이 발현된 배경과 그의 차생활이 19세기 조선의 차문화사에서 갖는 의의를 고찰하였다. 연구자는 이유원이 조선 후기 차문화의 일상적 생활문화로서의 측면과 새로운 예술성을 보여주었으며 한국 근대 차 품평의 과학적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그 의의를 평가하였다.

다송자(금명 보정)에 대한 백기란(2001)의 논문은 다송자의 생애와 다시문을 통해 다송자가 선가(禪家)의 다풍습(茶風習)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문화사적 접근으로는 당시 주변 국가들과의 차문화와 그 교류사를 통해 국내의 차문화를 재조명한 연구와 국내 일부 제한된 계층을 상정하여 그들의 전반적 문화흐름 속에서 차문화를 고찰하는 연구로 나뉜다. 주변 국가들과의 차문화와 그 교류사를 통해 국내의 차문화를 재조명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나성화(2008)는 17·18세기를 중심으로 사행록에 나타난 중국의 음다풍속을 고찰하였다. 사행록에는 조선과 중국의 문화교류가 명확하게 나타나므로 당시 중국 음다 풍속에 대한 파악뿐만 아니라 조선의 음다 풍속도 함께 조명할 수 있었다는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박정희(2009)는 17~18세기 통신사에 대한 일본의 의식다례(儀式茶禮) 연구에서 조선과 일본 양국에 있어서 조선 측의 통신사 일행을 접대하는 외교적인 의식 다례를 다례(茶禮)와 연향(宴享)으로 나누어 고찰하여 양국 사이 외교의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있다. 특히 통신사절로 방문했던 중인출신 문사(文士)들이 17·18세기 성숙, 대중화된 일본의 차문화를 경험하고 귀국 후 국내 차회 및 궁중 연회문화에 영향을 끼쳤으며 조선 후기 차문화가 중흥기를 맞게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국내 일부 제한된 계층을 상정하여 그들의 전반적 문화흐름 속에서 차문화를 고찰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주명희(2010)는 18·19세기 차문화 흥성의 기저에 문인문화인 고동서화 취미가 자리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문인 아회와 아회도에 나타난 차문화의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

구자는 아회를 통해 고동서화 취미가 문인 지식층 내에 확산, 저변화 되면서 유행 풍조를 이루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18·19세기 차문화가 전성기를 맞게 되는 결정적 역할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향유계층 확보 면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파악하였다. 차문화가 종합예술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또한 아회라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정은희(2010)는 19세기 ‘조선 사대부가(士大夫家) 여성의 차문화 연구’에서 19세기 조선사회 사대부가 여성들이 향유한 차문화의 특성을 밝히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두었다. 연구자는 19세기 사대부가 여성들에게 차는 가사생활에 긴요한 물품이자 건강 생활의 휴식음료이자 사교와 수신, 건강과 예의 표현, 생활의 격조를 높여주는 문화생활의 도구 등으로 자리하였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사대부가 여성들이 일용과 양생을 위해 차의 다양한 용도를 발전시켰던 것처럼 현대 소비자 트렌드에 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으로 차에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다.

후기 서화(書畵)에 나타난 다사를 확인, 검토하여 당시 차생활을 규명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재임(2001)은 ‘다화(茶畵)’를 차생활을 엿볼 수 있는 요소가 표현된 그림으로 다문화와 관련된 것이 나타난 그림이라고 정의하고 조선시대를 4분기로 나누어 ‘다화’를 중심으로 당시 차풍속을 논하였다. 오유자(2009)는 조선 후기 사대부들의 문인화에 나타난 차생활과 그 안에 내재된 차문화를 고찰하였는데, 그 대표적 인물로 정약용과 김정희를 제시하였다. 이정아(2009)는 그림 속에 차와 관련된 도구가 등장하거나 차와 관련된 화제가 있는 그림을 ‘차그림’으로 정의하고, 김홍도와 이인문의 차그림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의 시대적 배경과 차문화를 살펴봄으로써 차가 시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조선 후기’라는 시대를 배경으로 진행된 선행 연구들의 공통적 출발점의 견해는 조선 후기가 차문화의 중흥기라는 점이다. 중흥기라는 전제는 암묵적으로 그 이면에 융성했던 한 시기를 지나 침체 혹은 쇠퇴라는 기간을 거친 후 다시 맞게 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어떠한 선행연구도 중흥기라고 상정한 이유 및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한 고찰은 없다. 다만 주명희(2010)의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차문화의 흥성 기저로 문인문화를 중심으로 논지를 폈다. 그 외는 후기 차문화 중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몇몇 인물을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그들의 다사가 한 시대적 분기의 중흥을 가져

은 것으로 대표성을 둔 연구가 다수이다.

기실 한 시기의 문화적 성향을 파악하는데 있어 기본은 문화적 현상이 발생한 원인 즉 배경에 대한 설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어 순차적으로 특징적 성격에 대해 파악되어야 한 시기의 현상에 대해 명확한 규명이 도출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차문화 주체세력의 전반적인 다사 전개 양상은 당시 지식인들의 다사 하나하나를 정리하고 해석해야하는 연구가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은 조선 후기 ‘지식인’의 차생활 이다. 그 목적은 이들 지식인들의 실제 다사를 통해 18·19세기 조선 차문화 중흥의 배경과 구조적 특징을 조명하고 통시적으로 지식인들의 다사 전개 양상을 고찰하는 데 있다.

3. 연구 개관

본 연구에서는 18·19세기 지식인들의 다사를 일별하여 차문화 중흥의 대내외의 구조적 기반과 지식인의 다사 인식 경향, 그리고 다사 전개 양상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요지이다. 이에 따라 전후 6장을 두어, 조선 후기 지식인으로 정의될 수 있는 당대 다인의 다사를 조명하고 그들이 차문화를 향유하게 된 다사 배경 및 실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면밀히 고찰하여 18·19세기 차문화 중흥기의 성격을 밝혀나갈 것이다. 여기에서 분석된 자료는 지식인들의 각 문집과 사료에서 확인되는 다사관련 시문, 산문, 단행본 등을 이른다. 다시가 서사시나 산문과 같은 대작이 아니고 단편적이며 정형적이며 서로 독립된 운문이기 때문에 체계적, 종합적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몇 사람의 시문 등을 소재로 하여 무리하게 결론을 도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가능한 관련된 자료들을 통해 연구의 실마리를 잡고자 하였다. 각 장과 절에서 다루는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서론의 연구 목적과 선행 연구 검토에 이어, II. 조선 후기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는 차문화가 이 시기에 중흥하게 된 당대의 상황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는 고려왕조의 화려하고 융성했던 차문화에 비하여 비교적 약진의 조선 전기 차

문화 시기를 거치면서 어떠한 시대적 배경에 의해 18·19세기 차문화가 중흥기를 맞을 수 있었는지 밝혀나가기로 한다. 특히 문화의 특성상 고급문화로 대별되는 차문화는 기호적 성향이 강하기에 경제적 상황(기반) 즉 경제적 안정과 번영이 차문화 발전과 갖는 밀접한 개연성에 주목하여, 상업의 발달과 시전 상거래의 활발한 현상, 한양의 도시화 등을 살펴볼 것이다. 사회적 배경에서는 양란 이후 신분계층의 분화에 주안을 두며, 문화적 기반에서는 문체반정, 다양한 취미의 향유, 융성한 백과사전류 출간 등의 현상에 대해 주목한다. 또한 외교적 상황에서는 청과 일을 중심으로 문물교류의 측면에 집중하여 살펴볼 것이다. 국내 문화 예술계의 동향 고찰에서는 지식인들에게 영향이 컸던 명말 문인문화의 영향력과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위의 영향력과 변화 속에서 지식인들의 다변화된 취미활동들과 문화동호인 집단의 활성화를 다사와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지식인 계층의 문화적 경향에서는 대내 지적 경향의 변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지식인의 문화 향방과 생활양식에 있어서의 변화 내용도 확인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경제적, 사회적, 외교적, 사상적, 문화적 상황이 서로 유기적 관계 속에서 18·19세기 차문화의 중흥을 이루게 되는 배경으로 작용했음이 드러날 것이다.

Ⅲ. 조선 후기 차문화의 국내적 기반과 교류에서는 지식인들의 다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배경이자 기반인 구조적 기반을 살펴 볼 것이다. 국내 구조적 기반으로는 후기 지식인들의 가전다풍과 집단적 교유관계(교우, 사승관계 포함)속 다사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당대 음다(飲茶) 현상이 단시간의 경주(傾注)에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집안에서, 동호인 교유 관계 속에서의 누차적인 음다와 자연스런 다사를 통해 체득된다는 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18·19세기 지식인들의 차를 매개로 한 다회 및 아회현상과 집안의 다력을 고찰할 것이다. 또한 이 시기 차가 이들에게 일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으로서 작용하는 집안적 다풍을 살펴볼 것이다.

Ⅳ. 조선 후기 차문화의 대외적 기반과 교류에서는 청(淸)과 일(日)을 대상으로 하여 차문화와 관련한 수용과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청의 경우 연행의 공적, 사적 접촉을 통해 경험된 차문화와 교류를 살피고, 그 영향면을 고찰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통신사행 일정 하에서 경험되는 공식적 다례와 사적인 차향응, 그리고 도정 중에서 목격되는 일본 음다 풍속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대외적

차문화의 경험과 노출이 국내 차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밝혀질 것이다.

V. 조선 후기 지식인 계층의 다사 인식 경향과 다사전개 양상에서는 지식인 계층을 중심으로 다사를 통한 차 효용성의 인식 경향과 전개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조선 후기 지식인들이 차와 다사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이를 향유하였는지를 먼저 고찰할 것이다. 이 접근은 양적으로 다사에 대한 다수의 기록물을 갖고 있지 않은 차인들을 고찰하는데 유용한 조명이 될 것이다. 18·19세기 차문화 중흥의 중심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던 소수의 지식인 경우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의 생애와 많은 다사기록 등을 통해 충분히 다도관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다사와 관련하여 많은 기록을 남기지 않은 차인과 ‘조선 후기’라는 한 시대적 분기의 많은 차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다도관을 면밀히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그들의 차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에 대한 확인 작업은 미흡하게나마 다수의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차문화 의식을 엿볼 수 있다는 일면으로 생각된다. 대별하여 정신문화적 측면에서의 인식과 약리적 측면에서의 인식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차에 대한 인식이란 차의 활용범위에 대한 생각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이를 통해 그들의 다사의 성격이 밝혀질 것이다.

지식인 계층의 다사 전개 양상에서는 당대 지식인들의 다사 관련 1, 2차 자료들을 육하원칙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어떠한 점점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당대 보편적인 다사 실체가 통시적, 종합적으로 밝혀질 것이며 다사 전개 양상도 드러날 것이다.

VI. 결론에서는 이상 5장에서 다루어 온 바를 요약하여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내 고자 했던 18·19세기 차문화 중흥의 기저와 지식인의 다사 배경의 구조적 기반, 그리고 실제 다사경향을 정리하여 논문의 결과를 종합한다. 또한 본 논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과제를 밝혀 금후의 연구방향을 열어놓을 것이다.

자료 중 조선 후기 차 관련 시 및 산문에 대한 연구 문헌으로는 『한국의 다시(茶詩) 감상』(김명배, 1994), 『한국 및 중국의 명다시(名茶詩) 감평』(정상구, 1995), 『한국 다시 작가론』(천병식, 1996), 『한국의 다시』(김상현, 1997년), 『한국의 불교다시』(혜봉, 2005), 『한국차문화사 下』(류건집, 2007), 『한국의 차문화 천년 1, 2』(송재소·윤홍준·정해림, 2009), 『정유각집(貞蕤閣集)』上, 中, 下(박제가, 정민 외 옮김, 2010), 『새로 쓰는 조선의 차문화』(정민, 2011) 등을 꼽을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 텍스트는 『한국차문화사』 下, 『한국의 차문화 천년』 1, 2, 『정유각집(貞蕤閣集)』 上, 中, 下, 『새로 쓰는 조선의 차문화』이다. 국역의 경우는 여러 국역본을 살펴보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거나 직역으로 원의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였다.

II. 조선 후기의 사회 · 문화적 배경

한 시대 문화의 성격은 그 시대 문화를 주도해 가는 중심 계층의 정신적인 소양과 사고방식에 의해 변화되어간다. 조선 후기 문화 주도 계층인 지식인들의 문화역량 역시 정신적 내재적 요소와 외연적 물질 토대의 변화 위에서 형성, 발휘되었다.

다제(茶帝)라 일컬어지는 중국 송(宋) 휘종(徽宗, 1082~1125)의 『대관다론(大觀茶論)』 서론에는 다사의 성행과 한 시대의 사회적 · 경제적 흐름과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차라고 하는 것은 구와 민지방의 빼어난 기운을 얻고 산천의 영기가 모아진 것이며 우리의 막힌 가슴을 씻어내고, 맑고 평온한 마음의 중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을 평범한 어른이나 어린아이들이 알 리가 없는 것이다. 차는 성미가 욕심이 없고 고결하며 높은 운치는 지극히 고요하여, 이에 어지러운 시대에는 이를 얻어 즐길만한 것이 못된다. …… 대체로 사물의 존폐에는 그 나름대로 원인이 있으나 또한 시대의 성쇠나 흐름에도 관련되어 나타난다. 세상이 소란스럽고 사람들이 고달픔에 시달리며 곧 일상에 필요한 생활필수품마저 구하는 것이 어려워 혹여 구하지 못해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어찌 차를 마시는 일을 즐길 겨를이 있겠는가? 세상은 이미 오랫동안 태평하였고 사람들의 마음도 평정을 되찾아 곧 일상생활의 필수품도, 넘칠 만큼 풍족해졌다. 천하의 선비들이 청백한 뜻을 품고 서로 다투어 한가한 풍류를 즐겼으며, 금속 재질의 차기를 갖지 않는 이가 없고 맛의 정화를 음미하며 차 상자 속에 있는 단차의 정교함을 비교하여 품질 감정의 오묘함에 대해 논쟁을 벌였으며, 비록 초야의 선비일지라도 이와 같은 시대에 차를 비축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가히 성세의 풍류라 할 수 있다.⁴⁾

4) 『大觀茶論』 “至若茶之爲物，儻甌閩之秀氣，鐘山川之靈稟，祛襟滌滯，致清導和，則非庸人孺子可得而知矣。沖澹簡潔，韻高致靜，則非遑遽之時可得而好尚矣。……且物之興廢，固自有然，亦係乎時之汙隆。時或遑遽，人懷勞悴，則向所謂常須而日用，猶且汲汲營求，惟恐不獲，飲茶何暇議哉？世既累洽，人恬物熙，則常須而日用者，因而厭飫狼籍。而天下之士，厲志清白，競爲閒暇修索之翫，莫不碎玉鏘金，啜英咀華，較篋筥之精，爭鑿裁之妙，雖否士於此時，不以蓄茶爲羞，可謂盛世之清尚也。” (장유화, 『點茶學』, 보이세계, 2008, 172-176쪽.)

회중은 차가 존중되고 선호되기 위해서는 시대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회적 안정과 흥성의 지속은 여유로움 속에 차문화를 즐기는 풍류가 이어질 수 있는 배경이었다. 이러한 관계성은 공간적, 시대적 상황을 넘어 조선에도 적용된다. 특히 조선 전기와 후기는 차문화의 배경에 있어서 대내외적인 흐름이 여러 면에서 다른 경향이 펼쳐진다.

후기를 차문화의 중흥기로 상정하는 데는 여러 직접적인 배경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이를 즐길 수 있는 원천적 배경으로서의 사회적 분위기와 경제적 안정이 형성되었기에 가능했음이 확인된다.

조선 후기 문화 주체 세력인 지식인들은 당시 활발한 대외적 문화교류와 대내 사회적·경제적 변화의 자장 속에서 전기와는 다른 문화역량을 진작시키며 문화의 성격과 경향을 변모시켜 나갔다. 이 경향성의 배경으로서 후기 대외적 문화교류 개략과 대내 사회·경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전체적 사회변화 구도 속에서 문예적 경향을 차문화의 내재적 발전 경로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1. 18·19세기 사회·경제 변화

사회학적 관점인 사회 물적 구조의 변화가 지식인의 심태(心態)를 결정한다(권석환, 2006: 163)는 의견에 동의하며, 문화 주체자로서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 변화 일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18세기 화폐의 사용이 본격화되고, 대동법과 균역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화폐경제의 진전은 연쇄적으로 생산물의 상품화를 촉진하게 되고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의 변화로 이어졌다. 농업분야에서도 기술의 진보로 노동력이 절감되고 생산력이 증대되어 경제규모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공업, 농업분야의 경제규모 확대는 부의 축적과 소비 확대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의 경제적 발전은 상인과 역관 등 직접적 상업 관련자뿐만 아니라 이들과 관계를 맺었던 중간 계급에도 부를 축적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축적된 부는 상업자본 등으로 재투자되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그들의 소비 수준⁵⁾을

높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부의 축적과 소비확대는 한양에 집중되었다. 한양 내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시장의 확대와 활성화 그리고 도성 안팎의 근교농업의 성행은 정치도시로서의 한양에서 상업도시로 변모하게 하는 배경을 이루었다.⁶⁾ 한양에서는 화폐로 물품을 구입하는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18세기 후반 수공업 제품을 판매하는 시장 및 한양 내 각 지역마다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품의 품목을 달리하는 전문시장이 등장하게 된다. 그 중 한 유형이 종로를 중심으로 각종 문방구와 책, 서화고동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점이다.

조선 후기 경제적 부의 축적은 농업, 상공업, 수공업의 발달 결과물일 뿐 아니라 활발한 대외교역을 통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이중환(李重煥, 1690~1752)은 『택리지(擇里志)』에서 당시 부유한 상인이나 큰 장사꾼의 대외교역을 통한 국내 부의 편중 정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일본과 통하고 북쪽으로는 연경과 통한다. 몇 년 동안 천하의 물자를 실어다 팔아서 혹 수백만금의 재물을 모은 자도 있다. 이런 자는 한양에 많이 있고, 그 다음은 개성에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평양과 안주에 있다. 모두 연경과 통하는 길목에 있으면서 큰 부자가 되었으니, 이는 배를 통하여 얻는 이익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삼남에는 이러한 부자가 없다.⁷⁾

이 기록을 통해 당시 국내에서의 장사보다는 대외 무역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이 더 컸음과 그 부의 축적이 한양과 개성, 평양과 안주 지역 순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개무역에 참여했던 상인들의 경제적 성장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사회적 변화에서 주목할 사항은 사회신분제화이다. 조선 후기 경제상의 변화와 인구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사회내의 계층과 직업을 다양하게 분화, 고정시켰다. 특히 경제활동의 중심지인 한양은 새로운 사회세력⁸⁾이 등장, 부각되

5) 여기서 소비란 음식·거주·복식 등에 국한되지 않고, 서화·골동 등 예술품의 수장(특히 연경에서 수입), 오락 서적의 집적, 그리고 음악 애호 등 조선 후기 소비수준의 향상을 말한다.

6) 강명관, 「조선 후기 경화세족과 고동서화 취미」, 『동양한문학연구』12, 동양한문학회, 1998, 104-1055쪽 ; 정봉구, 「조선 후기 한양의 원림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2009, 30쪽 ; 변태섭, 신형식 공저, 『한국사통론』, 삼영사, 2006, 481-494쪽 참조.

7) 이중환, 『擇里志』 「卜居總論」, <生利> “南通倭國北通燕都, 積年灌輸天下之物者或有至累百萬金者. 惟漢陽多有之, 次則開城, 又次則平壤安州. 皆以通燕之路輒致巨富, 此則又不此舟船之利, 三南無此等伍.”

는 배경이 되었다. 이 중 한양의 시전 상인과 사상, 기술직 중인, 경아전(京衙前)층은 이러한 분위 속에서 경제적, 문화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다. 이 시기 기술직 중인층은 경화사족과 더불어 후기 학계 및 문예의 주체적 존재로 부상하였다. 이 바탕에는 경제적 축적과 문헌능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하였다. 후기 문화의 주체세력인 경화사족과 중인층에 대하여 살펴본다.

경화사족은 영·정조대 핵심적 산림(山林)학자의 후배, 문생, 제자, 후손들로서 사환(仕宦) 생활을 하는 가운데 서울의 경화사족적 관료학자로 전환(유봉학, 1991: 123)한 계층이다. 이들은 누대에 걸쳐 상업의 융성과 함께 대도시로 발달해 가던 한양의 생활에 노출되어 있었다. 한양이라는 도시생활을 배경으로 형성된 그들의 생활방식과 정신세계는 동시대 재야향유세력과 선배 주자학자들과는 달리 하였다. 그들은 조선사회의 지도적 지식인으로서 새로운 선비상을 모색하였다. 또한 청사행(淸使行)에의 참여기회를 통해 청으로부터의 새로운 학문과 문물을 첨단에서 수용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가진 계층이었다.

중인계층은 '위항지사(委巷之士)'라고 불리었던 서울의 중서층(中庶層)이다(유봉학, 1991: 131). 이들은 역관과 의원 등으로 대표되는 기술직과 서얼층을 가리킨다. 생활방식에 있어서 경화사족을 모방하고 '사(士)'가 아니면서도 사를 자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들의 탄탄한 자체 경제력, 문헌능력, 그리고 경화세족의 경제적, 학문적 지원이 자리하였다. 경화세족과 중인층과의 광범위한 학문교류와 상호교육⁸⁾은 누대를 거치면서 그들 간의 학통이 운위되는가 하면 가학이 대를 이어 계승되기도 하였다. 이들 중 역관신분의 중인계층은 조선 지식인들 사이의 정보유통과 네트워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그들이 구축하고 있던 경제력과 문헌능력 그리고 수차례의 연행경험이 제공된 결과였다.

이들 사이의 망형지교(忘形之交) 양상은 학문적 교류의 장(場)과 문예의 장, 대외 문물의 도입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장에서 확인된다. 이들은 다양한 물적, 지적

8) 새로운 계층이란 경영형 부농과 서민지주, 상업자본가와 임노동자 및 독립 자영 수공업자 등을 가리킨다.

9) 경화사족과 중인층간의 상호 교육의 배경은 영·정조대부터 명분론에 입각한 사회 신분제와 사족의 학문 독점이 점차 무너지면서 시작되었다. 학계 내에서 일찍이 중서층을 제자로 받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어서 경화사족의 자체가 중서층으로부터 수학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유봉학, 18·19세기 京鄉學界의 分岐와 京華士族, 『국사관논총』 제22집, 국사편찬위원회, 1991, 123쪽 참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대외·대내적으로 구성해 나갔다. 특히 신분과 당색(黨色)에 구애되지 않는 후기 문예 교섭의 실체는 조선 후기 문예의 내용에서 많은 반향을 남겼다. 무엇보다 후기 차문화의 증흥에 있어 이들 간의 격의 없는 교섭 배경은 차문화의 내연과 외연을 더욱 풍부하고 밀도 있게 만드는 구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2. 대외 문화 교류의 활발

조선 후기 대외적 문화교류 측면에 있어서 교류의 결정적 계기는 해외체험에 있었다. 당시 조선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사행, 통신사 및 그 일행들에 의하여 문화의 대외적 교류가 이루어져 왔다(최소자, 1997:191; 진재교, 2006:421)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선 후기 해외체험의 형태는 명·청의 연행사행과 일본의 통신사행으로 대별된다. 특히 중국과 일본과는 오랫동안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상호 교류를 이루어왔다. 당시 대외 문화 교류가 활발할 수 있었던 정황은 사신단의 규모와 횡수¹⁰⁾, 사행기간과 사행경로 등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청나라와의 관계 경우, 대외인적·물적 교류와 소통을 통해 양국 간 실제 지적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 것은 18세기에서 19세기로 오면서 지식인들 사이에서 대청의식의 변화¹¹⁾가 현저하게 되면서 일어났다(임형택, 2009:14-15). 대외인

10) 병자호란 이후 청조와 조선조는 조공체제를 재정립한다. 그 일환의 하나로 나온 것이 연행사절이다. 조선은 청나라에 정기적으로 세폐사(歲幣使)·정조사(正朝使)·성절사(聖節使) 등의 삼절겸년(三節兼年)공사(또는 동지사·절사) 등의 형태로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그 구성은 모두 30명으로 정하고, 종인은 일반적으로 250명 정도였다. 1755년 경우에는 인원이 무려 541명에 이르러 물의를 빚었다. 이외에도 자벽군관(自辟軍官) 또는 자제군관이라 하여 정사나 부사가 자기 자제나 친지를 수행인원으로 삼는 경우도 많았다. 일본통신사, 문위사행 경우 통신사의 정원은 정사로부터 도우장을 포함한 505명이었으며 보통 그 규모가 300~500명 정도였다. 진재교, 「동아시아에서의 서적의 유통과 지식의 생성: 임진왜란 이후의 인적 교류와 서적의 유통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제41집, 한국한문학회, 2008, 82쪽 ; 김명배, 『다도학논고 증보판』, 대광문화사, 1999, 493쪽 참조.

11) 대외 인식면에서 기존의 승명반청이란 이념이 도학자들을 중심으로는 완강하게 고수되고 있었고, 서울의 진취적인 지식인들과 해외방문 경험이 있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소중화의식에서 현실적으로 중국 전통문화의 계승자로서 청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의식변화가 일어났다. 18세기 이전까지는 해마다 청에 사행사절을 보내지만 승명모화의식, 소중화 사상에 젖어있었고 북벌론까지 주장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인들의 개인적 문화교류는 거의 없는 상황이었

식의 변화위에서 진행된 주변 나라들과의 문화교류는 조선의 문화향상을 도모하려는 적극적인 지식인들의 태도와 함께 ‘박학(博學)’, ‘병세(并世)’의식이 가해져서 대외 문물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실제적으로 사행이 적극적으로 시작되는 18세기의 대외 문물교류 중심에 있었던 사행단은 청의 골동서화 등과 같은 고급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인물적 교유에 주목하고 환희잡기와 풍속 영역에 관심을 두었다. 이와 같은 성향은 대청의식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살펴볼 수 없는 일이었다. 일본과의 경우, 17세기 이후 조선왕조와 에도막부 사이에 통신사 외교는 비정상적으로, 드물게 행해졌고 그마저도 19세기로 들어와 중단되었다. 두 세기에 걸쳐 10회에 그쳤던 양국의 비정상적인 외교는 문제점을 크게 안고 있었다. 그러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특히 지식정보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성과는 간과할 수 없다.¹²⁾ 이는 일본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창구역할 뿐 만 아니라 대외 문화교류측면에 있어서 청에 편중된 지적 편식 성향을 조절할 수 있는 기반이었다.

연행사행과 통신사행 사절단에 참여했던 조선의 지식인들은 청조와 에도막부의 문화를 조선에 전파하는 가교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각국의 이문화(異文化)를 수용하고, 이를 자기화함으로써 새로운 학지를 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습득된 이문화의 정보와 지식을 전달, 전파함으로써 학계에도 크게 일조하였다(진재교, 2008: 111). 조선 내 중국과 일본의 해외체험이 가져온 문화 충격은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세계화 담론을 촉발했다(정민, 2007: 57).

청나라를 방문했던 조선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청조의 다양한 지식인들과의 교유를 통해 학문적, 문화적 교류를 이루어갔다. 이들에게 연행은 당시 난숙한 청조 문화의 주체 세력인 지식인들과의 직접적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직접적으로 문화에 노출됨으로써 문화를 경험하고 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조선의 지식인과 청조의 지식인 간의 교유¹³⁾를 통해 형성된 인적

다. 최소자, 「18세기 후반 『燕行錄』을 통해 본 조선 지식인들의 對中國認識, 『국사관논총』 제 76집, 국사편찬위원회, 1997, 196쪽 ; 임형택, 「17~19세기 동아시아, 한·중·일 간의 지식교류 양상: ‘이성적 대화’의 열림을 주목해서」, 『대동문화연구』 제68집,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15쪽 ; 허경진·천금매, 「『병세집』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28집, 한중인문학회, 2009, 283쪽 참조.

12)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88쪽 ; 임형택, 앞의 글, 14쪽 참조.

13) 중국 명사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한 목적과 동기는 단순히 감정적 만족을 위한 데만 있지 않았

네트워크는 일회적인 것에 머물지 않는 연속적 관계망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연속적 관계망을 활용한 청과 조선 지식인 간의 문화적 교류는 그만큼 사행의 문화적인 의미까지도 확대시켰다. 18·19세기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있어 연행과 통신사행을 통한 이문화의 정보와 지식 습득 및 노출, 그리고 유통 즉 대외 문화교류는 그들의 대외 문화인식의 지평을 전방위적으로 넓히는 촉매제이자 사유를 전환시키는 전거가 되었다.

1) 서적 수입과 유통

활발한 대외적 문화교류 속에서 이루어졌던 이문화의 정보와 지식의 습득 경로는 사행 길에서의 직접적 견문과 여러 경로를 통해 구입된 서적을 통해서 가능했다. 근대 이전 유일한 문화 정보의 전달매체(강명관, 1999: 253)였던 책은 간접적으로 이문화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창구였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각국으로부터 유입된 서적을 통해 문학과 문화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고, 습득된 지식을 재 조직화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통해 조선 후기 학술과 문화의 진흥을 추진시키는 바탕을 이루었다.

18·19세기 서적의 유통이 확산된 배경에는 임진왜란을 통한 명나라 지식인과의 교류, 이후의 연행사신과 일본 통신사를 통한 서적의 수집 유통, 그리고 17세기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이후 조선 정부가 손상된 왕조를 재건하고 문화 및 문헌을 복원하기 위하여 주도한 서적의 출판과 유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진재교, 2006: 421)가 자리한다.

17세기 이후 외국서적의 수용 경로는 공적인 입장에서 사신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와 사적인 입장에서 참가 사절단이 직접 구매해 들여오거나 현지에서 선물로 받는 경우, 그리고 현지 지식인들과 교류 속에서 획득하는 경우였다. 특히 청나라로부터의 서적 수입 방식은 청 조정에서 직접 하사하는 것을 들여오는 형태와 청 내에서 직접 책을 구매하거나 인적교류를 통한 선물(증정)로 받는 형태로 이

다. 자유롭게 사람을 사귀고 새로운 세계를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편협한 사고를 깨뜨릴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더 직접적으로는 외국인과 직접 교류함으로써 그들로부터 선진적인 문화와 지식을 얻는 데 있었다(안대회, 「초정 박제가의 연행과 일상속의 국제교류」, 『동방학지』 제145집,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44쪽).

루어졌다. 그런데 대부분 조선에 수입된 서적은 직접 구입하거나 선물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사행길에 조선인이 서적을 구입하는 경향에 대해 명말(明末) 청초(淸初) 학자 진계유(陳繼儒, 1558~1639)는 『태평청화(太平淸話)』 <설고(說庫)>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조선 사람들은 지극히 책을 좋아한다. 무릇 사신이 중국 땅에 도착하면 혹 오륙십 인이 구서나 신서, 패관소설을 구하러 하나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있었다. 오륙십 인이 날마다 시장에 가서 각 서목을 베껴 제목을 나누어서 사람들을 만나서 두루 묻고 무겁게 값을 쳐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고로 그 나라가 오히려 이서와 장본을 가지게 되었다.¹⁴⁾

17세기 말과 18세기 초, 조선의 사행인들은 청 문인들과 교류를 하며 서적을 구입했고, 18세기 후반에 이르면¹⁵⁾ 이러한 수용 양상과 함께 유리창을 방문하여 새로운 서적들을 직접 접하게 되었다(진빙빙, 2008: 79). 18세기 후반 조선의 사행단이 공적, 사적 목적으로 서적을 구입했던 곳은 주로 연경의 유리창(琉璃廠)¹⁶⁾이었다. 전당(錢塘)사람 오석기(吳錫麒)의 『유정미재집(有正味齋集)』에는 “연경에 간 조선 사신들이 떡값을 털어 앞을 다뒤편 구입한 책으로 유명하며, 이 때문에 유리창 책방이 텅 빌 정도였다.”¹⁷⁾고 당시 유리창에서의 조선사행인들의 서적 구입력을 기술하고 있다.

청조 내 출판된 서적들이 집적되는 유리창은 당시 융복사와 더불어 조선인들에게 새로운 지식 통로이자 문물교류의 장이었다. 유리창은 단순히 서적의 구매처가 아니라 명·청조의 문물, 서양의 문물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또한 청조 지식인들과 학문적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의 장이자, 다양한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장이었다. 짧은 일정의 사행 길에서 서적의 구입은 유리창과 융

14) 진계유, 『太平淸話』, 「說庫」“朝鮮人極好書。凡使臣到中土，或限五六十人，或舊典或新書，稗官小說，在彼所缺者。五六十人日出市中，各寫書目 分頭愚人遍問，不惜重值購回。故彼國反有異書藏本也。”

15) 유리창의 서적시장에서 사신단이 직접서적을 구입하게 된 시기는 18세기 후반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서적시장 '유리창'이라는 지명이 1720년, 1732년 연행일기에 보이지 않고 그 이후 연행일기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강명관, 『책벌레들 조선은 만들다』, 푸른역사 .2007, 178-181쪽.)

16) 유리창의 책방들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된 것은 『사고전서』 편찬이 시작됨과 동시에 일어난 필연적 결과였다(후지즈카 치카시, 윤철규 외 옮김, 『추사 김정희 연구』, 2009, 43쪽).

17) 후지즈카 치카시, 윤철규 외 옮김, 『추사 김정희 연구』, 2009, 813쪽 재인용.

복사 이외 서반이라는 직업군을 통해 가능하였다. 서반은 일종의 서리직으로 남방의 외성에서 선상된 자들로서 연경의 물화(物貨) 중 서적 이외 그림, 필묵, 향, 차 등 고아한 상품의 판매권을 독점하였던 직업군이었다.¹⁸⁾

조선 내에서 대외 서적의 유입과 유통은 사행 길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와 사행단 구성원에게 부탁하거나 상역(商譯)이라 불리는 역관들에게 구입하는 경우 그리고 서쾌라 불리는 책주름¹⁹⁾들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이 가능했다. 여기서 상역이라 이르는 역관들이 거래하는 품목은 서적 이외에도 골동서화 등이 있었으며 저가(低價)에서 고가까지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품목들이었다.

국내에서 청조의 서적을 구입하는 경로에 대한 정황들은 당시의 여러 문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이만(金履萬, 1683~1758)의 <제원중랑집후(題袁中郎集後)>에는 18세기 중반 서적구입 경로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내가 어릴 적에 원석공의 『병화록』을 보고 이를 좋아하였다. 중년이 되어 『명산기』를 읽게 되었는데, 사이에 원석공이 지은 것이 많아 자못 마음에 맞았다. 매양 전집을 얻어 보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만년에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멀리 연경의 서사에서 이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²⁰⁾

이와 같이 18세기 이후 활발해진 서적 유통의 활성화는 단순히 정보자체나 양적인 것에 주목하기 보다는 정보의 질이 문제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의 서적을 벤치마킹한 새로운 형태의 지식 경영이 유행하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 경화사족은 경제력, 정치적 위상, 연행 체험 기회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서적을 수집하고 수용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배경을 통해 경화사족 특유의 문화적 성격을 드러낼 수 있었다.²¹⁾

18) 이갑, 『燕行記事』, <聞見雜記> 下 “序班者胥吏也, 使行入京. 禮部調序班十人, 更番直宿于衙門, 以備諸官役使. 皆從外省選上, 俸食清貧, 數十年以來, 凡燕貨之稍雅者, 皆令序班主其貿易, 而食其剩餘. 如書籍畫筆墨香茶之屬, 他商僮不敢與焉.”

19) 조선내 18세기 서적 유통시장의 중간상인을 이른다. 이들은 연경 사신행차 편에 대량으로 들어온 서적을 유통시키거나 정치적 실각 등으로 몰락한 집안에서 흘러나온 장서들을 되파는 방식으로 서적을 유통시키는 직업군이다.(정민,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2007, 42쪽.)

20) 김이만, 『鶴臯文集』 권8, <題袁中郎集後> “余少時, 見遠石公瓶花錄而愛之. 中年, 讀名山記, 間多石公所作, 頗適於心. 海欲得見全集, 而未果. 晚乃托人, 遠購於燕肆.”

일본으로 부터의 서적의 유입과 유통 또한 통신사행에 참여한 역관과 제술관, 서기 등의 중간계층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17세기 이래 통신사의 왕래로 일본의 서책 및 지식정보가 유입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 일본에 관한 지식이 통신사행을 통해 알려진 견문과 일부 문집과 저작에 불과한 실정에서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의 유입과 유통은 일본의 문화와 풍속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서였다. 1713년 출간된 『화한삼재도회』 또한 통신사에 의해 수용된 경우이다. 이 수용의 배경에는 조선 내 17세기 이후 동아시아 3국의 학계에서 실증적이고 백과사전적인 학풍이 학계의 조류를 형성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이 책은 외국문물의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등의 북학과 학자들에 의해 일본에 관한 정보를 얻는 공구서로서, 고증적 학술방법의 주요 참고서로서 활용되었다. 또한 일부 지식인들은 『화한삼재도회』를 통해 에도막부의 다양한 문화를 섭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적의 유통과 독서를 통해 지적 탐색과 대화를 하였다. 백과전서과 학자들에 의해서는 일본에 관한 정보를 얻는 주요 참고서이자 서양에 관한 정보, 세계를 구성하는 다채로운 실상을 파악하는 주요 정보원으로 이용되었다.²²⁾

2) 古董書畫²³⁾의 유입과 교류

정조는 조선의 학술과 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청나라의 학술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군주로 제시된다. 그러나 청나라의 문물이 무제한으로 수입되어 유행되자 점차 이를 사회적 문제로 여긴 나머지 이들을 세 가지의 부류로 나누어 비판하였다.

-
- 21) 진재교, 「경화세족의 독서성향과 문화비평: 홍석주가의 경우」, 『독서연구』 통권 제10호, 한국독서학회, 2003, 256-257쪽 ; 정민,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2007, 44-45쪽 참조.
- 22) 안대회, 「18·19세기 조선의 백과전서과와 『和漢三才圖會』」, 『대동문화연구』 제69집,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0, 419쪽 ; 진재교, 「동아시아에서의 서적의 유통과 지식의 생성: 임진왜란 이후의 인적 교류와 서적의 유통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41집, 한국한문학회, 2008, 108쪽 참조.
- 23) 고동은 중국 고대의 鐘鼎類로 주대 청동기의 출토품이거나 모조품, 와당·벼루·筆洗·筆架·筆山·印章 등 서재 소용의 문방구 등의 영역이며, 서화는 그림과 글씨, 古碑의 拓本, 古書帖 등을 가리킨다.

당학에는 세 종류가 있다. 명·청 사이에 간행된 소품이나 이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²⁴⁾, 서양의 역산이나 수학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연경에서 사온 의식이나 기물들을 즐겨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폐단은 똑 같다.²⁵⁾

이 기록을 통해 일부이기는 하지만 당시 청나라에서 유입된 문물, 즉 당학에 경도된 정도를 짐작하게 한다. 특히 연경에서 들어 온 물품 중에는 실용적 기물이 아닌 감상 대상의 고동서화의 유입이 주목된다. 이는 18·19세기 문식과 경제력을 갖춘 지식인들에게 문예취향의 잣대이자 배경으로 자리한다. 고동서화의 유입은 단순히 수집하여 수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대상으로 한 감상, 품평을 통해 심미적 속성 안에 담긴 고인들의 아취에 대한 공감뿐만 아니라 교유의 장에 있어 전반적인 문예계의 창작과 교류를 촉진하는 공감물로 사용되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공감대 형성이 신분적 한계를 초월한 교유를 더욱 공고히 하는 단초를 마련해 주었다.

고동서화의 수용 또한 서적의 유입경로와 같은 유형으로 확인된다. 고동서화 역시 연경의 유리창과 용복사 등 예술품 시장에서 대량으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되었다(강명관, 1998:29). 19세기 연행의 경험이 있었던 이우준(李遇駿, 1801~1867)은 당시 조선 내 유입된 문물의 출처와 사치 경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내가 일찍이 연경에 들어가 역관들이 중국 상인들과 무역하는 것을 보니, 하나도 양생일용의 물건은 없었고, 모두 옥·향·비단 등 제반 기화 일뿐이었다. 우리나라 서울의 종로 거리에 진열된 백화로서 사람의 이목을 끄는 것은 태반이 연경의 유리창에서 온 것들이다. 복식·기용에 드는 것은 도리어 이문이 적다하여 그리 취해 오지 않는다. 왜와 교역하는 물건도 이와 마찬가지이다.²⁶⁾

24) 이 부분과 관련 정조는 '문체반정'이라는 제약을 가하여 새로운 지식정보에 환호하는 지식인들의 성향을 원천적으로 되돌리려 했다.

25) 正祖, 『弘齋全書』 177권, 「日得錄」17, “唐學有三種. 有多蓄明清間小品異書者, 有專尚西洋曆數之學者, 有衣飾器皿之喜用燕市之物者, 其弊則一也.”

26) 이우준, 『夢遊野談』 上, <奢儉> “余常入燕見譯員中與群胡貿易, 則無一養生日用之具都是, 具玉香緞諸般奇貨. …… 我京種街上擺列百貨娛人耳目者, 大半自燕都琉璃廠而來者也. 至於服食器用之資, 反爲少利而不甚取來. 與倭通貿亦與此一般.”

이 기록을 통해 문물의 중개자로서 상역(商譯)의 존재와 함께 수입되는 물(物)이 생활용품보다는 사치적인 물품에 치중됨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종로 거리에 청과 일본에서 수입된 물건이 매매되고 있는 상점의 존재와 청(淸)물품의 경우 연경의 유리창에서 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행길의 인적교류 경로와 그 결과로 형성된 인적관계망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경로가 있다. 사행인들 중 현지 지식인들과의 교류의 장에는 서화를 주축으로 한 물품의 교환이 우정의 매개물로 큰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 국제 교류의 일상적 모습으로 확인된다.

홍대용은 1766년 연행 중 엄성(嚴誠, 1732~1767)과 반정균(潘庭筠), 육비(陸飛) 등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교류하게 된다. 이들과의 사적 만남을 계기로 형성된 인적 관계망은 훗날 청을 방문했던 이덕무·유득공, 박제가·박지원 그리고 김정희 등이 청조의 학자, 문인들과 교류 할 수 있는 기반을 이루었다. 이와 같은 만남의 장에서 조선의 지식인과 청조의 지식인들은 서로의 학문과 문학, 예술을 논하면서 우정을 쌓아나갔다.²⁷⁾ 이러한 현장은 청조 100명의 명사들과 교류했을²⁸⁾ 정도로 최고의 중국통이라 불리는 박제가와 청조 옹방강(翁方綱, 1733~1818)과의 만남²⁹⁾에서 그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사적으로 연행 길에 올랐던 사절단이 교류했던 청조의 인물들의 경우는 많은 서적과 진귀한 서화, 금석문을 소장하고 있었다. 조선의 지식인은 현지에서 인적 관계망을 통해 마음껏 고동서화들을 감상하고 안목을 넓힐 수 있었으며, 선물(증정) 형태로 고동서화들을 국내로 유입할 수 있었다.

박제가의 제자였던 김정희는 단 한 차례의 연행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스승인 박제가와 부친, 지인들이 구축하여 놓았던 인적 관계망을 통해 청나라의 지식인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고동서화 및 금석문에 대한 심오한

27) 강명관, 『책벌레들 조선을 만들다』, 푸른역사, 2007, 214쪽 참조.

28) 박제가는 4차례나 중국을 오가면서 수많은 중국 문사들과 사귀었으며 <戲傲王漁洋歲暮懷人> 60수, <懷人詩效蔣心餘> 50수, <續懷人詩> 18수 등 회인시 연작을 여러 차례 지어서 동시대 인물에 대한 깊은 우정과 매료된 심경을 표현했다(허경진·천금매, 『『병세집』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28집, 한중인문학회, 2009, 284쪽).

29) 박제가는 두 번째로 入燕해서 옹방강을 방문하였다. 그날은 蘇東坡의 생일이었다. 서재 한편에는 소동파의 초상화 및 王士禛, 宋犛의 화상을 걸어놓고, 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이들은 이러한 정황 속에서 소동파, 미원장의 眞蹟을 펼쳐놓고 여러 명사들과 감상하였다. 또한 西陂草堂圖를 감상하고 『西陂集』 중에서 「祭坡公詩」의 운을 써서 시를 읊었다(허경진·천금매, 위의 논문, 300쪽).

안목을 더욱 진작시키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청의 교유 인사들도 금석문에 능통한 김정희와 교유하기를 희망했고 조선의 금석문에 대한 자료를 교류하였다.

청조의 지식인들과 가진 직접적, 간접적 교류는 한 세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자와 자제들로 이어짐으로써 학술, 문화의 막강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었다. 역관은 바로 이러한 간접적 교류의 매개자였다. 그 대표적 인물은 조선의 이상적이다. 대대로 역관 집안 출신인 그는 12차례 연행을 통해 수많은 중국의 문인들과 교유하였으며, 청조문물이 조선으로 유입되는 창구역할을 하였다. 청나라의 수많은 서책과 편지, 서화와 금석문이 그의 서재인 해린서옥(海隣書屋)을 거쳐 조선으로 유입되었다. 김정희의 경우 유배시절에도 당시 연경의 학술과 문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이상적이 어렵게 구한 서적과 정보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다.

3. 문화 예술계의 동향

임진왜란과 연이은 대란을 겪는 동안 조선사회 내에는 그동안 훼손되고 일실된 각종 문예물들을 수습하고 정리해야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기존의 가치와 질서 또한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편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수입되었던 명말청초의 문예물들은 문인지식인층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이해되었고 향후 국내 문인 지식인층의 문예의 향방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신영주, 2006: 376-377). 그리고 문예활동이 다변화되면서 취미활동이 분화되고 발전하여 전반적으로 지식인들의 생활양식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식인들에게 영향이 컸던 명말 문인문화의 영향력과 인식의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위의 영향력과 변화 속에서 지식인들의 다변화된 취미활동들을 다사와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明·淸 文人 文化의 수용과 영향

명말청초의 문인문화는 18·19세기 조선 문인생활에 그대로 수용되면서 그들

의 생활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명말의 문인들은 왕조 교체기의 당쟁과 전란에 염증을 느꼈고, 자신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하여 은둔생활을 하면서 예술에 전념하였다. 그들은 ‘성시(城市) 속의 산림(山林)’을 구가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산 속에 숨어서 세속과의 인연을 끊었던 과거의 은일과는 다른 자신의 저택이나 도시 근교에서 서재와 정원을 마련하고 서화고동 완상을 비롯한 탄금(彈琴), 위기(圍碁), 전다(煎茶), 분완(盆玩), 조어(釣魚)³⁰ 등을 즐기는 시은(市隱)을 추구하였다(홍선표, 1997: 121-123).

이와 같은 시은의 추구 경향은 조선 후기 문인들에게 수용되어 한양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문인 생활방식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는 도시화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도시화는 문화 활성화와 부의 축적을 가져오고, 이를 바탕으로 대외문물을 수입, 수용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배경을 이룸으로써 가능할 수 있었다. 도시인으로서 그들은 여가 및 취미 생활 그리고 소비 문화에서 전시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문예경향의 변화 전개에 있어서 명말청초 문인문화의 영향을 받은 조선 후기 문인들의 문예취미 변화는 허균의 『한정록(閒情錄)』에서 확인된다. 『한정록』에는 허균이 중국 문인들의 문예취미 중 취사선택한 인용들이 제시되어 있다. 허균 이전시대에도 예술 취미의 활동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예(四藝)인 서(書)·화(畫)·금(琴)·기(碁)가 주류를 이루었을 뿐 금석(金石)과 이정(彝鼎) 등이 더해지는 상태는 아니었다. 『한정록』에서 자주 등장하는 골동기완을 즐기는 장면이 『한정록』 이후 사대부의 서재에서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허균이 변화의 시작에 처해있었음을 의미한다(신영주, 2006: 353). 이 책에는 만명(晩明) 지식인들의 저술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서로 주장하는 바는 달랐어도 대체로 서화와 골동 등의 예술 취미를 실천하는 일에 매우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인물들이었다. 인용이라는 취사선택의 양상을 통해 볼 때 허균의 문예취향 또한 상당 부분 이들에 기원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허균이 『한정록』에서 인용한 소품문 중 차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장은

30) 명말청초 屠隆은 문사들의 심미 취향을 반영한 고상한 문화생활의 안내서인 『考槃餘事』에서 16가지 항목의 수장과 감상 방법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이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행위로 인식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書·帖·畫·紙·墨·筆·硯·香·茶·琴·盆玩·鶴·山齋·起居器服·文房器具·遊具"(도용, 권덕주 역, 『考槃餘事』, 을유문화사, 1986, 3쪽).

<유사(幽事)>, <명훈(名訓)>, <정업(靜業)>, <현상(玄賞)>, <청공(清供)>, <서헌(書憲)>, <서화금탕(書畫金湯)>, <은일(隱逸)>, <고일(高逸)>, <한적(閒適)> 등이다. 이러한 소개는 이어지는 18·19세기 지식인들에게 서적의 유통 활성화 현상과 함께 차 관련 정보 및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다. 그 일면을 17세기 『한정록』과 18세기 초 이익(李瀾, 1681~1763)의 『성호선생전집(星湖先生全集)』, <강광지세황탕춘대유춘시축서(姜光之世晃蕩春臺遊春詩軸序)>, 18세기 말 지식인들의 생활 모습을 마성린(馬聖麟, 1729~1798)의 『안화당사집(安和堂私集)』 <함취원오노사회첩도설(涵聚園五老詩會帖圖說)>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의리를 말한 글을 읽고, 법첩의 글씨를 익힌다. 맑은 마음으로 고요히 앉아 유익한 벗과 이야기를 나눈다. 몇 잔 술로 얼근해지면 화초에 물을 주고 대나무를 심는다. 거문고를 뜯다가는 학 가까이 불러 함께 노닐고, 향을 피우다 차를 달인다. 배를 띄워 산수를 구경하고 바둑에도 뜻을 붙인다. 비록 다른 즐거움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나는 바꾸지 않으리라(『옥호빙(玉壺冰)』).³¹⁾

내 친구 강광지군은 산향재에 법찰과 명화를 쌓아 두고 거문고와 책을 즐기며 한가하고 자유롭게 지낸다. ³²⁾

벗 김군시는 성품이 본래 한가하고 바르다. 늙어서는 시에 빠져 성 서쪽 그윽하고 깊은 곳에 집을 정했다. 집 남쪽에 작은 동산이 있어 꽃과 나무가 수풀을 이루었으며 동산 아래 있는 초가집 몇 간은 매우 깨끗하고 시원하였다. 온 책상이 책이었고 벽에는 도서가 가득했다. 그 가운데 살면서 하루도 시를 쓰지 않는 날이 없었다. 스스로 늘그막의 즐거운 일이 이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좋은 때나 아름다운 날마다 몇 명의 친한 친구를 초대하여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노닐었다.³³⁾

위의 글 중 『한정록』에서 인용한 명나라 도목(都穆, 1459~1525)의 『옥호빙』의 내용을 통해 명대 지식인의 여가 및 취미생활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

31) 허균, 『閑情錄』 제10권, <幽事> “ 讀義理書，學法帖字。澄心靜坐，益友清談。小酌半醺，澆花種竹。聽琴玩鶴，焚香煮茶。泛舟觀山，寓意棋奕。雖有他樂，吾不易矣。”

32) 이익, 『星湖先生全集』 권52, <姜光之世晃蕩春臺遊春詩軸序> “吾友姜君光之 有山響齋，多蓄法札名畫，琴書蕭散。……”

33) 마성린, 『安和堂私集』 <涵聚園五老詩會帖圖說> “金友君始，性本閒雅老。而癖於詩，卜宅城西幽深處。宅南有小園，花木成林，園下有草廬數間，甚淨灑。一床書卷滿壁圓書。處於其中，無日不題詩。自謂老境之樂事，莫過於此也。每良辰佳日，邀請數三情友，以爲詩酒之遊矣。”

수 있다. 반면 이익과 마성린의 글은 이러한 영향³⁴⁾을 받아 흡수한 조선 문인들의 실제적인 여가생활 및 주거공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다음 소개하는 19세기 조선의 경화세족인 조면호(趙冕鎬, 1804~1887)의 취미 경향을 통해서 명말 문인들의 영향을 받은 일상적 취미생활이 더욱 잘 드러난다.

때때로 의관을 정제하고 향을 사르며 성현의 글을 읽기도 하였는데, 삿갓 쓰고 호미질 하는 것을 잊은 날은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이 병은 종잡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였다. 차와 술에 대한 품평을 시로 나타내고, 거문고 타고 바둑 두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냈다.³⁵⁾

위 글은 조면호가 1860년 지은 글로서 문인의 일상사에서 고동서화의 취미뿐만 아니라 공시적 취미까지 함께 기술되어 있다. 이 모두 명말 문인들의 취미생활이자 은일처사의 수행덕목이었다. 특히 ‘의관을 정제하고 향을 사르며’, ‘차와 술에 대한 품평을 시로 나타내고’ 라는 언급을 통해 문화동호인 집단에서 보이는 다사의 경향과는 다른 모습이 확인된다. 바로 차가 단순한 음료로서의 역할보다는 감상지학의 대상으로서 품평되고 있음과 일상적 예술취미의 자리에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고 다스리는 수신(修身)의 대상으로 향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리학적 관념의 재해석

조선 후기 활발한 대외적 물적 교류와 대내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문예의 실제에 있어 그 중심에 있던 지식인들의 의식에도 변화된 모습이 목도된다. 가장 주목된 인식의 변화는 ‘완물상지(玩物喪志)’라 일컬어지는 기존의 문예적 관념에 대한 변화이다.

생동하는 도시 문화와 청으로부터 수입된 신간 서적들로 인해 사대부들의 의식

34) 晩明期の 문인문화 풍조가 조선에 알려지고 전해지기 시작한 것은 宣祖이래 부터이다. 그 영향을 받으면서 晩明기와 조선 후기의 문예 분위기가 매우 닮게 되었다. 특히 허균의 『閒情錄』은 만명 문인들의 탈속·심미적 취향이 반영된 集錄이라 할 수 있다. 홍선표, 「조선 후기의 회화 애호 풍조와 鑑評 활동」, 『미술사논단』 5, 한국미술연구소, 1997, 122-124쪽 참조.

35) 趙冕鎬, 『玉垂集』 권30, <自知自不知先生傳(癸亥)> “時有整衣冠焚香, 讀聖賢書, 亦未嘗一日忘鋤笠, 人皆曰, ‘是疾, 莫可測’. 若品茶評酒, 發而爲詩, 撫琴賭碁, 繪之於畫.”

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명청 소품문과 폐관소설의 성행은, 이전 같으면 금기시되던 유흥 문화를 부추겼고 서화 골동이나 산수 유람에 대한 열광적 애호를 낳았다. 지식인들은 기존의 성현의 도를 말하는 공허한 관념의 유희에서 주변의 소소한 일상 사물에 대한 관심으로 눈길을 돌렸다. 조선 후기 이전에도 특정 사물에 대하여 즐기는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벽(癖)'과 '치(痴)'라 이를 정도로 사물에 몰두하거나 집착하여 취향을 이루는 일은 전무하였다. 18세기 일부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보이는 벽에 대한 인식은 타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미덕으로 변모되었으며 창조적인 지성의 표징으로 인식하는 변화가 이루어졌다.³⁶⁾

사실 이러한 변화의 단초는 명말청초 중국 지식인 집단 속에서 발견된다. 그들의 폐관소품문을 통해 예술취미에 노출되어있던 조선의 지식인들은 병적인 집착이나 취향에 대해 전(前) 시기와는 다른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었고 이를 추구하였다. 그 결과로 확인되는 것이 조선 후기 문예현장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물에 대한 연구서격인 '경(經)'의 저술이다.³⁷⁾ 한 대상과 관련한 집중적인 관심은 이론적 필요성을 불러왔다. 실제적인 면밀한 관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탐구물로서의 저술은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이러한 면모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백과사전류의 차 관련한 기술과 다서들의 저술 또한 그들의 관심도와 학적경향, 실제적 다사를 통한 경험이 이루어낸 탐구물인 것이다.

인식의 변화 중 주목되는 두 번째 양상은 출(出)과 처(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다. 출은 관직을 얻어 나아감을 뜻하며, 처는 벼슬에서 물러나 향촌의 전원으로 은퇴함을 의미한다. 이전 문인들의 전형적인 처세관은 산림에서의 은거였으나 후기에 들어서 시정 속에서 생활을 영위해 가면서도 세속화되지 않고 자기 길을 간다는 의미의 '시은(市隱)' 출처관을 갖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문인지식인들에 '성시(城市)'는 관부가 위치하는 곳으로 사환을 위해 잠시 머무는 곳이었고 세속을 뜻하기도 했다. 반면에 '산림(山林)'은 처사가 머무는 곳으로 귀거래나 은둔의 의미를 지녀왔다. 이전 시대 처사의 삶은 향촌에 소유한 장원을 기반으로 성리학에 힘쓰는 것이었는데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서울에서 문화의 안목을 유지하는

36) 정민,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2007, 61-93쪽.

37) 이옥의 『煙經』, 유득공의 『鵝鵲經』, 이서구의 『綠鸚鵡經』 등이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저술이다.

것³⁸⁾으로 가치의 척도가 변화되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성리학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선진문물에 심취하고 소비생활에 익숙해진 경화세족을 비롯한 문인지식인들의 현실인식이기도 하였다.³⁹⁾

경제적 부를 축적한 도시로서, 대외 선진문물의 교류 중심지로서,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서울에 대한 인식은 더욱더 문인지식인들이 서울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배경이 되었고 시은 출처관을 공고히 하였다. 이러한 조선 후기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은의 출처관은 다사를 시정 속에서도 세속화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한거함과 청한함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문예취미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인식의 세 번째 변화 양상은 문화계 전반에서 주체에 대한 자각의 붐이 일어난 점이다. 활발한 대외 교류의 전개과정에서 밖으로만 향하던 시선이 내부로 향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것에 대한 탐구뿐만 아니라 수용과 활용도 조선의 풍토에 맞는 정확한 인식 위에 펼쳐나갔다. 이러한 주체의 각성과 발맞추어 중국의 책이름 앞에 '해동(海東)' 또는 '동국(東國)'을 얹어 이른바 오리지널 내용의 조선 버전을 표방한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저작들이 18세기 쏟아져 나온 것은 우리 것에 대한 자각이 개인의 일과성적 문제제기가 아니다. 전반적인 의식의 자각과 주체의 고양에서 비롯된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들이다 (정민, 2007: 74-77).

위와 같은 인식의 변화들이 차 관련 저작물에도 현저히 드러난다. 전문다서 중 『기다』와 『동다송』은 단순한 모방의 형태가 아니라 이론적 전거로서, 중국의 차 관련 저작물들을 섭렵한 후 조선의 실정에 부합⁴⁰⁾하는 현실적인 인식위에 저술되

38)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그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서울에서 문화의 안목을 유지하여야 함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정약용, 『여유당전서』 시문집 제18권, <示二兒家誡>)
"만약 벼슬길이 끊어져 버리면 빨리 서울에 살면서 문화적 안목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 내가 죄인이 되어 너희들에게 아직은 시골에 숨어서 살게 하였다만, 앞으로 계획은 오직 서울의 십리 안에서 가히 거처하는 것이다." (若仕宦墜絕, 則亟宜託栖京輦, 不落文華之眼目. 吾今名在罪籍, 使汝曹姑遯田廬, 至於日後之計, 唯王城十里之內, 可以爰處.)

39) 정봉구·한동수, 「조선 후기 漢陽의 園林에 관한 연구:京華士族의 園林記文과 園林圖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대한건축학회, 2007, 84쪽; 주명희, 「18-19세기 서울 문인지식 인층의 고동서화 취미에 나타난 차문화 -문인 아회와 아회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45쪽.

40) 서유구의 『林園經濟志』 <例言> 에는 위와 같은 배경에서 주체의식을 갖고 자료를 선별하여 조선의 실정에 맞는 백과사전을 편찬하였음을 적고 있다.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사는 곳의 풍토와 습속은 제각각 다르고, 생활양식도 고금의 차이와 국내외의 구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사선택한 자료를 기술함은 물론 조선의 실정에 맞는 차산업 및 우리차에 대한 자부심 등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조선 후기 문화전반에 저변화 되어있던 우리 것에 대한 의식의 자각과 주체의 고양에서 배태된 경향으로 볼 수 있다.

3) 취미 생활의 다양화

17세기 명·청 문예 저작이 급속하게 유입되면서 지식인 사회에 문예물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문예의 내용과 형식에 커다란 반향을 남겼다. 17세기 중반 이후로는 국가의 산업이 성장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유한계층이 증가하였고 자신이 즐기는 분야의 취미에 몰입하여 스스로 벽이 있다고 이야기할 만큼 문예에 대한 소양과 열정을 갖춘 전문가들도 함께 늘어났다. 17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면 여항을 근거로 활동하던 중인들도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문화의 수준까지 겸비하였고 여성도 국문소설의 독자로서 문예의 기층을 형성하고 있었다(신영주, 2000: 347). 조선 내 명·청 문예 저작의 유입과 영향으로 인해 지식인들은 문예취미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고 취미의 실천에 훨씬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전대(前代)에 비해 문예취미를 향유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단순히 즐기기 위한 것에 머물지 않고 전문적이고 학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어갔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취미의 경향중 지식인들의 다사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측면의 조성 취미와 다사와 공시적(共時的)으로 이루어진 취미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통해 종합 예술로서의 차문화 일면을 보고자 한다.

(1) 원예취미와 정원(園林), 意園 조성

18·19세기의 서울은 주거문화의 측면에서 몇 가지 변화의 징후가 발견된다. 화려한 저택축조와 정원조성의 성행이 그 대표적인 현상이다. 경화세족을 비롯 경

분이 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앞서있다고 하여 생활양식을 그대로 도입하여 적용할 수 있겠는가. 이 책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필요한 바를 취하였고, 또 비록 좋은 방도라 하여도 실용성이 없는 것은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좋은 제고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강구하지 못한 것은 모두 수록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는 후손들이 답습하여 발전시키라는 뜻에서이다.”

체력이 풍부한 중인이나 서민들도 화려한 저택과 조경, 가재도구를 향유하였다. 이들은 호젓한 서재에 조용히 앉아 독서를 하거나, 마음 맞는 몇몇 벗들과 문주야회(文酒雅會)를 벌이고, 우아한 음악이나 서화골동을 감상하였다. 이렇게 고고한 품격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그러한 생활에 걸맞은 주거공간의 조성이었다. 주거는 곧 그들의 생활미학을 실현할 공간이었다(안대회, 2002: 116).

중국 중세 문인사대부들에게 원림이라는 공간은 아집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 경관의 경영은 문학 생산의 상상력을 풍성하게 하였고, 원림은 시집을 발간하고 전파하는 체계를 갖추어 아집을 활성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작용을 하였다. 이와 같은 문화적 양상이 조선 후기 지식인들에게 유입되면서 반영되어 나타났다. 그 한 예로 명말 지식인 문진형(文震亨, 1585~1645)의 생활모습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산수 사이에 사는 사람이 제일 좋고, 시골에 사는 것이 그 다음이며, 교외에 사는 것이 또 그 다음이다. 우리들이 비록 바위와 계곡에 살 수 없어 화려한 정원의 흔적을 뒤쫓으며 저자거리에 자취를 섞고 있더라도, 문과 뜰은 바르고 정결해야 하며, 방과 집은 깨끗하고, 고요해야 한다. 정자와 누대는 마음이 탁 트인 선비의 회포를 갖추어야 하며, 서재와 전각은 은거한 사람의 운치가 있어야 한다. 또 아름다운 나무와 기이한 대나무를 심고 금석과 도서를 진열하여 사는 사람은 늙음을 잊고, 부처 사는 사람은 돌아가길 잊고 노니는 사람은 권태로움을 잊게 하여야 하며, 찌는 듯이 무더우면 바람이 부는 듯 서늘해야 한다. 몹시 추우면 햇볕이 비추듯 따뜻해야 한다. 만약 한갓 공사를 사치스럽게 하고 붉은 칠을 한 회벽을 숭상한다면, 정말 차꼬나 수갑, 새장이나 우리 같을 뿐이다.⁴¹⁾

이러한 명말 지식인의 성시에서의 거주공간에 대한 기술을 통해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시은자적 생활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산수(山水) 구가(求暇) 차선책으로서의 정원조성은 조선 후기 문인사회의 문화적 공간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하겠다.

41) 文震亨, 『長物志』 권1, <室廬>, “居山水間者爲上, 村居次之. 吾儕縱不能栖巖止谷, 迫綺園之踪, 而混跡入市, 要須門庭雅潔, 室慮清靚. 亭臺具曠土之懷, 齋閣有幽人之致. 又堂種佳木怪籜, 陳金石圖書, 令居之者, 忘老, 寓之者忘歸, 遊之者忘倦, 蘊降則颯然. 而寒凜烈則照然. 而曠若徒侈土木, 尙舟壘, 眞同桎梏 樊籠而已.”(『文淵閣 四庫全書』 872)

원림은 인간사회가 복잡하고 도시화가 되면서 자연을 인간 세상에 재현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지식인들에게 원림은 집단 모임을 활성화시키는 장이자, 최적의 문학생산의 장이자 생산된 문학을 소통하는 장이었다. 이와 같이 정원조성의 취미는 후기 문인들의 문화교섭의 장(場)형성에 영향을 미쳤고, 공시적으로 향유되던 다사의 정경 또한 그 영향권에 있었음이 확인된다. 남공철(南公轍, 1760~1840)의 <동원아집도기(東園雅集圖記)>에서 기술된 내용은 위 정황을 잘 드러내주는 글이라 하겠다.

형부상서 이유수 공은 영조 때 청의로서 한 시대의 추앙을 받았다. 동산 기슭에 집이 있었는데 사는 곳에 경치가 좋은 동산과 못, 정자와 관사가 있었으며 골동품과 향기로운 차를 품평하고 완상하셨다. 초탈하게 벼슬을 벗어나 세속을 떠나려는 생각이 있었으며 쫓아 노니는 사람들도 모두 고상하고 이름난 부류였다. 이 모임을 살펴보면 그 시대를 알만하다. ……42)

1768년 이유수(李惟秀, 1721~1771)의 정원(원림)인 동원⁴³⁾에서 있었던 아집의 묘사이다. 조성된 정원 속에서 자연 산림의 정취를 느끼며 골동품과 차를 품평하고 완상하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 18세기 중반이후 서울 근기 지역의 문인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일어난 원예 취미와 정원 조성은 도시 문화의 발달과 궤를 같이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연과 가까이하고 싶은 열망이 가져온 변화였다고 한다(정민, 2007: 198). 이러한 원예취미 또한 이전 시기에는 완물상지로 경계되는 취(趣)의 한 분야로 다사의 공간에서 운치 및 청한을 돋우는 구실로 곁들여졌다.

조선 후기 지식인들은 직간접으로 중국의 사조와 관련을 맺으며 상상의 정원을 꿈꾸었다. 청(淸) 황주성(黃周星, 1611~1680)의 『장취원기(將就園記)』⁴⁴⁾는 조선

42) 南公轍, 『金陵集』 권5, <李尙書東園雅集圖記> “刑部李公, 在英宗朝, 以清議爲一時所推. 家東山之趾, 所居有園池亭館之勝, 品翫銅玉香茗. 翛然有布素出塵之想, 從之遊者, 皆高人名流. 觀於斯集, 可以知其世也. ……”

43) 이유수의 동원에 대해 친구인 兪彦鎬는 『燕石』 卷2, <東園雅集記>에서 "동원은 나의 벗 이심원(이유수)의 거처이다. 그곳에는 누정, 숲, 맑은 못, 괴석 등 빼어난 볼거리가 있었으므로 평소 성시의 산림이라 불렀다"(東園, 予友李深遠居也. 有樓亭樹林清池怪石之勝, 素號城市山林.)라고 하였다.

44) 장조(張潮, 1650~?)가 편집한 『昭代叢書』에 수록된 채 수용되어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널리 읽혔다.

지식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 명말 청초의 지식인들이 만든 상상속의 세계는 조선 지식인들이 상상의 주거공간을 설계하는 촉발제가 되었다(안대회, 2004: 121). 이러한 배경에서 조선의 의원기가 이루어졌다. 대표적 의원기로 이용휴(李用休, 1708~1782)의 <구곡유거기(九曲幽居記)>, 유경종(柳慶種, 1714~1784)의 <의원지(意園志)>, 장혼(張混, 1759~1828)의 <평생지(平生志)>, 정약용의 <제황상유인첩(題黃裳幽人帖)>, 서유구의 <이운지(怡雲志)>, 이유원의 <굴산의원도(橋山意園圖)> 등이 있다. 상상의 주거공간은 현실에서 담아낼 수 없는 이상향이 담긴 공간이자 그 이상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이 공간 안에서 정신적 노닐뿐만 아니라 이상향의 여러 문화생활을 구가하면서 정서적으로 대리만족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벗과의 사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원을 조성한 의도는 당시 지식인들의 문화 동호인 집단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8·19세기 지식인들이 가상 주거공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미학은 유취(幽趣)와 운치(韻致)였다(안대회, 2004: 133-136). 의원기속에 제시되는 서재안의 다사 및 다구 역시 위와 같은 유취와 운치 미학에 어긋나지 않는 모습의 반영이라 할 것이다.

(2) 산수유람의 유행과 臥遊문화

지식인들의 산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조선 후기는 전기와는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전기는 산수 그 이면에 내재된 리(理)를 확인하고 그 본성을 회복하고자 지향하는 심성수양의 수기적(修己的)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실제 산수 유람에도 반영되어 '흥(興)'의 추구하고 기이한 경치를 탐하는 것을 경계하였다. 반면 후기는 산수 자체가 지닌 아름다움을 시나 그림으로 형상화하는 경험적, 심미적 차원으로 인식하였다.⁴⁵⁾ 이러한 관계로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야 산수에 대해 각 문예양식이 교섭하는 공간으로서 인식할 수 있었다. 또한 문화를 생산하고 향유하는 공간으로서의 인식이 가능했다. 이러한 경향을 바탕으로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산수유람 취미가 집단적 문화동호인의 형태로 이어졌다.

45) 김형술, 「조선 후기 산수 인식의 변화와 山水詩 창작의 새 양상: 17C말-18C초 농연그룹 문인들을 중심으로」, 『韓國漢詩研究』 16, 한국한시학회, 2008, 299쪽 ; 김효경, 「조선시대 와유문화로 해석한 전통조경」,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22-24쪽 참조.

조선시대 지식인들에게 와유문화는 직접적인 산수유람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문화적 형태로 대두되었다. 이는 인공의 산(석가산)을 만들거나 산수 유람의 글을 읽고 산수화를 걸어두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연을 감상하는 것이다. 원림의 경영만으로는 산수 자연의 흥을 대신하기 어려웠던 지식인들은 인공의 산을 만들어 옥구를 대리 충족하고, 이를 즐겼다. 또한 산수화를 걸어두고 보거나 산수를 유람한 기록을 읽으며 누워서 산수에서 노닐기도 하였다(이종목, 2004: 83). 이러한 와유문화 또한 지식인들의 다사 공간으로서, 제 문화 활동이 생산되는 공간으로 자리하게 되는 배경을 이루었다.

4) 文化同好人 집단의 활성화

18세기 조선의 지식인 집단 안에서는 새로운 동향이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감지된다(정민, 2007: 85). 대내적인 사회 전반의 변화와 함께 대외적인 활발한 문화 교류는 기존의 지배담론이었던 성리학에 대한 태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성리학의 권위 실추는 군자로 표현되는 기존 선비상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지식인 집단이 대두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들 안에서의 동류의식은 집단 내부를 더욱 결속시키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지식인 집단의 경향은 문예의 현장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7세기 후반, 이전 시대에 즐기던 서·화·금·기 등의 전통적 취미는 분화되어 유희되었다. 학연이나 혈연으로 이루어진 붕우(朋友) 집단에서 폭넓은 분야의 취미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상은 사적 문화 동호인 집단의 활성화를 촉발시켰다. 또한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적 문화 동호인 집단 안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문예교류는 이들을 내부적으로 더욱 결속시켰다. 문화향유에 있어 지식인들의 집단적 성향은 조선 후기 이전에도 존재하여 왔다. 전통적으로 사대부의 이상적 교양인 시(詩)·서(書)·화(畵) 삼절(三絶)을 바탕으로 창작과 향유를 함께 나누었던 ‘시회(詩會)’가 그것이다.

시회는 ‘시사(詩社)’, ‘아회(雅會)’, ‘○○계(契)’⁴⁶⁾로도 표현되는데, 조선 전기에는

46) '계'에 관한 정의는 정약용의 『雅言覺非』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리지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것을 모두 禊라고 일컫는다. 동갑인 경우 甲契, 같은 해의 과거 합격이면 榜禊, 그리고 같은 관청인 경우 僚禊라고 부르며 흥

'계회', '료회', '갑회' 등의 형태로 나누어져 증가하였다. 특히 계회의 확산은 일군의 지식을 갖춘 '사림(士林)'의 정계 진출과 관련이 있다. 사림의 모임은 풍류와 시적인 유희를 즐기는 아회가 아닌, 인격 함양과 도체 확립을 달성하기 위한 '계회'였다(송희경, 2003: 75). 반면 후기 아회로 대변되는 시회는 시문 풍류에 치중한 비공식적인 사회(私會)이자 자발적인 모임으로 풍류(風流)⁴⁷⁾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성리학을 지배 규범으로 삼았던 조선시대의 풍류는 유자(儒者)의 교양을 대표하는 시·서·화 삼색의 실현을 추구하는 문화적 행위로 보편화되었다. 또한 낙(樂)을 동반한 주연의 집단적 향유 속에서 방탕·관능·호색과 같은 쾌락의 발현을 지칭하는 기호로 자리하기도 했다(서지영, 2003: 288).

조선 후기 풍류문화의 주체는 기존의 양반계급과 새롭게 등장한 중인계층으로 좁혀진다.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후기 신분 질서의 변화와 경제적 발전은 중인층이 문화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배경을 이루었다. 문화의 주체세력으로 부상된 중인은 당대 상층문화의 권위에 저항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을 모방하였다. 경화사족들과 긴밀한 관계하에 있었던 중인층은 문화적으로 그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유희문화를 발전시키고 독자적인 미의식 및 취향을 변화시켰다. 즉 풍류의 주체자는 조선 후기 문예 향유의 주 계층으로 볼 수 있다. 후기 사회·경제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문화향유의 주체 세력으로 떠오른 중간계층의 시사(詩社) 조직과 시회 중심의 사교 모임 형성은 사적 문화동호인 집단의 규모 및 내용에 있어서 질적, 양적 확대를 가져왔다. 또한 문예의 장에서 신분적 제약을 뛰어넘는 중간계층과 사대부들과의 교류는 '망형지교' 형태의 모임을 출현시켰다.

18·19세기 지식인들 사이의 문예취미가 다양화되면서 이들 사적모임에 수반되는 문예행위 또한 이전 시기보다 다양화된 모습을 보인다. 개략적으로 대화를 비롯한 작시, 탄금, 위기, 서화 제작과 감상, 전다, 음주 등의 행위가 주로 동반된다. 이들은 모임에서 위와 같은 문화적 행위를 함께하며 풍류를 통하여 '아(雅)⁴⁸⁾'를

문관에서는 계병을, 승문원에서는 계첩을 만든다. 이 풍습이 전해져서 향촌에서 금전을 각출하는 것 역시 모두 '계'라고 이른다(정약용, 김종권 역, 『雅言覺非』, 일지사, 1976, 220쪽).

47) 풍류는 문자적 의미로 '바람의 흐름'이라 매인 바 없는 자유로운 정신, 탈속의 경지의 추구를 내포하는데, 이는 노장과 도가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동양의 철학, 예술, 그리고 취미생활 전반을 통어하는 미학적 개념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서지영, 「조선 후기 중인층 풍류 공간의 문화사적 의미-서구 유럽 '살롱'과의 비교를 통하여」, 『진단학보』 97, 진단학회, 2003, 286쪽).

48) 雅란 古雅, 典雅 등의 의미라기보다 淸雅, 閒雅, 幽趣, 幽爽淸絶의 미감이라 할 수 있다.(김광섭, 「금릉 남공철 산문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50쪽.)

공감, 실현하려 하였다.

문화동호인 집단 모임은 조선조 문학예술 및 학술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18~19세기 차문화를 지적, 예술적으로 그리고 수준 높은 정신문화로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이 시대 차모임 풍습은 조선 지성들의 최고급 문화활동이 되었다(주명희, 2010: 69).

이와 같이 후기 지식인들 사이의 문예취미의 다양화는 각 사적 집단모임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모임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다. 모임에서 다사가 전제된 다양한 문화 활동의 공시적 동반은 오늘날 종합예술 성격의 차문화가 배태되는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문화동호인 집단 모임의 활성화 현상은 그 안에서 향유되던 제 문화활동들의 향유 확산에 중요한 기반을 이루었다.

4. 지식인 계층의 문화적 성향

조선 후기 출판문화의 성행 및 중국서적의 대량 수입과 유통에 이은 장서가의 출현, 그리고 독서문화는 지식인들 사이에 다독(多讀)의 추세와 더불어 지식 정보를 재배치하는 새로운 독서문화를 형성하였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사고전서류를 비롯한 백과사전들과 다양한 총서류 등은 이들의 지적 패턴을 탈바꿈시켜 사물에 대한 관심과 박학을 추구하는 시대적 분위기를 고양시켰다(손정희, 2008: 49). 이러한 일련의 지식인들의 문화적 성향에 대해 박학중시 경향과 장서가의 출현, 호고(好古) 취향의 고조로 나누어 살펴본다.

1) 博學 중시의 경향

17세기 동아시아 3국의 학계에서는 각국의 학문풍토에 따른 실증적이고 백과전서적인 학풍이 학계의 조류를 형성했다(안대회, 2010: 423). 박학추구는 인격적 수양과 성리문자에 대한 치밀한 사색을 위주로 하는 과거의 학문적 태도와는 그 성향을 달리하였다. 19세기 당시에 박학을 추구한 지식인들은 지식과 정보를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출판에 서로 힘을 보태기도 하면서 협동을 통해 학술을 진전시

켜 나갔다.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농정회요(農政會要)』, 『오주연문장전산고』와 이어서 『임하필기(林下筆記)』, 『송남잡지(松南雜識)』, 『명남루총서(明南樓叢書)』 등의 발간은 이와 같은 경향 속에서 전개되었다.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는 당시 박학의 경향을 좀 더 면밀히 보여준다. 이 책은 중국의 문헌을 다양하게 인용하고 있는데, 명나라 진계유의 『암서유사(巖栖幽事)』와 고렴(高濂)의 『준생팔전(遵生八牋)』 등을 신고 있는 것도 한 예이다. 또한 가학 저술도 두루 참고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조부인 서명응의 『고사신서(攷事新書)』의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그는 『임원경제지』에서 당대에 이용할 수 있는 저작과 견문한 정보를 동원하여 여러 방면의 지식을 편집해 놓음으로써 사대부의 원림생활은 물론 이상적인 문화생활을 가능하도록 구성해 놓았다(진재교, 2003: 259).

『임원경제지』, 『농정회요』, 『오주연문장전산고』, 『임하필기』, 『송남잡지』 등의 백과사전류에는 내용의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차에 관한 기록이 담겨있다. 조선의 19세기 이전 차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백과사전류는 『대동운부군옥(大東韻府群玉)』, 『지봉유설(芝峯類說)』, 『유원총보(類苑叢寶)』, 『성호사설(星湖僮說)』, 『잡동산이(雜同散異)』가 있다.

19세기에 편찬된 백과사전류는 이전에 편찬된 사전류에 비해 종류도 다양할 뿐 아니라 차에 관한 기록도 매우 풍부하다(김희자, 2009: 206). 이 시기 조선에서 발간된 백과사전류에서 기술되고 있는 차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인용 및 참고 전적(典籍)으로 중국의 전문 다서(茶書)나 농서(農書), 일본의 『화한삼재도회』⁴⁹⁾ 등이 제시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농서들이 중복 인용된 경우도 있다. 이는 당시 차에 관한 관심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록이자 서적의 활발한 유통과 박학경향의 지적 흐름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18 · 19세기 조선 차문화에 있어 이전 시기와는 다른 학문적인 경향은 서적의 유입과 활발한 유통, 장서확보를 통해 대외 차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청나라와 일본의 다서 및 전적류를 통해 섭렵한 차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다사의 실체는 조선 내 풍토성, 기호성과 결합되면서 현실을 존중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백과사전류

49) 『五洲衍文長箋散稿』人事篇, 服食類 <茶煙>에는 양안상순의 『和圖會』 즉, 『화한삼재도회』에서의 다관에 차를 넣는 방법인 ‘下投’, ‘中投’, ‘上投’법을 제시하고 출전으로 기록하고 있다.

에서 확인되는 차에 대한 세부적이며 방대한 내용과 차 전문지식의 분류와 재배치 기술은 조선 후기 박학 추구의 경향이 차문화의 학적경향에 반영된 결과이다.

2) 藏書家의 출현

대의문물교류 속에 서적의 유입과 유통부분은 조선 사회, 특히 지식인 사회의 문예경향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나아가 그들의 생활양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 중 하나가 장서가의 출현이다.

17세기 이후 수용된 외국서적⁵⁰⁾은 기존의 정보 독점적 경향을 벗어나 개인이 장서를 집적하는 장서가의 출현을 맞게 되었다. 여기에 국내적으로 영·정조대의 관찬과 사찬의 출판은 필사의 형태를 통하여 유통이 더욱 확산되었다. 전반적으로 국내 책은 양과 질적인 면에서 전대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진재교 평, 2006: 420). 이러한 전개 속에서 18·19세기 경화사족들은 정치적 위상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서적을 들여와, 서로 돌려보고 필사 유통함으로써 당대 학술과 문화의 흐름을 선취하였다. 이시기 경화사족과 일부 문인들은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신정보를 확보하여 연경(燕京)의 학술과 문화는 물론 청을 통해 들어온 서구의 동향과 나아가 세계사의 흐름까지 일부 감지하였다.⁵¹⁾ 그리고 축적된 지식과 정보를 통해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반영시켜 나갔다.

18·19세기 조선의 대표적 장서가는 이하곤(李夏坤, 1677~1724) · 심상규(沈象奎, 1766~1838) · 유득공(柳得恭, 1748~1807) · 서유구(徐有渠) · 조병구(趙秉龜, 1801~1845) · 윤치정(尹致定, 1800 ~?) · 남공철(南公轍) · 홍석주(洪奭周, 1774~1841) · 최한기(崔漢綺, 1803~1877) 등으로 이들 경화사족들 사이에는 집안에 장서처를 마련해 서적을 보관하는 문화가 자리하였다. 또한 구비된 서적의 내용을 목록화 하는 정리 작업도 진행되었는데, 이는 서적양이 거대함을 말하는 것으

50) 외국서적의 수용은 신라시대부터 있어왔다. 이때는 한문서적의 형태였다면 명과 청시기 서적의 유입 형태는 한문 전적을 구입한 형태로 서적의 도입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됨이 확인된다.(진빙빙, 『熱河日記』를 통해 본 18세기 중국문화의 양상,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78쪽.)

51) 진재교, 「경화세족의 독서성향과 문화비평: 홍석주가의 경우」, 『독서연구』 통권 제10호, 한국독서학회, 2003, 242쪽 참조.

로, 남공철의 『서화발미(書畫跋尾)』, 성해응의 『서화잡지(書畫雜識)』, 홍석주의 『홍씨역서록(洪氏譯書錄)』 등이 이에 해당된다(황정연, 2006: 74).

이하곤의 서고는 '만권루(萬卷樓: 완위각)'로 한양에서 충청 진천의 초평으로 옮긴 뒤에도 이 공간에서 독서와 서화, 골동의 감상에 몰두하였고 윤두서·정선·윤순·이병연·신정하 등과 교류하며 문예적 성향을 함께 했다. 심상규의 서재명(書齋名)은 '가성각(嘉聲閣)'으로 4만권의 서적이 구비되어 있었으며 가성각이라는 편액 역시 1812년 연행시 옹방강의 친필을 받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심상규의 저택과 그 안의 장식, 서적 등은 모두 중국풍으로 골동품, 서화, 서적으로 가득하였다고 한다.

유득공은 화려한 서울의 벌얼가가 아니면서 누구보다 내사본(內賜本)을 소장하였다. 이러한 수장의 배경은 유득공이 정조의 측근으로서 규장각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명찬, 어정서적의 편찬과 교열에 관여했던 것 때문에 가능했다. 비록 직위는 낮았지만 68종 273책에 달하는 서적을 하사받을 수 있었고 이 내사 받은 서적을 보관하기 위한 서재인 '사서루(賜書樓)'와 다양한 책과 기물들이 보관된 '고운서옥(古芸書屋)'은 다양한 책과 기물로 채워졌다고 한다.⁵²⁾

서유구의 서재는 '자연경실(自然經室)'로 그의 『임원경제지』 백과전서는 이러한 장서 집적 속에서 탄생한 농학서(農學書)였다. 특히 서유구의 가문은 18세기 후반 북경에서 발원한 새로운 학문을 앞서 수용한 최고 수준의 학자 가문으로서 서적의 수장에 힘썼던 서형수의 '필유당(必有堂)'과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을 수입한 서호수 등의 예에서 달성 서씨 가문의 장서 경향 등을 살필 수 있다.⁵³⁾

최한기의 경우 1851년 남대문 부근 송현(松峴)의 상동(尙洞)에 양한정(養閑亭)과 기화당(氣和堂) 등이 들어선 훌륭한 집을 장만하였다. 당시 그는 청조에서 들어오는 최신 서적을 최고의 고가로 구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장안에 이름나 있었다. 그의 서재는 서울의 제일가는 신출기서(新出奇書)의 수장처였다(유봉학, 1994: 119).

홍석주가의 학인들은 모두 상당한 장서를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이러한 장서를 기반으로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섭취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52) 박철상, 「유득공의 사서루」, 『國會圖書館報』 46(1), 국회도서관, 2009a, 94-99쪽 참조.

53) 박철상, 「서형수의 필유당과 서유구의 자연경실」, 『國會圖書館報』 46(2), 국회도서관, 2009b, 72-79쪽 참조.

이를 통해 다양하고 폭넓은 독서체험을 하고, 전 시기와 달리 일국적 시각을 넘어 당대의 창조문예를 아우르는 문화 분야에 까지 비평을 할 수 있었다(진재교, 2003: 248). 중간계층 중 사적인 공간이외 공적인 규장각의 근무자 검사관들 경우 내각에 비장되어 있는 서적을 통해 좀 더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들 경화세족 및 장서가들의 서재는 학문과 아취의 상징으로 대변되는 곳으로 지식인들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던 특수한 공간이었다. 지식인들의 교류는 물론 독서, 사색, 창작, 소비가 이루어진 서재는 조선 지식인들의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졌던 공간이었다. 지식인들의 다사 역시 서재라는 공간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일단이 확인된다. 추사 김정희의 장서 목록 중 차 관련 책 목록들을 저자와 서명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육우(陸羽)의 『육씨다경(陸氏茶經)』, 양만리(楊萬里)의 『양성재집(楊誠齋集)』, 강추금(姜秋琴)의 『고환당집(古歡堂集)』, 상거(常璩)의 『화양국지(華陽國志)』, 진호자(陳湔子)의 『화경(花鏡)』, 서광계(徐光啓)의 『농정전서(農政全書)』, 이백(李白)의 『이태백집(李太白集)』, 방교(房喬)의 『진서(晉書)』, 단성식(段成式)의 『유양잡조(酉陽雜俎)』·『다여객화(茶餘客話)』, 방이지(方以智)의 『물리소지(物理小識)』, 고염무(顧炎武)의 『일지록(日知錄)』, 황정견(黃庭堅)의 『산곡집(山谷集)』, 왕호(汪灝)의 『광군방보(廣群芳譜)』, 왕상진(王象晉)의 『군방보(群芳譜)』, 구양수(歐陽脩)의 『구양공집(歐陽公集)』, 구준(丘濬)의 『대학연의보(大學衍義補)』, 구양수(歐陽修)의 『당서(唐書)』, 마단림(馬端臨)의 『문헌통고(文獻通考)』·『청다관시초본(聽茶館詩抄本)』·『만보전서(萬寶全書)』, 이방(李昉)의 『태평어람(太平御覽)』·『태평광기(太平廣記)』, 육유(陸游)의 『방옹집(放翁集)』, 장해봉(張海鵬)의 『학진토원(學津討源)』, 팽정구(彭定求)의 『전당시(全唐詩)』, 장영(張英)의 『연감유함(淵鑑類函)』, 축목(祝穆)의 『사문유취(事文類聚)』, 소식(蘇軾)의 『동파집(東坡集)』⁵⁴⁾

이 중 순수한 차전문 도서는 육우의 『다경』 하나이다. 그 외 제시된 책은 차 관련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서책들이다. 비록 조선 후기 경화사족 중 김정희집안에 한정된 장서 목록확인 결과이지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세기 경화사족들 안에서 성행했던 장서구축의 문화가 지식인들의 다사 이론과 실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 유추된다.

54) 김명배, 『증보판 茶道學論攷』, 대광문화사, 1999, 230-231쪽.

3) ‘好古’ 취향의 高潮

고동서화의 수집 및 감상과 결부된 예술취미는 16세기 말에서 17세기에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8세기 이후 애호벽과 수집벽을 지닌 취미인들의 활동과 함께 문화 동호인 집단을 형성하면서 시대적 열풍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감평에 대한 안목과 지식을 지닌 ‘상감가(賞鑑家)’들이 등장하여 금석고증학과 결부된 고물학(古物學)을 태동시켰다(홍선표, 2007: 318-319).

대외적 교류 속에 수용되기 시작한 청의 문물은 경화사족에게 심미적인 차원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여 고동서화의 취미를 촉발시켰다. 이러한 관심은 수장으로 이어져 감별과 품평을 위한 감상지학이 성립되었다. 감상지학에 관련된 대상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운지>에서 언급한 부분을 살펴보면, 문방구, 그릇, 다도, 서화, 양화(養花), 도서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음이 확인된다.

상감가들의 감정론 전개는 서화의 수요증대와 이에 따른 위작의 등장을 배경으로 하여 작품에 대한 진위 판별의 방편일 뿐만 아니라 19세기 경화사족의 주요한 문화 활동으로 각광받기에 이르렀다(천기철, 2003: 298). 감식의 개창자인 김광수(金光遂, 1696~1770)는 전문가들의 책을 보고 혼자서 감식 이론을 공부한 경우로 감식 서적을 읽고 얻은 지식과 많은 물건들을 본 경험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감식을 하였다고 한다. 그는 감식의 개창자로서 자신감의 기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세상 모두가 나를 버렸듯이 나도 세상에 구하는 것이 없다. 그러나 내가 문화를 선양하여 태평시대를 수놓음으로써 300년 조선의 속된 가풍을 바꾸어 놓은 일으면 훗날 알아주는 자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⁵⁵⁾

18·19세기 경화사족을 위시한 지식인들의 고동서화 애호풍조⁵⁶⁾는 지식인 집단

55) 李德壽, 『西堂私載』 권4, <尙古堂金氏傳> “嘗言世皆棄我, 我亦無求於世. 然揚挖風雅, 點綴太平, 爲三百年本朝破俗, 則後或有知余者.”

56) 문인들의 고동서화 애호경향에 대하여 『한정록』에서 인용하고 있는 『太平淸話』 중 서첩을 서재에 늘어놓는 다섯 가지 좋은 점을 통해 살펴본다. 『한정록』 제12권, <靜業>에는 “ 옛 첩을 두루 찾아 책상 위에 놓아두면 다섯 가지 좋은 점이 있다. 긴 해를 소일하고 속된 마음을 없앨

의 교류의 장에서 문예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역할과 함께 창작과 비평, 수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일련의 취미가 성행하게 되는 기저를 이루었다. 이 시기 지식인들에게 있어 고동서화와 같은 완상물은 고가의 사치품이라기보다는 옛 선인의 고아한 격조와 운치를 전해주고 올바른 성정을 길러주는 도구이자 매개물로 인식⁵⁷⁾되었다. 이를 완상하는 자리에는 항상 그 고아한 격조와 운치를 배가시키는 다사(茶事)와 다기(茶器)가 등장한다. 다사와 다기는 고동서화의 감상과 창작공간에서 분위기 연출로서, 완상의 대상물 자체로서 기능하였다. 다사에 소용되는 다기는 실용성을 넘어서 문예공간에서 일상생활 속의 미적 감각을 일깨워주며 사물과의 교류를 통해 즐거움을 얻는 ‘완상 취미’의 하나로 자리하게 되었다.

다기가 대상으로 완상되는 기록을 18세기 경화세족인 서노수(澁修, 1766~1802)와 홍양호(洪良浩, 1724~1802)를 통해 살펴본다. 서노수 관련 기록은 1787년 서유구가 24세 때 쓴 서노수가 경영하였던 정원의 정경을 기록한 『풍석고협집(楓石鼓篋集)』 <지북제시도기(池北題詩圖記)>에서 확인된다.

홀원의 남쪽에 있는 네모난 연은 물이 찰랑거리며 반쯤 모서리는 드러나 있고 반은 둔처럼 생긴 연잎파리에 가리워져 있다. 연꽃 봉우리는 이미 활짝 피었는데, 피지 않은 것이 예닐곱개 있다. 약간 북쪽으로는 괴석이 두 개 있고 …… 괴석 왼쪽 큰 석상 하나에 향아리 하나, 향로 하나, 찻사발 하나, 글씨함 하나가 뒤섞여 늘어서 있다. 찻사발은 가마우지 무늬이고 향로는 밤껍데기 색깔이며 술동이에는 물총새의 깃을 둘 꽂았다. 글씨는 응당 당인의 시이거나 혹은 원명의 명가의 것이겠지만 알 수는 없다. ……⁵⁸⁾

수 있는 것이 그 하나요, 六書와 자획법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둘째요, 옛사람이 쓴 자체가 이상한 글자를 많이 아는 것이 셋째요, 선현의 풍류와 운치가 눈앞에 선하게 보이고 그들의 행적이나 교유관계와 宅墓를 알 수 있는 것이 넷째요, 책상에 매달려 앉아 날마다 머리를 모아 공부하지 않아도 옛 서첩을 통하여 저절로 공부가 되는 것이 다섯째의 좋은 점이다"라고 기술하였다(허균, 민족문화추진회 편, 『閑情錄』, 솔, 1997, 126쪽).

57) 그러나 고동서화에 대해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가 쓴 『尙古圖會文義例』를 통해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 …… 이 밖에 향을 사르고 차를 폼평하는 취미나 서화와 골동품을 감상하는 고상한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마음을 기울기에는 천박한 것이다”(안대회, 『선비답게 산다는 것』, 푸른역사, 2007, 234-235쪽).

58) 서유구, 『楓石鼓篋集』권2, <池北題詩圖記>“笏園之南, 方池演漾, 半矩見半矩隱, 荷葉如錢. 菡萏已開, 未開者六七. 稍北怪石二…… 怪石左, 大石牀一錯陳壺一爐一茶椀一書函一. 茶椀鷓斑, 爐栗殼, 壺插翠羽二莖. 書當唐人詩, 或元明名家不可知. …… ”

서노수의 정원에 대한 서유구의 묘사에서 고동서화에 대한 배치 부분 중 가마우지 무늬의 찻사발 언급을 통해 골동다기가 완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홍양호는 <호로다주명(葫蘆茶注銘)>에서 청대의 대학자요 차 애호가였던 기윤(紀昀, 1724~1805)에게서 선물 받은 다주(茶注)와 완(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호로 다주 하나, 호로 사발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강희 연간에 인모한 것이다. 다주와 사발이 모두 호로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다주는 색이 누렇고 네모졌다. 사방 모퉁이에 ‘하늘로부터 거둬 복을 받는다’는 4자가 찍혀있다. 뚜껑으로 덮어 놓았는데, 뚜껑에는 작은 매듭이 달려있다. 사발은 색이 누렇고 둥글며 구름무늬가 그려져 있다. 다주와 사발 모두 자작나무 상에 얹혀놓았고, 상은 받침대에 얹혀 놓았다. 받침대 역시 자작나무로 조각했는데, 제작이 기묘했다.⁵⁹⁾

다주와 완의 모양과 색, 인모된 글자에 대한 자세함뿐만 아니라 좋은 조건의 감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든 받침대와 상에 대한 자세한 기술을 통해 호고 취향의 고조 경향을 읽을 수 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고동서화의 완상과 품평, 음다, 분향은 앞서 살펴본 경화세족이라는 일부 신분을 넘어 일반적 지식인들에게 일상의 취향으로 즐겨지고 있음을 정조(正祖)의 『일득록(日得錄)』에서 읽을 수 있다.

대저 최근의 선비들은 문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평소 거문고를 타고 동기를 늘어놓고, 서화를 품평하고 차를 끓이고 향을 사르는 것을 맑고 멋있는 취미로 여긴다. 그래서 후생의 소년들이 왕왕 모방하여 습관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전날 사학이 바른 도리를 해치는 것과 크고 작음은 같지 않지만 폐단으로 말하면 동일한 것이다.⁶⁰⁾

19세기 고동서화 취미가 신분과 직역을 막론하고 보편적 문화취미로 확산되었

59) 홍양호, 『耳溪集』 권17, 「葫蘆茶注銘」 “葫蘆茶注一, 葫蘆盃一, 康熙時印摹者也. 茶注與盃 俱以葫蘆造成. 而茶注色黃而方. 四隅印自天申福四字. 覆之以蓋, 蓋懸小蔓. 盃色黃而圓, 畫以雲文. 俱安於樺床, 床安於臺. 臺亦以樺雕鏤, 製作奇妙.”

60) 정조, 『弘齋全書』 163권, 「日得錄」3 “大抵近時之士, 不獨於文章爲然. 平居鼓琴瑟, 列銅玉, 評書品畫, 焙茶燃香, 自以爲清致文采. 以後生少年, 往往多效顰而成習者. 此與向日邪學其害正而違道, 大小不同, 而爲弊則一也.”

음은 중인계층 중 여항화가들의 고동서화 취미와 감식안, 수집과 완상활동에서 확인된다. 이외 중인계층의 참여는 문식력과 경제력을 갖추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이들은 고동서화의 주요 수요층이 된다.

19세기 전반에 활약한 수장감상가(남공철·김조순·서유구·이유원 외), 문인화가 및 여항화가(윤제홍, 이방운, 임득명, 신위, 신명준, 신명연, 김정희, 조희룡, 허련, 전기, 유재소, 권돈인, 이하응), 직업화가(김홍도, 이인문, 신윤복, 김득신 등)의 명단에 오른 사람들의 활동상황을 정리해 보면, 감상 수장가들은 북학과 고증학에 몰두하여 청나라의 새로운 서화 양식과 금석고동을 선호하고 다양한 문방요구들을 애완하면서 새로운 문인 취향과 풍부한 물질문화를 노골적으로 추구한 인물들이다(박은순, 2000:222). 이들 중 일부는 공히 서화예술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감식안을 갖춘 비평가이자, 동시에 스스로 탁월한 창작기량도 겸비한 서화가들이었다(강명관, 1999: 320). 또한 이들은 이러한 예술품을 향유하고 생산하는 자리에 다사를 동반시킬 만큼 차의 애호가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후기 사회적, 경제적 변화 속에서 문화 주체 세력으로 떠오른 중인층과 기존 문화 주체 세력인 경화사족은 대내외적으로 차문화를 적극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대내적 경제 안정과 번영, 그리고 활발한 대외적 문화교류 현상, 그 중심에 이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 후기 대내외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문화 예술계의 동향 또한 차문화가 융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특히 대외적 명·칭 문인문화의 수용은 자연스럽게 문예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변화시켰다. 국내 문예의 내용 또한 다양화, 다변화시켜 차문화가 문화 주체세력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들과 함께 향유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이루었다. 문화 주체세력인 이들 지식인층의 문화적 성향 중 박학중시의 경향과 장서구축은 차문화의 이론적 구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다사의 전문성을 갖추는데 일조하였다.

Ⅲ. 조선 후기 차문화의 국내적 기반과 교류

18·19세기 지식인의 다사 배경의 대내적 주요한 기반은 무엇보다 밀도 있게 짜진 인적 관계망 위에서 형성된 차의 일상화 분위기 조성이었다. 다사의 내재적 동인은 문화 주체자들의 집안적 다력(茶歷)과 집단적 문화교류 현상에서의 음다에서 확인된다. 집안의 다력이 후기 지식인들의 차의 일상화를 공고히 하는 종적(縱的) 반석(盤石)이라면 동인회 성격의 집단모임 및 이외 모임에서의 다사는 차의 일상화를 좀 더 단단히 하고, 향유의 공간적 확대를 가져 온 횡적(橫的) 반석이라 할 것이다.

집안과 교유관계 속에서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는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다사를 생활 속의 자연스런 문화적 행위로 향유될 수 있도록 한 기저(基底)였다. 그 바탕 위에 이루어진 다사는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차생활을 시·공간적(時·空間的)으로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1. 家傳茶風

기호품의 취사선택은 개인적인 취향의 비중도 못지않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집안 적으로 누적된 습관적 향유이다. 특히 집안에서의 차는 단순히 음식물로서의 식습관에 머물기보다 다사라는 종합적 행위를 향유한다는 측면에서 종적으로 모방, 교육되고 훈습되어 다풍(茶風)을 형성한다. 한 예로 홍양호 집안의 문예적 취향 경향을 통해 집안의 다력이 어떤 양상으로 전해지는지 유추 할 수 있다.

경산 정원용(鄭元容, 1783~1873)은 홍양호의 손자 홍경모(洪敬謨, 1774~1851)의 학문적 성향과 가법의 정통에 대해 할아버지 홍양호로부터 영향 받았음을 “왕부를 스승으로 삼아 학문에 연원이 있고, 선세를 법으로 삼아 행실이 가문의 법을 말미암는다⁶¹⁾”라고 표현하였다. 홍경모의 평소 예술 취향은 홍학연에게 보

61) 정원용, 『經山集』 권15, <判敦寧府事兼吏曹判書洪公敬謨神道碑 > “以王父爲師而學有淵源, 以先世爲法而行由門戶.”

낸 서찰인 <여부안수홍계습학연(與扶安守洪季習學淵)>에 잘 나타나 있다.⁶²⁾ 이를 통해 홍중성(洪重聖, 1668~1735)에서 손자 홍양호로 이어지는 가정 내의 한아한 취미가 홍양호의 손자 홍경모에게서도 그대로 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신영주, 2000:86). 이로 볼 때 조선시대 가정 내 격대(隔代) 교육의 모습이 문화취향 부분에도 내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집안 내에서 학문 및 문예가 자연스럽게 전수되듯이 다사 또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경험되었을 것이다. 어른들의 곁에서 유희(遊嬉)하면서 유염(濡染)되고 훈습(薰襲)되어 다사의 취향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해져 가전다풍을 이루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오재순(吳載純, 1727~1792)의 <북동아회도후식(北洞雅會圖後識)>에는 위와 같은 정황을 확인해준다. 1744년 11월 북동에서 오경보와 그의 조카들이 독서 모임을 하는데 벗들이 놀러와 함께 한 정경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 배경 설명을 오순택이 글로 남긴 것이다.

갑자년(1744) 11월 북산 아래에서 독서를 하다가 작은 그림을 그리고 기록한다. 촛불 아래 안석에 기대앉은 사람이 오경보이고 오경보와 마주 앉은 사람이 이윤지(이윤영)이며 앉아서 단정하게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사람은 이원령이다. 안석 위에는 문왕의 제기과 닮은 오래된 술, 오래된 소라 술잔과 검, 붓통이 각각 하나씩 있다. 이윤지의 왼쪽에 뒷짐을 지고 서서 돌아보고 있는 사람은 김유문(순택)이다. 이원령을 꺾고 서 있는 어린 아이는 그의 아들 이원대이다. 두사람은 매화 아래 앉아 있다. 오경보를 향해 책을 받들고 서있는 동자는 경부의 조카인 문경·자정·인남이다. 모두 안석이 셋, 책이 몇 질, 그림 두루마리가 셋, 버루가 하나이며 병풍 남쪽에 파초와 대나무 화분이 하나씩이다. 차 달이는 화로를 안고 남쪽 남간 아래 있는 사람은 어린 사내종 태휘이다. 순택이 쓰다.⁶³⁾

위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집안 어른들의 곁에서 아회(雅會)풍류를 목도할 수 있었고, 아회에 빠지지 않았던 다사에 노출되면서 아취적 생활에 자연스럽게 훈습되어감이 증명된다.

62) 홍경모, 『耘石外史』 後編, <與扶安守洪季習學淵> “唯是筆硯以爲書署, 書籍以爲齊民, 觴政茶格以爲令甲, 自以爲塵沙中第一佳趣, 而作世間大自在人矣.”

63) 오재순, 『醇庵集』 6권, <北洞雅會圖後識> “甲子十一月, 讀書于北山之下, 作小圖識之. 燭下憑几而坐者, 爲吳敬父, 對敬父而坐者, 爲李胤之, 坐而端拱者, 李元靈. 几上有古鼎像文王尊彝, 古螺栝劍筆筒各一. 胤之之左, 負手而立且顧者, 金孺文. 而小童侍元靈立, 其子遠大也. 二人坐於梅下, 童子奉書向敬父立者, 敬父從子文卿·子正·麟男. 凡几三書數秩畫軸三硯一, 屏南芭蕉竹各一盆. 擁茶壺在南檻下者, 小奴太輝也. 純澤書.”

조선 청백리(淸白吏)의 대표적 인물인 삼산(三山) 유정원(柳正源, 1703~1761)의 <연보(年譜)>에도 가내에서 어릴 적부터 다사 환경에 노출된 정황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삼산은 나이 14세에 『주역』을 공부하여 기빠하기를 천하의 이치가 모두 여기에 있다고 하며, 밤에도 자지 않고 그 이치를 탐구했다. 하루는 참관공이 지름이 하나이고 둘레가 셋인 뜻을 풀도록 명하니, 선생이 반나절을 생각하다가 머리말에 다기들이 있는 것을 보고, 노끈으로 그것을 묶어서 그 이치를 깨달았다.⁶⁴⁾

침(枕) 주변에 다기가 있다는 것은 집안내 차를 일상화하고 있는 모습의 일면으로, 늘 다사에 노출되고 언제나 다사가 가능함을 설명해준다. 류건집(2007:247-248)은 삼산의 집안에서는 많은 차인이 배출되었다고 기술하면서 삼산 또한 선대부터 마신 차의 고아한 격조가 그에게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고 하였다.

차 애호가였던 심상규는 정약용의 아들 정학연과의 찻자리(1819년 추정)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중국의 이름난 차를 두루 맛보았네. 차의 품질을 품평하는 것은 스스로도 나만한 이가 없으리라 여기지⁶⁵⁾"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차 품평 경지는 어려서부터 중국의 이름난 차를 두루 맛보았던 다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로 볼 때 어린 심상규가 집안에서 차를 쉽게 접할 수 있었던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누차적 다사의 경험은 고도의 다사 행위인 차품평 실력을 기르는 기반이 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겠다.

집안 내 다풍 형성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연스런 경험이의 다사를 위한 가정 교육을 통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강(松江) 정철의 아들 정홍명(鄭弘溟, 1592~1650)의 시 <수기(睡起)>중 3, 4구를 살펴보면

午睡起來無別事 낮잠 깨 일어나도 별다른 일 없어
細教童子點茶鑪 동자에게 차 달이는 것 자세히 일러주네. ⁶⁶⁾

64) 柳正源, 『三山集』附錄上, <年譜> “先生十四歲, 受周易, 先生喜曰, 天下之理盡在是矣, 至或通宵不寐以究其義. 一日參判公命解經一圍三之義, 先生半日思之, 忽見枕邊茶器, 以繩繫之, 而悟其法.”

65) 정학연, <與人>“……余自少也, 遍嘗中國名茶. 茶品評覽, 自以爲莫我若也……”(정민, 『새로쓰는 조선의 차문화』, 김영사, 2011, 489쪽.)

66) 鄭弘溟, 『畸庵集』 권4, <睡起>

라는 내용이 있다. 집안 내 일을 돕는 아이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집안 내에 차 달이는 것을 자세히 가리킨다함은 하나의 집안 내 습속을 이어갈 중요한 내용을 교육시킨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하겠다. 황상(黃裳, 1788~1870)의 만년 작품 중 <개제(改題)> 7, 8구에는

.....

也識香翁蒔花晚 향옹이 늦으막에 꽃 심는 것을 알고
品茶小草寄山童 차를 품평한 짧은 글을 산동에게 부친다.⁶⁷⁾

라는 구절이 있다. 이 또한 일상 속에서 할아버지와 손자녀가 차를 중심으로 교감을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의 <방서진사가(訪徐進士家)>라는 시의 내용을 본다.

中堂迎客靜無譁 중당에서 손님 맞는데 조금도 시끄러움이 없으니
易識寧州第一家 영주에서 제일가는 가문임을 쉬이 알겠네.
椅子東西據設禮 동서로 마주 앉아 인사하니
小童擎進雨前茶 어린아이가 우전차를 올리네.⁶⁸⁾

집안 내 다사 교육의 내용이 차를 달이는 일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손님이 집안에 오시면 차를 접대하는 일, 즉 차를 내는 접대예절 또한 교육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유희(柳僖)의 『물명고(物名考)』 <배다(拜茶)>에는 “손님이 오면 절을 하고 앉아서 차를 마시게 한다”⁶⁹⁾라고 하는데 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의 질부(姪婦) 묘지명⁷⁰⁾과 이덕무의 『사소절(士小節)』 <동규(童規)>에는⁷¹⁾ 차가 일상화되어 있는 집안에서 차를 달이고 내는 일에 대

67) 『卮園小藁』 권6, <改題> (김규선·구사회, 『『치원소고』를 통해 본 황상의 차생활과 19세기 차문화』, 『동양고전연구』 제46집, 동양고전학회, 2012, 201쪽.)

68) 채제공, 『樊巖集』 권13, <訪徐進士家>

69) 柳僖, 『物名攷』, <拜茶> “賓客來使啜, 則拜坐茶.”

70) 金昌翕, 『三淵集』 권27, <姪婦高靈申氏墓誌銘> “유인께서는 집안에 계시면서 공손하게 여인의 직분을 수행하였으니, 음식에 간 맞추고 약과 차를 달여 조부모를 위해 수족같이 하였다.”(孺人自在其家, 恭爲女職, 至於鑰匙米鹽秤水茶湯, 爲厥祖父母手足)

71) 李德懋, 『士小節』, 「童規」, <事物> “어버이를 섬기는 사람은 약을 다리고 차를 끓이는데 그 물과 불의 정도를 잘 알지 않아서는 안 된다.”(事親者, 烹藥煮茶, 水火之候, 不可不知.)

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어린 여자녀의 교육내용에서 차 달이는 일에 대해 당부, 언급할 정도로 가내에서 여성의 중요한 직무로 차 달이는 일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다사는 태생적으로 한 집안의 다력 형성과 개연성을 갖고 있기에 혼반관계(婚班關係)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배경을 포함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개략적인 집안 다풍의 형성 배경 속에서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일상적인 다사가 이루어졌고, 향유되었다. 비록 조선 후기 모든 지식인들의 집안 내에서 차를 마시고 즐겼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다만 여러 배경적 사유에 의해 한정된 층위 안에서 향유되었지만 그 안에서 보다 일상화된 다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집안 내 다력이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다.

류건집(2007)은 조선 후기에서 일제 강점기 시대까지의 차문화사를 다룬 『한국 차문화사』에서 다력을 가진 집안으로 다수의 집안을 꼽고 있다.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 차를 애호한 많은 집안 중 가장 두드러진 성향을 보인 김상용·홍인모·서유구·정약용 집안의 예를 들어 가전다풍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1) 金尙容 · 金尙憲 가문

김상용(金尙容, 1561~1637) · 상헌(尙憲, 1570~1652) - (손자) 수흥(壽興, 1626~1690) · 수항(壽恒, 1629~1689) - 창집(昌集, 1648~1722) · 창협(昌協, 1651~1708) · 창흠(昌翕, 1653~1722) · 창업(昌業, 1658~1721) - 용겸(用謙, 1702~1789) - 조순(祖淳, 1765~1832) - 유근(迪根, 1785~1840)

농암 김창협과 삼연 김창흠 형제는 한양과 근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봉우들과 어울려 도성 안의 이곳저곳을 돌며 유적을 답사하고 한강, 북한산, 인왕산, 목멱산 등의 풍광을 만끽하고 각자의 별업을 방문하여 시회를 벌여 연구를 짓고 서화, 고동, 금석, 음악의 감평과 바둑 등의 도회적이고 문학적인 성향의 취미를 즐기는 일을 인생의 지락으로 삼았다(신영주, 2006: 364)고 한다. 특히 이들 형제가 인생의 지락으로 삼았던 취미중 하나가 차를 즐기는 일이었다. 사형제 경우 일상다반사라 할 만큼 일상적 다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창협의 <윤삼월초육

일기사(閏三月初六日記事)>에는

何以陶茲辰 오늘 어이하여 이렇게 평온한가.
無酒也有茶 술은 없으나 차가 있어
一啜讀我書 한 모금 마시고 책을 읽으니,
庶幾思無邪 모든 사기로움 없어지네.
昨日風色甚惡 어저께 바람 심하더니,
今朝却清美 오늘 아침 맑고 깨끗해졌네⁷²⁾

라고 할 만큼 차가 독서를 하는데 기운적 영향을 미침은 물론 상시 차가 준비되어 있는 집안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창흠 또한 도성과 벽계(壁溪, 경기도 양평)를 오가며 살았는데 17세기 후반 벽계에서의 소탈한 일상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有問新居趣 새집에 사는 맛 묻는 이 있어
新居樂晚成 새집 사는 맛 늦게 이루어진다 하였네.
詩書排几閣 시서를 자리에 펼쳐놓으니
燈火入窓櫺 등불이 창틈으로 스며드네.
院寂幽禽至 집은 고요하여 새들이 찾아오고
籬疎遠瀨明 울타리 성겨서 여울소리 흰하다.
尋常茶飯畢 보통 때는 차와 밥을 먹은 후
輒復向田行 문득 밭둑길을 다시 걷노라.⁷³⁾

분위기 조성을 위한 차도 아니요, 수양을 위한 차도 아닌 밥 먹고 차 마시는 극히 자연스런 일상이 그려진다. 또한 창흠은 차에 관심이 많아서 평소에 육우의 『다경』을 보고 그 내용이 우리나라 다속과 다른 것을 고치거나 중요한 부분에 찍찍이 표시하는 일을 좋아했고, 차에 물의 영향이 큰 것을 잊지 않고 가는 곳마다 좋은 물을 보면 차 생각을 했을(류건집, 2007: 210) 정도로 다사에 대한 취가 완곡했다. 창업은 18세기 전반, 연행 후 기록을 남겼는데 다른 형제들 시문에서도 확

72) 金昌協, 『農巖集』 권5, <閏三月初六日記事>

73) 金昌翁, 『三淵集』, <壁溪雜詠>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 조선 후기-내가 좋아 사는 삶』, 휴머니스트, 2006, 87쪽.)

인되는 일상다반사의 모습이 창엽의 사행 여정 속에서도 확인된다.

踏遍山東北 산 동북 두루 걸어왔으니
來經路四千 지나온 길 사천리라 되네.
風沙涉苦海 모래바람 지나온 어려운 여로
烟雨到諸天 비는 내려 하늘까지 이르렀네.
晚飯供榆蕈 느릅나무 버섯 반찬 늦은 밥 먹고
新茶淪石泉 돌샘 물로 헛차 달인다네.
何妨未通語 말 안 통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랴?
默坐更翛然 묵연이 앉아서 개의치 않는다네. 74)

여의치 않은 환경 속에서도 밥을 먹고 차를 우려 마신다고 함은 집안 내에서의 일상적 다려이 전제되지 않으면 가능하지 못한 일이다. 이들 형제의 윗대 차생활의 모습은 차치하더라도 할아버지대인 김상용의 <재용전운(再用前韻)>과 김상헌의 <신도비명(神道碑銘)>을 살펴보면 이 집안의 다풍이 여실히 드러난다.

烏紗白葛稱閑身 흰 갈포 사모 쓰고 몸 한가로워지고
斗室翛然迥絕塵 작은 집에서 아무 구애됨 없이 세속과 멀리 있네.
萬軸牙籤爲勝友 수많은 책속의 접대가 벗이 되고
一甌新茗當佳人 한 사발 헛차는 고운 사람보다 좋다네.75)

…… 세속의 사치와 검소함이 모두 예에 맞지 않음을 근심했다. 제사의식에는 가훈을 따르고 고금의 격언을 써서 좌우명으로 삼아 언제나 생각하고 경계했다. 집안의 서적이나 가구는 물론 뜰 가장자리의 꽃나무에 이르기까지 반듯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다. 미투리에 지팡이 짚고 숲속을 소요 자적하고, 설 때는 향을 피우고 차를 마시며 고요히 앉아 책을 읽었다. 무릇 소리나 잡된 유희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76)

전편의 김상용의 시와 후편의 김상헌에 관한 글은 한 개인에 국한된 심태(心

74) 金昌業, 『老稼齋集』 권5, <龍泉寺次壁上韻書贈主僧精進>

75) 金尙容, 『仙源遺稿』 下권, <再用前韻>

76) 金尙憲, 『淸陰集』, <神道碑銘> “患世俗奢儉, 俱不中禮. 著祭式以爲家訓, 座隅書古今格言, 常寓鑑誠. 自一家內書籍几案, 以至庭除卉木, 方列整齊. 杖屨林壑, 逍遙自適, 休則靜坐觀書, 焚香煮茗. 凡聲伎駁雜之戲費用也.”

態)이자 생활모습이기도 하지만 집안 내 면면히 이어지는 음다풍을 확인할 수 있는 일면이라 할 것이다. 이 집안의 일상적 다사 모습 속에서는 정재된 심태와 고아한 정취, 탈속적인 문인문화에 깊이 호흡한 다력을 읽을 수 있다.

2) 洪仁謨 · 洪顯周 가문

홍인모(洪仁謨, 1755~1812)와 영수합서씨(令壽閣徐氏, 1753~1823) - 석주(奭周, 1774~1842) · 길주(吉周, 1786~1841) · 원주(原周, 1791~?) · 현주와 숙선옹주(淑善翁主, 1793~1836)

이 집안의 다풍은 다음의 연구(聯句) 시를 통해 확인된다.

霽餘新月照	비 개인 뒤 갓 돌은 달 밝으니(홍인모)
流影上疎簾	물에 비친 달그림자 성긴 발에 어리네(서씨).
遠客偏多興	먼데서 오신 손님은 흥도 많으셔(서씨).
淸光兩不嫌	슬빛과 달빛 둘 다 싫어하지 않는구나(석주).
虛明天字濶	허공이 밝으니 하늘은 넓고 넓어(석주).
滴瀝露華沾	이슬이 내려 꽃을 적시네(길주).
樓閣憑空迥	누각은 허공에 걸렸고(길주).
峯密入鏡添	산봉우리는 거울도 뚫을 듯 뽕족하구나(원주).
雲歸雲外靜	구름으로 들어가면 구름 밖은 고요한데(원주)
星出樹間沾	별들은 수풀사이에 걸렸네(현주).
催夜深燈翳	밤이 깊을수록 등불은 흐려지고(현주)
吟風短角嚴	바람이 읊어대는 소리는 단각처럼 냉랭하구나(홍인모).
相看歡笑沾	서로 보며 환소하며(홍인모)
團坐醉醒僉	빙 둘러 앉아 술에 취한다(서씨).
揮毫騁詞苑	붓을 휘둘러 시 지으니(서씨)
傾壺報漏籤	이루지 못하면 별주로 술잔을 기우네(석주).
繞階羅寶樹	섬돌위에 빙 돌아 늘어선 아름다운 나무들에게(석주)
供膳和晶塩	반찬과 소금 갖추어 공양한다(길주).
茶熟詩腸潤	차는 익어 시정에 젖어드니(길주)
琴靑玉手纖	고운 손으로 거문고 맑은 소리 울린다(원주).
怡怡眞可樂	온 가족 화목하니 참으로 즐거워서(원주)
去去不辭淹	가면 갈수록 빠져드니 그만할 수 없구나(현주)

起視銀河轉 일어나 하늘을 보니 은하수 기울었는데(현주)
佳懷問老蟾 즐거운 마음 품었는지 달님에게 물어본다(홍인모).77)

위 시는 온 가족이 달밤에 가내에 모여 술과 차, 거문고를 함께하며 시를 짓고 이를 옮겨 놓은 것이다. 집안의 모임 풍경 속에 차는 시정(詩情)에 젖을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이자 온 가족이 화목하게 향유할 수 있는 문예적 구심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 차문화 관련 자료 중 온 가족이 찾자리를 함께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료가 유일한 것으로 특히 홍인모 네 자녀의 다력이 집안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기본 자료라 생각된다. 이에 대해 정은희(2009: 51)는 가족이 모두 모여 시회를 가질 때 같은 운(韻)이나 제재(題材)로, 혹은 연구(聯句)나 화답형식으로 시를 짓는 등 가족 시회이자 주다회(酒茶會)는 홍인모 집안의 가풍(家風)이었다고 평하였다.

자녀들 중 삼남 현주의 차에 대한 관심과 다력은 더욱 주목이 된다. 잘 알려진 대로 한국 차문화사에 중요한 의의를 두고 있는 초의선사의 『동다송(東茶頌)』은 바로 1832~1833년경 홍현주가 차의 제다법에 관한 물음에 대한 결과물이었다. 혹자는 그가 차에 대해 전혀 몰랐기에 차에 관해서 변지화를 통해 초의에게 문의하였다고 한다. 이는 동다송의 서문에 나타난 짓게 된 동기(78)에 대한 내용을 단순 해석한 것으로 생각된다. 홍현주는 결코 차에 대해 몰랐다가보다 소싯적부터 집안 내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던 차를 보다 전문적 견지를 갖춘 초의선사를 통해 재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제다 부분에 주목하여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 가학의 환경이나 가풍으로 볼 때 홍현주는 이미 차에 대한 이론적 지식 및 실제적 다사의 경험이 풍부하였다. 차에 관한 이러한 이론 및 실재를 완비한 경지만이 전문가에게 당당히 문의할 수 있는 심저(心底)가 되는 것이다. 홍현주가 1834년 세밑에 지은 시를 살펴본다.

歲暮茅堂一老夫 세밑 뗏집에 한 늙은이
匡床圓枕共支吾 침상의 둥근 베게 나와 함께 베었네.

77) 洪原周, 『幽閒堂詩集』, <聯句> (정은희, 「19세기 朝鮮 士大夫家 女性의 茶文化 研究」,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96-97쪽.)

78) 초의, 『東茶頌』 “해거도인께서 차를 만드는 법에 대해 물으시기에 마침내 삼가 동다송 한 편을 지어 올리다.”(海居道人垂詰製茶之候, 遂謹述東茶頌一篇以對.)

靑山神往高僧惠 고승이 보내준 차 덕에 청산에서 정신 맑고
 白髮綠空少婦盧 며느리가 달여 준 덕분에 백발이 부질없어졌네.
 竹石當軒俱可友 마루 앞의 죽석은 모두 벗하기 좋고
 茗泉通笕不須奴 흙통으로 차 끓일 샘물이 오니 종도 필요 없네.
 今年家慶成雙喜 올해 집안 경사는 쌍으로 기쁨 이루고
 預想兒孫也挽鬚 아들 손자들 수염 당길 일이 예상되는구나.⁷⁹⁾

홍현주 또한 가를 이루어 가내에서 자연스럽게 며느리에게 차를 대접받고 있는 모습이 그려진다. 그리고 집안 내에 늘 다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샘물이 준비되어 있어 번잡스럽게 다른 이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차를 마실 수 있는 일상 속 다사환경을 표현하고 있다. 1860년경 지은 <손아일과일시 흥지즉차기운(孫兒日課一詩 興至則次其韻)>시를 본다.

綠陰芳樹萬人家 녹음 방초 우거진 만백성의 집
 幾處笙歌到日斜 곳곳에서 생황 소리 해 저물도록 들리네.
 午夢初醒茶半熟 낮잠에서 막 깨어나니 차가 반쯤 끓고
 一簾紅映石榴花 발에는 석류꽃이 붉게 비치네.⁸⁰⁾

다력은 줄곧 이어져 손자와 시를 나누면서도 그 소재로 일상생활에 깃든 다사를 등장시킬 정도로 가내에 다사가 일상으로 녹아있음을 알 수 있다.

홍인모 가문의 다풍 경우 유독 여성들의 다사가 부각된다. 홍인모의 아내인 영수합 서씨 또한 혼인 전부터 다력을 짐작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풍석 서유구의 일가인 서형수(徐迥修, 1725~1779)의 딸로 외가는 김창집 집안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창집 집안의 다풍으로 미루어볼 때 충분히 서씨 어머니의 다력 형성 또한 짐작이 되며, 다음에 살펴 볼 서유구가의 다력을 통해서도 서형수 집안의 다력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볼 때 영수합 서씨의 다력은 홍인모 집안의 다풍 형성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녀의 일상적 다사의 모습은 다수의 다시에서 확인된다.

幾年丈火小茶爐 몇 년이나 작은 차 화로에 불을 지폈으니

79) 홍현주, 『海居齋詩鈔』 권3, <歲暮>

80) 홍현주, 『海居齋詩集』 又又不休卷, <孫兒日課一詩 興至則次其韻>

一點神功定有無 작으나마 신묘한 공덕이 응당 있노라.

.....

春盤碗碧添瓊露 봄날 찻상 푸른 찻잔에 옥 이슬 따르고
古壁煙籠作粉圖 낡은 벽에 그을음 얼룩져 그림이 되었네.⁸¹⁾

.....

방안 벽면이 차를 달이느라 피워진 화로의 연기로 인해 얼룩져 그림이 되었다는 표현으로 볼 때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다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녀들과 나눈 시문 속에서도 그녀의 일상 중 다사를 확인할 수 있다. 막내아들 홍현주의 시에 차운한 <차계아운(次季兒韻)>에는

莫使離人聽 이별한 이에게는 알게 하지 마오.
空將別恨侵 공연히 이별의 슬픔만 더할 터이니
烹茶閑不寐 차 달이며 할 일 없이 밤잠 못 이루는데
孤角忽晨音 외로운 호각소리 어느새 새벽을 알리네.⁸²⁾

라는 표현이 있다. 차를 달이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노년의 일상 중 자연스런 차생활을 살필 수 있다. 이외 딸 홍원주의 시를 통해서도 친정의 일상적 음다를 확인할 수가 있다. 비록 꿈속의 정경을 읊고 있지만 실제 친정 방문 때 가족과 함께 했던 모습들의 반영으로 해석된다.

片夢歸萱堂 잠깐 꿈에서나마 어머니를 찾아가네.
歡喜拜膝前 뵈옵고 반가움에 절을 하자
携手共登床 두 손을 마주잡고 평상에 오른다.
盛說別離情 한참동안 이별의 정담 이어지자
牽依在母傍 어머니는 옷을 끌어 날 옆에 앉히신다.
下有兄弟笑 형제들 반기는 웃음소리
怡怡成一行 다정함으로 한 동아리 이루었네.
銀燭火壁明 은촛대에 촛불이 그림 벽을 밝혔으니
寶茶金尊香 금잔에 따른 차는 향기로워라.⁸³⁾

81) 令壽閣徐氏, 『令壽閣稿』, <靜夜烹茶>

82) 令壽閣徐氏, 『令壽閣稿』, <次季兒韻>

83) 洪原周, 『幽閒堂詩集』, <夢歸>

집안에서 고부 관계인 영수합 서씨와 홍현주의 아내 숙선옹주 또한 밤늦도록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자리를 함께 하는⁸⁴⁾ 등 이들 가족 간의 만남의 자리에는 늘 차가 자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徐有樂 가문

서명응(徐命膺, 1716~176(8)7) - 호수(浩修, 1736~1799) · 형수(滢修, 1749~1824) · 노수 - 유구 · 유본(有本, 1762~1822)과 빙허각 이씨(憑虛閣李氏, 1759~1824)

소론가의 경화명족 중 한 집안인 서유구가 차를 일상 기호품으로 향유했음은 물론 차에 대한 이론적 측면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집안의 여성들은 차를 다양하게 이용하는 방법 등을 기록할 정도로 실제적 응용측면에서 관심을 보였고, 차밭을 두고 직접 차를 재배할 정도로 전방위적 다사에 집중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서형수가 지은 서유구의 풍석암서옥 ‘풍석암장서기(楓石庵藏書記)’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사의 일면을 살펴볼 수가 있다.

조카 유구가 용주에서 거처할 때 네모난 땅을 정원으로 삼고, 계단 아래에는 붓도랑, 발두둑 사이에 차밭 몇 이랑이 섞여 있다. 계단에서 5~6보 떨어진 곳에 처마를 등지고 서재를 지었다. 깊고 조용하고 깔끔하며 책과 거문고를 기둥에 기대놓았다.⁸⁵⁾

용주는 오늘날 밤섬 근처로 이때 서유구는 아내와 함께 조부인 서명응을 모시고 이곳에 살았다. 서유구의 저서 『임원경제지』에는 여러 항목에서 다사 관련한 다양한 지식들을 다수의 전거들을 인용하여 소개하고 있다. 윗글의 차밭을 두어

84) 淑善翁主, 「宣言室卷」, <卽事>

梅屋晚飲茶 매옥에서 저녁에 차 마시는데
梧欖宿鳥鳴 난간 위 오동나무에 깃든 새 우네.
誰家聞玉笛 어떤 집에서 들려오는 옥피리 소리인가
松間碧泉生 소나무 숲 사이 푸른 샘물소리 나네.

85) 徐滢修, 『明臯全集』 권8, <楓石庵藏書記> “從子有樂之居涪洲也, …… 階下茶圃數頃, 交錯溝塍. 去階五六步, 負軒爲庵. 窈深潔淨, 琴書搘柱.”

직접 재배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단순히 차를 즐기고 차 관련 많은 이론적 지식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데에 머물지 않고 현실에서 이론적 지식을 적용해보는 전방위적 차생활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서명응의 노년생활을 읊고 있는 시 한수를 본다.

老人常夜寐 늙은이는 언제나 일찍 자고
 朝起怕寒嚴 이른 아침 일어나 추워한다네.
 積雪飄松塢 쌓인 눈 소나무 언덕에 나부끼고
 脩冰落瓦簷 고드름은 기와 추녀에서 떨어지네.
 爐殘茶熟火 화로 남은 불에 차가 익어가고
 几散讀餘籤 책상엔 읽던 책들 흩어져 있네.
 孤坐淸無事 맑은 정신 홀로 앉아 할 일 없으니
 旋將秃筆拈 이제 둔한 붓 잡고 휘둘러볼거나.⁸⁶⁾

<재거만영(齋居謾詠)>이라는 제목의 이 시를 통해 노년의 일상 속에 자리한 서명응의 차생활 일면을 살펴 볼 수가 있다. 일찍이 서명응은 서장관의 자격으로 청에 다녀온 경험이 있으며, 그의 저서 『고사신서(攷事新書)』에는 차 관련 기록이 다수 수록되어 있어 손자 유구가 『임원경제지』에서 이를 인용하기도 하였다. 비록 『고사신서』에 언급된 차 관련 기록이 중국의 다서에서 인용된 것이지만 이러한 차에 대한 이론적 관심과 표명은 집안의 일원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쳐 일상생활속의 다사 뿐 만 아니라 이론적 차 지식에도 일원 나름의 재정리를 이루어나갔다. 그 결과물은 서유구의 『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 『행포지(杏蒲志)』, 『임원경제지』 그리고 유본의 아내 빙허각 이씨의 『규합총서(閨閣叢書)』에서 확인된다. 『임원경제지』에서 인용한 책 중 『금화경독기』, 『행포지』는 서유구의 저술로 차에 관련한 기술을 살펴보면 본인이 경험한, 실제한 다사를 중심으로 중국 다서의 인용 내용을 비교 기술하면서 자신의 다론(茶論)을 피력하였다. 『규합총서』에는 특히 <다품>조에서 차의 품질과 등급 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유희 도구로서의 차, 즉 다백희(茶百戲)를 『설부(說郛)』에서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사실 당시 명망 있는 가문 중에서 서유구의 집안 경우 각기 별도의 장서처를 건립하여 서책을 보관할 정도로 가문대대로 서적을 수집하는 열의가 대단하였다.

86) 徐命膺, 『保晚齋集』 권1, <齋居謾詠>

바로 이 집안의 차에 관련한 이론적 지식 형성의 원천은 집안의 장서처였고, 이러한 차 관련 지식들을 재정리, 재배치하여 위와 같은 백과사전류의 편찬을 가능하게 한 동력이 되었다. 서유구의 집안내 차생활 모습은 다음의 기록을 통해 유추가능하다.

책상과 탁자 모두 많은 수를 놓아두는 것을 좋지 않다. 다만 예스럽게 만든 폭이 좁은 서안 하나를 가져다 실내에 놓는다. 그 위에는 필상, 향합, 훈로 등을 놓는다. 모두 작고 고아한 물건이다. 따로 돌로 만든 작은 안개 하나를 놓아두고, 찻주전자와 다기를 올려놓고, 작은 침상 하나를 놓아서 기대거나 눕고 가부좌하는 용도로 쓴다. 굳이 그림을 걸어둘 필요는 없다. 예스러운 괴석을 놓아두기도 하는데 그것도 좋다.⁸⁷⁾

위 내용은 『임원경제지』 중 사대부 지식인이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용품과 가구의 배치 등에 관한 기록의 일부이다. 이는 조선 후기 지식인들이 회구하는 성향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편저자의 문화적 안목과 실제 생활이 반영된 기술로 보인다. 서재라는 공간 안의 여러 기물들과 다사에 소용되는 기물들은 감상의 대상이자 실용 가능한 대상으로 사대부들의 문화적 취향과 유희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생활 소유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다사의 성향은 유구의 작은 아버지인 흥원자 서노수의 문예 취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⁸⁸⁾ <지북제 시도기>는 1787년 유구가 작은 아버지가 경영하였던 정원의 정경을 표현한 것으로 당시 문예적 취향을 반영한 생활상을 묘사하고 있다. 고동 감상의 품목 중 찻사발에 대한 언급 및 묘사는 감상 대상물로서의 인식 뿐 만 아니라 동시에 실제 다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구로서의 가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 가능성 또한 이 집안의 다풍과 다력으로 충분히 미루어 짐작되는 부분이다.

4) 丁若鏞 가문

정약용 - 학연(學淵, 1783~1859) · 학유(學遊, 1786~1855) - 대림(大林, 1807~1895)

87) 안대회 옮김, 『산수간에 집을 짓고』, 돌베개, 2005, 90~91쪽.

88) 본서 제Ⅱ장 제4절의 3) ‘好古’ 취향의 高潮, 주)58 인용자료(서유구, 『楓石鼓篋集』권2, <池北題詩圖記>).

다산 정약용가의 다력은 조선 후기 차문화의 중흥 배경과 그 맥을 같이 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약용의 차생활의 시작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는 아버지 정재원의 지방 부임지에서 확인된다. 1777년 정약용은 화순현감으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갔다가 중형(仲兄)인 정약전과 화순현 만연리에 있던 동림사에서 40일 정도 머물게 된다. 이때 지은 시 가운데 <등성주암(登聖住菴)>를 살펴보면 음다한 시구를 읽을 수 있다.

側徑緣蒼磴 비탈진 푸른 돌길 타고 오르니
 禪樓寄碧巒 산봉우리에 붙어 있구나.
 衣巾行樹抄 의관은 나뭇가지 스쳐 지나고
 咳唾落雲端 뱉은 침 구름 끝에 떨어지누나.
 的歷川華動 냇물 빛 선명하게 일렁거리고
 縈廻地脈蟠 땅줄기 얼키설키 서려 있다.
 茶湯未解渴 끓인 차물 목마름 풀지 못하여
 重試石泉寒 차가운 웅달샘을 거듭 시험해 보네.⁸⁹⁾

이어 1780년 예천군수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갔던 시절 지은 <하일지정절구(夏日池亭絕句)>시구 중에는 관현 정자에서 차를 대접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小妓傳茶到竹扉 어린 기생 차를 들고 대사립에 이르르자
 不教環珮入書幃 패옥소리 글 읽는 방 들어오지 않게 하네.
 梨花院裏饒春酒 이화원 그 안에는 봄술이 많이 있어
 時見紅顏帶醉歸 이따금 홍안으로 취기 띠어 돌아오네.⁹⁰⁾

살펴 본 두 시의 존재는 정약용이 20세 이전 지방에서 형과 아버지의 근무처에서 음다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적극적인 다사의 모습은 아니지만 20세 이전 이미 가족이라는 영역 안에서 음다생활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준다. 이후 유배 이전까지 정약용의 다사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의 시는 1782년의 <춘일체천잡시(春日棣泉雜詩)>와 <미천(尾泉)>의 일부로 20세 초반의 다사를 확

89) 정약용, 『與猶堂全書』 시문집 권1, <登聖住菴> (『국역정약용시문집』, 민족문화추진회, 1994, 49-50쪽)

90) 『與猶堂全書』 시문집 권1, <夏日池亭絕句>

인해주는 언급 부분만을 살펴본다.

鴉谷新茶始展旗 백아곡의 새 차가 새잎을 막 펼치니
一包纔得里人貽 마을 사람 내게 주어 한 포 겨우 얻었네.
棣泉水品淸何似 체천의 물맛은 맑기가 어떠한가
閒就銀瓶小試之 은병에 길어다가 조금 시험해본다네.⁹¹⁾

玉甃溢兮終古流 옥 같은 샘이 솟아 천고에 흐르니
瓊漿挹兮爽咽喉 맑은 약수 떠 마시매 목구멍이 상쾌하다.
爲試龍團治癖疾 용단차에 시험하여 목은 병을 치료하니
瑩如水淸甘如蜜 투명하기는 수정이요, 달기는 꿀맛일세.
陸羽若來何處尋 육우가 만일 온다면 어디에서 샘 찾을까?
員嶠之東鶴嶺南 원교의 동쪽이요, 학령의 남쪽일세.⁹²⁾

위 두 시는 모두 차와 수품과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이로 볼 때 20세 초반의 정약용은 이미 차에 대해 이론적, 품평적으로 상당한 경지에 올라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유배지 강진에서의 차생활은 특히 제다법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본인이 직접 제다한 차를 선물하거나 제자 및 교유 인물 중 차를 만드는 이들에게 본인의 다사경험과 전문지식을 접목시킨 제다법(製茶法)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정약용의 제다법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이다.

(A) 培曬須如法 모름지기 찌고 말림 법대로 해야
浸漬色方滢 우렸을 때 빛깔이 해맑으리라.⁹³⁾

(B) 洩過茶經九蒸曝 맛은 알맞게 하려고 차는 구증구포를 하고
厭煩鷄畜一雄雌 많은 것이 귀찮아 닭은 한 쌍만 기른다네.⁹⁴⁾

(C) 곡우일에 여린 잎을 따서 뒤어 1근을 만든다. 입하 전에 늦차를 따서 떡차 2근을 만든다.⁹⁵⁾

91) 『與猶堂全書』 시문집 권1, <春日棣泉雜詩>

92) 『與猶堂全書』 시문집 권1, <尾泉>

93) 『與猶堂全書』 시문집 권5, <寄贈惠藏上人乞茗>

94) <次韻范石湖 丙午書懷十首簡寄淞翁> (국역 다산시문집 제 6권)

95) <茶信契節目> “穀雨之日, 取嫩茶, 焙作一斤, 立夏之前, 取晚茶, 作餅二斤, 右葉茶一斤, 餅

(D) 이제 꼭우 때가 되었으니, 보내 주기 바라네. 다만 지난번 부친 떡차는 가루가 거칠어 썩 좋지가 않더군. 모름지기 세 번 찌고 세 번 말려 아주 곱게 빻아야 할 걸세. 또 반드시 들샘 물로 고루 반죽해서 진흙처럼 짓이겨 작은 떡으로 만든 뒤라야 찰져서 먹을 수가 있다네. 알겠는가? 96)

(A)의 기록은 제다법이 구체적, 실제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정약용이 초당에 정착되기 이전, 즉 강진 유배생활이 다소 불안정했던 시절이어서 구체적인 제다경험이 없었을 것이며 서적이나 품다를 통해서 경험된 충고를 하는 정도로만 가늠된다. 이후 해배되기까지 정약용은 주변 제자들과 자급자족 형태의 차를 만들고 그 방법적인 면을 가르쳤던 것으로 보인다. 다신계(茶信契)의 절목을 살펴보면 그 자세함이 증명된다.

해배 이후 십여 년이 지난 뒤에도 정약용은 강진에 거주하는 제자들에게 차를 공급받았으며, 이를 품다하고 제다에 대한 조언을 지속했던 것을 (D)의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D)의 세밀한 제다방법 묘사로 볼 때 정약용의 제다법은 단순히 이론적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해 온 경험이 없어진 결과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제다의 경험은 유배 이전의 서울 생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점으로 기존 차생산지였던 강진지역에 유배됨으로써 가능했던 배경이기도 하였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 초기시절 차를 다른 이들에게 구하는 일도 많았지만 손수 만들어 자급자족뿐만 아니라 선물한 경우도 있었음이 확인된다. 하나는 1815년 3월 10일에 호의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 “떡차 열 덩이로 애오라지 늙은이의 마음을 표시하네”(茶餅十錠 聊表老懷)라고 하여 본인이 손수 만들어 보냄을 표하고 있다. 둘은 1816년 우이도에 보낸 편지로 “다병오십송료”(茶餅五十送了)라 하여 떡차 오십 개를 보낸다고 하였다. 이는 다른 곳에서 구한 것을 보낼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지만 당시 정황상 본인이 직접 관여한 제다가 아니라면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증구포(九蒸九曝)’와 ‘삼증삼쇄(三蒸三晒)’로 요약되는 정약용의 떡차 제다에 대해서는 이규경과, 이유원에 의해서도 소개되었다.

茶二斤，與詩札同封.” (정민, 앞의 책, 125쪽.)
96) 1830년 3월 강진 백운동에 살던 제자 이시현에게 보낸 편지 中(정민, 위의 책, 120쪽.)

(A) 다산 정약용이 귀양 가 있을 때, 찌서 불에 말려 덩이를 지어 작은 떡으로 만들게 하고 만불차라 이름 지었다.⁹⁷⁾

(B) 강진 보림사의 죽전차는 열수 정약용이 얻었다. 절의 승려들에게 구증구포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었다. 그 품질이 보이차에 밀리지 않는다. 곡우 전에 판 것을 더욱 귀하게 치니, 이를 일러 우전차라 해도 괜찮다.⁹⁸⁾

(C) 보림사는 강진 고을 자리 잡고 있으니, …… 어찌다 온 해박한 정열수 선생께서 절 중에게 가르쳐서 바늘 싹을 골랐다네. 천 가닥 가지마다 머리카락 엷짜인듯 한 줌 쥐면 움큼마다 가는 줄이 영켰구나. 구증구포 옛 법 따라 안배하여 법제하니 구리 시루 대소쿠리 번갈아서 방아 쪼네. 천축국 부처님은 아홉 번 정히 몸 씻었고 천태산 마고선녀 아홉 번 단약을 단련했지.⁹⁹⁾

정약용의 제다법은 강진현 주변의 차를 만드는 사찰에 권고되었고, 차를 애호하는 한양인들에게 관심,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약용의 강진 유배 생활에서의 다사 중 제다 관련한 가내 다풍은 유배기간 함께 한 소실 정씨와 그 소생 홍임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해배이후 강진 초당에서 해마다 차잎이 새로 돌아나면 따서 정성스럽게 차를 제조해서 정약용이 있던 경기도 마현으로 보내드렸다고 한다(정민, 2011: 171-172). 이로 볼 때 유배시절 정약용의 제다법에 노출, 동참했을 정씨가 이를 본받아 제다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약용의 큰 아들 정학연의 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 한편을 살펴본다.

卯醒仍帶午眠遲 간밤 숙취 깨질 않아 낮잠이 늘어지다
石炭微烘蟹眼奇 석탄 살짝 지피니 해안이 기이하다.
水味堪羞惠山澗 물 맛은 혜산천에 부끄럽다 할 만하나
木癭不讓越州瓷 목영은 월주자만 못하지 않다네.
膽澆司馬相如渴 사마상여 갈증이야 적셔주기 너끈해도

97) 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 <茶茶辨證> “丁茶山若鏞謫居時, 教以蒸焙爲團, 作小餅子, 名萬佛茶而已.”

98) 이유원, 『林下筆記』, <湖南四種> “康津普林寺竹田茶, 丁洙水若鏞得之, 教寺僧以九蒸九曝之法, 其品不下普洱茶, 而穀雨前所採尤貴, 謂之以雨前茶可也.”

99) 이유원, 『嘉梧叢略』, <竹露茶> “普林寺在康津縣, …… 何來博物丁洙水, 教他寺僧芽針選. 千莖種種交織髮, 一掬團團縈細線. 蒸九曝九按古法, 銅甌竹篩替相碾. 天竺佛尊肉九淨, 天台仙姑丹九煉.”

難求東方曼倩飢 동방삭 굶주림은 구하기가 어려워라.
 喫菜枯腸何用飲 채식 하던 마른 장에 어이 차를 마시라만
 閒中聊作澹生涯 한가한 중 담박한 생애를 지어보네.¹⁰⁰⁾

<전다(煎茶)>라는 제목의 이 시는 1805년 지은 시로 학연의 20세 초반의 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탕변과 수품에 대한 언급, 그리고 차의 효능에 대한 인식들로 볼 때 학연 또한 상당한 다력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이때는 학연의 나이 20세 초반으로 당시 정약용은 강진 유배 초기였다. 이후 학연이 아버지를 뒤흔 강진에 간 경우에도 아버지의 적극적인 다사에 노출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미 20세 이전 집안의 다풍에 충분히 노출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학연의 아들 대림 또한 집안의 다사에 일찍이 노출되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정약용이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손자 대림은 10대였다. 이때 강진의 차가 해마다 마현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집안의 다양한 인적 관계망을 통해 태생적으로 다사 경험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집안 내 다사가 일찍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림이 대둔사 호의스님에게 보낸 편지 중에는 “매번 중부(中孚)의 선인장차 고사를 생각할 때마다 저도 몰래 기이하다고 외치며, 마음에 품어두곤 합니다”라는 구절과 “보내주신 차와 동백기름은 전처럼 당상(堂上)께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로 볼 때 대림 또한 차 관련한 고사 전거까지 기술할 정도로 차에 관한 학적 경향이 있었다. 집안에는 강진지역 이외에도 대둔사에서 차가 이어져 선사되어 태생적으로 집안 환경이 차를 마실 수 있는 기본적 틀이 갖추어져 있음을 시사해준다 하겠다.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다사 대내적 기반 중 가전 다풍을 고찰하기 위하여 대표적 네 집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네 집안의 다풍은 각기 다른 특징의 다사를 보이면서도 배경적으로는 몇 가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앞서 대외적 기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 집안 모두 집안 식구 또는 친밀하게 지내는 교유인물이 사행 경험이 있는 자로 다사를 행하는데 있어 대외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의 집안이었다는 점이다. 김상용가와 홍인모가, 서유구가는 그 일원이 명과 청의 사행 경험이 있었으며, 정약용가는 맺고 있는 인

100) 정학연, 『三倉館集』, <煎茶> (정민, 앞의 책, 485쪽.)

적 교유망으로 볼 때 사행경험을 가진 이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 즉 대외적 차문화에 노출 기회가 있었던 이들과의 관계는 대내적 다사 향유의 물적 기반인 차와 기물, 그리고 관련 서적들을 어느 누구보다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둘째, 거론된 집안 중 정약용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대 경화세족으로 경제적, 정치적으로 보다 안정된 생활권 위에서 품격있는 문예적 생활을 집안 내에서 영위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장서각의 보유는 네 집안의 다사성향에 학적 경향을 불어넣어 전문적 다사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는 음다에 있어 ‘일상 다반사’라 할 만큼 자연스런 다사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정된 자료 안에서 3대 이상의 다사를 확인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나 살펴 본 네 집안경우는 3대 이상 음다와 다사의 기록이 확인된다. 이는 격대교육 현장인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혼습된 취미이자 습관이었기에 일상적인 다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2. 동호인 집단의 차문화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 등 제반 환경적 변화는 지식인들의 삶의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문예와 관련하여 지식인들의 심미적 취향의 확산과 여가를 즐기는 풍조는 사대부, 중인계층은 물론이고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그 저변이 크게 넓혀지는 양상을 띠었다. 이러한 다양한 층위의 지식인들에게 당대의 문예적 취향과 유희가 확산되게 된 배경에는 동호인 성격의 집단형성과 집단적 향유가 자리한다.

동호인 집단의 저력을 바탕으로 전개된 지식인들의 문화활동은 조선 후기 문화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난숙한 문화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기반을 이루었다. 후기 지식인들은 동호인 성격의 모임을 통해 즐기는 문화를 교섭, 공유하면서 연대의식을 강화해 나갔다. 당시 ‘시회’, ‘시사’, ‘계’ ‘아회’는 이러한 문예 동호인 성격의 집단 모임을 이른다. 이들 집단 모임에 대해 권석환(2006:143)은 시사와 음사는 아회처럼 문사들의 모임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의미이지만 ‘아회’보다는 규모가 크고 조직화 된 상태가 시사라고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 모임을 크게 ‘아회’로 본 송희경(2004: 26)은 아회에 대해 ‘시문 풍류에 치중한 비공식적인 사

회(私會)로 자발적, 풍류적 성격을 띠고 있되, 참석자들이 대화를 비롯한 작시, 탄금, 위기, 서화 제작과 감상, 전다, 음주 등의 행위를 하는 모임이다'라고 하였다.

심경호(1998: 235)는 후기 시회의 특징에 대해 '우호적 친선관계의 유지라는 측면과 함께, 여류시인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금의 사적을 담론함으로써 시사(時事)를 논하는 기능도 수반하였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사대부나 여향인의 시사 및 소회는 악회(樂會)를 겸하거나, 서화의 감평회를 겸하여 문인 취향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살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조선시대 지식인들에게 '집단모임'은 단순한 친목의 범위를 넘어 학문과 정치, 사상을 공유하며 문화적 활동 등을 공유, 유희하는 중요한 공간이자 관계망이었던 것이다.

시사를 비롯한 아회라는 지식인 집단 모임에서의 문화 활동 내용은 답소와 시를 짓고 서화를 제작하며 이를 감상하는 것, 거문고 연주와 같은 음악 활동, 바둑, 술, 그리고 차를 다리고 마시는 다사활동 등으로 대표된다. 중국적으로 이들은 모임 내에서의 활동들을 통해 보다 동호인들 간의 우호적 교류관계 형성과 유지를 도모하였다. 이들은 모임을 자연스런 시사 발언 기회의 장이자 문화 활동의 유희를 통해 내재적 희(喜)·노(怒)·애(愛)·락(樂)을 표현하는 장으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사적 집단모임의 양상은 본질적으론 문학을 통한 교류의 장이었지만 현상학적으로 종합문화를 배경으로 한 지식인들의 유희적 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집단 모임에서 함께 공유되던 문화 활동들의 내용과 경향, 정서적 배경들을 살펴보면 오늘날 종합문화로서의 차문화 전형을 유추할 수 있다. 다시(茶詩)·다담(茶談)·다화(茶花)·다화(茶畵)·다악(茶樂) 등의 영역은 이러한 전형에서 파생된 어울림이다. 다사는 이들 각 영역의 활동들 즉 시를 짓고, 그림, 음악 등을 잘 감상할 수 있게 하는 정서적 배경이었다. 또한 이 문예활동 주체자들이 동경의 대상으로 삼았던 선인 문인이 구가하던 탈속적 문예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장에서는 집단모임의 성격을 정기적 모임성격의 시사와 부정기적 모임 성격의 아회로 대별하여 그 구성원의 다사 기록과 다사를 담고 있는 아회 기록 등을 살펴 특징들을 도출한다. 또한 이러한 후기 지식인들의 다사 집단 향유가 다사경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1) 詩社

조선 후기 경제적, 사회적 안정 속에 지식인들의 여가를 즐기는 문예적 취향의 진작(振作)은 서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상업유통의 중심지였던 서울은 특히 집단 모임이 문화 활동을 전개하는데 적합한 곳이었다.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초반에 걸쳐서는 기호(畿湖) 지방에도 여러 시사가 결성되었고, 이들 시사의 구성원은 다양한 층위의 신분들로 구성되기도 하였다.

심경호(1998: 102)는 시회활동을 통하여 당색과 신분의 제한을 넘어선 시봉(詩朋) 그룹의 형성에 대하여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 평가하고 있다. 그 중 연암(燕巖)그룹의 시회인 백담시회(白塔詩會)는 도심에 거주하는 노론계의 인물뿐만 아니라 남인과 소북, 서출이나 중인층의 문인들까지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동호인 집단으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하였다. 그 대표적 시사를 중심으로 다사관련 기록을 살펴 집단모임에서의 다사 경향과 특징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1) 玉溪社 · 松石園詩社

대표적 시사 모임 중 옥계시사의 결성과정을 통해 모임의 성격을 살펴본다. 1786년 7월 16일에 임득명(林得明, 1767~?)이 지은 옥계사 수계첩 서문에는 ‘옥류동 청풍정사에 모여 수계를 행하고는 밤늦도록 소나무 사이에 둘러앉아서 거문고와 술을 즐기다가 마음이 같고, 덕이 같은 벗들끼리 정기적으로 만나자는 약속을 했다’고 적고 있다. 또한 그들의 정관에서 옥계시사가 진나라 왕희지의 난정수계(蘭亭修禊)를 본뜬 문학적 모임이자 계의 성격을 살려 기금을 모으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한 모임으로 규정하고 있다(허경진, 1992: 127-149). 이는 옥계시사의 모임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시사 및 집단모임의 대략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들 모임의 성격은 정기적 문학 동호회이자 동시에 서로 애경사(哀慶事)를 함께 공유하는 신의로 맺어진 친목 모임이었던 것이다. 또한 옥계시사의 정관 중 “우리 동인들이 정원에서 모이는 모습이나 산수 속에서 노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내어 이야깃거리로 삼는다”라는 범례 내용으로 볼 때 동인모임에서의 문화행위들이 그림과 화제를 통해 충분히 드러나고 있

음도 확인된다.

장훈의 <옥계산방다회 용유수주운(玉磬山房茶會 用劉隨州韻)>에는 옥계시사 구성원과 관련한 다사가 확인된다.

鄰曲既相近	이웃 사람들 너무 친해
無事日來會	일 없이도 날마다 모이네.
小廬居且幽	작은 초가는 자리가 아늑하여
左右溪山對	좌우로 시내와 산을 마주했네.
春天氣漸和	봄 날씨는 점점 화창해지고
群物自生態	만물은 절로 생기가 넘치노라.
顧此愜心賞	이를 바라보매 마음 상쾌하여
良謔笑撫背	농담하고 웃으며 등을 쓰다듬네.
禽鳥聚儔侶	새들은 짝을 지어 모이고
林木起香靄	숲에선 차 연기 이네.
雖在城闌裏	몸은 성문 안에 있다지만
意出紅塵外	마음은 속세 밖에 노닌다고.
樂哉何所憂	즐거워라, 무엇이 걱정인가
貧賤固分內	청빈이 바로 내 분수인걸.
飲茶一兩椀	한두 잔 차를 마시고 나니
胸中破悶礙	가슴 속 번민 사라지누나. ¹⁰¹⁾

이 시를 통해서도 시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옥계산방에서 열린 음다를 중심으로 한 모임이라는 것에 보다 주목된다. 시사라는 정규적인 모임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자연스러운 친교의 자리가 수시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옥계산방이라는 탈속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한 차모임은 이들이 비록 성시에 몸을 담고 있지만 청한한 일상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시된다.

송석원시사는 옥계시사를 잇는 시사로 천수경(千壽慶, ?~1818)의 송석원에서 모인 1793년부터 1818년까지의 모임을 이른다. 송석원시사는 시회의 개최나 시축(詩軸), 시첩(試帖)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 활동으로, 많은 평민시인들이 참여하였다고 한다(허경진, 1990: 35-39). 시회를 열면 언제나 술이 뒤따랐고 일반적으로 다사가 행해짐이 이 모임 동인들의 몇몇 기록에서 확인된다. 특히 송석원 안에

101) 張混, 『而已廣集』 권1, <玉磬山房茶會 用劉隨州韻>

있던 우혜천(又惠泉)은 다사의 배경으로서 충분조건을 형성하였다. ‘우혜천’이란 이름은, 추사 김정희가 송석원 안의 샘물을 마시고 그 맛이 달자 이천(異泉)이라고 하고, 유백추가 논한 수품을 들어 우혜천이라 명명하고 돌벽 위에 세 글자를 새겼다고 한다(김명배, 1999:255). 시사의 장소가 되는 배경에 다사에 도움이 되는 명천(名泉)이 함께한다는 것은 차를 즐기고 음미하는데 있어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구성물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사의 동인 박윤묵(朴允默, 1771~1849)은 송석원의 정취와 다사의 모습을 <송석원소음(松石園小飲)>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入園自愛好風俱	송석원 들어서자 좋은 풍경 보니 사랑스럽건만
復有山光暎據梧	거기다 산의 빛깔 안석에까지 비추인다.
紅桂巖邊苔徑細	붉은 계수나무 바윗가에 이끼 낀 길 가늘고
靑松樹裏艸堂孤	푸른 솔숲에는 초당이 외롭구나.
折葵雨濕連雲圃	해바라기 비에 젖어 구름에 닿아있고
煮茗煙生枕澗廚	차를 끓이는 연기 시냇가에 피어오른다.
百轉黃鸝聽不厭	피꼬리 지저귀어 아무리 들어도 싫지 않으니
明朝携酒再來無	내일 아침 술을 가지고 다시 찾아올까나. ¹⁰²⁾

또한 <우혜천 병소서(又惠泉并小序)>에서는 송석원의 우혜천 부근에 오정(鰲井)과 미암(眉巖)이라는 명천(名泉)있고 매번 소나무 밑의 숲에서 차를 달여서 번민을 풀었다고 하였다.¹⁰³⁾ 이와 같이 송석원시사의 일원들은 공간적 배경으로서 다사를 함께 하기에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기에 매번 모임 때 다사를 더욱 용이하게 행할 수 있었다. 이들 중서층(中庶層)을 중심으로 한 모임의 성격이 반영된 다사의 특징은 앞서 살펴 본 장혼의 시와 박윤묵의 글에서 표현된다. 이들 모임에서의 음다는 태생적인 한계인 신분에 대한 억눌림을 상쇄시키는 공감의 음료를 함께 하는 것이었다. 또한 시작 등의 문예활동에 유용한 정서적 배경이었다. ‘차를 달여 번민을 풀었다’라는 표현과 ‘차를 마시니 가슴 속 번민이 사라졌다’라는 표현으로 볼 때 전다와 음다를 통해 이들은 태생적, 일상적 감정을 조절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중서층 중심의 사회에서 다사는 이들 사회에서 항상 등장하는

102) 朴允默, 『存齋集』 권3, <松石園小飲>

103) 朴允默, 『存齋集』 권4, <又惠泉并小序> “鰲井眉巖皆附近名泉, ……每支松下鼎, 烹茶解悶蹙.”

음주 경우처럼 풍류를 즐기기 위한 측면과 그들 신분의 한계와 차별을 잇기 위해 이용된 측면이 함께 공존한다 할 것이다.

송석원시사에서의 다사는 이상정(李象靖, 1711~1781)의 <송석원(松石園)>에서도 확인된다. “그때 동산에 하인을 보내어 찻싹을 멧돌에 갈았다”(時遣園僮碾茗芽)¹⁰⁴ 라고 읊고 있어 송석원이라는 공간에서 시사 모임 때 다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시사의 일원인 조수삼(趙秀三, 1762~1849)의 다음의 시는 시사 동인들과의 공간적 제약 없이 다사를 즐겼던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茶竈詩卷童子背 다조와 시권은 동자에게 지게하고
 琴囊碁局驪兒載 거문고와 바둑판은 망아지에 실었네.
 樓雲古寺松林內 구름 서린 옛 산사는 솔숲에 있고
 石上凍泉鳴環佩 바위 옆 시린 샘은 물소리 명랑해라.
 日攬淸暉融肝肺 눈부신 맑은 햇살 가슴을 녹이니
 一朝澄澈無塵穢 하루아침에 맑아져 속세의 때가 없구나.
 同遊何惜月一再 한 달에 한두 번 유람을 주저할 것 있으랴
 愛莫如茲山水愛 사랑이란 산수사랑만 한 게 없는 법인데.¹⁰⁵

시사동인끼리의 산사 유람 때 다조를 휴대하였다는 점은 그들 모임의 다사의 일상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애호되었던 산수유람 취미를 배경으로 한 집단모임에서의 유희적 성격의 다사를 확인시켜 준다. 유람 길에도 휴대되었던 거문고와 바둑판은 집단 모임에서 함께 향유되었던 문화적 행위들의 일 단이라 할 것이다.

(2) 연암그룹의 白塔詩社(1760~1768)

백담시사는 노론계의 문인 연암 박지원과 홍대용을 중심으로 남인과 소북, 서출이나 중인층의 문인들까지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동호인 집단이다. 서울의 백담을 중심으로 활발한 문화활동을 전개한 연암그룹의 백담시회 지식인들의 성향은 당시 양반 사대부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이들은 당과의 당세를 이용하여

104) 李象靖, 『太山詩鈔』, <松石園>

105) 趙秀三, 『秋齋集』 권2, <邀同社遊山寺> (송재소 외, 『한국의 차문화 천년 1』, 돌베개, 2009, 68-69쪽)

명(名)·리(利)·세(勢)를 좇기보다는 서로의 학문과 예술의 세계를 공감하고 유희하는 동지적 결속을 이루었다.¹⁰⁶⁾

연암 박지원은 이덕무·유득공·박제가·서상수·이희경·이희명·이공무·김용행·김용겸 등과 시주(詩酒)를 즐겼으며 그룹의 문인들은 악기를 잘 다루어 악회를 자주 가졌다(심경호, 1998: 169-170). 이 그룹의 모임성격은 일원인 박제가의 <혼혼정 이수(混混亭二首)> 시에서 엿볼 수 있다.

莫交行樂妨烏紗 행락 즐김 벼슬길에 방해 받지 말지니
看取爲園髮已華 동산에서 구경타가 터럭은 이미 췌네.
屋後陰成遮路樹 길 막은 나무는 집 뒤에 그늘 주고
山中開遍待人花 날 기다려 꽃들은 산속에 활짝 폈다.
欣然就水頻欹枕 흔연히 물가 나가 자주 기대 잠자다가
便欲携爐自煮茶 문득 화로 가져다가 내가 차를 끓이네.
雅集如今輸我輩 오늘 같은 아름다운 모임 우리들이 다 누리니
傍人錯道晉卿家 진나라 귀족이라 옆 사람들 말들 하네. ¹⁰⁷⁾

혼혼정에 모여서 자연을 즐기며 어디에도 걸림 없이 소요하는 모임 구성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거기에 다사까지 행해지니 아취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모임을 이루어감을 읊고 있다. 반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다사가 사치스럽게 비치고 있음도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들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모임엔 다사가 항상 등장하여 명음(茗飲)의 취미를 공유하고 있음이 다음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 더욱 마시고 크게 취해서 운종교를 걸으며 난간에 기대니 지난날 상원일 밤에(6년 전 대보름 밤), 연옥이 이 다리 위에서 춤을 추었고 백석(이홍유)의 집에 가서 차를 마신 일과 혜풍이 거위 목을 하고 돌며 종북처럼 하여 웃기던 일이 생각난다.¹⁰⁸⁾

106) 오수경, 「18세기 서울 문인지식층의 성향: 연암그룹에 관한 연구의 일단」,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11쪽 참조.

107) 박제가, 『貞蕤閣集』, <混混亭 二首>

108) 박지원, 『燕巖集』 권10 별집, <醉踏雲從橋記> “益飲大醉，踏雲從橋，倚闌干語曩時，上元夜蓮玉舞此橋上，飲茗白石家，惠風戲曳鵝頸數匝，分付如僕隸狀，以爲笑樂。”

月落簫腔變 달 지자 통소 가락 바뀌더니만
 秋燈一豆靑 콩알 같은 가을 등불 푸르기만 해.
 蕭蕭移酒颿 술 실은 배 쓸쓸히 옮기어 가니
 脈脈動詩星 시성은 쉬지 않고 움직이누나.
 菊綻離騷譜 『이소보』에 실려 있는 국화가 피고
 茶鳴陸羽經 『다경』에서 말한 대로 차를 끓이네.
 興闌嫌畫閣 흥이 무르익자 화각이 싫증이 나서
 携手且巡庭 손잡고 뜰 주변을 거닐어 보네.¹⁰⁹⁾

시사 구성원들 간의 친소와 낭만성을 보여주는 정감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윗글을 통해 이들 모임 안에서의 다사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다. 위 글과 시는 다사에 있어서 성격이 다른 성향을 보여준다. 박지원의 글에서는 대보름날 백석의 집에서 차를 마신이야기를 담고 있어 매우 일상적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박제가의 시문에서는 백석, 경산과 함께 밤에 차를 달이는데 육우의 『다경』에서 말한 대로 ‘달인다’고 표현하여 다사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실제에 적용하는 실험성을 아울러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다사와 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음악, 시작, 꽃 감상의 활동들도 확인된다. 이러한 내용들로 볼 때 정기적 시사 자리가 아닌 소규모의 구성원들끼리의 만남에서도 다사가 늘 함께 함을 알 수 있다.

이들 구성원들 중 서상수(徐常修, 1735~1793)는 풍류생활과 서화고동의 감식안이 뛰어났으며 차에도 조예가 깊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박지원은 서상수의 문화 예술인의 면모에 대해 “여오는 천성이 총명하고 지혜로워 문장에 능하고 작은 글씨의 해서도 잘 쓰며, 아울러 소미(小米)의 발묵법도 잘 구사한 데다 음율에도 박통하였다. 봄가을 한가한 날이면 뜰에 물을 뿌려 깨끗이 소제한 뒤 향을 사르며 차 맛을 품평하곤 하였다”¹¹⁰⁾고 표현하였다. 유금은 『사가시집(四家詩集)』 <초정(楚亭)>조 주(註)에서 “관헌은 이름이 상수이고 자는 여오이며, 감상을 잘했는데, 춘추가일(春秋暇日)에 차를 마시고 그림을 보면서 즐겼다.¹¹¹⁾”라고 하였다. 특히 그의 서루(書樓)인 관재(觀齋)는 연암그룹 구성원들이 주로 만나는 교유의 장이었음이 확인된다.

109) 박제가, 『貞蕤閣集』, <夜讌京山白石夜讌京山白石>

110) 박지원, 『燕巖集』 권3, <筆洗說>“汝五性聰慧, 能文章工小楷, 兼善小米潑墨之法, 旁通律呂. 春秋暇日, 汎掃庭宇, 焚香品茗.”

111) 『四家詩集』, <楚亭>條

- (A) 淪茶司僕井 사복시의 우물물로 차를 달이니
 銖兩抵南零 가치로는 남령에 버금가노라.¹¹²⁾
- (B) 倚君青玉案 청옥 서안에 그대와 마주 앉아
 茗飲話俱長 차 마시노라니 담화도 길어지네.

 忽若遊方外 문득 선경에 노니는 듯
 形骸澹自忘 몸은 어느덧 몰아를 잊노라.¹¹³⁾
- (C) 月下松門人盡白 달빛 아래 송문엔 사람들 온통 희고
 雪邊書屋燭微紅 눈 내린 서옥에는 붉은 등불 희미해라.
 三更頰影留殘醉 삼경에도 두 뺨엔 취기가 남아 있고
 一枕茶漚響遠風 베갯머리 찻주전자 바람 소리 울리누나.¹¹⁴⁾

위 세 편의 시의 배경은 시제에서 확인되듯이 관재이다. 문화적 면모가 뛰어났던 서상수의 관재는 연암그룹 구성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이자 다사의 현장이었다. (A)의 시는 이덕무가 관재에서 서상수와 윤가기, 유득공과 함께 차를 마시며 수품에 대해 논하는 장면을 읊고 있다. 이들 모임에서 시제로 다사가 등장할 정도로 일상적 음다는 물론이거니와 다사의 전문적 지식 또한 이들 교유의 화제로 등장할 만큼 집단모임의 중요한 취미였음을 알 수 있다.

연암그룹 구성원들의 특징 중에는 서출출신이 많았다는 점과 사행의 경험을 가진 자가 다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모임의 문화 활동 또한 서출이라는 신분적 질곡을 예술방면에 보다 심취하게 하여 신분적, 현실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이용되는 성향을 읽을 수 있다. 특히 차는 술과 더불어 이들 모임에 필수적으로 동반되어 상심된 마음을 위로하고 울분을 해소시켜주었다. 나아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에 윤향유와 같은 역할과 운치 있는 배경을 마련해줌을 (B)와 (C)시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집단모임에서 차의 효용성을 (B)시문의 ‘차를 마시노라니 담화도 길어지네(茗飲話俱長)’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차가 대인관계에서 대화의 지속력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이자 화제임을 알 수 있다.

112) 이덕무, 『아정유고』 권1, <觀齋茗飲 與尹曾若柳惠甫 共賦>

113) 이덕무, 『아정유고』 권1, <觀軒茗飲>

114) 박제가, 『정유각집』, <元夕集觀齋次元詩 二首>

(3) 碧梧社

19세기의 대표적인 시사로서 유최진(柳最鎭, 1791~1869)을 비롯하여 이기복(李基福, 1783~1863), 유재소(劉在韶, 1839~1911), 유숙(劉淑, 1827~1873), 유학영(柳學永), 유상(柳湘), 조희룡(趙熙龍, 1780~1866), 오창렬(吳昌烈), 정지윤(鄭芝潤, 1808~1858), 나기(羅岐, 1825~1854), 전기(田琦, 1825~1854) 등이 벽오사의 핵심 구성원으로 추정된다. 유최진 문집 『병음시초(病吟詩艸)』, <벽오사약(碧梧社約)>은 1837년 지은 글로, 벽오사를 결성하게 된 취지와 규약 등이 기술되어 있어 이 모임의 문화 활동 내역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서문에서는 병 때문에 친구들 모임에 참석지 못하고 친구들이 유최진의 집에 모여들다가, 옛 시인들이 시사를 결성했던 뜻에 따라 벽오사를 조직한다고 했다. 옛사람들의 진솔한 뜻을 본받아 몇 가지 조약을 정했는데, “사철의 아름다운 날을 가려 모인다”, “밥은 소채를 넘지 않고, 술은 세 순배를 넘기지 않으며, 안주는 세 가지를 넘지 않고, 차는 계산에 넣지 않는다.”, “마음대로 책을 읽고, 흥이 나는 대로 시를 읊으며, 한계를 두지는 않는다”¹¹⁵⁾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벽오사의 조약을 통해 이 모임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유흥성의 모임이 아니라 옛 선인의 진정한 시사취지를 살린 모임이었음이 확인된다. 시사 자리에 음식 숫자는 제한하되 시작(詩作)과 관련한 내용은 제한을 두지 않는 점은 이들 모임의 정체성을 더욱 뚜렷이 나타내준다. 특히 ‘차를 계산에 넣지 않는다’는 조약을 통해 19세기 조선사회의 시사에서 다사가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규약이 반영된 실제의 벽오사 동인들의 모임 모습은 유숙(劉淑, 1827~1873)의 『오로회첩(五老會帖)』, <벽오사소집도(碧梧社小集圖)>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차를 끓이는 시동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어 시사에서의 다사를 재확인시킨다. 다만 이 화면에 등장하는 차를 끓이는 시동의 모습을 비롯한 각 인물상이 조선 19세기의 인물이라기보다 중국고사를 연상하게 하는 고전상의 모습이어서 자못 실제적 시사에서의 전다모습이라고 주장하기는 부족하다. 그러나 송희경(2004 b: 217-218)의 해석처럼 이상적인 인물상으로 묘사한 배경이 고사를 본받고자 하는 오로회의 정체성에 중점을 둔다면 인물들이 행하고 있던 문예적

115) 허경진, “조선 후기 신지식인 한양의 中人들(35): 조희룡이 만든 중인 문학동인 ‘벽오사’”, 기획연재, 《서울신문》, 2007. 8. 27, 14면.

활동들의 실제여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이기복이 이 그림을 설명한 기록인 <벽오사소집도 병서(碧梧社小集圖並序)>를 통해서도 실제적 인물 하나하나의 행위들이 글로 묘사되고 있어 시사에서 다사가 행해진 사실을 뒷받침한다.

(4) 斗陵詩社

1830년대에 성황을 이룬 이 시사에는 정학연 형제, 박영보, 홍길주와 홍현주 형제, 홍희인과 홍성모 부자, 윤정진, 이명오와 이만용 부자, 자하 신위 등이 참여하였다. 이들 동인들 경우 개별적 다사의 모습뿐만 아니라 동인들 간의 모임에 일상적인 모습의 다사가 표현되고 있어 당시 시사 자리에 음다가 보편화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 일례로 홍현주의 1829년 정약용의 아들 정학연과 이만용이 밤중에 자신의 집에 들렀을 때 지은 시, 두 수 중 첫 수인 <유산동변야과수부(西山東樊夜過遂賦)>의 5, 6구 에는 “손님 붙들어 다구에선 어안에 자잘한데, 추위 막는 매벽에는 표범 무늬 얼룩졌네”¹¹⁶⁾로 표현되었다. 또한 1832년 초당에서 이만용과 이상적을 맞이하여 함께 지은 작품 중 <초당邀東樊李藕船尙迪同作>의 7~8구에는 “향 품평에 차 고르는 생애가 너넢하거늘, 거친 곡식 어이 하여 말과 되를 헤아리랴”¹¹⁷⁾고 하였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동인 모든 구성원이 참여한 시사는 아닐지라도 구성원들과의 만남의 자리에 다사가 일상처럼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홍현주의 시 중에는 ‘명집(茗集)’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긴 제목의 시¹¹⁸⁾와 <초당왕박옹저원공부(草堂枉泊翁樗園共賦)> 제목의 시구 중 “돌술을 새로 장만하니 차 모임이 즐겁고”¹¹⁹⁾라는 표현을 통해 독자적 찾자리 중심의 모임이었음이 확인된다. 특히 ‘명집’과 ‘차사(茶社)’라는 표현에 주목된다. 기존에 ‘다회(茶會)’라는 표현¹²⁰⁾으로 찾자리 모임을 표현한 경우는 있었으나 이와 같은 독자적 찾자리 중심 모임의 표현은 당시 차문화의 발전을 반영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116) 홍현주, 『海居齋未定藁』 권1, <西山東樊夜過遂賦> “留客茶甌魚眼細, 辟寒梅壁豹文斑.”

117) 홍현주, 『海居齋詩鈔』 권2, <草堂邀東樊李藕船尙迪同作> “品香揀茗生涯足, 荒粟何須計斗升.”

118) <海居齋雪夜茗集, 梅花盛開, 客亦舟至. 歎流景之易邁, 欣舊遊之復合, 遂得情字深字, 各一疊. 時椽傍懸玻璃大鏡, 花影更邃, 又賦人字>

119) 홍현주, 『海居齋詩鈔』 권2, <草堂枉泊翁樗園共賦> “石鼎新修茶社喜.”

120) 장훈, 『而已廣集』 권1 <玉磬山房茶會 用劉隨州韻>

1830년 초의가 두릉시사에 참여하게 된 인연은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다사, 나아가 차문화의 중흥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개연성에 대해 정은희(2010: 76)는 결론적으로 19세기는 사대부층인 경화사족과 승려의 교류를 통해 조선의 차로써 차문화 부흥시대를 열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정황은 초의의 『동다송』 서문과 박영보(朴永輔, 1808~1872)의 <남다가(南茶歌)> 그리고 신위의 <남다병서(南茶并序)>에서 확인된다. 초의와 두릉시사 동인들을 비롯한 경화세족들과의 교유의 자리에는 초의가 직접 제다한 차가 동인들과 그와 인연한 이들에게 나누어져 품평되었다. 이는 주로 수입차에 의존하였던 기존의 차소비 경향에서 조선에서 생산, 제다된 동다(東茶)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되었다. 각자 실제 다사경험에서 우러나온 지식과 이론적 차지식들이 집단교류 속에 공유되면서 서로의 일상적 다사 및 이론적 차지식 축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차 관련 전문적 저술이 나오게 되는 동인¹²¹⁾ 또한 이와 같은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초의와 두릉시사 동인들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사찰에서 차를 제다하는 승려와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의 교류 현장에도 확인된다. 차가 서로 다른 신분을 배경으로 한 이들의 문예교류 및 만남의 장에서 소통의 매개 역할을 하면서 조선 후기 지식인들 사이의 ‘망형지교’의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걸다(乞茶)와 사다(謝茶)를 담은 시문이 오가는 배경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특정 시사의 구성원들에 대한 내용이외에도 조선 후기 시사 동인의 다사 모습을 동인의 전별(餞別)자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恐汝臨民猶使酒 당신께서 백성을 다스리며 주정할까 두려워
離筵爲酌小龍團 이별하는 자리에서 소룡단차를 따르다오¹²²⁾.

정약용은 상원의 수령으로 부임하는 죽란시사 동인인 윤지눌(무구)을 축하하고 전별하기 위해 자리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차를 내면서 술의 혼매함을 깨워주는 역할로서의 물질적인 차와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경계로서의 정신적 가치부여

121) 1837년 초의는 진도목관을 지낸 변지화의 주선으로 홍현주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 내용은 바로 동다송을 짓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초의는 “근자에 북산도인의 말씀을 들으니, 茶道에 대해 물으셨다더군요. 마침내 옛 사람에게서 전해오는 뜻에 따라 삼가 <동다행> 한편을 지어 올립니다”라고 적고 있다.

122) 정약용, 『茶山詩文集』 권1, <送尹无咎赴祥原>

의 차를 ‘소룡단차를 따른다’라는 다사행위에 담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술자리에 차가 함께하게 되는 약리적 효능에 대한 설명이자 기존 동인들 간의 모임에서도 일상처럼 다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 문예 동인들 사이의 다사는 그들 사이의 교류현장에서 공간적, 시간적 제약 없이 공유된 소재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雅會

사적 모임 성격의 아회가 빈번해지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행위는 모임의 참여자들에 의해 시문과 그림으로 노출되었다. 특히 아회도(雅會圖)와 그 화제(畫題)를 통해서도 모임의 성격과 내용을 가늠할 수 있다. 여기서 정원 아회 중심으로 살펴보는 배경은 공간적인 면에 있어서 집단모임의 성격을 보다 잘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정원 아회의 확산은 앞서 살펴 본 17세기 후반부터 유입된 명·청 문인문화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시은 생활에 대한 동경과 실체는 시각적으로 정원 아회도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아회도와 이를 보충 설명해주는 아회도 병서(并序) 및 발문(跋文)을 통해 집단 모임 안에서의 전다 및 음다 실재를 고찰한다.

(1) 臥龍庵小集

1744년에 제작된 <와룡암소집도(臥龍庵小集圖)>는 당시 중인이면서 서화 감식가이자 수장자였던 상고당 김광수의 서재인 와룡암에서 김광국(金光國, 1727~1788) 등과 가진 모임을 심사정(沈師正, 1707~1769)이 그린 그림이다. 김광국의 제발에는 이들 모임에서의 음다 사실을 묘사하고 있다.

갑자년(1744) 여름 나는 와룡암에 있는 김광수를 찾아갔다. 향을 피우고 차를 마시면서 서화를 품평하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하늘이 시커멓게 흐려지더니 소나기를 퍼부었다.¹²³⁾

123) 김광국, <臥龍庵小集圖> 발문, “甲子夏, 余訪尙古子於臥龍庵. 焚香啜茗, 評書畫, 已而天墨如磐驟雨大作. ……”

사실 그림 속에는 다사의 정황을 알 수 있는 묘사는 없지만 제발에서의 이러한 음다 사실 기록을 통해 아회에서 다사 실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감상지학의 대표격인 김광수를 중심으로 한 모임에서의 다사는 개별적 다사의 일상화가 집단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노출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이덕리의 『기다』에도 이와 같은 김광수의 아취 있는 손님맞이 생활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계해년(1743) 봄에 내가 상고당에 들렀다가, 요양의 사인 임 아무개가 부쳐 온 차를 마셨다. 잎이 작고 창이 없었다. 생각하건대 손초가 소위 말한 우레 소리를 들으며 탄 것인가 싶었다. 당시는 한창 봄날이어서 뜨락에 꽃이 아직 시들지 않았다. 주인은 자리를 펴고 소나무 아래서 손님을 대접하였다. 곁에 차 화로를 놓아두었다. 화로와 다관은 모두 고동 기물이었다. 각 한 잔씩을 다 마셨다.¹²⁴⁾

김광수의 손님 접대 모습을 통해 소규모 모임에서의 다사 실제 모습 또한 유추할 수 있다. 이덕리의 기록을 통해 볼 때, 상고당이 전단에 사용한 기물은 골동품으로서 단순히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다사를 더욱 고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실용측면으로 이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인상의 <雅集圖>와 <北洞雅會圖>

<와룡암소집도>와 유사한 시기에 제작된 작품인 이인상(李麟祥, 1710~1766)의 <아집도>에는 여섯 명의 문인과 차를 끓이는 동자, 화형 무늬의 탁자위에는 지필묵, 고동, 촛대, 서책이 있고 인물이 앉아 있는 탁자위에는 금과 청동기가 묘사되고 있다.¹²⁵⁾ 이 모임에서도 다른 전형적인 아회와 같이 시작과 골동 감상 등 문인들의 문화 활동과 더불어 동자의 전다상을 통해 문인들의 음다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북동아회도>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1744년 지어진 김순택(金純澤, 1714~1787)의 <북동아회도후지(北洞雅會圖後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앞서 제시되었기에 그 일부분만 살피기로 한다.

124) 이덕리, 『記茶』 “余於癸亥春, 過尙古堂, 飲遼陽士人任某所寄茶. 而葉小無槍. 想是孫樵所謂聞雷而採者也. 時方春月, 庭花未謝. 主人設席, 松下相待. 傍置茶爐. 爐罐皆古董彝器. 各盡一杯.”

125) 송희경, 「조선 후기 정원아회도 연구」, 『한국문화연구』 6,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4, 208-209쪽.

…… 안석 위에는 문왕의 제기와 닳은 오래된 술, 오래된 소라 술잔과 검, 붓통이 각각 하나씩 있다. 모두 안석이 셋, 책이 몇 질, 그림 두루마리가 셋, 벼루가 하나이며 병풍 남쪽에 파초와 대나무 화분이 하나씩이다. 차 달이는 화로를 안고 남쪽 난간 아래 있는 사람은 어린 사내중 태휘이다.¹²⁶⁾

위에서 열거된 소품 등을 통해 북동아회에 모인 구성원들이 어떤 취미를 유희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고동서화의 청상(淸賞), 시작, 화훼 등과 더불어 읊다는 고아한 취미였음을 알 수 있다.

(3) 東園雅集

동원아집은 1768년 이유수(李惟秀, ?~1771)의 개인 정원인 동원에서 모여서 자유로운 활동을 한 모임으로, 구성원의 한 사람인 남유용(南有容, 1698~1773)의 아들 남공철이 지은 <동원아집도기(東園雅集圖記)>에 그 모임의 자세한 정경과 문화 행위들이 묘사되어 있다.

손에 옥을 만든 등 굽개를 쥐고 담소하며 주인의 예를 차리고 있는 사람이 형부상서 이유수 공이다. 복건에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향을 피우며 고서를 읽는 사람이 내 아버지 태학사 문정공과 이부상서 세자빈객 윤급 공이다. 술잔을 들고 크 소리로 노래하며 술을 왕왕 땅에 쏟는 사람이 이부상서로 벼슬을 그만둔 조돈 공이다. 학창의에 벽운리를 신고 별관에 앉아 바둑을 두는 사람이 홍문관 부학사 윤시동 공과 이부우시랑 이득배 공이다. 파초 숲 아래 책상다리를 하고 앉아 재질의 색실로 수놓은 불상 같은 사람이 경연참찬관 심이지 공이다. 맨발로 돌침 상위에 누운 사람은 시독학사 김상목 공이고, 뗏잎으로 물을 떠서 시독학사의 얼굴을 적시는 사람은 그의 아우 사관수찬 김광목 공이다. 청려장으로 아이와 사슴을 놀려 사슴이 달아나자 어떤 미소년이 돌난간에 가려진 채 쫓고 있으니 한림승지 송재경 공과 경연검토 민중현 공이다. 오래된 소나무 옆 먼 곳에 등 돌린 채 서서 굴원이 멀리 떠돌며 하던 근심을 가진 듯한 사람이 홍문관 교리로 사가독서하고 있는 유언호 공이다. 이때 공이 간언 때문에 귀양을 가 있어 여러 공들이 그리우나 볼 수 없었으므로 등을 돌린 채 선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대삿갓을 쓰고 도롱이를 입은 채 구부정하게 당 아래 서서 시를 바치고 있는 사람은 수청초부 정일이다. 형부 이유수 공은 영조 때 시대에 관한 논의 때문에 온 세상

126) 오재순, 『醇庵集』 권6, <北洞雅會圖後識> “…… 汀上有古鼎像文王尊彝, 古螺栝劍筆筒各一. …… 凡汀三書數秩畫軸三硯一, 屏南芭蕉竹各一盆. 攤茶壺在南檻下者, 小奴太輝也. ……”

이 추앙되는 사람이었다. 동산 기슭에 집이 있었는데 사는 곳에 경치가 좋은 동산과 못, 정자와 관사가 있었으며 골동품과 향기로운 차를 품평하고 완상하셨다. 초탈하게 벼슬을 벗어나 세속을 떠나려는 생각이 있으셨으며 좇아 노니는 사람들도 모두 고상하고 이름난 부류였다. 이 모임을 살펴보면 그 시대를 알만하다.¹²⁷⁾

남공철의 위 기록을 통해 18세기 후반 당시 정원에서 아회 성행 속에 이유수 또한 본인의 정원에서 탈속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유 인사들과 고동서화를 감상하고 독서·바둑·시작 등을 즐기며 시은생활을 추구하는 모습이 묘사된다. 또한 모임의 중심인물이자 정원의 주인 이유수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개별적인 취미로 열거된 골동 완상과 향·차의 품평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다사 관련 내용 언급은 같은 성향을 가진 부류의 모임에서 당연히 차가 함께 했으리라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이유수의 문화생활에 대해 유언호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심원은 글을 잘하고 옛것을 좋아하여 유명한 서화, 악기, 옛 술잔 등 골동고기와 같이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일체를 구하여 그 집에 모두 모아 두었으니, 찬란하여 좋아할만 하였다. …… 뜻이 같고 취향이 같아 매인 데서 풀려나 몸이 한가로워져 쉬는 날을 얻으면 넉넉하게 노니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¹²⁸⁾

이를 통해서도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추구되던 탈속·심미적, 유예적 의식 및 취향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의식 및 취향과 결부되어 다사가 시은생활

127) 南公轍, 『金陵集』 권5, <李尙書東園雅集圖記> “手持玉如意, 談笑作主人禮者, 刑部尙書李公惟秀也. 幅巾野服, 焚香看古書者, 余先人太學士文清公及吏部尙書世子賓客尹公汲也. 持杯高歌, 酒往往落地者, 吏部尙書致仕趙公嗽也. 鶴髦衣碧雲履, 坐別館圍碁者, 弘文館副學士尹公蒼東, 吏部右侍郎李公得培也. 跌坐芭蕉林下, 如齋繡佛者. 經筵參贊官沈公履之也. 跣足臥石床者, 侍讀學士金公尙默也, 以竹葉取水, 漬侍讀面者, 其弟史館修撰公光默也. 青藜筇戲子鹿, 鹿走, 有美少年遮石欄而逐者, 翰林承旨宋公載經, 經筵檢討閔公鍾顯也. 古松側遠遠地, 背立有屈子遠游之愁者, 弘文館校理賜暇讀書俞公彥鎬. 時公以言事坐謫, 諸公思而不可見, 故背立而識之也. 簞笠草衣, 偃偃立堂下獻詩者, 水青樵夫鄭逸也. 刑部李公, 在英宗朝, 以清議爲一時所推. 家東山之趾, 所居有園池亭館之勝, 品翫銅玉香茗. 翛然有布素出塵之想, 從之遊者, 皆高人名流. 觀於斯集, 可以知其世也. ……”

128) 俞彥鎬, 『燕石』 권2, <東園雅集記> “深遠又文而好古, 求名書畫琴磬鍾鼎彝壘古器, 凡可以資耳目之娛者, 盡聚其室, 粲然可喜. …… 志同趣合, 累釋身閒, 得以暇日優遊, 以樂于此.”

요건의 배경으로 자리하게 됨은 당연한 것이었다.

(4) 김홍도의 <群賢圖>와 <扇面西園雅集圖>

<군현도>에는 정원에서 친한 벗과의 만남을 즐기는 일상적인 정원아회의 모습이 표현되었다. 화중에는 방건(方巾)·탕건(宕巾)에 포를 입은 다섯 명의 선비가 금을 켜거나, 금 연주를 듣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고 전다의 동자상은 차를 끓이고 있으며 이중 방건을 쓰고 금을 타는 인물이 정원의 주인으로 추정된다(송희경, 2004 b: 212). 이 아회도에서는 앞서 살펴 본 시·서·화 감상 위주의 문화 활동이 아닌 거문고를 연주하고 이를 감상하며 풍류를 즐기는 취미가 묘사되고 있다. 전다상의 묘사로 볼 때 충분히 이 모임 안에서 다사가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면 서원아집도>는 1778년 만들어진 작품으로 이 화중에도 차를 달이는 시동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유보은(2009:55-56)은 김홍도가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서원아집도의 모본을 본 것으로 추측되며, 그 모본은 당시 조선에 유입되어 있었던 구영의 <서원아집도>와 같은 유형의 작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특히 모본에는 없는 차 끓이는 시동과 가리개 같은 모티브는 조선시대 아집도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모본에도 없는 전다상의 추가 배경에는 김홍도가 당시 조선의 집단 모임현장에서 목도하는 다사의 모습을 반영한 결과라 할 것이다.

(5) 이인문의 <松溪雅集圖>와 <樓閣雅集圖>

<송계아집도>는 다섯 명의 문인이 소나무 숲 속에 앉아 대화를 나누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폭포를 구경하는 모습을 그린 야외 아회도로서 화중에서 차를 끓이는 쌍계머리의 전다(煎茶) 동자가 있음이 확인된다. 동자의 머리 형태에 대해 송희경(2004 a: 117)은 19세기 전다상은 고사인물화에서 볼 수 있는 더벅머리나 쌍계머리를 한 고전상으로 여항인의 아회도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평하였다.

1820년 작인 <누각아집도> 화중에는 차를 달이는 동자와 달여진 차를 누각으로 옮기는 동자, 차를 끓일 물과 빨감을 들고 이동하는 동자의 모습이 확인된다.

18~19세기 지식인들의 문화동호인 집단 교류 속에서의 다사를 고찰하기 위하여 시사와 정원 아회 중심의 다사 기록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몇 가지 특징과 다사 경향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이들 집단적 문화교류의 장에는 종합문화성격의 문화행위가 다양하게 공존한다. 단순하게 시를 짓고, 술을 마시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문화 활동들이 동반, 공유되었다. 조선 후기 지식인의 다사 집단적 공유는 차문화가 더욱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계기이자 오늘날 전체적인 다사의 내용을 문화적 총체로서 인식하게 하는 종합문화로서의 자리를 이루게 하는 전거가 되었다.

둘째, 집단 모임 내 다양한 계층 간의 교유관계를 들 수 있다. 철저한 계급사회였던 조선에 있어서 양반·중인·승려 등 신분적 차이가 있었던 이들이 한 공간 안에서 문예적 교류를 이룬다는 것은 18세기 이전에는 드문 일이었다. 신분과 당색에 구애되지 않는 후기 문예교섭의 실체는 조선 후기 문예의 내용에서 많은 반향을 남겼다. 특히 18~19세기의 여향인들은 일반 사대부와 대등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자신의 신분적 열등감을 문화적 향유로 극복하려는 의지로 사대부 모임을 본받아 여향인 동호회를 결성하는(송희경, 2003 a: 78) 등 그들만의 집단모임 이외에도 사대부들과 함께 하는 시사 및 아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기실 당색과 신분, 규범을 뛰어 넘은 망형지교의 교유를 가능하게 하고 이들 간의 문예적 소통을 가능하게 한 것은 앞서 살펴본 조선 후기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이 함께 한다. 이러한 다양한 계층 결합형태의 집단모임에서 다사는 이론적, 실제적인 면에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차문화 성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폭넓은 인적관계망을 바탕으로 다사 향유의 공간적 확대를 가져왔다. 사행의 실무를 담당하여 대외문물과 활발히 교섭하면서 대외적 다사의 견문과 지식힘을 가진 역관을 비롯한 중인층의 지식인, 국내 차제다 일선에 있었던 승려 계층의 지식인, 누대로 향유하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 다사의 이론과 실제에 보다 노출의 기회가 많았던 경화세족, 이들 간의 격의 없는 다사 교섭과 공유는 결과적으로 차문화의 내연과 외연을 더욱 풍부하고 밀도있게 만들었다. 이는 조선 후기 차문화 증흥의 반석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집단모임에서 차를 마신다는 것, 차를 달인다는 것, 나아가 종합적인 다사의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차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기호음료로의 선택이 아니었다. 이는 탈속·심미적이고 유예적인 문화행위로의 선택이었다. 고상하고 우아한 군자의 삶을 지향한 지식인들은 집단 모임 내 구성원들과 품위 있고 운치 있는 모임을 즐기기 위하여 평소 존경하였던 과거의 은일 고사들의 행위를 모방하여 시작, 고동서화 완상, 위기, 탄금, 청담, 전다를 즐겼다. 이와 같은 문화행위를 공유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이 동경하던 은일처사적 삶을 실천하는 한 방편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전다는 아회의 대표적인 표상으로 시사, 아회현장에서 차는 시문 창작에 있어서는 필력을 향상시키고, 구성원간의 공음(共飮)을 통해 동류의식 및 공감 형성을 고취시켰다. 다사행위는 시문을 감상하는 자리에서 고상한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유의 장에서 대화의 매개체이자 대화를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무엇보다 지식인들 안에서 추구되던 시은생활은 집단모임에서 유희되는 문화행위에 의해서 표식 되었다. 집단모임 안에서 음다·전다 등을 포함한 일련의 다사행위는 바로 탈속·심미적이고 유예적인 대표적 실천 행위로 그들 집단이 어떤 이상향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아취였다.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이 18·19세기 사적 동인회 성격의 집단모임에서 다사 교류와 공유는 후기 차문화 중흥의 주요한 내재적 동인이었다. 나아가 이는 지식인들 안에서 차문화 향유가 보다 확대되는 횡적 반석을 이루었다.

IV. 조선 후기 차문화의 대외적 기반과 교류

조선 후기 대외적 문물 교류의 활발한 양상 속에서 그 중심에 있던 지식인들의 다사배경 또한 물질·인적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장에서는 조선 후기의 주변국 중 중국과 일본과의 교섭 속에 노출된 차문화의 물질 요소와 인적 요소의 경로를 살펴, 조선 후기자식인들의 다사 기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1. 청과의 인적교류를 통한 차문화 수용

조선의 지식인이 명·청조의 차문화에 노출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간접적인 경로로서 서적을 통한 노출이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서적수입 및 유통이 활발했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차 관련한 서적 및 전문다서들이 조선으로 유입되었다. 둘째는 직접적인 경로로서 연행의 경험이다. 일부 제한된 계층에 한한 기회이기는 하나 차 마시는 풍속이 일상 속에 보편화된 중국 차문화를 경험하게 되는 일은 개인 차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울리는 동호인 집단 안에서 공유되면서 그 영향력은 더욱 폭발력을 갖게 되었다.

조선 후기 차에 관한 시문 및 기록들을 살펴보면, 조선 후기 지식인들 중 차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 중에는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 중심에 연행사절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이들과 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들로 좁혀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차문화와 관련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 측면이나 물질 측면에서 그들은 누구보다¹²⁹⁾ 차를 향유할 수 있는 우위의 자리를 점할 수 있었다.

129) 이상적이 1853년 박경로가 보내준 백산차를 받고서 답례한 <白山茶歌 謝朴景路>시의 1-6구에는 연행의 기회와 차문화 노출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시구가 확인된다.

我曾九泊燕河槎 내 일찍이 아홉 차례 연경 행차 참여하여
嘗盡天下有名茶 천하의 명차 모두 맛보았지.
十二街頭茶博士 열 두 거리 길가에는 차박사들 넘쳐나서
賣茶多於賣漿家 마실 거리 파는 점포보다 차점포가 더 많다네 .

1) 청조 차문화의 경험

연행 길에서 경험하는 청의 차문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연행사절 일원이 연행 도중 현지에서 차를 대접받거나 찾자리를 갖게 되는 정황 기록과 현지 차풍속에 관해 건문한 내용이다. 연행의 성격상 공식적 경로에서의 경험과 사적인 교류자리에서의 경험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연행 중 공식적인 자리에서 차를 대접받는 모습은 박지원의 『열하일기』와 서호수의 『연행기(燕行紀)』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열하일기』 <행재잡록(行在雜錄)>에는 건륭제(乾隆帝)의 칠순을 맞아 연행 길에 올랐던 사행원들이 건륭제를 만나기 전에 찰십륜포의 액이덕니(額爾德尼)에게 입공 내력 및 축하 사례를 올리면서 차를 대접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¹³⁰⁾ 『연행기』에는 건륭황제 만수절을 맞아 경축 사절단으로 연행 길에 올랐던 서호수 일행이 궁전 내에서 차를 대접받는 예가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문무 동서반과 조선·안남·남장·면전의 사신과 대만의 생번도 다 본 위치에 서 일고두의 예를 행하고 앉는다. 황상이 차를 내주면 전내의 왕공, 태학사와 전정의 문무백관이 각각 그 앉은 자리에서 일고두의 예를 행한다. 시위가 앞으로 나아가 전내의 왕공, 태학사에게 차를 선사하면 또한 앉은 자리에서 차를 받고 일고두의 예를 행한다. 마시기를 마치면 다시 일고두의 예를 행한다. 명찬관이 ‘홍’ 하면 여러 사람이 일어나고, 계단 아래에서 정편이 세 번 소리를 내면 중화 소악이 연주되다가, 황상이 환대하면 주악이 그친다.¹³¹⁾

두 예문의 경우 모두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차 접대이다. 다만 『연행기』 경우는 보다 정례화된 다례의식을 통해 각국 사신들에게 차를 접대하는 모습이라 할 수

歸臥敝廬談龍肉 돌아와 집에 누워 용육을 얘기하다.

手把茶經空咨嗟 손에 『다경』 들고서 공연히 탄식한다.(『恩誦堂集』續集, 시권 1, <白山茶歌謝朴景路>)

130) 박지원, 『熱河日記』, <行在雜錄> “禮部謹奏, 爲奏聞事. 本月十二日, 臣等遵旨派員, 會同理藩院司員等帶領朝鮮使臣正使朴副使鄭書狀官趙等, 前詣札什倫布, 拜見額爾德尼. 行禮後, 令坐吃茶. 詢問該國遠近, 并入貢緣由. 該使臣答以因皇上七旬大慶, 進表稱賀, 并恭謝天恩.”

131) 서호수, 『燕行紀』 권3, <8월 13일(辛酉)> “坐文武東西班, 朝鮮, 安南, 南掌, 緬甸, 使臣臺灣生番, 皆於本位跪行一叩禮坐. 皇上進茶, 殿內王公, 太學士, 殿庭文武百官, 各於坐次, 行一叩禮. 侍衛進前, 賜殿內王公, 太學士茶, 亦於坐次受茶, 仍行一叩禮. 飲畢, 復行一叩禮. 鳴贊官, 贊興衆興, 階下靜鞭三聲, 中和韶樂作, 皇上還內, 樂止.”

있다. 이를 통해 조선의 사신들이 연행 중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와 같은 다례 의식에 노출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이외 연행 공식 노정에서 객사(客舍) 및 산사(山寺)에서 차를 대접받은 기록들을 살펴본다.

(A) 홍양호의 <유청석회령양령(踰靑石會寧兩嶺)>

關東八站抱重岡 관동의 여덟 역이 겹겹 산에 싸였는데
靑石摩天一路長 청석과 마천 외길은 길기도 하여라.
却喜山容如我國 산 모양 우리와 같아 쳐다보고 기뻐하느라
不知春色是他鄉 봄 경치 타향임을 알지 못하네.
雪消鴨水應添綠 눈 녹은 압록강은 응당 파랗고
天遠燕雲更變蒼 하늘 멀리 북경 하늘은 더욱 푸르네.
松下老僧迎舊客 숲 아래 노승은 옛손님 맞이하며
手撞銅鉢勸茶湯 손에 든 구리발우의 다탕을 권한다네.¹³²⁾

(B) 박제가의 <의주증화중(義州贈和仲)>

龍灣館裏鬪新茶 용만의 객사에선 햇차로 투다를 하는데
階雨瀟瀟積杏花 부슬부슬 심돌 비에 살구꽃이 쌓이네.
忽漫相逢如舊識 뜻밖에도 만났어도 오래된 친구인 듯
眼明今夕似歸家 눈 밝은 오늘 저녁 집에 온 것 같아라. ¹³³⁾

(C) 이상적

a. 鴨綠江頭雪 압록강 어귀에 눈이 내리니
飛飛送遠行 흥날려 먼 여행길 전송한다네.
.....
今宵中野宿 오늘 밤 들관에서 잠을 자면서
祇好試茶烹 차 끓여 마심만 다만 좋아라. ¹³⁴⁾

b. 爐香椀茗饒閒趣 화로 향과 차 사발에 한가한 운치 넉넉하여,

132) 홍양호, 『耳溪集』권7, <踰靑石會寧兩嶺>

133) 박제가, 『貞菴閣集』, <義州贈和仲>

134) 이상적, 『恩誦堂集』시 권1, <金石山暮雪>

認得山窓燕寢時 산창에서 연침하던 그때인 줄 알았네.¹³⁵⁾

- c. 我來展重九 내가 오자 중양절이 막 지났는데
菊未有黃華 국화 여태 노란 꽃을 못 피웠다네.
林暝收紅柿 따스한 숲 홍시를 따서 거두고
泉香試綠茶 향기로운 샘으로 녹차를 시험한다.
何妨近城市 성시에 가까운 것이 어찌 방해되리
卽此是山家 바로 이곳 틀림없는 산가인 것을.
少酌耽佳趣 조금 따라 좋은 운치 한껏 즐기며
留連坐暮鴉 땅거미 내리도록 머물러 앉네.¹³⁶⁾

- d. 暫向松陰憩 술 그늘서 쉬려고 잠시 향하여
清泉手煮茶 샘물 길어 손수 차를 달인다.¹³⁷⁾

위와 같은 기록을 통해 홍양호·박제가·이상적 등 사행단의 일원은 연행도중 공식적 숙소인 객사뿐만 아니라 노정 중 차를 손님접대 형태로 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의 시는 홍양호가 사행노정에서 청석과 회령 두 고개를 넘으면서 한 사찰 노승에게 차를 대접받는 내용이 표현되고 있다. 사찰에서 차를 대접받은 기록은 연행기록에서 다수 확인된다. 그 중 『무오연행록』 <기미(己未) 2월 10일>에는 세 사신이 향화암(香花菴)에서 각색다식과 차를 대접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노가재연행일기(老稼齋燕行日記)』 <임신(壬辰) 12월 15일>에는 영녕사(永寧寺)에서 세 사신은 물론 함께 했던 하인들까지 후추차를 대접 받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¹³⁸⁾ (B)는 박제가가 사행로에 설치한 객사 중 하나인 의주 용만관에 머무르면서 햇차를 시험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박제가의 일상적 다사의 습관이 사행길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어디서든 차를 즐길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현지의 차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 사행단은 이와 같은 공식적 객사이외 노정 중 일반 사가(私家)에서도 숙식을 하게 된다. 이의현(李宜顯, 1669~1745)의 『임자연행잡지(壬子燕

135) 앞의 책 시 권1, <瀋陽示謙受>

136) 위의 책 시 권8, <重陽之翌, 過三台山莊>

137) 같은 책 시 권10, <江州途中>

138) 김창업, 『老稼齋燕行日記』 권2, <12월15일(甲子)> “寺僧有兩人在門內, 請諸人坐凳, 進胡椒茶, 遍及從者.”

『行雜識』에는 이의현 일행이 풍윤(豐潤)의 곡란(谷礪) 집에서 하루 머물면서 후한 대접을 받게 되는데 차도 빠지지 않고 대접되고 있음이 확인된다.¹³⁹⁾ 이와 같이 연행 노정에서 사행단은 일상다반사로 차를 접할 수 있었던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C)의 a와 c와 d는 이상적이 연행 경로에서 일상적 다사를 즐겼음을 알 수 있는 시문이다. b의 시는 이상적이 다사의 한가한 운치의 넉넉함 속에 차와 관련된 연행 때 추억을 떠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연행 노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일상화된 차생활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식적 자리 이외 사적인 교류 자리에서 다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A) 추사 집안 관련

a. 1810년 추사가 태화쌍비지관을 방문했을 때 완원이 회대의 명차인 용단승설 차를 달여 환대했다고 한다. 이에 승설이라는 자신의 호를 새로 지어 이를 영원히 기념하고자 했다.¹⁴⁰⁾

b. 제11도 해산철명 해산전은 천하에서 제이천이 된다. 정자로 지분을 씌웠고 그 맑음은 바닥까지 통해 보인다. 늘 양호에 이르러 진소현공 홍치존(洪稚存)과 함께 좋은 차를 가지고 가서 그 샘에 끓여 훌쩍훌쩍 마시니, 눈 같은 싹과 구름 속의 진액은 향기가 뱃속에 통했다.¹⁴¹⁾

c. 산전 김명희 역시 회갑 축수시를 지어 보냈다. 그 내용 중 일부이다.

三月二十五歲丙戌 병술년(1766) 3월 25일,
 遠爲蘭雪作生日 멀리 난설을 위해 생일연을 연다.
 酒挹鴨綠春江之波 술은 압록강 봄물을 뜨고
 糕綴楊花渡口之花 떡은 양화도 어구의 꽃을 이어 붙이고
 羹以樂浪蕃國之魚 국은 낙랑 변방의 물고기로 만들고,
 倫以方丈雨前之茶 차는 방장산 우전차로 달인다.¹⁴²⁾

139) 이의현, 『庚子燕行雜識』 「雜識」, <壬子燕行雜識> “到豐潤谷礪家宿。礪也能踐前約，精修客室以待。進一床，列梨栗柿榛沙果葡萄石榴苾菜豬肉等物。合十二器，又進茶酒，厚意可掬。”

140) 후지즈카 치카시, 윤철규 외 옮김, 앞의 책, 182-183쪽.

141) 위의 책, 468쪽. “第十一圖 惠山啜茗 “惠山泉爲天下第二，有亭覆之。其清澈底，每至陽湖，輒與秦公小峴洪君稚存攜佳茗，煮泉細啜，雪芽雲液，香透心脾。”

142) 같은 책, 481쪽.

(B) 박제가의 <희방왕어양세모회인육십수(戲倣王漁洋歲暮懷人六十首)>

49 육비 (陸篠飲)

齋東竹篠近何如 집 동쪽에 대나무는 근래에 어떠한가
遠憶機雲入洛初 육기·육운 낙양으로 처음 들 때 생각하네.
酒椀茶槍消息好 술 사발과 찻그릇 그 소식이 좋으니
臨風頂禮舍人書 바람결에 사인 편지 큰절을 올리노라. 143)

(C) 신위

차를 달이고 벼루 씻으며 거둑 손잡고 만권루 머리에서 뒷기약 묻는다. 144)

(A)의 a 기록은 익히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김정희의 ‘승설’이라는 호에 관한 기록으로 김정희가 단 한 번의 청나라 방문에서 완원이 대접해준 용단승설차를 맛보고 잊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A)의 b 와 c는 청을 방문했을 때 그들과의 교류 장에서 음다를 통해 차문화를 경험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전거이자 이들 교류의 중심에 차가 화제가 되고 있음에 주목된다. 1825년 청의 오난설은 본인의 환갑을 맞아 김정희와 그의 친구들에게 <기유십육도(紀遊十六圖)>를 보내 시를 청하게 된다. b는 그중 11도의 글로서 천하 제이천이라 불리는 혜산천의 물에 차를 달여 마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c는 산천이 오난설의 회갑에 축수하여 보낸 시로 직접가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생일연을 시로 열고 있다. 생일연의 음식을 나열하면서 최고의 차로 방장산의 우전차를 들어 읊고 있는데 이는 차가 오난설과의 교감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소재로 공감되었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B)는 박제가의 회인시 중 육비(陸飛)에 관한 것으로 연행 때 방문했던 육비의 집 정경과 함께 대접받았던 술과 차에 대한 좋은 추억을 읊고 있다.

(C)의 기록에서는 신위가 교류한 청나라 금석학자 섭지선 집의 자오천 언급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만났을 때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차 달이고 시 짓는 일을 기약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정운시가 서장관을

143) 박제가, 『貞菴閣集』, <戲倣王漁洋歲暮懷人六十首> (박제가, 정민 외 옮김, 앞의 책상, 239쪽.)

144) 신위, 『警修堂全藁』 책4, <子午泉詩 遙寄葉東卿(并序)> “……煎茶滌研重携手 萬卷樓頭問後期”

좃아 북경에 가게 되어 신위의 시를 왕씨 집에 전하고 다시 받아 온 시를 수놓은 연꽃 보따리를 보고, 전에 그 집에 방문했을 때 자매들이 차를 올리며 시중들었던 사실을 기억하는 장면¹⁴⁵⁾이 있다. 이로 볼 때 음다 문화가 일반화 되어있던 청나라의 각 가정에서는 손님접대 및 일상물로 늘 차가 대접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과 조선의 지식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시문 중 차를 소재로 한 내용을 통해 과거 연행 중 나누었던 교유의 정취와 그리움을 차를 통하여 소통하며 향유하는 교유의 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연행 길에서 목격한 청의 차풍속에 대하여 언급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A) 박지원

a. 번왕이라 칭하는 이가 주머니를 풀어 차를 꺼내니 그 시종이 달여서 같이 마시며 나에게도 한 잔을 권했다. 확실히 색다른 차로 그 향과 색이 황성에서 일상과는 물건과 같았다. 불에 구운 것처럼 쫄소리 나는 잔은 모두 가족에 주칠을 입힌 것이었다. 포개어 그 가운데를 떠처럼 매어서 허리나 등에 걸치니 지극히 간편했다. 차를 마시고 곧 일어났다.¹⁴⁶⁾

b. 우선 사행이 더운 날 휴식할 때 “혹 버드나무 아래서 옷을 벗고 부채질을 하거나 혹은 차나 술을 마시는” 것이나 “만나서 인사하면 바로 차를 낸다.”¹⁴⁷⁾

(B) 홍대용

손님을 대접할 때는 우선 차를 내는 것이 예의이다. 반드시 찻잎 약간을 사발에 다 놓고 구리주전자로 끓인 물을 붓는다. 뚜껑을 덮어 둔 채 조금 있으면 찻잎이 마치 새싹이 피어오르듯 싱그럽게 퍼지고, 끓인 물은 맑은 황랍색을 띠며 맑은 향기가 끼쳐 나온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여 한 식경이 지나야 한 사발을 겨우 다 마신다. 시자는 다시 끓는 물을 붓고 뚜껑을 덮어둔다. 대개 부귀가나 시장 찻집의 온돌 부뚜막에서는 혹 석탄을 때기도 한다. 부뚜막 위에는 네모난 벽돌로 덮고, 벽돌 안은 둥글게 구멍을 파둔다. 그 위에 구리주전자를 얹어 놓으면 소나무에 부는 바람이나 회나무에 치는 빗소리 같은 찻물 끓이는 소리가

145) 신위, 『警修堂全藁』, 홍잠집 권1, <繡詩荷包 二首(并序)> “海澱舊館王家而交彬卿, 繡詩荷包云是家繡, 多多致意紫霞大人, 籍請吟安. 余尙記王家娣妹三四, 皆娟秀靜麗, 最幼小者十三尙不足. 愛余字畫特甚, 磨墨捧茶, 屢日不知疲, 繡針或出此女郎手, 未可知也.”

146) 박지원, 『燕巖集』, 권14 별집, 『熱河日記』, <口外異聞>, “哈密王”, “…… 所稱蕃王, 解囊出茶, 使其從人烹淪相飲, 亦勸余一椀. 意其必異茶也, 視其香色, 乃皇城中尋常行賣之物也. 燕爐鎗椀, 皆以朱漆皮革爲外套. 纍纍如帶跨腰帶背負, 極其簡便矣. 茶後先起……”

147) 박지원, 위의 책, <口外異聞> “哈密王”, “或踞柳根, 脫衣搖扇, 或啜茶飲酒, 行禮後令, 坐吃茶.”

하루 종일 들린다. 절강에서 나는 절강국차 역시 향기가 아주 맑아 마실 만하다. 각각 시장의 찻집이나 가정에서 대접받는 것은 모양이 회향 비슷한데 향이 전혀 다르다.¹⁴⁸⁾

(C) 김경선(金景善, 1788~1853)

손님 대접을 할 때 비록 반찬은 없더라도 차는 반드시 권하니, 마치 우리나라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다. 그런데 담배는 주인이 권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피운다. 차를 마시는 법은 모두 음주법과 같으나 마시는 속도는 더 느려서 차 한 잔 마시는 게 거의 담배 한 대 피우는 시간과 맞먹는 것이다. 대체로 차는 마시지 않는 이가 없고, 또 아무 때고 마신다. 냉수나 숯물을 마시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차를 달이는 법은 이렇다. 먼저 구리 주전자나 사기 주전자에다 물을 붓고 여러 차례 끓인다. 찻잎 조금을 찻사발에 넣고 물을 따른 다음 뚜껑을 덮어둔다. …… 차 맛의 청탁은 전적으로 수질의 고하에 달려있다. 북방은 땅이 평평하여 고인 물이 많다. 그래서 흔히 큰 수레에다 물을 싣고 다니며 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마 멀리 서산(西山) 근방에서 길어 오는 것인 듯하다. 부호의 집이나 시장 점포, 사관 같은 데서 끓여 차를 마시는 물은 반드시 이 물을 사서 가져온 것이니, 차 맛이야 의당 맑고 개운하다. 하지만 가난한 백성들은 꼭 그렇게 할 수 없다. 전에 들으니 수질이 나쁜 물은 끓일수록 맑아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흙 앙금이 반은 된다고 한다. 차에 쓰는 물을 많이 끓여야 하는 까닭이 실로 이 때문이란 것을 이제야 알겠다.¹⁴⁹⁾

(D) 이경설

12월 30일 손님접대엔 반드시 차를 드린다. 차를 대접하는 방법은 술을 대접하는 때와 같이 각 사람에게 각 종류이며 마시는 대로 따른다. 차는 반드시 뜨겁게 마시는데 더욱 그 요령은 천천히 마셔서 한 잔 마시기에 거의 담뱃대 한 대를 빼는 것과 같이 오래 걸린다. 차는 손님을 대접할 때만이 아니라 수시로 마신다. ¹⁵⁰⁾

148) 홍대용, 『湛軒書外集』, 권10, <燕記> 음식“……待人, 先以茶爲禮, 必以茶葉少許, 置于碗中, 銅罐湯水以灌之. 合蓋少頃, 茶葉舒潤如新綻, 湯水淨淡, 如黃蠟色, 清香襲人. 且談且噲, 食頃纔竭一碗. 侍者復提湯罐, 添水而蓋之. 凡富貴家及市肆炕厨, 或熾石炭. 厨上蓋方甄, 甄中鑿圓穴. 加銅罐于其上, 松風檜雨, 終日不絕聲. ……浙江菊茶, 清香甚可口. 凡市肆人家所見待者, 狀如茴香, 香美絕異.”

149) 김경선, 『燕輶直指』 권6 <留館別錄> 음식, “待客雖無饌蓋, 亦必勸茶, 如我國吸烟. 烟則不待主人之勸. 行茶之禮, 一如行酒. 飲法尤緩緩, 呷茶一盞. 幾至吸烟之頃, 蓋茶無人不飲, 無時不飲. 未見有飲冷水熟冷者. 煎茶之法. 以銅罐或土罐, 貯水屢沸. 取茶葉少許, 先置茶鍾, 以熟水斟之, 合其蓋. ……茶味清濁, 專在水品高低. 而北方地平, 水多淳滯. 每見大車載水行賣, 似是遠取於西山近方者也. 富豪家及市肆寺觀, 用以煎茶, 必是此水之買取者, 茶味宜其清冽. 而下戶編氓, 未必其人人皆然. ……曾聞水惡者, 愈沸愈清, 否則土滓居半. 始悟茶水之必要多沸, 良爲此也.”

위 연행 문건 기록을 통해 손님 접대 때 우선적으로 차를 대접하는 모습과 의례적인 부분 이외 일상적인 청나라 서민의 음다풍속을 살필 수 있다. 특히 (A) a의 기록을 통해 변왕이라는 특정 인물의 차생활이기는 하나 청 사회의 일반화된 다사가 확인된다. 차와 다기를 늘 지니고 다니며 간편하게 다사를 행하는 모습이 이방인의 눈에 정밀하게 묘사되고 있다. (A)의 b 기록은 (B)와 (C), (D)의 기록에서 살펴지듯이 청의 풍속에서 타인을 만나거나 대접하게 되었을 때 차가 우선적으로 선택되어 접대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행노정에서 더운 날 휴식할 때 음다했다는 기록은 앞서 살펴 본 노정 중의 다사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B)와 (C), (D)의 기록은 유사한 점이 많다. 우리는 방법, 찻물로 쓰이는 물의 선택, 불의 소재, 차를 마시는 방법, 대용차에 대한 언급 등 이방인의 눈에 비친 다사 관련 정경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의현은 『경자연행잡지』에서 이 곳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하는데 차로써 다례를 행하고 각각 찻종을 놓고 마시는 대로 따르는데 차는 반드시 뜨겁게 천천히 마신다고 하였다.¹⁵¹⁾ 이와 같은 사절단의 인적 교류 과정에서 노출된 당시 청의 일상적 차풍속과 자세한 다사의 모습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차가 보다 일상물로 자리 잡게 되는 배경을 이루었다.

2) 차의 수용

연행사절단이 직접적 경로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다사의 전반적인 내용 중 우선 차를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살펴본다. 연행사절단 경우 입연(入燕)을 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연경에 머무는 동안 청나라의 광록시(光祿寺)로부터 날마다 일정량의 잎차를 지급받았다고 한다.¹⁵²⁾ 특정 지위에 한한 지급이기는 하나 일공(日供)의 성격상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동안 연속적으로 지급되므로 노출 빈도도 더욱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외 사적 경로를 통해 차를

150) 후지즈카 치카시, 윤철규 외 옮김, 앞의 책, 265쪽.

151) 이의현, 『庚子燕行雜誌』, 下 “待客, 必以茶行茶禮. 亦如行酒. 各人各鍾, 隨飲隨斟, 茶要必熱. 在鍾稍冷, 則還傾壺中. 飲茶尤要緩緩. 呷茶一盞, 幾至吸煙之久. 茶不惟待客, 亦無時不飲.”

152) 연행사절단 중 正使에게는 茶葉 4냥, 副使와 書狀官에게는 茶葉 각 1냥, 大通官과 押物官에게는 茶葉 五錢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戊午燕行錄』, 12월 20일자와 『熱河日記』, 「關內程史」, 8월 2일자 예문 참조.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한 예가 추사 김정희이다.

김정희는 자제군관(子弟軍官)으로 사행에 참여하였다. 여행에서 청나라의 학자들과 교류관계를 맺었던 김정희는 그들과의 교류의 장에서 승설차(勝雪茶)를 접하게 된다. 그 경험을 이재(彝齋) 권돈인(權敦仁, 1783~1859)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 차의 품격은 과연 승설차의 남은 향기라고 할 만한 것입니다. 내가 일찍이 쌍비관(청나라 고증학자인 완원의 서재)에서 이와 같은 것을 보았거니와, 우리나라에 돌아온 이후로는 40년 동안에 이런 것을 다시 보지 못하였습니다. 153)

음다가 일상화되었던 현지에서의 차 대접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접하기 어려운 귀한 차에 대한 대접은 이방인에게 깊게 각인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런 경험들이 김정희가 국내에서 품다(品茶)를 보다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하였던 것이다. 이외에도 현지에서 직접 차를 구입하여 일용으로 음용했음을 다음 소개하는 박제가의 시 <육차동지운려양역호발(六次冬至韻閩陽驛曉發)>에서 확인할 수 있다.

身如松柏自凌冬	이내 몸 송백같이 홀로 겨울 건디나
事異盤根錯節逢	일은 달리 마구 꼬여 뒤엉킴을 만났네.
河水連天通北口	강물은 하늘 닿아 고북구로 통하고
長庚配月隱西峰	장경성의 달을 짝하여 서쪽 메에 숨는구나.
歲時羊酒勞歸夢	세밑이라 술과 고기로 돌아갈 꿈 달래지만
海上魚書去絕蹤	바다 위 집 소식은 자취조차 끊어졌네.
料道近山泉味好	가까운 산 샘물 맛이 좋은 것 떠올리곤
一包龍井買斜封	용정차 한 봉지를 사봉에게 사노라.154)

세밑 객지(여양역)에서 고향 그리운 마음 담아 차를 달여 위로 삼는 박제가의 모습이 그려진다. 몇 번의 사행 길에 참여한 경험으로 근처 좋은 샘물이 있는 것을 알았던 그는 사봉에게서 용정차를 산다. 사행 여정에서도 자연스럽게 다사

153) 『阮堂全集』 권3, <彝齋權敦仁>, 제17신 “茶品果是勝雪之餘馥膾香. 曾於雙碑館中, 見如此者, 東來四十年, 再未見之.”

154) 박제가, 『貞菴閣集』, <六次冬至韻閩陽驛曉發>

를 행하는 박제가의 일상적 다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이다.

청나라로부터의 차 유입 또한 이들 연행사절단의 일행에 의해 주로 행해졌다. 연행 길에 올랐던 사절단의 규모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50~5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 중 일부의 기록을 통해 조선 내 중국차의 유입 경로와 정황에 대해 살펴본다.

(A) 우리의 풍속이 비록 작설을 약에 넣어 사용하지만, 대개가 차와 작설이 본래 한 가지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차잎을 채취하여 차를 마시는 자가 없다. 혹 호사자가 차라리 북경에서 차를 사가지고는 와도 가까이 나라 안에서 취할 줄은 모른다.¹⁵⁵⁾

(B) 차는 토산품이 없어 연경의 시장에서 수입해 오는데, ……¹⁵⁶⁾

(C) 서유구

a. 우리나라 호남지역에 종종 차가 생산된다. …… 다만 지금의 호남의 차는 아마 그 종자의 후손일 것이다. 잎은 거칠고 크며 단단하다. 달이면 기미가 연경의 점포에서 구입한 황차와 유사하다. 아마 채다하여 찌고 뒤을 때 제대로 된 방법을 얻지 못한 것 같다.¹⁵⁷⁾

b. 근래 50~60년 동안 사대부들과 부귀한 사람 가운데 종종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 매년 연경에서 수레로 구입해 온 것이 번번이 소나 말이 땀을 흘릴 정도로 많다. ¹⁵⁸⁾

(D) 신위

……

燕肆手揀選 연경의 점포에서 손수 고른 것이라,
非同悖入貨 마구 사서 들여온 것과 같지 않다네.¹⁵⁹⁾

……

155) 이덕리, 『記茶』 “東俗雖用雀舌入藥, 舉不知茶與雀舌, 本是一物. 故曾未有採茶飲茶者. 或好事者, 寧買來燕市, 而不知近取諸國中.”

156) 유득공, 『京都雜誌』 권1 <無題> “茶無土產, 質於燕市……”

157) 서유구, 『林園經濟志』, 「만학지」 권5, 잡식, 행포지 “我國湖南州郡, 往往產茶. …… 而今湖南之茶, 要其遺種也. 葉麤大而硬. 煎之 氣味一似燕肆購來之黃茶. 意採撮蒸焙之, 未得其法也.”

158) 위의 책, 「만학지」 권5, 잡식, 按 “近自五六十年來縉紳貴遊, 往往有嗜之者, 每歲燕輒之購來者, 動輒汗牛馬. 然眞者絕罕.”

159) 신위, 『警修堂全藁』 책2, <早春煮雪點茶>

(E) 이유원

a. 瀋肆普茶價最高 심양점포 보이차는 그 가격이 최고로 높아,
一封換取一疋絹 한 봉지에 비단 한 필 맞바꿔야 산다하지.¹⁶⁰⁾

.....

b. 瀋肆川箱猶退步 심양점포에서 사온 차도 오히려 이만 못하거니,¹⁶¹⁾

c. 연경 시장에서 파는 차는 한 종류가 아니다. 반드시 우전차를 귀하게 치는데
꼭우 이전에 채취한 것이다. 차 시장 중 가장 큰 것은 심양이다. 심양 근처
북비의 부락은 명말의 각다시인데, 군수 비용으로 보충해 썼다. 이때는 호인
이 강성한지라 차에 드는 비용이 대단히 컸다. 명유가 말하기를, 호인은 항상
양젓을 마시는 까닭에 차탕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차는 대개 강남에서 생산
된다. 무역으로 옮겨오면 오로지 오랑캐 땅에 내다 판다. 이 풍토가 그치지
않아, 지금도 역시 뒷골목과 깊은 골짜기에 대개 차 점포가 있다.¹⁶²⁾

위 기록들을 통해 청나라로부터의 차 유입경로와 차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자 중 유득공·신위·이유원은 연행의 경험자이며, 이덕리는 일본 사행의
경험이 있었다. 서유구는 혈연적, 동류 집단적으로 연행의 경험을 가진 자들과 인
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은 그들의 차생활 및 차 관련 저작
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A), (B), (C), (D)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수입되는 대
부분의 차는 연경의 차점포와 심양의 시장에서 구입되어 들어왔다. 규모면에 있
어 심양에 가장 큰 차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는 역사적으로 변방
과의 차무역이 용이했던 지역적 배경의 영향 때문이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심
양이라는 위치가 연행 길에서 연경보다는 차를 유입하기에 더욱 편리했으리라 생
각된다. 국내에 유입되는 차의 양에 있어서도 편차는 있겠지만 상당한 양이었음
을 (C)의 b기록에서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 본 차점포를 통한 구입¹⁶³⁾이외 현지에서 하사품, 상(賞), 답례품

160) 이유원, 『嘉梧藁略』 책4, <竹露茶>

161) 위의 책 책5, <謝貞隱相公贈密陽黃茶>

162) 이유원, 『林下筆記』 제28권, <雨前茶> “燕市茶品不一必以雨前茶爲貴, 穀雨前所採也. 茶市
最大者, 惟瀋陽. 而瀋近北鄙部落, 明末榷茶市, 補用於軍需. 其時胡人強盛, 茶費甚鉅. 明儒
之言胡人常喫羶酪, 故善飲茶湯. 蓋產於江南. 而貿遷則專靠於胡地. 此風未已, 今亦衝衢深谷,
舉有茶肆.”

163) 차구입에 있어 예시된 인용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18세기 초 이의현의 『연행잡지』과 홍대
용의 『연기』에는 연경시장을 중심으로 서반이라는 직업군이 물화중 고상한 것 대부분을 중심

등 선물(증정)의 형태를 통해 청의 다양한 차를 접하게 되는 경우와 국내에서 인편을 통해 선물의 형태로 유입된 차를 접하게 되는 경우를 살펴본다. 먼저 사행원이 청나라 황제에게 받은 하사품의 품목 중 차에 관한 기록이다. 이갑의 『연행기』에는 황제의 명령으로 아문(衙門)에서 보낸 세의(歲儀) 중 ‘차 1통(茶一桶)’이 기록되어 있다.¹⁶⁴⁾ 명확한 차의 종류와 차명은 알 수 없으나 다른 음식물들과 함께 하사된 것으로 볼 때 머무는 동안 소용될 차를 하사한 것으로 보인다. 서호수의 『연행기(燕行紀)』에는 황상(皇上)이 회전(戲殿)에서 외국사신을 맞아 연희(演戲)를 베풀고 마치기 전에 각종 물품을 참석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그 물품 중에는 보이차 1호(壺)와 다고(茶膏) 1갑(匣)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연희 중 다석(茶席) 또한 베풀어져 낙차(酪茶)와 청차(淸茶)가 제공되었다.¹⁶⁵⁾ 사행단은 공식적인 연희의 장에서 다양한 차를 접하여 음다할 수 있었으며 차를 하사품으로 받은 것이 확인된다. 『무오연행록』 <12월 29일>조에는 상(賞)으로 차를 받은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기록에는 태상황을 알현하고 정사와 부사가 다른 물품과 함께 운모차(雲母茶)를 상으로 받았다고 적고 있다.

이외 사행단이 연행 중 사적으로 주고받은 답례품의 목록에 차가 포함된 경우를 살펴본다. 서호수의 『연행기』에는 연행 중 남관(南館)에 머물며 청나라의 공부상서(工部尙書) 김간(金簡)과 주고받은 선물에 대한 기록이 있다. 선물 목록에는 용정차 2갑(匣)을 보답해 왔다고 적고 있다.¹⁶⁶⁾ 서유문(徐有聞, 1762~1822)의 『무오연행록』에는 청의 기상서(紀尙書)에게 글을 청하면서 선물을 보냈는데, 답례품으로 먹과 향 등을 비롯해 보이차고(普洱茶膏) 2갑(匣)과 공주전다(孔州煎茶) 4봉(封)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한다.¹⁶⁷⁾ 1822년 김노경(金魯敬, 1766~1840)과 김명희(金命喜, 1788~?) 부자는 연행 길에서 주달(周達)을 만나 수차례 문학을 논하고 친교를 쌓는다. 이 과정에서 선물을 주고받는데, 주달로 부터 받은 선물 목록에는 ‘건차(建茶) 1상자(箱)’와 ‘진품 용정차(龍井茶) 1병(瓶)’이 적혀있다.¹⁶⁸⁾

으로 매매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이 취급하는 것은 서적, 그림, 필묵, 향, 차 등으로 전혀 끼어들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상품 값이 해마다 올라, 조선인은 물건 값이 폭등하는 것을 괴로워하며 몰래 사고팔다가 온갖 옥을 보았다고 기술한다. 강명관, 『책벌레들 조선 만들다』, 푸른역사, 2007, 183쪽 참조.

164) 이갑, 『燕行記事』 上, <12월 29일>

165) 서호수, 『燕行紀』 권3, <8월 1일(己酉)>

166) 위의 책, <8월 24일(壬申)>

167) 서유문, 『戊午燕行錄』 권6, <2월 7일>

인편을 통해 선물의 형태로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를 살펴본다. 청나라 인사들과 국내 지식인들 간에는 돈독한 해내신교(海內神交)¹⁶⁹⁾를 바탕으로 서화와 문방도구들이 선물로 오간다. 이 중 차도 주요 답례 품목으로 전해짐이 확인된다. 중국통으로 불리던 박제가 경우 청나라의 인사들로부터 많은 서화목적물을 받았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차를 받은 기록으로는 오명황(吳明煌)으로부터 받은 ‘휘다(徽茶)’ 2포를 들 수가 있다.¹⁷⁰⁾ ‘휘다’는 차명이라기보다는 질이 좋은 차로 볼 수 있다. 『기다』에는 이덕리가 상고당에 들렀다가 요양의 사인 임모부터 부쳐 온 차를 대접받았음을 적고 있다.¹⁷¹⁾ 홍현주 경우, 1813년 용수곤에게서 문방용품과 함께 다병 1함을 선물 받는다. 편지에는 이 차를 마시는 방법과 효능까지 설명하여 덧붙이고 있다.¹⁷²⁾ 또한 『해거재시초(海居齋詩鈔)』 권2, <납설수팽다(臘雪水烹茶)>의 시 내용을 통해 1828년 이전에 연남(燕南)의 친구가 보이다고(普洱茶膏)를 보내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의 용수곤 경우 1814년 이광문(李光文, 1778~1838)에게 금석문 구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함께 상품의 모침, 우전, 주란, 향다 2병을 한 상자에 넣어 보낸다.¹⁷³⁾ 이광문은 두 번의 연행에 참여했던 인물로 김정희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용수곤과 해내신교를 이어갔던 인물이다. 섭동경은 1834년 김정희에게 장문의 서찰을 보내 조선의 금석과 서화를 보낼 줄 것을 청하며 여러 물품을 보내온다. 목록 중에 다고(茶膏) 1봉(封)이 있다.¹⁷⁴⁾ 신현의 1834년 작품인 <추려삼십수(楸廬三十首)>연작 중 제 24수에는 건주차(建州茶)와 쌍정

168) 후지즈카 치카시, 윤철규 외 옮김, 앞의 책, 516-517쪽.

169) 해내신교란 서로 국적이 달라 마음껏 서로 얼굴을 마주한 채 사귄 수 없지만 서신을 통해 마음으로 사귄다는 뜻을 표현한 용어이다. 서신과 함께 문방기품, 서적, 시문, 서화예술품 등도 서로 교환했다. 홍양호 집안의 경우는 청의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선물받은 서화예술품, 문방기품이 상당수였다고 한다. 국제적 인적교류에서 물품의 교환은 우정의 매개물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 사실 물품교류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줄 문건이 많지 않은 것은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던지는 물품을 교환했을 경우에만 시와 문장에 반영하기 때문이었다. 신영주, 「18·19세기 홍양호가의 예술 향유와 서예비평」, 『민족문화사연구』 18, 민족문화사연구소, 2001, 407-411쪽; 안대회, 「조정 박제가의 연행과 일상속의 국제교류」, 『동방학지』 제145집,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57쪽 참조.

170) 안대회, 「조정 박제가의 연행과 일상속의 국제교류」, 『동방학지』 145,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58쪽.

171) 이덕리, 『記茶』 “余於癸亥春, 過尙古堂, 飲遼陽士人任某所寄茶.”

172) 후지즈카 치카시, 윤철규 외 옮김, 앞의 책, 238쪽. “茶餅乙函, 以開水調入少許, 入口飲之, 最能清脾.”

173) 후지즈카 치카시, 윤철규 외 옮김, 위의 책, 294-295쪽. “上品毛尖, 兩前, 珠蘭, 香茶兩瓶 合定一匣內.”

174) 후지즈카 치카시, 윤철규 외 옮김, 위의 책, 569쪽.

차(雙井茶)를 달이는 모습이 확인된다.¹⁷⁵⁾ 보낸 사람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지난해 옥하(玉河)에서 보내온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상 살펴 본 사례 경우는 김정희 집안과 홍현주에 보다 집중되어 있다. 이를 통해 청의 지식인들과 조선 내 지식인들과의 교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가운데 다양한 차가 선물 및 답례되었음이 확인된다. 즉 인적교류를 통한 차의 물적 교류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이상적의 <접암비부기향송다(蝶菴比部奇餉淞茶)>시에는 위와 같은 선물 형식의 차가 국내에 전해지는 방법의 일면이 나타나 있다. 청의 접암 비부가 송차를 흰 향아리에 봉하여 녹설아라 쓰고 사신이 오는 편에 우통으로 보내왔다고 적고 있어, 그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¹⁷⁶⁾ 이와 같은 ‘해내신교’는 18세기 말 이후 개별적으로 구체화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청과의 물적·인적 교류 속에 차가 선물의 형태 및 이외의 형태로 유입되었음과 다양한 차들이 들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물 이외의 형태란 현지에서 사절단 일행이 직접 구입하여 유입하는 경우와 상업적 목적의 유입 형태를 말한다. 이렇게 들어 온 중국차는 조선인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기록들을 통해 살펴본다. 국내 유입된 차 중 청 현지에서 직접 구입한 경우는 품질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다량으로 유입된 경우는 품질면에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승정원일기』에는 중국차에 대한 불신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영조 20년 4월 24일 기사에는 영조의 차에 대한 하문에 신하 허조가 중국 사람들은 속임수가 많아 우전차라고 하더라도 진실로 우전차라고 믿을 수 없다고 답하고 있다.¹⁷⁷⁾ 이와 같은 불신임은 차를 즐기는 지식인들의 기록에서 재확인된다. 서유구는 『임원경제지』 <잡지>에서 근래 매년 연경에서 다량으로 유입되는 차는 진품은 거의 없고 종가시나무, 상수리나무, 박달나무, 조나무의 잎과 같은 것을 섞어 만든 가짜 차가 많으며, 이를 오랫동안 마시면 설사를 한다고 기술하였다.¹⁷⁸⁾

김명희는 초의가 보내 온 차를 받고 감사의 뜻으로 보낸 시 발문에서 연경시장

175) 정민, 앞의 책, 541쪽.

176) 이상적, 『恩誦堂集』 속집 권7, <蝶菴比部奇餉淞茶>
白甄封題綠雪芽 흰 향아리 봉하여 녹설아라 써서
郵筒迢遞返星槎 멀리 사신 오는 편에 우통으로 보내왔네.

177) 『承政院日記』, <영조 20년 4월 24일(辛未)> “上曰, 此茶與雀舌一類乎? 銅曰, 一類矣. 彼人亦多詐僞, 雖名以雨前, 而安保其必爲雨前乎?”

178) 서유구, 『林園經濟志』, 「만학지」 권5, <잡지>, 按 “…… 近自五六十年來 縉紳貴遊, 往往有嗜之者, 每歲燕輒之購來者, 動輒汗牛馬. 然眞者絕罕. 多雜以櫛櫟檀皂之葉, 久服之, 令人冷利.”

에서 사온 차들 경우 포장이 곱은 화려하지만 내질은 차잎과 유사한 다른 잎을 섞어 만든 경우가 다수여서 먹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토로하고 있다.¹⁷⁹⁾ 품다(品茶)에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심상규는 호의 스님이 제다한 장춘차(長春茶)를 마시고 나서 중국차에 대해 언급하였다. 중국의 절강과 나개 그리고 동쟁에는 진품이 많지만 질 좋은 중국의 차를 국내에서는 맛보기 힘들며 국내 사람들이 마시는 대부분의 중국차는 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¹⁸⁰⁾ 1847년 김정희는 과천에서 지내면서 스님에게서 얻은 차를 이상적에게 보낸다. 아울러 함께 보낸 편지에서 근래 동쪽에서 온 것들, 즉 중국에서 유입된 차는 먹을 수가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¹⁸¹⁾ 이와 같이 중국에서 대량으로 유입된 차들 경우 겉모양만 호화롭게 치장한 가품(假品)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품들은 차잎과 유사한 잎들을 섞어 만든 조악한 것으로 인체에도 유해하여 먹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중국차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단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765년 숙부 홍익의 연행 수행원으로 갔던 경험을 기록한 홍대용은 청차를 가장 하품으로, 도시에에서 가장 진귀한 차로 보이차를 들었다. 보이차는 진귀한 만큼 가품도 많았다고 한다.¹⁸²⁾ 이규경은 현지에서의 구매성행으로 볼 때 “보이차가 제일이고, 백호차가 둘째이고, 청차가 셋째이고, 황차는 넷째이다”라고 평하였다. 여기서 황차는 매번 국내에 대량으로 유입되어 일상적으로 마시게 되었다고 한다.¹⁸³⁾ 이유원은 연경차점포에서 얻은 정보를 통해 용정차를 상품으로, 그 다음 보이차를 꼽았는데, 보이차도 산차 형태, 작은 단위의 고풍 형태, 큰 단위의 고풍 형태와 고(膏)형태의 순으로 다품을 기술하고 있다.¹⁸⁴⁾ 김경선은 일상에서 선호되는 점을 기준으로 황차, 청차, 향편차의 순으로 꼽고 있으며, 귀하게 여기는 것은 보이차이나 가짜가

179) 『草衣詩稿』原註 중 “近日燕肆購來者，錦囊繡包，徒尙外飾，麤柯梗葉，不堪入口。”

180) 정학연이 縞衣 스님에게 보낸 서찰 중 “浙峯銅流眞品儘多，而東國之人，鮮得嘗焉。”(정민, 앞의 책, 489쪽)

181) “適得僧茶少許，分之。近日東來者，尤不堪喫試之。”(김규선, 「기증 추사 편지」의 내용, 『추사 연구』 제3호, 추사연구회, 2006, 137쪽)

182) 홍대용, 『湛軒書』外集 권10, <燕記>, “茶品多種，青茶爲最下常品。普洱茶，都下最所珍賞，亦多假品。”

183) 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권56, <茶茶辨證說> “……今燕都茶品之藉藉盛行者，普洱茶爲第一，白毫茶爲第二，青茶爲第三，黃茶爲第四。而黃茶每多流入我東，爲日用所飲。”

184) 이유원, 『林下筆記』, <韓荔新志> “余再入燕京，詳聞於茶肆人。上品龍井，其次普茶之不作團，其次二四兩作團。外他勛團熬膏，皆無足論。”

많다고 기술하고 있다.¹⁸⁵⁾

이와 같은 평가 기준은 현지 차점포나 현지인들의 선호 성향을 반영한 평가로써 조선인들의 중국차에 대한 선호도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연행도정 및 간접 경험담 속에서 체득된 차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평가이기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보이차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였다. 연행을 마치고 돌아 온 홍대용은 동궁(정조)의 차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북경에서는 보이차를 상품으로 여기지만 생산지가 운남지방인 관계로 구하기도 힘들고 본인도 보지 못했다고 답한다.¹⁸⁶⁾ 이와 같은 대화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연행노정에서 차문화 노출 및 경험은 국내에 들어와 집안 및 집단 문화동호인, 개인 교유관계 속에서 충분히 나누어지고 논의될 수 있는 다사 자료였음이 확인된다.

2. 일본과의 인적교류를 통한 차문화 경험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의 공식적 인적 교류를 통해 일본 차문화에 노출된 정황은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¹⁸⁷⁾를 통한 사행¹⁸⁸⁾기록 및 시문 등에서 확인된다. 일본 국으로의 통신사 파견규모는 350~500여명으로 이들이 8개월 여정의 사행 길에서 접하게 된 일본의 차문화는 사행록, 방문 여정에서의 시문 및 일본의 사행단 접대 지침문서¹⁸⁹⁾에서 살펴볼 수 있다. 특히, 공식적 다례행사와 연회에서의 차향응과 일공으로 지급된 차 기록 등을 통해 통신사 일행에게 차가 의례물로서, 사교물로서, 일상 기호물로서 노출되어 경험되는 상황이 확인된다.

185) 김경선, 『燕轅直指』 권6, <留館別錄> “茶品不一. 而黃茶, 靑茶爲恒用. 其次杏片茶. 而普洱最珍貴, 然而亦多假品.”

186) 홍대용, 『湛軒書』 內集 권2, <桂坊日記> “又曰. 北京茶, 以何品爲上. 臣曰. 以普洱茶爲上品. 普洱在雲南地, 得之頗貴, 臣亦未之見也.”

187) '통신사'라는 칭호는 1636년 사행에서 정식으로 사용되었다.

188) 1607년(丁未), 1617년(丁巳), 1624년(甲辰), 16369년(丙子), 1643년(癸未), 1655년(乙未), 1682년(壬戌), 1711년(辛卯), 1719년(己亥), 1748년(戊辰), 1764년(甲申), 1811년(辛未)사행 등 총 12차례.

189) 對馬宗家文書로 쓰시마의 宗氏 일가가 조선의 사행 때마다 기록들을 모아서 책으로, 서류로 보관한 문서이다. 특히 다례 및 향응시의 객관에서 접대하는 차종류, 다기구를 신분에 따라 다르게 할 것을 지시한 문서의 존재는 차가 통신사 접대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박정희, 『17~18세기 통신사에 대한 일본의 의식다례』, 민속원, 2010, 198-227쪽)

이와 같은 차문화의 노출과 다사의 경험은 사행에 참여하였던 누군가에게는 더욱 차를 애호하고 깊이 있게 다사를 향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한 예가 1719년 기해사행에 제술관으로 참여했던 신유한(申維翰, 1681~1752)이다. 그는 말년에 고향인 고령에 경운재(景雲齋)를 지어 은둔하였는데 그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읊기고 있다.

경운재에 머물면서 고화동에 정사를 짓고 편액을 경운이라 하였다. 또한 석산을 쌓고 매화·국화·소나무·대나무를 심고 물을 끌어다가 연못을 만들어 휴식하는 곳으로 삼았다. 세 곳의 당을 만들어 좌측에 있는 당을 호둔와라 하였다. 이곳에는 경서와 거문고·(차)맷돌·차술·술그릇 등을 두고 즐겼다.¹⁹⁰⁾

물론 사행 이전에 다사경험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사행록에는 특히 차와 관련한 풍속 및 정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다사경험이 반영된 관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보』에 기록된 경운재에서의 말년 생활은 그의 다사 이력을 보여주듯이 차술과 차맷돌을 갖추고 차생활을 하는 전형적인 풍류자적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은 사행 길의 공적, 사적 기회를 통한 일본 차문화 경험에 대하여 공식적 다례의 경험, 차 향응의 경험, 음다 풍속의 경험에 관련한 사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공식적 다례의 경험

조선의 통신사 일행에 대한 공식적 행사 중 의식다례는 쓰시마도주에게 예조의 서계를 전달하는 의식인 서계다례(書契茶禮)·이데이안다례(以酩菴茶禮)·반쇼인다례(萬松院茶禮)와 에도(江戸)의 관백(關白)에게 국서를 전달하는 의식인 전명다례(傳命茶禮), 관백이 조선국왕에게 회답하는 국서를 전달하는 의식인 수회답의(受回答儀)에서의 다례 등이 대표적이다. 1624년 사행기록인 『동사록(東槎錄)』 중 부중(府中)에 도착하여 10월 5일에 행해진 서계다례 내용을 살펴본다.

조식 후에 조홍이 예서의 서계와 증여물품을 받기 위하여 관사 앞에 와서 기다

190) 신유한, 『靑泉集』 권10, 附錄 <年譜> “居景雲齋，築精舍于高花洞，扁其齋曰景雲。又於檻外築石爲山，植梅菊松竹，引流鑿池。以爲棲息之所。爲堂三間，左曰好遯窩，蓄經書琴研茶壺酒鎗，以寓隱居之樂。”

렸다. 정사 이하 관대를 갖추고 대청에 나와 좌정하니, 조홍이 공복을 입고 북으로 향하여 사배하고, 의성 현방 및 조홍 3인에게 보내는 예물을 받아가지고 나갔다. 조금 후에 현방은 가사를 입고 의성과 조홍은 공복을 갖추어 입고는 모두 신을 벗고 들어와 상읍례를 행하였다. 사신은 동벽에 자리 잡고, 현방 이하는 서벽에 자리 잡아, 모두 교의에 앉아 두 번 다례를 행하였다.¹⁹¹⁾

공식적 다례행사 중의 일면이기는 하나 절차상 형식화, 객관화되어 있고 정례화라는 의례의 성향상 이외 사행의 서계다례 양상도 1624년 갑진사행 서계다례와 유사하게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기록을 통해 양국의 대표자들이 외교문서를 접수하면서 차를 함께 마시는 의식은 차를 단순히 음료로서의 인식차원이 아닌 상위적 가치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희(2010: 82)는 이 점에 대해 차가 외교 의례에서 예의 격을 높이고, 서로 삼가는 상징물로 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국서를 전달하는 의례인 전명다례의 일단을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 제 5권의 <피지연향(彼地宴享)>조를 통해 살펴본다.

에도에 이르러 전명일에는 관백이 친히 다례를 베풀었다. 다례를 모두 마치면 이어 향례를 행한다. 사신이 다시 다당에 들어오면 삼납언이 관백을 대신해서 연향을 주관한다. 각각에게 찬반을 차려내었으며 삼배한 후 과하였다. 상상관은 내청에 앉고 상관·차관·중관·하관은 각각 앉아 있는 장소에서 향연을 받았는데 모두 연향을 주관하는 관리가 있었다.¹⁹²⁾

전명다례는 의례주(儀禮酒)와 향선(饗膳), 차가 이어지는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1607년의 사행기록인 『해사록』과 1617년의 『부상록』, 1636년의 『병자일본부일기』에는 차를 마시고 의식을 마무리하는 모습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A) 술 마시기를 마치자 밥상을 거두고 다과상을 다시 올렸다. 차 마시기를 끝낸 뒤에 예를 치르고 나왔다.¹⁹³⁾

191) 『東槎錄』, <10월 5일(丙戌)> “…… 朝食後, 調興爲承受禮曹書契贈物, 來候館下. 正使以下具冠帶出廳, 調興服其公服而北向四拜, 祇受義成玄方及渠三處所送禮物而出. 俄而玄方袈裟, 義成調興具公服, 皆脫履而入, 行相揖禮. 使臣居東壁, 玄方以下居西壁, 皆坐交椅, 再行茶禮. ……”

192) 『增正交隣志』 제5권, <彼地宴享> “…… 到江戶傳命日, 關白親行茶禮. 訖仍行宴禮. 使臣更入次堂, 三納言代關曰押宴. 各進饌盤三杯而罷. 上上官坐於內廳, 上次中下官各於所坐處享宴, 而皆有押宴之官.”

(B) 잔칫상을 치우고 찻상을 올렸다. 차를 마시고 사신이 당초 의식과 같이 배례를 하니, 수충이 일어나서 들어가는데 또한 맨발이었다.¹⁹⁴⁾

(C) 그 술잔 돌리는 의식이 끝나자, 또 찻상이 들어와 차를 들고 끝냈다.¹⁹⁵⁾

위 내용으로 볼 때 ‘다례’의 중심에 차가 제공되어 그 성격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외 사행기록에는 어떠한 이유인지 전명다례에 차가 제공된 내용이 기록되어있지 않다. 이 점에 대하여 박정희(2010: 217)는 이유 두 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조선에서 갔던 사신들이 차에 대해 무관심했거나, 거기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상차림이 워낙 화려하여 차가 부수적으로만 보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의식다례에서는 으레 차를 마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서 생략해 버렸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함께 다녀온 사행 기록에서 차 마신 것을 쓰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사실은 굳이 쓸 필요가 없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공적 기록 측면으로 살펴볼 때, 개인의 차에 대한 관심여부 보다는 의식다례라는 성격상 음다 기록을 옮길 필요성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회답서를 받는 의식에서 다례에 관한 것은 『증정교린지』 제5권의 <수회답의>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가 되면 관반 등이 관우를 치우고 외청에 탁자를 두고 물건을 배열한다. 잠시 후 회답서가 도착하면 삼사는 공복을 입고 계단 아래에 나아가 맞이한다. 대마도주가 받들고 앞서서 인도하고 집정 2인이 그 뒤를 따라 대청에 들어와 책상 위에 놓고 동서로 나누어 마주 대하고 앉는다. 차 1순을 행하고 일어나 자리를 중청으로 옮겨 앉는다. 또한 사행을 전별할 때에 주는 물건을 청상에 펼쳐 놓으면 정사 이하 하관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영수한다. 그렇게 한 후에 집정 이하가 차례로 회답서계를 와서 바치며, 쓰시마의 회답서는 돌아오는 길에 받아온다.¹⁹⁶⁾

193) 『海槎錄』下, <6월 6일(丁酉)> “…… 飲訖撤飯, 更進果茶. 茶罷行禮而出. ……”

194) 李景稷, 『扶桑錄』, <8월 26일(戊午)> “……宴床輟, 進茶床. 茶罷, 使臣行拜禮如初儀, 秀忠起入, 亦跣足矣. ……”

195) 『丙子日本日記』, <12월 14일(甲申)> “……酌禮既罷, 又進茶床, 飲而罷. ……”

196) 『增正交隣志』 권5, <受回答儀> “竣事臨還, 館伴等修掃館宇, 置卓於外廳排列物件. 俄而回書至, 則三使公服出迎於階下. 島主奉而先導, 執政二人隨之, 進入大廳, 置於案上, 分東西對坐. 行茶一巡, 而起移坐中廳. 又以私贖行中之物列於廳上, 使以下至下官以次領受. 然後執政以下次第來, 呈回答書契, 馬島回書則回路受來.”

위의 기록은 1682년 임술사행에 참여했던 역관 김지남의 기록으로 통신사들이 묵었던 관소(館所)에서 차를 마시며 수회답의 의식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담고 있다. 또한 쓰시마에서는 회답과 함께 별폭(別幅)이 조선의 예조에 전달되었는데, 반례품(返禮品)중에는 차기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1655년(을미)사행록에는 '대다완발(大茶碗鉢) 20개', 1682년(임술)사행 기록에는 '적동 명완(赤銅 茗盥) 30개', 1711년(신묘)사행록에는 '수납중명완(粹鑱中茗碗) 10개'을 받았다고 전한다.

규격화된 공식의례에서 차를 접대하고 이를 함께 마신다고 하는 행위는 차가 갖는 비극물적 속성을 가장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제의전에서의 다례는 차가 지니는 경외심 및 신성성이 내포된 의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다례의식에 노출된 사행원들 또한 차에 대하여 음료이상의 인식을 갖게 되었을 개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또한 반례품으로 차생활과 관련된 기물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사행 때 일본의 차문화가 반영된 물적 교류현상의 일면을 읽을 수 있다.

2) 茶饗應의 경험

조선의 사행원들에게 일본에서 경험된 차문화는 공식적 다례이외 연회에서의 차 접대와 행로 일상에서 제공된 차를 통해 확인된다. 차에 대한 인식측면에 있어 연회에서의 차 접대와 일공 때 차 제공은 위에서 살펴 본 다례에서의 차 인식과는 그 의미를 달리한다. 차 향응에서는 차 본연의 순수한 음료로서의 기능과 함께 사교의 소통 음료로서 역할이 일본문화를 바탕으로 사행단들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노출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공식 연회에서의 차 접대는 앞서 살펴 본 다례의식과 병행되어 성격 구분이 모호하게 진행되기도 한다. 즉 공적인 연회자리에서의 음다 경우 다례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1617년 『부상록』의 전명다례에 대한 기술 부분 역시 다례 끝에 다담상과 이어 후반부 연향의 끝 부분에 올려지는 찻상의 성격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 다만 다례라 명명되지 않은 공식연인 하선연(下船宴)·상선연(上船宴) 등과 사연(私宴)자리에서 차접대는 응당히 음료로서의 향응이라 볼 수 있다. 하선연 경우, 1748년(무진) 사행 기록의 “마치 주례

와 같이 차를 올렸다” 라는 내용으로 볼 때 차가 한 번이 아닌 석 잔에 세 번씩 아홉 잔의 차가 올려졌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상선연 경우, 1764년 갑신사행 기록인 『해사일기』에는 모든 일을 마치고 쓰시마를 떠나기 전에 전별연을 쓰시마 도주의 집에서 행하였는데 종전의 영향과는 달리 간단히 차 한 잔을 하고 헤어졌다고 적고 있다.

사연 경우, 1764년(갑신) 사행록의 “차 마시기를 마치고 시 짓기를 청하였으나 사신으로서의 일을 마치지 않아 사양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볼 때 시문창수(詩文昌酬)를 위한 분위기 조성, 소통음료로서의 역할을 차가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마도종가문서고문서(對馬島宗家文書古文書)』 중에는 차 접대와 관련하여 사환이 유의해야 할 규범, 다기 및 차 종류에 대한 내용이 다수 언급되어 있다. 이로 볼 때 정례화된 다례의식에 버금가는 차 접대의식이 일본의 발달된 차문화를 배경으로 온축되어 구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종가문서의 내용 중 1764년 갑신사행 일원에 대한 차 향응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 지시 문서의 내용은 차를 진상할 때 통신사의 지위에 따라 차의 등급, 다기를 구분하여 사용할 것을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사(信使) 및 상반(相伴)의 신분에게는 천목대(天目臺: 덴모쿠다이)에 고원요(高原燒: 다카하라야키) 도자기, 최고 등급의 차인 다극(茶極), 그리고 상상관(上上官)의 신분에게는 천목대에 경소(京燒: 교야키) 도자기, 고급류의 차인 다극상(茶極上)을 접대하도록 기록되어 있다. 덴모쿠다이는 부처나 귀인에게 차를 올릴 때만 쓰이던 것으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¹⁹⁷⁾고 한다. 이를 상위의 신분에게 사용한 것은 최고의 대접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등적 접대는 조선의 사행 기록에도 언급되어 있다. 1748년 무진사행 기록에는 관소에 차를 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 차의 품질에도 상하의 구별이 있어서 상품은 삼사신(三使臣)에게만 바치고 다른 사람이 마시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차등적 접대문화 내용을 통해 차가 대접하는 자, 대접받는 자의 인식 안에 암묵적으로 단순히 메마른 입을 축여주는 음료로서의 기능과 함께 접대자의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향응 수준 등 문화적 소양을 함께 담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공식적 연회와 사적 연회자리에서의 차접대 이외 사신일행들이 묵는 객관(客

197) 박정희, 앞의 책, 226쪽.

館) 및 다옥(茶屋)¹⁹⁸⁾에서의 차 접대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1655년 을미사행 기록인 『부상록』에는 행로 중 다옥에서 승려에게 차를 접대 받은 정황기록과 시가 있다.

명해(鳴海)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별관(伐官) 남부우위문(南部右衛門)이 접대하였다. 다시 10리쯤 전진하니 죽옥(竹屋) 두어 칸을 소나무 울타리 풀 우거진 길가에 새로 지었고, 차를 달이는 연기가 몽게몽게 났다. 지키는 중이 조금 머물기를 청하므로, 두 사신과 함께 쉬면서 오연절구를 써서 주었다.

烹得小龍團 소용단을 달이니
朝煙生路畔 아침 연기가 길가에서 나네.
高僧披道衣 고승이 도의를 짓히고
長跪進金盃 끓어앉아 금 찻잔을 올리네.¹⁹⁹⁾

여기서 고승은 차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다승(茶僧)인 것으로 보인다. 다승에 관하여서는 다른 사행기록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 (A) 작은 화로 지핀 불에 금하가 끓어오르자 머리 벗겨진 중이 앉아 차를 달이네. 날마다 새로 달인 그 맛이 좋지마는 병중의 여원 몸은 많이 마셔 아니 되네.²⁰⁰⁾
- (B) 지나는 객관에서는 따로 다승을 두어 밤낮으로 차를 달여서 대접했다. 이 나라의 일상 범절로는 차를 따라갈 것이 없다.²⁰¹⁾
- (C) 관소의 북쪽 모퉁이에 검은 칠을 한 선반을 설치하고 차를 끓이는 그릇 등을 늘어놓았다. 한 왜인이 종일 끓어 앉아 화룻가를 떠나지 않는다. 그 차의 품질에는 상하의 구별이 있다. 상품은 삼사신에게만 바치고 다른 사람은 한 번 맛보려 하여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다.²⁰²⁾

198) 다옥이란 1682년 임술사행에 참여했던 홍우제의 『東槎錄』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참관(站官)과 같은 곳(『국역 海行摠裁』 6, 1975: 166쪽.)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1636년 사행기록인 『해사록』에는 관직이 있고 재산이 있는 자가 반드시 갖추는 차접대를 위한 공간으로 기술하고 있다.(『국역 海行摠裁』 4, 1975, 169-170쪽.)

199) 『국역 海行摠裁』 5, 1975, 504-505쪽.

200) 『국역 海行摠裁』 4, 1975, 228쪽; 1636년 김세렴의 『海槎錄』

201) 신유한의 『海遊錄』, 『附聞見雜錄』“而所過館中, 別置茶僧. 晝夜煎湯以待. 其俗之日用常禮, 莫茶若也.”

(D) 내가 이 섬에 머문 지 이제 5일이 되었으나 한 번도 외국차를 맛본 적이 없었다. 밤중에 뒷간에 갔다가 돌아오니, 다승이 촛불을 밝혀 차를 끓여 놓고 나를 기다리며 자지 않는다. 그 밤낮 등대하여도 한 번도 찾지 않음을 생각할 때 애쓰는 것이 참으로 애석하므로 억지로 한 잔을 달라 하여 맛보고 이어서 부채 한 자루를 주었더니²⁰³⁾

이와 같이 다승은 객관 및 특정 다옥에서 손님에 대한 차접대, 즉 통신사 일행에게 차를 접대하는 전문 다인으로 짐작된다.

행로 중에 통신사 일행은 신분에 따라, 시기와 장소에 따라 일공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차 제공 경우 주식인 쌀과 찻감인 신탄(薪炭) 등과 함께 일공으로 제시된 기록으로 볼 때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나 조선의 통신사들에게 필수적인 물(物)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종가기록 중 1655년 사행 일원에게 제공된 1일 차 제공의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첫째는 신분에 따라 제공되는 차의 양이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중관(中官) 이하 신분에게는 차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는 에도지역에서는 차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관(上官)신분 경우에는 유일하게 차 3정(丁)이 제공되었다. 상관 신분에게만 제공된 배경에 대해 박정희(2010: 208)는 에도지역에서는 이동이 많지 않고 대부분 외교의례상 움직였기에 일공으로 차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며, 다른 신분 경우, 즉 삼사(三使)와 상상관(上上官)·독설관(讀說官)·판사관(判事官)은 외교의례에서 정식 상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차 향응이 있기에 제공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다만 정식 상을 받지 못하는 상관에게 도시락 등과 함께 마실 차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조선의 통신사 일행이 일공으로 제공받았던 차는 어떤 차였을까? 몇몇 기록²⁰⁴⁾에 의하면 이들이 접했던 차는 말차 형태인 대인차(袋引茶: 후쿠로비키차), 극전만차(極掬挽茶: 고쿠소소리비키차), 만차(挽茶: 히키차)와 잎차 형태인 센지차(せんじ茶) 등으로 확인된다. 말차 형태 경우 사신의 신분 고하에 따라 품질면에서 차등 있게 제공된 것이 『신유신사기록(辛卯信使記錄)』 중 사신 일행 497명의 1일

202) 조봉채, 『奉使日本時間見錄』, <3월 1일(乙酉)>“館之北隅, 設烏漆架子, 列煎茶器皿之屬. 而有一倭終日跪坐, 不離爐邊. 其茶品有上下之殊. 而上品則只進於三使, 他人雖欲一嘗, 不許之云.”

203) 『국역 海行摠裁』 2, 1974, 42쪽 ; 1764년 조엄 『海槎日記』

204) 『壬戌信使記錄』, 『辛卯信使記錄』, 『寶曆十三癸未年朝鮮人來聘記』

분 식재료 기록에서 확인된다. 조선의 사행단이 일공으로 제공받은 차의 종류에 대해 조선의 사행록(205)에는 말차 형태 경우 ‘청차(靑茶)’라는 표현으로, 잎차형태는 ‘엽차(葉茶)’로 표현되었다. 일공 이외 향응에서는 우지차(宇治茶)·천지차·(天枝茶)·소용단(小龍團) 등을 접대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飲茶風俗의 경험

위에서 살펴 본 사행 길의 공식 다례와 공식연회, 사적 연회, 다옥 그리고 일공 등에서의 차 접대는 조선의 통신사 각각에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다사의 배경에 따라 색다름, 무관심, 일상적인 것으로 비춰졌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의 기록은 사행원들의 경험과 관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들에게 비친 일본의 차 풍속을 살펴본다.

1624년 갑신사행 기록인 『동사록』과 1655년 을미사행 기록인 『부상록(扶桑錄)』 <문견별록>, 1719년 기묘사행에 참여했던 신유한이 기록한 『해유록』에는 일본 17세기, 18세기 전반의 차 관련 풍속을 소개하고 있다. 『동사록』에는 “우지차가 유명한데, 근처 다리에서 천렵하고 차를 끓여 종일 유희한다”라고 하였다. 남용익의 『문견별록』에는 “작설차를 많이 쓰고 우지에서 생산되는 것이 제일 상품이다. 차를 달이는 기구는 극히 정교하고 누구나 즐겨 마신다”라고 현지인들의 다속을 기록하였다. 『해유록』 <부문견잡록> 음식조에서는 일상적 차풍속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은 나라에 남녀가 귀천을 막론하고 그냥 물을 마시는 법이 없고 모두 차를 끓여 마신다. 그래서 집집마다 곡물보다 차 비축에 더 신경을 쓴다. 차는 작설 종류이다. 혹 푸른 잎을 따서 찢고 말려 보드라운 가루로 만들어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기도 하고, 혹 긴 잎은 끓여 찌꺼기를 건져낸 다음 마시기도 한다. 매 식후에는 꼭꼭 한 잔씩 마시기 때문에 저갯거리에 술을 걸고 차를 달이는 사람들이 즐비하다. 그래서 사신 행차의 대소 관원 수백 명이 날마다 청차 한 홉과 엽차 한 묶음씩을 받았다. 지나는 객관에서는 따로 다승을 두어 밤낮으로 차를 달여서

205) 신유한의 『海遊錄』 「附聞見雜錄」 "사신 행차 대소 수백 인이 날마다 공급 받는 것이 각각 청차 한 홉, 엽차 한 묶음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원중거의 『和國志』에는 "차는 우리나라의 작설나무인데 연한 잎으로 가루를 만들어서 청다라고 부른다"고 설명한다.

대접했다. 이 나라의 일상 범절로는 차를 따라갈 것이 없다.²⁰⁶⁾

차문화가 발달되어 있던 17~18세기 일본의 일상적인 차 풍속과 조선 사신들에 대하여 제공되던 차의 형태, 곡진한 차접대의 모습에 대한 묘사이다. 여름철 야외 유흥의 자리에서도 차는 유용되었고, 일상 저자거리에서 누구나 차를 사서 마실 수 있을 만큼 차가 일상물로 자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차풍속 중 일본 차문화의 산실과도 같은 다옥(다실)에 대해 1636년 병자사행의 부사 김세렴은 『해사록』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조금 관직이 있고 재산이 있는 자는 반드시 다옥이 있는데, 제도가 굉장하고 화려하다. 뒤쪽에 한 칸을 말만한 크기로 만들어서 저모로 덮고 황토로 바르고 죽비로 문을 달아 검약하게 하기를 힘쓴다. 작은 구멍을 내어 겨우 드나들 수 있게 하는데, 귀한 손님이 오면 구멍을 열고 맞아들여 그 안에서 차를 마신다. 대개 그 본심은 다만 남에게 소박하게 보이고자 할 뿐만 아니라, 잔을 들며 잠깐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불화가 갑자기 일어나므로, 여러 배종하는 자를 끊어서 뜻밖의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²⁰⁷⁾

다옥에 대해 정확한 묘사뿐만 아니라 건물 구조의 의도까지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 해석하고 있다. 『문견별록』에도 일본 내 작은 관직에 있는 자, 조금의 재산이라도 있는 자는 다옥을 갖추고 있다고 적고 있다. 1764년 갑신사행의 서기로 참여하였던 원중거(元重舉, 1719~1790)는 일본의 차문화와 관련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행로 중) 따르는 무리 가운데 두 사람은 각각 네모난 상자를 지고 갔는데, 상자 하나에는 다구(茶具)와 연다로(烟茶爐)와 작은 그릇 등의 기구가 담겨 있었고 목이 말라 차를 부르면 찻잔을 기우려 단지의 차를 따라 주었다.²⁰⁸⁾

206) 신유한, 『海游錄』 下 <附聞見雜錄> “國中貴賤男女, 無一飲水之法, 而必飲茶湯. 卽家家蓄茶, 甚於穀物. 茶是雀舌之類. 而或取青芽. 搗乾細末, 溫湯調飲, 或以長葉煮湯, 去滓而飲. 每食後必健倒一盃, 至於市街道路, 設爐煎茶者, 千里相望. 使行大小數百人, 日日所供, 各得青茶一合葉茶一束. 而所過館中, 別置茶僧, 晝夜煎湯以待. 其俗之日用常禮, 莫茶若也.”

207) 김세렴, 『海槎錄』 <聞見雜錄> “小有官職, 稍有財產者, 必有茶屋, 制度宏麗. 後面設一間如斗大, 覆以荳茅, 塗以黃土, 橫門竹扉, 務極儉約. 闢小穴僅能出入, 上客至則開穴延入, 飲茶其中. 蓋其本心, 非但欲以樸素示人, 御盃立談, 罅隙突起, 故屏絕群從, 以防不虞.”

208) 원중거, 김경숙 옮김, 『조선 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소명출판, 2006, 272쪽.

조업과 같이 사행에 참여했던 원중거는 행로 중 사행원들에게 차를 접대하는 일본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와 같은 기록으로 볼 때 사행 여정에서 이동 중에도 차를 일상적으로 마실 수 있었던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인들은 사신일행에게 사적 인사를 할 때 선물로 차를 보내오기도 하였다.²⁰⁹⁾ 이를 볼 때 일본에서도 차가 예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로 조선 사행단에게 들어 온 차는 일행들에게 품평되었다. 1655년 을미사행기록에는 “동해도 각지에서 차를 권해 받아 차를 비교해보니 우지차가 제일 좋았다”고 평하고 있다. 차를 다수 접하고 마셔 보면서 품평까지 했을 정도라면 조선의 사신일행 또한 다사 관련한 지식을 어느 정도 섭렵한 상태이며 차를 애호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의 주인공인 남용익은 통신사 종사관으로 참여하였다. 그의 사행 참여 이전의 이력을 볼 때 김수항·이단상 등과 차를 마시며 시문을 논한 정황상 다사 경험이 정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통신사행에 참여하였던 인물 중 1711년 신묘사행에 파견되었던 조태억(趙泰億, 1675~1728) 역시 일상을 노래한 몇 편의 다사에서 일상 속에서 차를 애호한 차인으로 확인된다.

이외 사행 경험이 있는 자 중 다사를 즐기고, 견문한 일본차문화에 관한 지식과 조선의 실정에 맞는 차의 효용성, 경제성을 기술한 대표적 지식인 이덕리는 1763년 갑신사행에 부사 이인배의 자제군관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1785년 저술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의 저서 『기다』에는 서책을 통한 지식이 아닌 일본 견문의 결과물로 보이는 내용이 보인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차 진액은 멋대로 만들어서 맛이 쓰고 약용으로밖에 못 쓴다. 일본의 향다고(香茶膏)만 못하다”라는 기술이다. 이는 일본 향다고의 제조방법 및 맛에 대해서도 정확한 비교 품평을 할 정도로 일본 견문을 바탕으로 한 발언이라 할 것이다.

19세기 일본차에 대한 품평 기록인 이유원의 <영산본원차종(詠山本園茶種)>시를 살펴보면, 차문화와 관련된 누차적 일본 사행단의 견문과 교류의 결과가 19세기에 조선 땅에 일본의 각종 차들이 들어오고 품평이라는 고도의 다사행위가 가능했음이 확인된다. 이유원은 『임하필기』에서 일본차에 대한 구체적 이름 언급뿐만 아니라 <영산본원차종> 시 병서에서 산본원에서 생산되는 차중 좋은 것을 가려 상품마다 시를 짓는다고 적고 있다. 정민(2011:633)은 이 시에 대해 시를 보면

209) 1643년 계미사행 기록에 " 信濃守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서 문안하고 宇治茶 3포를 보내왔다. "라 하였다.

각각의 차종을 직접 맛보고서 나름의 특성을 파악한 뒤에 쓴 시임을 알 수가 있다. 그의 차에 대한 애호벽이 어느 정도였는지 잘 알려주는 자료일 뿐 아니라, 19세기에 일본차에 대한 유일한 본격 품평의 내용을 담은 시여서 일본 쪽에서 볼 때도 매우 귀한 자료라 할 수 있다고 평하였다.

이유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 다양한 일본차를 접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유추할 수 있는 배경은 통신사 일행의 인적교류 속에 이루어진 네트워크와 물적 교류가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일단을 이상적의 시 한편과 그 제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시는 김석준(金奭準, 1831~1915)이 선물로 보낸 일본차와 차호를 이상적이 받고, 차를 우려 마시고 그 감상을 남긴 것이다. 이 시의 제목은 '김소당이 후지산 차와 차호를 보내왔는데 모두 일본 것이다(金小棠惠富士山茶及茶壺 皆日本物也)'이며 내용과 내용 본문 주에는 이 차호의 색은 난색(卵色)으로 제품이 정밀하고 우수한 천하일(天下一)이라고 적고 있다. 이를 볼 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일본방문 기회가 있던 김석준이 품질이 우수한 차와 차호를 구입하여 이상적에게 선물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정황은 19세기뿐만 아니라 그 이전 일본 사행에서 돌아온 사행일행이 일본산 차기물 및 차를 조선에 들여왔을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둔다.

위에서 살펴 본 일본과의 인적교류 속에 진행된 다양한 성향의 다사 노출과 차와 기물의 물적 유입은 후기 조선 지식인들이 중국에 편중 애호된 다사 견문 및 경험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다. 동시에 그들의 다사내용을 보다 다양하게 조직하고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유효한 코드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조선과 대(對) 청나라와 일본 간의 대외적 차문화 교섭 과정과 내용들을 주로 사행과 관련한 인적교류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차문화의 중흥 배경에는 대외적 교섭에 의한 차문화의 필연적 노출을 수용했던 사행 일행과 국내 그들과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던 국내 지식인들이 자리한다. 그들의 구체적 다사 활동과 향유를 통해 구축된 문화적 역량은 조선 후기 차문화가 흥성하게 되는 기폭제였다.

V. 조선 후기 지식인 계층의 茶事 인식 경향과 茶事 전개 양상

1. 茶事 인식 경향

조선 후기 지식인들은 차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 물음에 대한 출발은 후기 지식인들이 차를 어떻게 이용하여 왔는지, 어떤 이유로 마시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이 장에서는 후기 지식인들의 다사 실재를 살펴볼 수 있는 기록들을 통해 그들이 차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동시에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다사가 어떤 성향으로 향유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차문화의 역사에서 차는 기본적으로 약용·식용·음용 수순으로 발전하여 왔다. 이는 다시 시대적인 사회, 문화 조건에 따라 이들 이용 방법이 혼재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일본의 다니가와테츠조(谷川徹三)는 『차의 미학(茶의 美學)』에서 차를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예술로서의 차의 구조 분석을 통해 사교적 놀이로서의 차, 의례로서의 차, 수행으로서의 차로 구분하였다.²¹⁰⁾ 이는 차 이용방법이 보다 정신문화 영역으로의 확장된 모습을 보여준다. 차를 어떻게 이용하는냐 하는 목적(방법)의 구분은 일차적으로 차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냐 하는 바탕에서 이루어진다. 이소영(2008: 244)은 차는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식용차·수양차·음료차·약용차·의례차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후기 지식인들의 차에 대한 인식 측면을 이학적인 약리적으로서의 인식과 몸과 마음을 닦는 수양물, 즉 정신문화 영역으로의 인식으로 대별하여 살펴본다. 기실 차는 약리적 기능으로 마음을 편히 안정시키고 정신을 맑게 하여 음다인으로 하여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그 결과 차는 단순히 약용으로서의 기능에 머물지 않고 다사를 통해 정신문화 영역으로 확대되

210) 노근숙, 「日本 草庵茶의 形成過程을 통해 본 茶文化 構造에 관한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4쪽 참조.

는 기제를 마련하게 된다. 18세기에 나온 이운해(李運海, 1710~?)의 『부풍향다보(扶風鄉茶譜): 1755년』²¹¹⁾와 이덕리의 『기다』 <서설(序說)>에는 조선 후기 차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부풍은 무장과 3사지 떨어져있다. 듣자하니 무장의 선운사에는 이름난 차가 있
다는데, 관민이 채취하여 마실 줄을 몰라 보통 풀처럼 천하게 여겨 부목으로나
쓰니 몹시 애석하였다. 그래서 관아의 하인을 보내서 이를 채취해오게 했다.²¹²⁾

우리나라에서는 호남과 영남의 여러 고을에서 차가 난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
地勝覽)』과 『고사촬요(故事撮要)』 등에 실려 있는 것은 다만 열 곳 백 곳 중에
하나일 뿐이다. 우리나라 풍습이 비록 작설을 사용하여 약에 넣기는 해도, 대부
분 차와 작설이 본래 같은 물건인 줄은 모른다. 때문에 일찌기 차를 채취하여 차
를 마시는 자가 없었다. 후 호사자가 중국 시장에서 사 가지고 올지라도, 가까이
나라 안에서 취할 줄은 모른다. 경진년(1760년, 영조 36)에 배편으로 차가 오자,
온 나라가 비로소 차의 생김새를 알게 되었다. 10년간 모두 사용하여, 떨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또한 따서 쓸 줄은 모른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차는 또한 그
다지 긴요한 물건이 아니어서, 있고 없고를 따질 것이 못 됨이 분명하다. ²¹³⁾

위 글을 통해 당시 차가 민간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음다용보다는 약용으로서
이용되고 있음과 차 공효의 가치에 대해 별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이 확인
된다. “보통 풀처럼 천하게 여겨 부목으로나 쓰니”라는 표현과 『기다』 <서설>의
다른 단락 “우리나라는 차가 울타리 가나 섬돌 옆에서 나는데도 마치 아무짝에
쓸데없는 토란처럼 본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조차 잊어버렸다”²¹⁴⁾라는 표현을 통
해 당시 차가 자라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유용하게 쓰지 못하는
지방민의 실태를 알 수 있다. 특히 이덕리가 이와 같이 토로한 배경에는 당시 그
가 진주에서 유배 중이었던 사실이 자리한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는 지방민

211) 『扶風鄉茶譜』에는 차의 약리적 기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던 부안현감 이운해가 차를 약용으
로 이용, 향약을 가미해 만든 香藥茶에 대한 구체적 제다법이 기술되어있다.

212) 이운해, 『扶風鄉茶譜』 “扶風之去茂長, 三舍地. 聞茂之禪雲寺有名茶, 官民不識採啜, 賤之凡卉,
爲副木之取, 甚可惜也. 送官隸採之……” (정민, 앞의 책, 33쪽)

213) 이덕리, 『記茶』 <서설> “我東產茶之邑, 遍於湖嶺. 載與地勝覽, 故事撮要等書者, 特其百十之
一也. 東俗雖用雀舌入藥, 舉不知茶與雀舌, 本是一物. 故曾未有採茶飲茶者. 或好事者, 寧買來
燕市, 而不知近取諸國中. 庚辰舶茶之來, 一國始識茶面. 十年爛用, 告乏已久, 亦不知採用. 則
茶之於東人 其亦沒緊要之物 不足爲有無明矣.” (정민, 위의 책, 50쪽)

214) “我東則產於筵籬墘, 而視若土炭無用之物, 並與其名而忘之.”

들의 차에 대한 인식을 잘 대변해주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윤형규(尹馨圭, 1763~1840)의 <다설(茶說)>은 19세기 전반, 조선의 지식인이 차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이다.

대개 차는 고기를 먹는 사람의 물건이다. 호화로운 상을 떡 벌어지게 차려 배불리 먹고 앉아 있으면 오장에는 고기가 가득하고 근골에는 개기름이 줄줄 흘러, 온몸은 갑자기 피곤하고 정신은 건딜 수 없이 몽롱하다. 이때에 차 한 사발을 올려 위장을 씻어낼 것 같으면 정신이 맑아지고 기운이 건강해져 운용하기에 편리하다.…… 호사가라고 꼭 고기를 먹는 자는 아니다. 비록 빈한한 유생과 재야의 선비라 할지라도 관례와 혼례 같은 길일이나 세시의 명절을 만나면, 빈객과 주인이 예의로써 대접하고 친한 벗들이 함께 모여 즐겁게 마시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소박한 음식과 먹을 게 없는 잔칫상이나 한번 배불리 먹기도 전에 안주가 바닥나 버린다. 이런 때에 문득 차상을 불러 권하면서 “이게 아니면 소화를 시켜 속을 편안하게 할 수 없지요”라고 말한다.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그런데도 스스로 맑은 운치라고 여겨 드디어 풍속을 이루고 말았다. …… 지금 나는 고기를 먹는 자도 아니고 또 호사가도 아닌데, 나이 일흔이 되도록 차를 마시기를 쉬지 않았으니 이는 무슨 이유인가, 나는 평소 병이 많고 또 식체에 잘 걸린다. …… 그러나 치료를 할 의학적 방책이 없고 임시로 위급 상황을 구할 방책으로 체한 것이 내려가도록 유도하는 도체단방이 있을 뿐인데, 도체단방으로는 차만큼 좋은 것이 없다.…… 사정이 그렇고 보면 내가 차를 끊지 않고 계속 마시는 것은 고기를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호사가라 그런 것도 아니라, 대개 부득이 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또한 달여서 복용할 때에 폐단이 적지 않으니 어찌할 것인가. 더구나 의학서에 차의 해로움을 말하기를, ……215)

윤형규는 본인의 경험과 의학서를 바탕으로 차의 약리적 기능뿐만 아니라 차 복용 때 일어날 수 있는 폐단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차가 음식물을 잘 소화시키는 효능은 물론 풍속에 손님을 접대하는 자리에 차를

215) 윤형규, 『戲齋雜錄』, <茶說> “夫茶食肉者物也. 食前方才, 飽飫而坐, 臟腑委肉, 筋骨流脂, 渾身頓覺困重, 神氣不堪關茸. 于斯時也, 試進一椀茶, 疏滌腸胃, 則神清氣健, 運用便利. …… 好事者未必皆食肉者. 雖寒儒野士, 遇冠昏吉日, 歲時佳節則, 賓主禮讓, 朋知聚飲, 有不可已也. 然薄饌殘瀝, 滲淡寡味, 是未足爲一飽, 而肴楹既罄. 喚茶輒進曰, 非此莫可以消化而安中也. 豈其然乎. 自爲清致遂成風俗. …… 今余非食肉者, 又非好事者, 猶夫七十年, 啜茶不休, 此何故也. 余素多病 又善於食滯. …… 顧無醫藥可療之策, 臨時救急, 只有導滯單方, 而導體單方, 莫如乎茶矣. …… 然則余之啜茶不休, 非肉食而然也, 非好事而然也, 蓋出於不得已者. 而其亦煎服之際, 爲弊不少奈何. 況醫書言茶之利害曰, ……” (송재소 외, 앞의 책, 93-95쪽.)

권하는 것이 맑은 운치를 도모하는 것임을 기술하고 있다. 차를 약용, 특히 비상시 유용한 약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아취도모의 상징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한 개인에게 차에 대한 인식은 그가 가진 지적, 경험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정신적 측면

조선 후기 지식인들은 약리적으로 차는 신체의 질병 및 증세를 완화, 예방하는 효과와 더불어 신체적 증세 완화에 이어지는 심적 안정 및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마음 수양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은 음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약리적 공효와 전반적 다사를 행하면서 들이는 공력이 더해져 녹아진 결과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차를 영초(靈草)²¹⁶⁾ 또는 선약(仙藥)과 동일시하여 속세에 초연한 정신세계를 획득할 수 있는 정신적 상징물로 인식하였다. 본고에서는 지식인들의 다사 기록 중 다경(茶境)을 드러낸 몇 가지 키워드를 살펴 정신문화로의 인식을 고찰한다.

(1) 淸頭

후기 지식인들의 다사 실제 기록 중 다사가 심적인 부분과 정신을 기르는 것에 대해 유효함을 표현하고 있는 시문들을 살펴본다. 이민구(李敏求, 1589~1670)의 『관동록(關東錄)』에 실린 <취우통수전다방유소사왈 음차령인총명 소이서지(取于筒水煎茶傍有小史曰 飲此令人聰明 笑而書之)>이다.

聖水移人性 성스런 물 인성도 바꾸나니
能令濁者淸 능히 탁한 것을 맑게 한다네.
停甌不欲飲 찻사발 멈추고 마시고 싶지 않음은
我自厭聰明 내가 본래 총명함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네.²¹⁷⁾

216) 당나라 말 蘇廙의 『十六湯品』에서 “차는 본래 영초라 나쁜 기운이 닿으면 썩는다”(茶本靈草 觸之則敗)라고 하였다. 송나라 때 나온 『東溪試茶錄』에는 “차는 모든 초목 중에서도 가장 영험스러운 것이다”(茶於草木爲靈最矣)라 하였다. 원나라 王禎의 『農書』에는 “차는 영초이다”(夫茶靈草也)라 하여 차를 영초와 동일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7) 李敏求, 『東州前集』 권7, 『關東錄』, <取于筒水煎茶傍有小史曰 飲此令人聰明 笑而書之>

시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민구는 우통수로 다린 차를 마시면 총명해진다는 옆 사람의 말을 듣고 총명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에 차를 마시고 싶지 않다고 재치 있게 표현하고 있다. 관동지역을 유람하면서 좋은 물에 차를 달여 마신 사실 뿐만 아니라 차에 대한 인식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문이다.

정태화는 <차동과전다운(次東坡煎茶韻)>에서 햇차를 달여 맛을 보니 정신 상쾌하여 이경(밤 9-11시)까지 책을 읽었다고 읊고 있다. 지식인들에게 차는 각성 효과와 더불어 머리를 맑게 하여 정신활동에 도움되는 기호품임을 알 수 있다.

임상원의 <박모전다(薄暮煎茶)>시문에서는 차 끓는 모습과 소리를 보고 들으니 잠이 깨고 정신이 맑아져 아프던 것이 저절로 덜해 하늘에 오르는듯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전다 자체의 집중이 정신을 맑게 하고 가지고 있던 증세까지 완화시킬 정도의 약리적 상징성을 담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최한기는 『기측체의(氣測體義)』, 『신기통(神氣通)』, <음식훈증(飲食薰蒸)>에서 “정신과 기운을 화창하게 하는 데 좋기로는 오직 순수하고 맑은 차가 제일이다. 입과 가슴의 찌꺼기를 말끔히 씻어내고, 피부와 근맥의 탁한 땀을 발산하니, 정신이 활발해지고 생각이 시원해진다”²¹⁸⁾고 하여 맑은 차 한 잔이 신체적 소통의 원활함을 가져다주는 약리적 효과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정신과 기운을 화창하게 해주는 약리적 기능도 표현하고 있다.

(2)安神

조희일의 <사차(四次)> 시문 중에는 “시과제와 술잔을 헤아리는 산가지는 도공부에 방해되지만 약화로와 차절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詩課酒籌妨學道, 藥爐茶臼可安神)라는 구절이 있다. 양생법을 수행하는 지식인들에게 필수적인 약화로와 차절구, 나아가 다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건강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임상원의 시 <만좌한벽(晩坐寒碧)> 중에는 “차 달이니 그 맛 더욱 좋고 세속의 먼지 씻어 기쁘기도 하다네”(烹茶味更, 喜得洗塵煩)라고 하여 차의 맛과 심적 정화에 대해 읊고 있다. 임상원의 아들 임수간(任守幹, 1665~1721)은 일본 통신사로 참여하여 방문 중 소회를 담은 시 <상근(箱根)>에서 “고개 위 다옥 아래

218) 최한기, 『기측체義』 「神氣通」권2, <口通> 음식훈증 “以適於神氣和暢, 而惟純澹之茶湯爲最. 洗滌口齒胸膈之渣滓, 洞澈皮膚筋脈之汗液, 精神活潑, 意思寬敞.”

말을 멈추고 향기로운 차 진정 좋아 마음의 번잡함을 씻는다네”(嶺上停驂茶屋下, 茗香正好滌煩襟)라고 하여 차가 심적 정화에 유효함을 읊고 있다.

윤봉구(尹鳳九, 1681~1767)는 <칠월망일(七月望日)> 3~4구에서 “젓어드는 이 근심 무엇 때문인지 한 사발 헛차 달여 씻어내야지”(澆下清愁何物在 一甌新茗試槍旗)라고 하여 근심스런 마음을 씻어내기 위해 차를 달임을 읊고 있다.

박제가는 서상수의 아들 서유전이 방문했을 때 지은 시인 <관헌지자서생유전 내방 오수(觀軒之子徐生有田來訪 五首)> 중 2수에서 벗 서상수를 회상하며 ‘마음 상해 차 마시며 향 사르던 나그네(傷心啜茗焚香客)’라고 표현하고 있다. 친구인 박제가의 관점에서 서상수가 차를 마신 것은 상심한 마음을 위로해주는 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박제가는 차 자체를 맑은 것, 나아가 다사를 청정한 일로 인식하고 있음이 다음의 <금수정차판상운(金水亭次板上韻)> 시에서 드러난다.

縣治微茫辨數楹	고을 관사 아스라이 기둥 몇 칸 분별되니
關防誰識古畿營	경기 감영 옛터인 줄 그 누가 알겠는가.
天將畫意鳴金水	하늘은 화의로서 금수정을 울리고
世以仙緣屬永平	세상은 선연으로 영평에 날 보냈네.
石作酒船窪更好	바위는 술 배 되니 파인 곳 더욱 좋고
波搖粉榜倒還明	물결 속의 시판은 비친 모습 선명해라.
蕭然茗粥忘賓主	맑디맑은 차일에 손님 주인 잊었노니
官不期清也自清	관리는 청렴 기약 아니해도 절로 맑네. ²¹⁹⁾

장훈이 옥경산방에서 열린 다회에서 유장경의 운을 따서 지은 시에는 “한 두 잔 차를 마시고 나니 가슴속 번민 사라지누나”(飲茶一兩椀 胸中破悶礙)라는 표현이 있다. 음다를 중심으로 한 모임에서 차가 유희적 매개체 이전에 청정한 마음 자리가 되게 하는 매개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김려(金瀾, 1766~1822)는 다음의 시에서 차의 약리적 각성효과 뿐만 아니라 심신의 안정과 청정한 마음 유지에 도움이 되는 차의 기능을 언급하고 있다.

.....

去疾在須臾 질병도 금방 낫는데

219) 박제가, 『貞菴閣集』 <金水亭次板上韻>

豈愁眠不醒 졸음 따위 걱정하랴.
 淸宵汲銀瓶 맑은 밤 은병에 물을 길어
 長日煮石鼎 긴긴 낮 돌솥에 끓이네.
 我無苦海航 고해 속에 항해할 일 없으니
 沈淪詎可拯 어찌 빠져 건질 일 있으랴.
 曠也有分施 색 상인이 나누어주시니
 亦足助淸澂 맑디맑음 도울 만하지.220)

황상의 『치원유고』 권2, <차를 구걸하며> 중 “그대여 부디 아끼지 마오, 붉은
 녹향 향기가 계눈이 일어나고 솔바람 소리 들릴 제 욕심과 번뇌 가득한 내장을
 서너 차례 씻어 내리는 것을”(請君莫惜紫茸香 魚眼松風塵肚俗腸三廻四廻瀉)라는
 표현이 있다. 황상이 초의에게 차를 부탁하는 절명시로서 전다 과정의 공효가 경
 계해야 할 속기를 씻어준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김명희는 초의스님에게 차를 받고 사례한 시에서 초의차가 우울함과 번뇌를 씻
 어주는 공효가 뛰어난을 전하였고, 이시현은 <실제(失題)> 3수의 제2수에서 “시
 림 녹임 구태여 석 잔 술이 필요 없고, 근심 흠음 오히려 한 잔 차로 충분하리”
 (消愁未必三盃酒, 散慮猶須一碗茶)라고 하여 오롯이 차 한 잔이면 근심을 없앨 수
 있다고 하였다.

신현의 <팽다(烹茶)> 7, 8구와 <추려삼십수>연작 제24수 3~6구, <오수적감기
 이시초증허소치(午睡適酣起而試草贈許小痴)>1~2구 중에는 차의 효능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읊고 있다.

.....

近日不堪昏似夢 요즘 들어 꿈속처럼 어지러움 힘들더니
 塵腸滌盡悅如醒 찌든 내장 씻어내자 술 깬 듯이 기쁘도다.221)

.....

雪片每當煎處見 차 달일 때 언제나 설편이 보이고
 松風更擬沸時聽 물 끓을 땐 다시금 솔바람 소리 들리는 듯.
 索居奚止孤愁破 외진 거처 근심을 없애줄 뿐 아니라
 暮境偏宜宿醉醒 노년에 숙취에서 깨는 데도 꼭 맞다네. 222)

220) 김려, 『潭庭遺藁』 권3, <籜翁貽余詩 求得佳茗 適贖上人先獻之 只和其詩 不副以茗> (송재소
 의, 앞의 책, 75-76쪽)

221) 신현, 『威堂集』, <烹茶> (정민, 앞의 책, 540쪽)

午睡初廻秋水神 낮잠서 갓 깨어나 정신이 해맑은데,
甌茶淸肺覺氤氳 한 잔 차가 폐를 맑게 해 기운 가득함 깨닫누나.²²³⁾

.....

다사 전반에 조예가 깊었던 신헌은 차에 대하여 다양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팽다>시에서는 차를 달여 마시자 술을 깨었을 때와 같이 기쁨이 지극하다고 하였고, <추려삼십수>에서는 전다과정을 통해 근심이 사라진다고 하였다. <오수적감기이시초증허소치>시에서는 낮잠에서 깨어나 정신이 맑은 가운데 마신 차 한 잔은 마음까지 맑게 하여 좋은 기운이 온축됨을 읊고 있다.

이상적인 김석준이 선물로 보내준 일본산 다호를 받고 읊은 시에서 이 다호에 차를 달이니 번뇌가 씻겨진다고 하여 차의 정화 작용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신헌구(申獻求, 1823~1902)는 대둔사 보련각에서 초의 스님의 제자인 월여스님이 내준 차를 마시고 “좋은 차 막힌 체증 해소하고 육근에 세상 티끌이 침입하지 않게 한다”(煮取茗香消碧痞, 六根不教世塵侵)²²⁴⁾라고 하여 차의 효능 중 신체에 미치는 약리적 작용뿐만 아니라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는데도 차가 유효함을 전한다.

이유원은 <죽로차>에서 “막힌 가슴 시원하게 뚫리고 이 사이에 단맛이 도는데 마음 아는 벗 곁에 많지 않아 안타깝구나”(胸膈淸爽齒根甘 知心友人恨不遍)²²⁵⁾라 하였고, <가곡다옥기(嘉谷茶屋記)>에서는 정품 용정차와 우전차를 우려 마신 소회를 밝히며 차를 마시니 정신이 깨어난다고 하였다. <詠山本園茶種> 중 노락(老樂)에서는 작은 상자 낡은 합에 오래 향을 간직하고 있던 노락을 가끔 마시면 문득 근심을 잊는다고 하였다.²²⁶⁾ 차의 심적 정화기능에 대해 누구보다 정밀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연상(吳淵常, 1765~1821)은 <종산잡언(鐘山雜言)>에서 종암 별서(別墅) 속에서 일상 속 차생활을 언급하고 있다.

222) 신헌, 위의 책, <楸廬三十首> 연작 제 24수 (정민, 위의 책, 541쪽.)

223) 앞의 책, <午睡適酣起而試草贈許小痴> (정민, 앞의 책, 543쪽.)

224) 신헌구, <贈月如上人> (정민, 위의 책, 555쪽)

225) 이유원, 『林下筆記』 책4, <죽로차>

226) 이유원, 『嘉梧藁略』, <詠山本園茶種> 중 노락(老樂)

한 겨울 매서운 추위를 당하여 먹구름이 막 걷히고 아침 햇살이 떠오르면 창과 벽에 흙손질을 하고 책상의 도서를 정리한다. 그 안에 홀로 우뚝이 앉아서 단향을 피우고 차를 끓여 책을 뒤적이고 붓을 놀린다. 뜻이 절로 맑고 고고해지니 영원히 이렇게 살고 싶은 즐거움이 있게 된다. 내가 일찍이 이러한 말을 사람들에게 하였더니, 사람들은 모두 너무 썰렁하다 하였다. 저들은 따스하고 화려한 것에 병들어 있다. 어찌 이러한 즐거움을 알겠는가? 애오라지 스스로 즐길 뿐이다.²²⁷⁾

오연상에게 있어 다사를 비롯한 분향, 독서, 시작은 소박하지만 맑고 고고한 일이었다. 이러한 한겨울 일상을 진락(眞樂)으로 삼아 자오(自娛)하는 그의 생활을 통해 다사가 정신적 측면에서 공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靈藥

이안눌의 시 <강선대하작(降仙臺下作)>를 살펴본다.

.....

蔥蘢雲樹間 밝고 푸른 구름 머물고 있는 숲속엔
尙有燒丹鼎 아직도 단약 만들던 솥이 있다네.
願吾躡高躡 원컨대 내 그 선적을 따라가
林棲啜芳茗 꽃다운 차 마시며 숲에서 살려 한다네.²²⁸⁾

이 시는 호서지방의 선대(仙臺)를 유람하고 내려오면서 지은 시이다. 이 시를 통해 신선세계에 대한 동경과 신선 된다는 명약인 단약과 차를 동일시하는 이안눌의 인식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신선세계에 대한 동경은 정홍명의 <득원제우약회산방 임행불보아지(得原諸友約會山房 臨行 不報我知)>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聞君有約會仙家 듣자니 그대들 선가에서 만날 약속 있었다니
來往尋眞路不賒 오고 가는 길 멀지 않은 곳이라네.
金地暗求丹竈藥 좋은 곳 몰래 찾아 단약을 구해서

227) 오연상, 『約庵集』 권5, 「鐘山雜言」 “當隆冬盛寒, 宿雲初霽朝旭始舒, 壻塞戶壁几案圖史整. 其位置兀然坐孚其中, 或爇檀烹茗或攤書揮毫. 意思清高自有永矢之樂. 余嘗以此語人, 人皆以爲太冷澹. 彼病於燠麗繁華者也. 烏足以知此哉. 聊在自樂而已.”

228) 이안눌, 『東岳集』 권4, 『湖西錄』 所收.

寶床時啜雪山茶 보배로운 평상에서 설산차로 마셨나보군.²²⁹⁾

시제에서 알 수 있듯이 친구들이 산방 모임에 그를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운함을 표현한 시이다. 그는 친구들의 모임을 선가의 모임으로 비유하고 그 부러움을 설산차를 마신 것으로 예측하여 표현하고 있다. 차를 선가에서 먹는 단약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더불어 확인할 수 있다. 이명한의 다사 관련한 시문 중 선가와 관련한 두 수를 살펴본다.

醉睡林齋渴夢長 절집에서 취해 자면서 갈증 심했는데
一甌新茗敵仙漿 한 사발 햇차는 선장보다 낫구려.
逢僧喚起題詩興 스님 불러 제를 보고 시흥이 이는데
海雨山雲滿卷涼 바다와 산에 비 그치고 구름 걷히니 서늘하여라.²³⁰⁾

이명한은 절집에서 갈증 때문에 마신 한 사발의 햇차에 대해 신선이 먹는 음료보다 더 우위에 놓고 있다. 이는 그가 차를 단순히 갈증을 해소시키는 마실 거리가 아니라 신성한 의미가 부여된 음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직(禁直)> 시에서는 궁궐의 찬 우물물로 차를 달여 마시고난 후 소회에 대해 “그 시원함은 상소 올린 때와 같으니 신선의 무리와 함께 한바탕 취한듯하네”(時淸敢擬投封事 且共仙曹醉一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좋은 물에 차를 달여 마신 여유의 경지를 신선과 함께 유유자적하는 선경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三盃一笑臥雲邊 세 잔 마시고 구름 베고 누우니 참 좋아
山水吾今却有緣 이제야 자연과 나 사이 인연 깊다네.
未必天行能化羽 하늘나라 가기 전에 날개 돌아서
脫然塵去是爲仙 속세를 벗어나면 곧 신선 되겠지.
烟霞積氣連呼吸 연기와 안개 쌓인 기운 연해 호흡하고
楓榭寒聲雜寤眠 단풍과 떡갈나무의 바람소리 잠결에 듣네.
短棹鷗汀容與返 홀로 배 저어 갈매기 뜰 물가를 도니
晚茶淸興欲翩翩 늦은 차 청아한 흥에 훨훨 날 것 같다네.²³¹⁾

229) 정홍명, 『畸庵集』, <得原諸友約會山房 臨行 不報我知> (류건집, 앞의 책, 124쪽)

230) 이명한, 『白洲集』, <次題高峯僧卷>

231) 尹鳳九, 『屏溪集』 권2, <要與沿澗亭下> (류건집, 앞의 책, 232쪽.)

윤봉구(尹鳳九, 1681~1767)는 <요여연회정하(要與沿洄亭下)>시에서 차를 마시고 자연과 일체가 되어 조화로우니 신선의 초연함을 추구하게 됨을 읊고 있다. 민우수(閔遇洙, 1694~1756)는 <화점재전은사시운(和佔齋田隱四時韻)> 8수 3~4구에서 “산차 한 줌을 관에 넣고 달여 마시면 신선의 향해를 마시듯이 시심이 맑아진다”(掬取輕明淪山茗 如飲沆瀣清心脾)라 하여 차를 신선이 마신다는 향해와 동격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신성성 부여 역시 선인세계에 대한 동경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신광수(申光洙, 1712~1775)는 <여성천원생(與成川元生)>에서 “작년에 삼남은 차가 귀해서 십 전에 열다섯 잎과 바꿨다. 차가 모두 떨어져 정말 괴롭고 위가 나빠져 견디지 못하였다. 이런 즈음에 이 차 마침 이르르니 노동의 아홉 잔 차 마시듯 하여 양쪽 겨드랑이에서 바람이 솔솔 인다”²³²⁾라 하였다. 귀하게 얻게 된 차 한 잔을 마시고 마치 신선이 된 듯한 초탈한 경지를 누리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채제공의 <옥류동(玉流洞)>에서는 옥류동의 정경과 거기서 펼쳐진 다사가 신선세계의 경지가 아닐까 하는 소감을 적고 있다.

林翠如成滴 숲의 푸르름 물방울로 떨어질 듯하고
 茶香偶惹烟 차 향기 연기와 함께 피어나네.
 神仙果能有 신선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於此稱盤旋 여기 돌아가는 물굽이에 노는 것이리.²³³⁾

이덕무는 서상수의 집에서 그와 마주하여 차를 마시면서 차로 인해 대화가 길어지고 더불어 선경에 노니는 듯해 물아(物我)를 잊었다고 표현하였다. 박제가는 유득공의 시에 차운한 <차운영재남과(次韻冷齋南瓜)>시에서 차를 달이는 과정을 단약을 만드는 불조절과 비교하고 있다. 이는 차를 선약으로 간주하여 신성한 일임을 표현한 것이다.

.....

便從飽後自煎茶 배불리 먹고 나서 차를 끓여 마시니

232) 신광수, 『石北文集』 권12, <與成川元生> “三南昨年茶貴，十錢易十五葉。正苦乏絕，不堪胃敗。此茶適到此際，如喫玉川子九椀茶，兩腋幾欲習習。”

233) 채제공, 『樊巖集』 권5, <玉流洞>

盪面蟾背浮磊砢 등근 먼 불룩한 등 무더기로 뜨는구나.
 分付兒童善爐鼎 아이에게 분부하여 솥에 넣어 잘 끓이니
 此是先生煉丹火 이는 바로 선생의 연단하는 불이로다.²³⁴⁾

.....

정학유는 1842년 호의스님이 보내준 두륜진차와 1850년 각안, 호의스님이 보내준 차를 받고 보낸 편지에서 차를 ‘선미(仙味)’와 ‘옥초의 감로수(沃焦之甘露)’로 표현하였다. 이는 그가 차를 도가적(道家的) 선약(仙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초의선사가 스승의 탐명 서문을 신위에게 부탁하면서 보림백모(寶林白茅)를 보냈다. 이때 신위가 지은 시가 있다.

道潛坡老共周旋 도잠과 소식이 서로를 권면하였더니
 此樂衰年有此年 이러한 즐거움이 늙은 내게도 있을 줄이야.
 苦茗嚴時宜砭俗 엄숙하게 마시는 차는 속인을 경계하기에 알맞고
 好詩佳處合參禪 좋은 시 아름다운 구절은 참선과도 부합되네.²³⁵⁾

여기서 차가 신위에게 속됨을 경계하는 상징물로서, 다선일미(茶禪一味)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적은 김석준이 보내 준 부사산차 한잔이 영약보다 낫다고 표현하고 있다.

徐市祠前野草花 서불의 사당 앞 들풀에 꽃이 피니
 三山何處有仙家 삼산 어디에 선가가 있는가.
 可憐秦帝求靈藥 안타깝네, 진시황이 영약을 구한데도
 爭似先生一椀茶 어찌 선생의 일완차와 같겠는가.²³⁶⁾

이와 같이 지식인들의 다사 관련 시문에는 신선세계와 관련하여 차의 지위를 선계로 이끄는 영약과 비교될 기준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다. 이는 신선세계로의 막연한 동경을 완화시키는 일이자 현실 속에서 다사의 행위를 통해 선인의 세계

234) 박제가, 『貞蕤閣集』, <次韻冷齋南瓜> (박제가, 정민의 역, 앞의 책中, 301쪽.)

235) 신위, 『警修堂全藁』 책17, 「北禪院續藁」 권1, <草衣次余贈錦舫詩韻甚佳. 故更用原韻賦示. 時草衣爲其師玩帀大師, 建三如塔, 乞銘詩於海居都尉, 乞序文於余. 而遺以四茶餅, 卽其手製, 所謂寶林白茅也. 詩中并及之.>

236) 이상적, 『恩誦堂集』 속집 시권3, <金小棠惠富士山茶及茶壺 皆日本物也>

를 즐기고자 한 표현이었다.

위에서 살펴 본 인식을 통해 후기 지식인들의 다사 성향을 세 방향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심성도야로서의 향유 성향이며, 둘째는 아취 도모의 상징으로 이용된 성향이다. 셋째는 유희적 도구로서의 이용 성향이다.

후기 지식인들은 차가 마음의 안정과 정신을 맑게 한다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음다 후 나타나는 원리적 약리 작용과 차와 다사에 부여된 누차적 상징적 의미가 더해져 차를 단순한 물질로서 간주하기보다는 정신물로서 인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는 차를 수양의 매개물로 인식하고 이용하는 것에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특히 다사에 대한 전반적 행위 중 전다는 차가 수양물로 인식되게 하는 중요한 코드였다. 전다는 단순히 차 한 잔을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색·향·기·미를 갖춘 차 한 잔이 나오기까지의 심적, 정신적 공력을 내포한 과정으로 설명된다. 품다, 품수, 불 조절 등 일련의 전다과정에서 심력을 기울이고 정신을 한 곳으로 집중함이 수양의 일면으로 이해되어 심신수양의 대상으로 향유되었던 것이다. 18세기 박제가의 시 <원소 이수(元宵二首)에는 다사와 함께 수신(修身)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있다.

元宵燭有花 정월 보름 촛불을 피워 놓고서
匡坐自煎茶 바로 앉아 나 혼자 차를 끓이네.
努力日三省 힘써 하루 세 가지를 반성하면서
逍遙天一涯 하늘 한 구석에서 노니는 구나.
神之寧毅汝 정신의 편안함으로 너를 길러서
國耳未言家 나라일뿐 집안일은 말하지 않네.
昔夢知何兆 지난번 꿈의 조짐 어이 알까나
金尊耀落霞 금 술잔 지는 놀에 환히 빛났네 .237)

혼자 차를 달이면서 하루 세 가지를 반성하는 일에 힘쓴다는 그의 태도에서 유현(幽玄)한 다사 경지가 느껴진다. 후기 지식인들의 시문 중 전다과정에서 정제된 옷차림 또는 예장차림으로 다사를 행하는 모습²³⁸⁾이 표현된다. 이것 또한 다사과

237) 박제가, 『貞蕤閣集』, <元宵二首> (박제가, 정민 외 역, 앞의 책中, 600쪽)

238) 신위의 <代畫 十三則> ‘起’ 1,2구 “紙窓全白噪朝鴉 烏帽籠頭自注茶”와 홍현주의 <臘雪水烹茶> 중 “自煎不敢付童僕, 頭上半欵烏沙匠”시구를 통해 확인된다. 오사모는 관모(官帽)로서 이를 썼다는 것은 옷차림 또한 정장의 관복차림을 갖추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정을 수신(受心)의 과정으로 동일시한 일면이라 할 수 있다. 『다경』에 나타난 ‘차는 군자와 같아 샅됨이 없다’는 문구가 명시하듯이 차 자체의 성질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는 차 자체 인식에 대한 정신물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하게 하여 군자적 삶을 구현하려는 지식인들에게 더욱 의미가 있었다.

후기 지식인들의 두 번째 다사 성향은 다사를 청아한 일, 아취의 상징적 문화행위로 간주하여 독자적 찾자리나 집단 동호인 모임 등에서 이를 도모한 점이다. 즉 개인적으로는 진락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고, 집단 안에서는 유희적, 사교적 도구로 이용되었다. 진락을 위한 자오적 경향은 신희의 『야언(野言)』에 잘 나타나 있다. 신희는 전원생활 중의 세 가지 즐거움에 대해 “좋은 밤 편하게 앉아 등불을 밝히고 차를 다린다. 모든 사물이 조용하고 개울 물소리만 들리는데, 이부자리 깔지 않고 부담 없이 책을 읽는 것이 첫째 즐거움이다. 비바람이 뒤덮이는 날, 문을 닫고 집안을 쓴 다음, 책을 앞에 가득히 펼쳐놓고 흥에 따라 뽑아보는데, 오가는 사람 하나 없이 주위가 그윽한 것이 두 번째의 즐거움이다. 해 저무는 공산에 가는 눈 흩뿌리고, 앙상한 가지 바람에 흔들리고 추위에 우는 새소리 들리는데, 방안 화롯가에서 술 익고 차 향기 풍기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²³⁹⁾ 라고 하였다. 실제 본인의 생활을 읊고 있는 발언에서 어디에도 걸림 없는 자연인으로서의 아취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한다. 17세기 이단하는 <호곡우차남간절구운(壺谷又次南澗絕句韻)>에서 시를 겨루고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이 당시에는 흥을 돋구어 좋으나 지나치면 병폐가 된다고 하여 가장 좋은 것은 문 닫고 한가로이 앉아 눈물로 차 달이며 물 끓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⁴⁰⁾ 진정한 즐거움이란 일시적 흥겨움이 아니라 전다과정과 같이 집중하여 느낄 수 있는 한거함과 청아함임을 보여준다. 18세기 후반을 살다간 생원 이행묵(李行默, 1773~1799)은 평소 방 하나를 깨끗이 치워 그 안에 골동서화를 둘러놓고 향을 피우며 차를 마시고 피리와 거문고를 연주하는 것을 홀로 즐겼다고 한다. 그의 벗들이 과거에 나갈 것을 권하자 그는 “내가 높은 성적에 급제하여 바로 공경이나 재상이 된다

239) 신희, 『象村稿』 권48, 外稿第七, 「野言」, “良宵宴坐, 篝燈煮茗. 萬籟俱寂, 溪水自韻, 衾枕不御, 簡編乍親, 一樂也. 風雨載途, 掩關却掃, 圖史滿前, 隨興抽檢, 絕人往還, 境幽室寂, 二樂也. 空山歲晏, 密雪微霰, 枯條振風, 寒禽號野, 一室擁爐, 茗香酒熟, 三樂也.” (류건집, 앞의 책, 112-113쪽)

240) 이단하, 『畏齋集』 권2, <壺谷又次南澗絕句韻 ……> “詩無較勝酌無多, 興盡其如病作何. 最好閉門閒坐處, 茶煎雪水聽濤波.”

고 해도 이것으로 저것과 바꾸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이조차 기피할 수 없음에
라!²⁴¹⁾”라고 하여 아취도모의 문화활동들에 대해 절대적 가치를 두고 있음을 표
명하였다. 이옥(李鈺, 1760~1815)은 『연경(烟經)』 중 <서문>에서 담배의 이로움
에 대하여 향과 차 그리고 술을 들어 비교 기술하였다.

꽃이 필 때 연기를 내뿜고 달이 뜰 때 연기를 들이마시노라면, 담배는 술을 마
실 때의 오묘한 맛을 겸비하였고, 파란 연기를 태우고 붉은 연기를 피워내노라
면, 담배는 향을 사를 때의 깊은 멋까지 갖추고 있다. 담뱃대를 은으로 만들고
담배통을 꽃무늬로 아로새겨 즐기노라면, 차를 마시는 멋진 풍치까지 간직하였
고, 담배 꽃을 가꾸고 담배 향을 말리노라면, 진귀한 열매와 이름난 꽃에 비교해
도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다.²⁴²⁾

특히 담배 도구들의 완상을 통해 얻는 아취가 차를 마실 때의 멋진 풍치와 비
견된다고 하였다. 이는 이옥이 다사에 대해 아취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앞서 문화 예술계의 동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정 속
에서 은일처사적 삶을 동경하였던 지식인들은 은일처사들이 구가하였던 문예 덕
목 중의 하나였던 다사를 취하게 되었다. 특히 지식인들에게 있어 이러한 배경은
시를 짓는 공간 안에서 시작을 향상시키고 시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서적 역할을 하였다.

신익성은 <부흥(村興)> 3~ 4구에서 “얹고 있는 병 핑계로 다화(茶火) 따듯하
게 하고 시혼(詩魂)은 선달 매화의 맑음에 넘쳐난다네”라 하였다. 병을 핑계로 차
를 다리니 더불어 시혼이 넘쳐난다는 표현은 전다과정의 시를 지을 수 있는 정서
적 배경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홍명의 시 <이생기서과래(李生寄西果來)>에
서도 차 한 잔이 시작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病肺不須尋藥裹 속병으로 먹지 않던 약봉지 찾고
呼童休復捧茶甌 아이 불러 쉬고 있던 찻사발 다시 가져오게 하네.

241) 박제가, 『貞蕤閣集』 <庠生李行默墓誌銘> “使我登高科, 立致卿相者, 猶不以此易彼, 況未必是
乎!” (박제가, 정민 외 옮김, 앞의 책 下, 248쪽.)

242) 이옥, 『烟經』, <序> “薰花吸月, 而有酒之妙理焉, 燒碧燃紅, 而有香之意思焉. 銀杯花筒, 而有茶
之風致焉, 培花曝香, 而亦無愧於珍實名卉焉.” (안대회 옮김, 『연경, 담배의 모든 것』, 휴머니스
트, 2008, 33쪽.)

晚來偏覺吟詩助 늦게야 시 읊는데 도움이 되는 것 깨닫고
 齒頰淸風一陣秋 입안의 맑은 바람은 한 가닥 가을이라네. 243)
 詩腸導滯親茶椀 시사가 막힐까봐 찻잔 가까이하고
 書癖成癡進燭華 글 쓰는 버릇이 미련하기에 촛불 켜네.
 惟有留君供拭目 오직 그대 머무르면 주려고 자세히 살피고
 邇來文藻頓能加 시재를 발휘하여 한층 더한다네.244)

채제공은 위의 시 <유공회 염읍취운(留公會拈挹翠韻)>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시를 지을 때 항상 차를 곁에 두고 있는 습관을 나타내고 있다. 박제가는 <현제 봉시무송기인(縣齋奉示撫松崎人)> 중 3구에서 “차 끓자 시도 문득 이루어지고”(茶鳴詩忽就)라 하여 시작과 다사와의 상관성을 표현하고 있다.

신위는 초의에게 보이고자 했던 시 <초의다미태눈 고여구소장학원차화균 동저 일롱중 갱사진신상입이용지야 우성일시 장이시초의야(草衣茶味太嫩 故與舊所藏壑源茶和勻 同貯一籠中 更俟陳新相入而用之也 又成一詩 將以示草衣也)>의 4구에서 “송풍탕을 끓여서 시혼을 정화하네”(松風湯熱淨詩魂)라 하여 다사가 시를 짓는데 최적의 심적 상태를 조성함을 말해주고 있다.

조선 후기 지식인들이 선호하였던 기호품 중 술 또한 시작을 비롯한 제 문화활동의 분위기 조성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찻자리에서의 술의 동반은 이와 같은 역할의 효과를 배가시켰다. 차와 술의 동반은 정서적 측면에서 지식인들의 개인적 문화 활동에 선호되었음을 박제가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는 평소에 해서를 잘 쓰지 못한다. 또 급박하게 쫓기는 것을 싫어해 항상 행서나 초서로 급한 일에 부응하곤 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값비싼 거울처럼 반질 반질한 종이를 주고, 좋은 술을 얼근할 정도로 기분 좋게 마신 후 향기로운 햇차를 곁들이며, 어여쁜 아가씨가 종이를 접고, 좋은 친구가 먹을 갈아 준다면 그제야 한 번 해서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여름철 같은 때는 더욱 더 쓰기가 어렵다245)

본인이 평소에 잘 쓰지 못하는 해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좋은 술을

243) 정홍명, 『畸庵集』 권5, <李生寄西果來, 午熱既濯, 新詩俄成>

244) 채제공, 『樊巖集』 권16, <留公會, 拈挹翠韻> (류건집, 앞의 책, 265쪽.)

245) 박제가, 『貞菴閣集』 <題李士秋書幅後> “余素不解楷書, 又厭急迫, 恒以行草副急, 若有人贈錢厚鏡面紙, 適飲名酒微醺, 配以異香新茗, 韻娥褻牋, 勝友磨墨, 始可一爲之. 如暑月尤非所堪.”

얼근할 정도로 기분 좋게 마신 후 향기로운 햇차를 곁들이면 가능하다'고 제시한 것으로 보아 이는 제시한 다른 조건들과 비교해볼 때 보다 해서를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아취 도모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식인들의 집단적 문화 활동의 자리에도 술과 차는 동반되어 유희적으로 향유되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차는 약리적으로 술의 지나침을 제어하는 기능과 더불어 정서적으로는 지식인들의 개인적, 집단적 문화활동에 술과 동반되어 유희적 매개체로 향유되면서 그들의 회·노·애·락을 담아내는 기능을 하였다. 이와 같이 탈속적이고 심미적인 대표적 문예행위로 인식된 다사는 한거함과 청아함 그리고 아취적인 것의 상징적 표상이 되어 지식인들의 일상생활 안에서 반복 구가되면서 정신적문화로 성장하였다.

세 번째는 영약(영초)으로서의 인식 속에 차와 다사가 신성한 존재, 신성한 행위로 간주되고 신성성은 경외심으로 이어져 차를 의례물로 올리는 성향이다. 이재(李裁, 1657~1730)와 이만부(李萬敷, 1664~1732)의 문답 글에서는 제사 때 차를 올리는 이유에 대해 '옛사람들이 중히 여겨서', '중국 사람들이 매우 높게 평가해서'라는 내용으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차의 기능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었다기보다 누차적으로 쌓여진 차에 대한 정신물로서의 상징성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례 이외 불가의 공양과 사당의 참신에 차가 올려지는 것은 경외하는 대상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후기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차와 다사는 약치(藥治) 이상의 심치(心治)를 위한 방편이었다. 더 나아가 고답적 정신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매개로 인식되었다. 그들의 다사 성향 속에는 이러한 인식들이 투영되어 잘 나타나 있다. 즉 그들이 차를 선택한 배경은 음용물 가운데 약리적 기능과 함께 정신문화까지 함께 향유할 수 있었던 다사의 가치에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2) 약리적 측면

약용으로서의 인식측면은 지식인 다사 기록에서 음다 결과로 표현되는 제 약효를 포괄한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그들의 선험적 지식과 의학서 및 백과사전,

양생서 등에서 얻어진 지식들이 자리한다.

조선의 대표적 의서인 『동의보감(東醫寶鑑)』의 보급과 생활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는 『산림경제(山林經濟)』와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규합총서(閩閩叢書)』 등의 편찬과 『임원경제지』, 『오주연문장전산고』, 『농정회요』 등의 편찬, 양생법을 소개하고 있는 소품문의 확산은 이를 접하는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의료 상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 안에서 차의 효능²⁴⁶과 성질이 기술되면서 그들은 차를 가정 상비 구급약으로, 양생법의 하나로 만날 수 있었다. 또한 무엇보다 지식인들은 『다경』을 비롯한 다수의 다서류에서의 정보를 통해 차에 대한 이론적 제반 지식을 접할 수 있었다. 이만부는 <답이생문목(答李生問目)>시에서 차, 즉 작설차류를 음식을 소화시키고 기를 내리는 약제로 설명하고 있다.

『다보(茶譜)』에는 차의 이름이 하나가 아니나 대체로 지금의 작설차 종류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기를 내리는 약제다.……²⁴⁷

1842년 정약용의 아들 정학유가 안익(安益) 스님이 보내준 차를 받고서 보낸 편지에는 차가 구급처방으로 유효함을 적고 있다.

…… 제 병은 해마다 깊어져서 단지 비쩍 마른 고목의 물결을 하고 방구들 사이에서 텅굴고 있을 뿐입니다. 초의가 제주도도 가려던 것은 소원을 이루지 못했군요. 땅이 비록 하늘에 달린 것은 아니지만, 일 또한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 이를 어찌하겠습니까. 몸의 병 중에 가장 괴로운 것은 기침입니다. 한창 심할 때는 두꺼비처럼 잠자려고 애쓰고, 개처럼 거품을 토하곤 하여, 마치 오랜 시간 짝 막힌듯함이 있습니다. 이때는 백약이 다 쓸모없고, 오직 두륜진차(頭輪眞茶) 일기(一旗)나 이기(二旗)를 입에 넣어 머금어 내려야만 비로소 가라앉습니다. 비록 병의 뿌리를 뽑을 묘한 약제는 아니나, 다급함을 구해주는 훌륭한 처방은 될 만합니다.²⁴⁸

246) 차의 효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별해보면 첫째, 오랫동안의 차생활을 통해 체험적으로 증명된 한의학적 효능, 둘째는 서양의학의 발전에 따라 차잎에 들어 있는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규명한 효능이다(정동효, 『차의 성분과 효능』, 홍익재, 2005, 233-234쪽). 본고에서는 차의 효능을 기술함에 있어 오늘날 과학적 접근으로 규명되는 측면은 다루지 않는다.

247) 이만부, 『息山續集』 권3, <答李生問目> “茶譜, 茶之名目非一, 然大抵今雀舌之類, 消食降氣之劑.”

248) 정학유, 『西山一門寄大菴寺諸禪師簡札帖』, <謝益上人經窓> (정민, 앞의 책, 508-509쪽.)

차를 기침을 다스리는 근본적인 치료제라기보다 응급적 대체제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17세기 정홍명은 시문 중 “아침저녁 섭생을 위해 차를 달인다”(朝暮茶湯試攝生)라고 하여 차를 이용하는 목적이 섭생, 즉 양생에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채제공의 <연명헌조기(戀明軒早起)>에서도 지식인의 일상생활 속 양생 방법으로 구가되던 다사를 확인할 수 있다.

啼禽便多事 부지런한 산새들
 先我罷晨眼 새벽같이 일어났네.
 山露潤幾許 산 이슬 얼마나 내렸는지
 花枝低可憐 꽃가지 축 쳐져 가련하구나.
 烹茶種非一 달이는 차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梳髮度應千 빗질은 족히 천 번은 되겠지.
 於此有眞樂 여기에 참다운 즐거움 있으니
 恐爲人世傳 세속에 전해질까 걱정이라네.²⁴⁹⁾

박장원과 남용익의 시문 중 “약그릇과 차술 외에 할 일이 없고 때때로 상머리에 옛 책을 뒤적이네”와 “술병과 서상은 버려두고 차술과 약봉지는 가지고 가네.”라는 표현을 볼 때, 17세기 중후반 지식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사는 필수불가결한 건강 챙김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민구는 <의사동촌(擬徙東村)> 시에서 정신적 추구가 아닌 신체 건강 추구에 집중하는 본인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
 自古聖賢無煖席 예부터 성현들은 앉은 자리가 따뜻한 겨를이 없었는데
 卽今天地盡窮途 지금은 온 세상이 못할 일이 없다네.
 茶壚酒榼關身物 차화로 술그릇도 몸에 관한 물건이
 每到移居愧僕夫 이사할 때 언제나 종들 보기 부끄럽다네. ²⁵⁰⁾

病骨欲蘇玉字澄 타고난 약골을 말끔히 소생하고자

249) 채제공, 『樊巖集』 권15, <戀明軒早起> (송재소 외, 앞의 책, 33쪽.)

250) 이민구, 『東州詩集』 권8, 「牙城錄」1, <擬徙東村>

身隨所在任騰騰 몸이 머무는 곳마다 활기차려 한다.
 采茶連服醫方遠 차를 따 연이어 복용하니 의원이 멀어지고
 乘醉移來竹畝增 술에 취해 옮겨 심은 대나무는 면적이 늘어난다.²⁵¹⁾

황상은 위에서 소개한 시 <경차열수부자다산잡시 십이수(敬次洌水夫子茶山雜詩 十二首)>에서 차의 복용이 신체 활기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의원이 멀어진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차는 약리적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차는 분명 약차(藥茶)와 탕약(湯藥)과는 구분되는 일상물이었다. 특히 진차(眞茶)를 기본으로 하여 다른 약재를 가미 처방한 의학적 용도의 약차는 궁중 및 지식인들안에서도 활용되었고, 그 활용 범위가 늘어나면서 약리적으로 차를 이용하려는 인식 또한 확산되었다. 김종오(2010: 89)는 약차를 마시는 것(茶飲)에 대해 사람들이 ‘가벼운 탕약’과 같이 여긴 사실은 약차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볼 때, 조선 후기 지식인들에게 있어 차는 의약 혜택이 미비한 배경에서 탕약 대신 이용되었다고 보기에 어렵다. 다만 실생활에서 처방이 필요한 약차보다는 좀 더 가볍게 그리고 부담스럽지 않게 여기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용 범위에 있어서도 위급할 때 혹은 예방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단방(單方)의 마실 거리였다. 본고에서는 차의 약용적 성질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다사 기록을 살펴본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진차를 기본으로 하여 다른 약재를 가미한 약차는 제외한다. 『동의보감』에서는 차의 일반적 효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작설차는 성질이 약간 차며 한편으로 냉하다고 한다. 맛은 달고 쓰며 독이 없다. 기를 내리고 소화를 돕는다. 머리와 눈을 맑게 하고, 소변이 잘 나오게 한다. 소갈증을 멈춰주며 사람으로 하여금 잠을 적게 한다. 또 땀 뜨다 데인 독을 풀어 준다.²⁵²⁾

육우의 『다경』에서는 차의 약리적 효능을 설명하면서 제호(醍醐)와 감로(甘

251) 황상, 『卮園小藁』 권5, <敬次洌水夫子茶山雜詩 十二首> (김규선·구사회, 2012, 209쪽)

252) 허준, 『東醫寶鑑』 「湯液篇」 권3, <苦茶> “작설차, 性微寒, 一云冷. 味甘苦無毒. 下氣 消宿食. 清頭目利小便. 止消渴, 令人少睡. 又解炙炒毒.”

露)²⁵³의 약용적 효능과 차의 약용적 효능을 같다고 하였다.

만약 열이 나고 갈증이 나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침침하거나, 팔다리에 기운이 없을 때, 관절 마디마디가 잘 펴지지 않을 때 4~5번만 마시면 제호나 감로와 견줄 만하다.²⁵⁴

18세기에 나온 이덕리의 『기다』와 19세기에 나온 범해 각안(梵海 覺岸, 1820~1896)의 <다약설(茶藥說)>에는 각각 직접 차의 효능에 대해 실제 체험한 내용을 적고 있다. 『기다』에는 직접 제다한 차를 마시고 시험해보니 감기·식체(食滯)·주육독(酒肉毒)·흉복통(胸腹痛)·설사·학질·염병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였다. 각안은 <다약설>에서 차를 이용하여 이질 치료에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하였고, <다가(茶歌)>를 지어 심치·각성·체증·설사·감기·해독 등에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각 약리적 효능에 대해 살펴본다.

(1) 消食

신체 증세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위장 관련한 것으로 소화력에 주요한 효과를 표현하고 있다. 이재의 <답죽질여빈(答族姪汝彬)> 중에는 차를 달여서 마시면 “안에 쌓였던 것이 씻겨 나간다”(釋滯消壅)라고 하였다. 이는 정확히 소화에 대한 기술은 아니지만 내부의 막힘을 풀어준다는 측면에서 일면 소화력을 언급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규경의 <도다변증설> 중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를 마시는 목적은 소화를 위해서이니”와 <개다와 죽로차> 중 “기운을 가라앉히고 체증을 내리는 데다”라고 운운하는 것을 통해 당시 차에 대한 소식 효능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이식의 <남령초가(南靈草歌)>에서는 차가 체증 및 배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南靈草出自海東洲 남령초는 바다 동쪽 섬에서 나왔나니
倭人傳是貞女魄 왜인의 전설로는 정녀의 혼백이 변했다고

253) 『本草綱目』에 '감로는 달고 차며, 오장에 좋고, 오래 마시면 배가 곱지 않는 신선의 영약이다'라고 하였다.

254) 육우, 『茶經』, <一之源> “若熱渴 凝悶 腦疼 目澁 四支煩 百節不舒 聊四五啜 與醍醐甘露 抗衡也.”

.....

黃銅作管象鼻吸 늦쇠로 대롱 만들고는 코끼리 코처럼 빨아들여
 煙縷入內如烘窯 속으로 실연기 들어가면 도가니처럼 후끈후끈.
 驅除痞塞消濕墊 체증도 뚫어 주고 살살 아픈 배도 거뜬
 能使斯須腸胃帖 순식간에 뱃속이 그렇게 편할 수 없다니요.
 南人用之代茶茗 남쪽 지방 사람들은 차 대신 이를 애용하여
 率以一升估一葉 차 한 되로 담배 잎 하나 맞바꾼다 하는데.²⁵⁵⁾

이 시는 표면상 담배의 약리적 기능에 대한 언급이다. 그러나 차 대신 담배를 이용한다는 구절로 볼 때 차의 약리적 효용 중 소화력 향상과 속을 편안하게 하는 효용성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위장과 관련한 차의 효능에 대한 언급은 걸명시(乞茗詩)와 사다시(謝茶詩)에서 빠지지 않는 텍스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후기 몇 편의 걸명, 사다 시문을 살펴본다. 정약용이 유배 초기 혜장선사에게 차를 청한 걸명시문 두 편에는 당시 정약용이 위장과 관련하여 고생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 있다.

窮居習長齋 궁한 살림 장재함이 습관이 되어
 羶膾志已冷 누리고 비린 것은 비위가 상해.
 花豬與粥雞 돼지고기 닭죽 같은 좋은 음식은
 豪侈邈難竝 호사로워 함께 먹기 정말 어렵지.
 祗因痲癖苦 더부룩한 체증이 아주 괴로워
 時中酒未醒 이따금씩 술 취하면 못 깨어나네. ²⁵⁶⁾

나그네는 요즘 들어 다도, 즉 차 욕심쟁이가 된데다, 겹하여 약용에 충당하고 있다네. 글 가운데 묘한 깨달음은 육우의 『다경』세편과 온전히 통하니, 병든 숫누에는 마침내 노동의 일곱 사발 차를 다 마셔 버렸다고. 비록 정기를 고갈시킨다는 기모경의 말을 잊지 않았으나, 마침내 막힌 것을 뚫고 고질을 없앤다는 이찬황의 벽을 얻었다 하겠소. 게다가 몸에는 병이 있어 애오라지 차를 청하는 마음을 편다오. ²⁵⁷⁾

정약용은 비위가 약해진 관계로 늘 체증 증세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 특히 <걸

255) 이식 『澤堂續集』 권2, <南靈草歌>
 256) 정약용, 『茶山詩文集』 권5, <寄贈惠藏上人乞茗>
 257) 정약용, <乞茗疏> (정민, 앞의 책, 148-149쪽.)

명소>에서는 기모경의 차에 대한 폐해 경고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체기를 내려주는 차의 효능을 선함했던 이찬황(이덕유)과 같은 벽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약용은 차의 약효 중에서도 위장과 관련한 효험에 보다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귀양에서 풀린 정약용이 1830년 백운동에 살던 제자 이시헌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올 들어 병으로 체증이 더욱 심해져서 잔약한 몸뚱이를 지탱하는 것은 오로지 떡차에 힘입은 것일세”라고 하는 대목이 있다. 차를 체증에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김정희가 초의에 보낸 편지인 <여초의(與艸衣)>(제29)에도 “보내주신 차는 병든 위장을 시원스레 낮게 해주니 고마운 마음이 뼈에 사무치오”(茶惠夫醒病胃, 感切入髓)라고 하여 보낸 준 차에 대해 위장 증세의 효험을 들어 감사를 표하고 있다. 정학유 또한 호의 스님이 보낸 준 차에 대해 체증에 도움이 되었음을 “손수 만드신 좋은 차는 포장을 열자 이미 맑은 향기가 골수에 스며, 지난 십수 년의 해묵은 체증이 두륜진핀에 힘입어 열에 서넛은 물러나 버렸습니다”(手製佳茗, 開苞已覺清香沁髓, 顧此十數年痼痞, 賴頭輪眞品, 祛得十之三四者)라고 하여 감사를 표현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걸명, 사다의 시와 서간은 기본적으로 병명 혹은 증세를 칭하고 차를 부탁하는 걸명의 경우와 보내준 차에 감사하며 어떤 증세에 효험이 있었는지를 기술하는 사다, 그리고 사다 글에 다시 걸명하는 내용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어떠한 증세보다 위(胃)와 관련한 경우는 고질적인 성격상 조선 후기의 걸명시에 다수 언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止渴

약리적 효능 중 자주 시문 등에서 언급되는 증세 중 하나는 갈증에 대한 것이다. 이 갈증 증세는 당뇨·더위·학질 등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차가 목마름에 유효한 것으로 읊고 있는 내용을 확인한다.

조희일은 <설수전다(雪水煎茶)>에서 “글하는 이 당뇨로 인한 소갈증을 오래 지냈으니 노동의 차 노래는 정말 사치라 못하겠네”(訶人久抱文園渴 苦愛盧郎詠不奢)라고 하여, 당뇨병의 갈증에 차가 긴히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박운묵은 <칠월 초구일대열 다후유작(七月初九日大熱 茶後有作)>에서 지극한 무더위에 헛차를 거

듬 마심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入秋已旬日 입추 지난 지도 하마 열흘인데
熱劇此何哉 늦더위 이렇게도 혹심하다니.

.....

當午生喉渴 한 낮에 목이 하도 타기에
新茶數舉杯 새 차를 몇 잔을 들이켰지.²⁵⁸⁾

김명희가 초의에게 차를 받고 사례한 시에는 학질로 인한 갈증에 차가 유효함을 읊고 있다.

老夫平日不愛茶 늙은 사내 평소에 차를 좋아하지 않았기에
天憎其頑中瘡邪 하늘이 그 미련함을 미워해 학질에 걸리게 했도다.
不憂熱殺憂渴殺 더위 죽는 것은 걱정 없으나 목말라 죽는 것은 근심이라
急向風爐瀹茶芽 급히 풍로에 차잎을 끓여 마셨노라. ²⁵⁹⁾

또한 술을 마시고 난후 갈증에도 차가 유효함을 신위의 <오월이십일일효기(五月二十一日曉起)> 시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시문에서 신위는 술 갈증에 다동을 불렀으나 일어나지 않았음을 표현하고 있다.

조병현의 <전다>에서는 차를 달이며 임금과 신하들이 돌아가며 연구(聯句)를 짓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남병철은 “좋은 차 제공하노니 소갈병에 좋고 적막을 달래노니 발자욱 소리 기뻐라”(供滋宜渴病 酬寂喜空蹠)라고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갈증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당뇨병에 의한 소갈증과 음주 후 갈증, 그리고 더위에 목이 마른 갈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차는 포괄적으로 이들 증세에 유효하게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祛痰 · 清熱

지식인들은 감기와 관련한 증세에 또한 차가 단방으로 유효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영조 20년(1744) 『승정원일기』 중에는 “작설차 종류를 복용할 경우 담이 뭉친

258) 박윤목, 『存齋集』 권22, <七月初九日大熱 茶後有作>

259) 김명희, 『一枝庵詩稿』 <附原韻> (정민, 앞의 책, 475쪽)

것을 삭히는 효험이 있다”²⁶⁰)는 내용이 보인다. 또 이덕리의 『기다』에는 이덕리가 1743년 상고당 김광수집을 방문했을 때 늙은 하인이 감기를 앓자 상고당이 차 몇 잔을 하인에게 주며 이것으로 감기를 치료할 수가 있다고 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다. 정학유는 1842년 안익 스님이 보내준 차를 받고서 보낸 편지에서 사다와 결명의 내용을 함께 하고 있는데, 다른 결명시에서 보이는 것처럼 본인의 질병 및 증세를 칭하여 차를 부탁하고 있다.

몸의 병 중에 가장 괴로운 것은 기침입니다. 한창 심할 때는 두꺼비처럼 잠자려고 애쓰고, 게처럼 거품을 토하곤 하여, 마치 오랜 시간 짝 막힌듯함이 있습니다. 이때는 백약이 다 쓸모없고, 오직 두륜진차(頭輪眞茶) 일기(一旗)나 이기(二旗)를 입에 넣어 머금어 내려야만 비로소 가라앉습니다. …… 261)

정학유는 증세 중 감기의 기침을 들어 차를 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차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를 구하는 의도를 기호적 음용목적으로 두기보다는 질병을 칭하여 차를 부탁함이 더욱 유효하리라 생각한 정학유의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조선 후기 지식인의 결명문에는 위와 같이 병을 칭하며 차를 칭하는 경향이 다수 확인된다. 앞서 살펴본 결명에 관한 편지 글 이외도 김정희와 초의, 홍현주와 이상적, 정학연과 호의 스님, 황상과 초의 스님 간에 주고 받은 결명글에도 추가로 확인된다. 다만 관계에 있어 초의, 호의 스님 경우는 국내에서 차를 직접 제다하여 생산에 종사한 경우라면 이상적인 역관으로서 대외적으로 차를 구하기가 손쉬운 위치와 인적 관계망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당시 이들의 결명시문의 칭병(稱病) 내용을 통해 차를 약리적으로 인식한 일면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

(4) 小睡

다음 살펴 볼 차의 약리적 효능 중 하나는 각성효과이다. 특히 두뇌활동이 많

260) 『承政院日記』, 영조 20년(1744) 4월 22일 조 “若雀舌茶之屬則服之, 痰之凝滯者, 亦有消下之效矣.”

261) 정학유, 『西山一門寄大菴寺諸禪師簡札帖』 <謝益上人經窓> “身病之寂苦者, 卽咯喘, 方其劇時, 努眠如蟾蜍, 吐沫如虵蟹, 有如晷刻悶塞者. 此時百藥皆無用, 唯頭輪眞茶, 一兩旗入口嚥下, 則始爲帖平”(정민, 앞의 책, 508-509쪽)

은 지식인층에게 차의 각성효과는 시작(詩作)을 비롯한 창작 활동과 학문 연구에 주목되는 약리적 공효라 할 수 있다. 『기다』에는 차의 각성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차는 능히 잠을 적게 하여, 혹 밤새도록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한다. 새벽부터 밤까지 공무에 있거나, 혼정신성하며 어버이를 봉양하는 사람에게는 모두 필요한 것이다. 닭이 울자마자 물레에 앉은 여자나, 한묵의 장막 아래서 학업에 힘 쏟는 선비도 모두 이것이 적어서는 안된다. 만약 성대히 돌아보지 않고 쉬지 않고 밤을 새우는 군자라면 즉시 받들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²⁶²⁾

위 내용에서 공무 중 차를 마신 실체가 지식인들의 시문가운데서 확인된다. 박윤목의 <엄산 현재덕 옹이 내국에서 숙직을 서던 중 몸소 차를 끓이기를 날마다 하였다. 때때로 나에게 차를 보내오기에 시를 지어 사례하다(弇山玄翁在德 於內局直中 躬自煎茶 日以爲常 有時饋我 作此詩以謝之 且要和)>라는 제목에서 살필 수 있듯이 공무 중 숙직을 서면서 다사를 행했던 배경이 차의 각성 효과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간취된다.

장유는 <차운수조숙온(次韻酬趙叔溫)>에서 “한 잔 차로 잠귀신 완전히 행복받았네”(茶甌贏得睡魔降)라고 하였으며, 김려는 <탁옹이여시 구득가명 적색상인선 헌지 지화기시 불부이명(籜翁貽余詩 求得佳茗 適躋上人先獻之 只和其詩 不副以茗)>시에서 “질병도 금방 낫는데 졸음 따위 걱정하라”(去疾在須臾 豈愁眠不醒)고 하였다. 차의 각성 효과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의선사의 시에서도 “약을 만들어 병을 없애고 차를 마시며 졸음을 줄인다네”(鍊藥消閒疾 品茶減睡癡)²⁶³⁾라고 하여, 차를 각성효과가 있는 약리적 물질로 인식하되 근본적 질병을 치료하는 약과는 달리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식인들에게 각성효과는 단순히 잠을 쫓는다는 역할뿐만 아니라 정신력 집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기에 공부를 하는 지식인들에게 차는 필수적인 일상물로 인식되었다.

262) 이덕리 『記茶』 “茶能使人少睡，或終夜不能交睫。夙夜在公，晨昏趨庭者，咸其所需，而鷄鳴入機之女，墨帳勤業之士，俱不可少。是若夫厭厭無歸，額額罔夜之君子，則有不暇奉聞焉。” (정민, 앞의 책, 82쪽)

263) 『草衣詩稿』 권1, <金道村仁恒 寄一律次韻却寄>

(5) 醒酒

일찍이 육우는 『다경』의 <육지음(六之飲)>에서 차의 특질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갈증을 풀려면 물을 마시고, 울분을 삭히려면 술을 마시고, 졸음을 쫓으려면 차를 마신다.²⁶⁴⁾

분명 차가 갈증 및 울분을 삭히는 약리적 기능도 갖고 있지만, 각성 효과에 있어 더욱 유효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다음은 차의 숙취해소 효능에 대한 지식인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기록들을 살펴본다.

이경석은 <옥유천우음(玉溜泉偶吟)>에서 “차 달여 마셔보니 옛 맛 그대로고 취한 술이 곧 깨어 한기 스미네”(舊味試憑茶碗吸, 醉魂初醒骨全寒)라고 하여 옥유천의 물로 차를 시험하고 술이 깨었다는 경험을 적고 있다. 신정은 <제우인가(題友人家)>와 <효음(曉吟)> 시문에서 “꽃그늘에서 술 깨려고 불을 피워 헛차 달이네”(酒醒花影下, 敲火煮新茶), “춧불 아래 새로운 시구 생각하며 차를 달여 어제 밤 취기를 푼다네”(秉燭題新句, 煎茶解夙醒)라고 하여 술을 깨는 음료로 차를 선택함을 밝히고 있다. 신정은 차가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이 위 두 시에 잘 드러나 있다. 더 나아가 술을 마시어 취했을 때 순차적으로 차를 마시는 일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 체제공은 술과 차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미 취했거나 배가 부르거나하면 다음으로 차를 마신다”(既醉又既飽, 茗碗次第授)라 하였다. 신헌의 1834년 작품인 <추려삼십수> 연작 중 제24수에는 차가 숙취 해소에 유용함을 강조하고 있다.

索居奚止孤愁破 외진 거처 근심을 없애줄뿐 아니라
暮境偏宜宿醉醒 노년에 숙취에서 깨는데도 꼭 맞다네.
可愛香芽三數裹 어여쁘다 향그런 차 세 겹이나 포장하니
來從去歲玉河星 지난 해 옥하에서 보내온 것이라네.²⁶⁵⁾

264) 『茶經』, <六之飲> “若救渴, 飲之以漿, 蠲憂忿, 飲之以酒, 蕩昏寐, 飲之以茶.”

265) 신헌, 『威堂集』, <楸廬三十首> 제24수 (정민, 앞의 책, 541쪽)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다사 실제 장에서는 술과 차가 공음 되는 기록들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차의 숙취해소 효능과 일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박제가의 다사 관련한 시문 중에는 차와 술이 함께 하는 자리가 다수 표현되는데 다음과 같다.

(A) <筆溪小集>의 7, 8구

酒醒茶歇獨立時 술 깨려 차 마시고 홀로 서서 있자니
榴火離離綠天暮 석류꽃은 시들고 파초에 날 저무네.²⁶⁶⁾

(B) <夜宿薑山 十首> 중 제8

茶槍帶酒碗 찻잎은 술사발을 두르고 있고
杜詩配韓筆 두시에 한필이 어우러졌네.²⁶⁷⁾

(C) <元夕集觀齋次元詩 二首>의 5, 6구

三更頰影留殘醉 삼경에도 두 뺨엔 취기가 남아 있고
一枕茶漚響遠風 베갯머리 찻주전자 바람 소리 울리누나.²⁶⁸⁾

(D) <過鹿隱 麝泉 次石湖余素不善疾作 而是夜爲酒所使 走成十疊>중 제4

醉眺篝燈如月暈 술 취해 초롱 속 등불 달무리가 어렸는 듯
臥聞茶鼎作風濤 찻주전자 끓는 소리 누운 채로 들누나.²⁶⁹⁾

위의 자료 (A), (B), (C), (D)에서 차가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직접적 표현은 없다. 다만 박제가가 친구들과 함께하는 소모임에 시작(詩作)과 술과 차는 늘 함께 했음을 알 수 있다. (A)에 보이는 다사 패턴처럼 차를 술을 깨는 마실 거리로 인식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지식인들에게 차는 약리적 이용 측면에서 소화·각성·감기, 갈증 해소, 숙취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 기름기를 제거[祛肥膩] 하는 효과와 열을 내리는 효과[清熱]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

266) 박제가, 『貞蕤閣集』, <筆溪小集>

267) 위의 책, <夜宿薑山 十首>중 제8

268) 같은 책, <元夕集觀齋次元詩 二首>의 5, 6구

269) 같은 책, <過鹿隱 麝泉 次石湖余素不善疾作 而是夜爲酒所使 走成十疊>

어 이용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후기 지식인들은 차의 약리적 기능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차 자체 고유 성질에 대한 인식으로, 음용을 통한 차의 약효에 대한 누적된 경험들과 학적 영향 측면이 결부되어 공고하게 형성되었다. 이론서를 통한 지식과 선험적 지식들이 공조된 차의 약리적 공효에 대한 인식은 지식인들 사이에서 실생활에 좀 더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었고, 일상적 음다로 이어지는 가교 구실을 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에 집중되어 보이는 결명문에는 차의 약용에 대한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결명문은 조선에 국한된 독특한 문화라고는 할 수 없다.²⁷⁰⁾ 국내 차의 제조, 공급,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당시 차문화의 정황을 읽을 수 있는 자료이자 차를 통한 교유관계도 확인할 수 있는 글이라 할 수 있다. 차를 칭하는 곡진한 호소 속에는 본인 및 주위의 질병 및 증세를 칭하는 정서가 들어 있거나, 차의 약효에 대해 언급하며 은근히 차를 요구하는 경향도 엿보인다.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이들의 다사 경향이 약용에 국한되었다고 단정을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늘날과 같은 의료체계는 아니지만 조선 후기 당시 지식인들은 응급조치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충분히 전문의에게 질병에 따른 약 처방을 받아 쓸 수 있을 의료상황 체계를 갖고 있었다.²⁷¹⁾ 탕약, 약차도 아닌 진차를 지식인들이 질병 치료에 이용한 것은 기호적으로도 선호한다는 접점(接點)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맛과 약효를 겸했다는 우리차에 대한 예찬과 갈구(渴求)는 이를 증명한다. 다만 지식인들이 처한 여건에 따라 약용으로 보다 경도되어 이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茶事 전개 양상

1) 일상성

조선 후기 지식인들에게 있어 다사는 일상의 특별한 일이 아닌, 생활문화였음

270) 唐나라 齊己 <謝澗湖茶>, 唐나라 姚合 <乞新茶>, 元 耶律楚材의 <西域從王君玉乞茶詩> 시문 등을 통해 중국에서 일찍이 차를 구하는 시문과 사례하는 풍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71) 김호, 「이규경의 의학론과 신체관」, 『19세기 조선, 생활과 사유의 변화를 엿보다』, 돌베개, 2005, 35-51쪽. ; 신동원, 「조선 후기 의약생활의 변화: 선물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역사비평』통권 75호, 역사문제연구소, 2006, 344-391쪽 참조.

이 확인된다. 차 애호가들에게 있어 일상의 다사는 일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해지는 경우와 특별한 목적성이 없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이입된 유연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전자가 양생적, 접빈객 측면의 다사라면 후자는 일상다반사 측면의 다사라 할 수 있다.

이민성은 <재거즉사(齋居卽事)>에서 노년의 다사 일상성을 “늙은이 한가해서 매일 할 일 없다 묻지 마라 차 마시고 그림 보고 또 시평까지 해야 하네”(莫問老夫閑日用 啜茶觀畫又評詩)라고 하였다. 이광덕(李匡德, 1690~1748)은 <부용당만흥(芙蓉堂漫興)>에서 다사의 일상성을 “늦은 시간 언제나 작설차를 달인다”(晚寤常烹雀舌茶)고 표현하였다. 이유원은 노년의 일상 속에서 다사에 집중 소일하고 있음을 <철다음(啜茶吟)>시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老去原來少氣岸 늙어버리면 원래 의기가 적어지니
尋常家冗並無關 심드렁하게 집안일엔 아예 상관 않는다네.
猶有一端專力處 그래도 한 가닥 힘을 쏟는 곳이 있으니
烹茶飼鶴未全閒 차 끓이고 학 기르느라 아주 한가한 것은 아니다.²⁷²⁾

신위는 초의에게 보이고자 했던 시에서 “평생 다사는 실증내지 않고 계속한다”(未足平生茗事存)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일상속의 다사는 지속성, 항상성, 반복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1) 養生

일상 속 양생 측면으로의 다사 구가는 차의 효용론에 있어 약용적 인식에 바탕을 둔 심신 건강의 예방책으로 생활화되었다. 특히 양생적 심신의 살핍은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얻지 못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반복, 지속이라는 일상성의 생리와 부합하여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이입(移入)되었다.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사시십이시 청취변증설(四時十二時 淸趣辨證說)>에는 실제 추구되던 일상 속 양생 방법이 잘 드러나 있다. 이는 양생 측면의 다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사시(四時) 중 봄·가을·겨울의 다사를 살펴본다.

272) 이유원, 『嘉梧藥略』 책5, <啜茶吟>

봄철에는 새벽에 일어나 말린 매화를 끓여 차를 만들며 하인에게 일과를 부여하여 주위를 소제하고 계단의 이끼를 보호하게 한다. 사시(오전 9~11)에 장미 이슬로 손을 씻고 옥유향을 피운 다음 글을 읽는다. 정오에 죽순과 고사리를 따고 깨를 볶으며 샘물을 길어다가 신명을 달인다.....273)

가을철에는 새벽에 일어나 휘장을 내린 뒤에 장서의 표지를 점검하고, 이슬에 주사를 개어 접근한다. 사시에는 거문고를 뜯고 학을 길들이며 금석이나 도기로 만든 그릇을 관상한다. 정오에 연방 위의 이슬로 벼루를 씻으며 다구를 정리하고 오죽을 씻는다. 274)

겨울철에는 새벽에 일어나 막걸리를 마시고 양지쪽에 앉아 머리를 빗는다. 사시에 전방석을 깔고 솥을 구입한 뒤에 명사들을 모아 흑금사를 만든다. 정오에 붓을 들고서 묵은 원고를 정리하다가 해 그림자 층계에 옮겨가는 것을 보아 발을 씻는다. 오후에 도통룡을 떼고 묵은 소나무와 각아지른 듯한 낭떠러지 사이에 가서 얼음 깨고 물을 길어다가 건명을 달인다.275)

일과(十二時) 속에서의 다사를 살펴본다.

진시(오전 7~9)에 일찍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앉아 마음을 명랑하게 한 뒤에 호흡을 조절하고 천기를 흡수하여 백당 한 사발을 마시고 차는 마시지 말며 머리를 백여 번 빗어서 기가 소통하고 화가 맑아지며 눈이 밝아지고 뇌 속의 열기가 제거되게 하며 양치질을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되 멀건 죽이어야 하고 양이 적어야 하며 식사가 끝난 뒤에 천천히 1백보 쭉 걸으면서 손으로 배를 문질러 쉽게 소화되도록 한다.276)

오시(오전 11~오후 1시)에는 선향 한 개비를 피우고 일정한 곳을 맴돌아 기와 신을 안정시키고 나서 비로소 식사, 소탕을 들며 배가 고프면 뒤에 식사하되 배부

-
- 273) 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 「攝生」, <四時十二時 清趣辨證說> “春, 晨起, 點梅花湯, 課奚奴灑掃護階苔. 禺中, 取薔薇露浣手, 薰玉蕤香, 讀赤文, 綠字書. 晌午, 採筍蕨, 供胡麻, 汲泉試新茗.”
- 274) 이규경, 위의 책, <四時十二時 清趣辨證說> “秋, 晨起下帷檢牙籤, 挹露研硃點校. 禺中, 操琴調鶴, 玩金石鼎彝. 晌午, 用蓮房洗硯, 理茶具, 拭梧竹.”
- 275) 같은 책, <四時十二時 清趣辨證說> “冬, 晨起飲醇醪, 負暄盥櫛. 禺中, 置氈褥, 市烏薪, 會名士作黑金社. 晌午, 挾策理舊稿, 看晷影移階灌足. 午後, 攜都統籠向古松懸崖間, 敲氷煮建茗.”
- 276) 같은 책, <四時十二時 清趣辨證說> “辰, 夙興整衣襟, 坐明窓中調息受天氣, 進白湯一甌勿飲茶, 櫛髮百餘遍, 使疏風清火明日, 去腦中熱 盥漱畢, 早浪, 宜粥宜淡小飽, 徐行百步, 以手摩腹, 令速下食.”

르기 전에 그만두며 차는 입안을 먼저 씻어낸 뒤에 마시고 약간의 걸음을 걸으며 앉았을 적에는 등을 구부리지 말고 가슴이 답답해질 적에는 기를 두세 차례 조용히 불러낸다. 대저 음식에는 만을 버리고 허를 취해야 하므로 식사하는 시각을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²⁷⁷⁾

묘시(오전 5~7시) 첫 새벽에 일어나 옷을 걸치고 평상위에 앉아 이를 3백번 딱딱거린 뒤에 양쪽 어깨를 전동하여 근육을 조절, 음양을 조화시키며 옷을 입고 자리에 앉아서는 십사에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 의리에 관한 글을 읽고 법첩에 대한 글자를 익히며 맑은 마음으로 조용히 앉았는가 하면 자기에 유익한 벗과 함께 청담을 나누고 적게 마셔 반절쯤 취하여 꽃에 물주고 대나무를 심으며 거문고 소리를 듣고 학을 관상하며 향을 피우고 차나 달이며 성에 올라 산을 관광하고 뜻을 바둑에 붙이기도 한다.²⁷⁸⁾

양생 측면에 주안을 둔 이규경의 일과 속에서 다사는 양생의 한 방편이자 맑은 취(趣)로서 자리함을 알 수 있다. 사실 이 맑은 취미도 양생 측면에 부합되는 일이다. 『오주연문장전사고』 만물편 초목류 <곡종(穀種)> ‘종다의이청양변증설(種茶薏苡青囊辨證說)’에는 차를 울무·깨 등과 같이 선비들의 기호 식품 중 일상에서 가장 절실하게 소용되는 것(茶與薏苡及青囊 日用最切)으로 꼽을 정도로 그는 차를 지식인의 필수품으로 인식하고 이를 심고 가꾸는 방법 등도 논하였다.

위에서 살펴 본 이규경처럼 양생 측면의 규격화된 다사의 모습은 아니지만 양생 측면을 반영한 지식인의 일상적 다사를 살펴본다. 다사의 일상화는 일단 집안 내 다구의 구비를 통해 확인된다. 그 중에서도 양생 측면과의 관계성은 ‘다조(茶竈)’, ‘다로(茶爐)’, ‘다정(茶鼎)’, ‘다당(茶鑪)’ 등으로 명명(命名)되는 화로와 차술으로 드러난다. 화로와 차술은 언제나 차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물의 기본이다. ‘단약’과 같이 심혈을 기울여 제조하는데 필요한 기본 도구²⁷⁹⁾처럼 차를 달이는데

277) 이규경, 앞의 책, <四時十二時 清趣辨證說> “午, 坐香一線畢, 經行使氣神安頓, 始飯用素湯, 當飢而食, 未飽先止, 茶, 滌口膩漱去乃飲, 行步多少, 坐勿偏胸, 中悶, 則點呵氣二三口. 凡飲食之節, 減滿受虛, 故當飯而節其滿未飽.”

278) 위의 책, <四時十二時 清趣辨證說> “醒見晨光, 披衣坐牀, 叩齒三百, 轉動兩肩, 調其筋骨, 以和陰陽, 振衣下榻, 俾勿濫觴, 十供, 讀義理書, 學法帖字, 澄心靜坐, 益友清談, 小酌半醺, 澆花種竹, 聽琴玩鶴, 焚香煎茶, 登城觀山, 寓意奕棋.”

279) 이안눌, 『東岳集』 권4, <降仙臺下作>에는
 蔥蘢雲樹間 맑고 푸른 구름 머물고 있는
 尙有燒丹鼎 숲속엔 단약 만들던 솥이 있다네.
 願吾躡高躡 원컨대 내 그 선적을 따라가

불과 물, 차가 만나는 공간이자 이를 조절하는 다사 주체자의 정신이 집중되는 공간적 상징으로 작용한다. 류건집(2007: 281)은 정약용의 <다조(茶竈)>를 해석, 강설한 부분에서 정약용이 『다경』에서 육우가 제시한 “감상손하이어중(坎上巽下離於中)”의 『주역』 정신과 형식을 빌려와 짐승 형태의 고정(古鼎)을 만든 것은 전다(팽다) 그 자체가 호고(好古)의 드높은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 <다조>의 내용²⁸⁰⁾처럼 샘물을 길어오고 차를 달이는 과정은 벌써 신선들이 단약을 연성하는 경지라고 하였다.

앞서 살펴 본 박제가의 <차운영재남과> 중 “아이에게 분부하여 솥에 넣어 잘 끓이니 이는 바로 선생의 연단하는 불이로다”(分付兒童善爐鼎, 此是先生煉丹火)라고 한 대목이 있다. 이는 전다과정의 불 조절과 끓임의 적절함을 구하는 것과 금단을 만드는 것과 공통성을 들어 유득공의 전다솥씨를 단약을 만드는 것과 동격으로 놓으면서 유득공을 고상한 존재로 높인 것이다. 전다 과정에 대해 명나라 오중선(吳從先, ?~?)은 『소창청기(小窓淸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차를 끓이는 것은 함부로 할 것이 아니니, 반드시 그 사람과 다품이 서로 잘 맞게 해야 한다. 그런 까닭에 차를 끓이는 법은 매양 고사와 은자에게 전해져 가슴 속에 연하와 천석의 탈속한 기운이 생기도록 한다.²⁸¹⁾

이와 같이 다사관련 양생측면 추구는 단순히 차의 약리적 효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다과정에서의 집중, 조절을 통한 성정(性情)단련 측면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민구의 <의사동촌(擬徙東村)> 3, 4구에는 “차화로 술그릇도 몸에 관한 물건이니 이사할 때 언제나 증들 보기 부끄럽다네”(茶爐酒榼關身物 每到移居愧僕夫)

林棲啜芳茗 꽃다운 차 마시며 숲에서 살려 한다네.
라 하였다. 이와 같이 솥과 화로 등은 단약을 만드는 기구이자 선가의 단약을 만드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하겠다.

280) 정약용, 『茶山詩文集』, <茶竈>
靑石磨平赤字鑄 烹茶小竈草堂前
魚喉半翁深包火 獸耳雙穿細出烟
松子拾來新茶炭 梅花拂去晚調泉
侵精瘠氣終須戒 且作丹爐學傲仙

281) 오중선, 『小窓淸紀』 “煎茶非漫浪, 須要其人與茶品相得. 故其法每傳高流隱逸, 有煙霞泉石磊砢於胸次間者.”

라 하였다. 차화로와 술그릇으로 상징되는 신체건강을 위한 물건이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적으로 소용되는 물건인지라 이사할 때마다 챙겨야하는 것이지만, 아랫사람들 보기에는 부끄러운 물건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상속의 필수품으로서의 ‘다로’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진(河潛, 1597~1658)의 <대우부지(待友不至)> 4구에도 “차술은 언제나 몸을 따라 함께 다닌다”(茶鼎動隨身)라 하여 다사가 생활화된 모습을 짐작하게 한다.

박장원의 <종남초당(終南草堂)> 7구에는 “약그릇과 차술 외에 할 일이 없다”(藥瓢茶鼎無餘事)라 하여 일상 가운데 약을 다루는 일과 다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초당에 거주하는 이는 양생 측면에 주안을 둔 생활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용익은 <수순이거희음(遂旬移居戲吟)> 시에서 “술병과 서상은 버려두고 차술과 약봉지는 가지고 가네”(酒甕書床棄 茶鑪藥裹隨)라 하였다. 이 역시 이사를 가면서 본인 일상에 필수적인 약과 양생에 필요한 차술은 가지고 감을 표현하고 있다. 신정하는 <제두월정구허신개주가가벽(題斗月亭舊墟新開酒家壁)>에서 “필상과 다조는 언제나 함께하고 산비와 강바람은 온통 시라네”(筆床茶竈許相隨 山雨江風揜有詩)라 하여 지식인들의 생활문화 기본으로의 필상과 다사를 상징하는 다조의 동반 구비와 차생활 구가를 강조하고 있다.

이천보(李天輔, 1698~1761)의 일상적 다사는 <폐유(閉牖)> 1, 2구 “창문 닫으니 숙연하여 할 일 없고 다로와 약술에 정성 기울이네”(閉牖蕭然一事無 茶爐藥鼎淡工夫)라는 내용과 <영분매(詠盆梅)> 7, 8구 “아름다운 혼 달래려니 녹주가 없고 토로에 익어가는 차만 자주 마신다”(欲慰芳魂無綠酒 土爐茶熟舉瓢頻)는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또한 그가 하루를 다로와 경권으로 보낸다(茶爐經卷了朝昏)는 시구, 역시 일상 속의 다사를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 조희일은 <사차(四次)>에서 “약화로와 다구는 마음을 안정시킨다”(藥爐茶臼可安神)라 하여 다사의 양생 측면 효과 중 정신 안정면을 표현하고 있다.

박제가의 <필운대차방옹 동남대성임진사(弼雲臺次放翁 同南大成任進士)> 7, 8구에서는 “뜬 인생의 만나절을 고개 돌려 바라보니 차 화로 변함없이 바위 위에 놓여 있네”(浮生半日堪回首 茶竈依然石上橫)라 하였다. 의연히 자리하고 있는 ‘다조’는 지속적, 일상적으로 다사를 행했던 박제가의 생활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여차잡절 십삼수(旅次雜絶 十三首)>중 3수는 차가 늘 함께 하는 생활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이다. 그는 객사에 머물면서 “차 없고 그림 없고 향도 하나 없는데 까막까지 찾는 소리 고향과 똑같구나”(無茶無畫復無香 鳥鵲尋聲語必鄉)라 하여 일상 본인의 방에 구비하여 즐기던 차·그림·향 등을 제시한다.

『육로산거영(六老山居詠)』중 정약용이 차운하여 읊은 율시 제 12수 7, 8구에는 “두 뜨락을 다 치워서 물건 하나 없는데 담장 밑에 차 화로만 꽃아서 앉혔다네”(淸掃兩庭無一物 牆根安插煮茶鑪)라는 내용이 있다. 다산초당의 약천, 차 맷돌, 차 바구니, 차 화로와 다조 등 다사에 사용되는 도구들의 갖춤은 익히 알려진 바로서 정약용의 일상화된 다사를 올곧이 볼 수 있는 정경이라 할 수 있다.

이유원은 밀양의 황차를 보내 준 강로(姜漉, 1809~1887)에게 사례한 시<사정은상공증밀양황다>에서 밀양 황차에 대해 심양에서 구해 온 어떠한 차보다도 훌륭하다고 평하고, 강로의 장수하는 법이 음다, 즉 다사에 있음을 읊었다. 양생의 한 방법으로 구가되는 다사는 일차원적으로는 무병(無病)하여 ‘연년익수(延年益壽)’가 목적이요, 전다행위를 통한 탈속적 아취는 후기 지식인들에게 일상 속의 청취(淸趣)였다.

(2) 接賓

조선 전반을 걸쳐 제사를 모시고 손님을 접대하는 ‘봉제사접빈객(奉祭祀接賓客)’은 여성의 중요한 본분사이자 남성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제례는 일상적인 일이라 할 수 없지만 손님을 맞이하는데 있어 차를 접대함은 일상적인 일이었다.

이재는 <답족질여빈(答族姪汝彬)>에서 “차를 달여 마시면 안에 쌓였던 것이 씻겨나가므로 옛 사람들은 차를 중히 여겨 손님 대접이나 제례에 사용했다”²⁸²⁾라 하였다. 일찍이 차는 신성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제반 의례의 공물로 만들어졌음은 모두 주지하는 바이다. 차가 일상의 음용물이지만 다른 마실 거리와는 달리 고유의 신성성, 품격을 갖춘 귀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손님 접대에 차가 올려지는 것은 단순 음료로서의 기능과 다사정경의 아취를 통해 상대와 청담의 소통을 원하는 의지가 함께 안배된 최적 음료로서의 성격이 함의되어 있다. 특히

282) 이재, 『密菴集』 권9, <答族姪汝彬> “煎湯飲之, 釋滯消壅, 古人重茶, 以爲賓祭之用.”

한 공간에서 차를 함께 마신다는 것은 물리적 시간의 개념을 넘어 서로에게 심신의 여유로움을 구하는 의미가 더 크기에 주객(主客) 모두에게 지향되는 일이었다.

이안눌은 <병매초발경조상인홀수시내방(瓶梅初發敬祖上人忽袖詩來訪)>에서 노승(老僧)의 방문에 할 이야기가 많아 차를 손수 달여 접대하였다고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사를 행하는 것이 주객에게 물리적 시간의 여유를 갖게 해줌을 표현하고 있다. 목대흠의 <동엽좌제시(桐葉坐題詩)>에는 “사양 많이 해도 주인은 객에게 권해 함께 다완 들고 봄 풍경 감상하네”(茶謝主人能勸客 共携茶碗賞春風)라 하여 손님이 오면 일상적으로 차를 권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아취적 시간을 갖음이 표현되고 있다.

이하곤은 <팽다공객(烹茶供客)>에서 차를 달여 손님을 대접하는 일상을 맑은 운치(淸致)있는 일이라 하였다. 민우수는 <정백종씨(呈伯從氏)> 7, 8구에서 “내일 아침 다시 그윽한 기회 기뻐할 것이니 집안 청소하고 피리와 다완을 준비해야지”(明朝更喜幽期在 筥席茶甌掃一軒)라 하여 일가친척이 방문할 때 찾자리를 준비하여 그윽한 기회를 만들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상 속에서 손님 방문에 차를 내는 것은 당위적인 일이자 맑고 운치 있는 그윽한 일로 인식,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현명의 <동정래교소음(同鄭來僑小飲)>에는 “손님 대접함에 어찌 부의주 없으리, 그대 만나 비로소 밀운용차 마시네”(待客豈無浮蟻酌 逢君始啜密龍茶)라 하여 손님 접대에 술과 차는 빠지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밀운용차와 같은 좋은 차는 그 가치를 아는 정래교과 같은 다객(茶客)이 방문했을 때 비로소 대접함을 표현하고 있다.

신위는 청나라 학자 오숭량(吳崇梁)에게 보낸 <기사오난설(奇謝吳蘭雪)>에서 본인이 거처하는 집의 안과 밖을 표현하면서 “객이 오면 다옥에서 한줄기 연기가 일고 퇴근하면 학 두 마리 이끼 낀 뜰에서 맞네”(客來茶屋孤烟起 公退苔庭二鶴迎)라 하였다. <서시엽 이십수(書柿葉 二十首)> 중 14수에서도 “손님이 와 차를 달여 마셨지만 도무지 한글자의 시도 못 지었네”(客至充煎茗 都無一字詩)라 하여 손님이 오면 일상적으로 차를 접대함을 나타내고 있다. 홍현주의 <유산·동번 야과수부(西山東樊夜過遂賦)> 시문 5, 6구²⁸³⁾에서도 손님이 오면 차를 대접한 모습

283) 홍현주, <西山·東樊 夜過遂賦>중 “손님 머무르게 한 찻잔엔 물고기 눈 거품 가늘고 추위를 물리친 매화 담벽엔 표범 무늬 아롱지네”(留客茶甌魚眼細, 辟寒梅壁豹文斑.)

이 나타난다. 더구나 이 시문 속의 객은 정학연과 이만용(李晩用, 1792~1863)으로, 차를 즐긴 손님들이기에 다사가 등장함은 당연한 것이었다.

특히 절을 찾는 객들에게는 다반사처럼 차가 접대됨을 후기 지식인들의 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절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절 집안, 일반 사가(私家)를 불문한 일상적 손님 접대 양상이 반영된 모습이다. 유정원의 <유금강산록(遊金剛山錄)>에는 본인이 금강산을 유람하던 중 표훈사(表訓寺) 능파루에 이르니 승려들이 차를 접대했다(渡石橋入表訓凌波樓 僧徒進茶)고 하였다. 채제공은 <만폭동(萬瀑洞)> 시에서 차를 야외에서 대접받았음을 표현하고 있다.

路斷蛟龍窟 길이 교룡의 굴을 가르고
巖胚日月精 바위엔 일월의 정령이 스며있다네.
比丘能解事 비구가 이런 사정 잘 알고서
潤肺捧茶鐘 마음 적시라고 차술 들고 오네.²⁸⁴⁾

한편 채제공이 영주 제일 명문가인 서진사택(徐進士家)을 방문했을 때, 매우 법도 있는 차 대접을 받고 읊은 시인 <방서진사가>에서는 당시 명문가의 격식을 갖춘 빈객 차 접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 사가, 절 집안 어디서나 손님 접대에 차가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대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객에게 있어 다사는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 및 아취적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다.

(3) 茶飯

먼저 원론적 일상다반사의 모습을 시문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심육(沈鎔, 17~18세기)은 <장수사(長水寺)>에서 선방에서의 자연스런 다반사를 표현하고 있다. “선방에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나니 해 넘어갈 때라 길 떠나지 못하네”(禪房茶飯後 日夕未成行)라 하여 절 집안에서 공양 후 차를 대접받음을 읊고 있다. 이는 전형적 다반사의 풍경으로 전혀 의도된 격식을 갖추지 아니라 절집안의 일상 다사임을 알 수 있다.

284) 채제공, 『樊巖集』, 권5, <萬瀑洞>

황상이 가을날 산사에서 벗과 함께 묵으면서 지은 시인 <산사동우인숙(山寺同友人宿)> 7, 8구에도 “산승은 유람 나온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밥을 먹은 뒤 물 끓여 우려낸 차를 내놓는다”(山僧能解知遊子 煎水茶湯飯後隨)라 하여 절 집안의 다반사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대등(對燈)> 시를 보면 머물던 절에서 저녁시간 등불 아래 일상적인 다사가 이루어지는 정경이 눈에 들어온다.

翁子貧宜甚 늙은이가 가난한 것은 지극히 마땅하나
 燈何夜起寒 등불은 어찌하여 한밤 한기를 일으키는가.
 僧茶初上沸 스님의 차 올릴 물은 막 끓어오르고
 邨杵漸歸殘 마을의 절구소리는 점점 희미해진다.²⁸⁵⁾

이광덕은 <만반>에서 일상 중 늦게 밥을 배불리 먹고 차를 한 잔함(晚飯飽餘 吃草茶)을 표현하고 있으며, <초하(初夏)>에서는 “차잎 반 근을 솥 걸고 달인다”(茗葉半斤支鼎煮)고 하였다. 이광덕의 집안은 여러 대를 걸친 차인의 집안으로서 위 두 시구를 통해 일상속의 다사와 다력을 지닌 집안으로서의 다사규모 또한 짐작하게 한다.

신위는 1814년 지은 <청수부용각만반 서시유생(淸水芙蓉閣晚飯 書示兪生(河柱))>에서 부용각 아래서 늦은 밥을 먹고 할 일이 없어 물고기를 감상하고 차를 한 잔함을 읊었다. 공간을 불문하고 식사 후 차를 마시는 신위의 일상적 차생활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의 <대화 십삼즉(代畫 十三則(并序))> 중 ‘기(起)’, ‘거(居)’, ‘면(眠)’에서는 일상 중 다사를 정밀하게 살펴 볼 수 있다.

起
 紙窓全白噪朝鴉 창문 환히 밝자 아침 까마귀 시끄러운데
 烏帽籠頭自注茶 오사모 쓰고서 홀로 차를 따르네.
 一夜水仙花錯認 놀랍게도 간밤에 수선화가
 古瓷靑吐麝香芽 옛 꽃병 속에서 파란 사향을 내밀었다네.

居
 看書拋却疊成堆 책보다 던져버리니 무더기를 이루고

285) 황상, 『扈園小藁』 권6, <對燈> (김규선·구사희, 앞의 논문, 203쪽.)

香篆茶烟撥不開 향연기 차 연기 흠어도 사라지지.
 小屋何嫌賓位窄 작은 집이나마 손님 자리는 좁지 않건만
 更無一客拜年來 해가 바뀌어도 인사 오는 이 한 명도 없네.

眠

春生四體休休便 봄이 되니 사지가 나른해지는데
 茶熟頭湯漠漠香 차 끓는 머리맡엔 향이 그윽하네.
 一字不看中有味 글 보지 않아도 나른대로 맛이 있으니
 滿窓松影枕書囊 창에 가득한 솔 그림자 아래 책 주머니 베고 놓는다.²⁸⁶⁾

이 글의 서문에 밝히고 있듯이 신위 50세에 쓰여진 것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조목조목 적은 것이다. 13칙 중 다사와 관련성을 갖고 있는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 등 세 가지 칙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50세, 신위의 일상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차 향기와 늘 가까이 있었고 다반사와 같은 일상의 다사가 추구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박제가의 경우 차는 일상 속에서의 필수적인 기호품의 의미를 지나 병이라 할 정도로 차에 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에 유배되었던 시절 세 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는 그와 같은 정황이 잘 나타나 있다.

온갖 일에 대한 생각이 모두 스러졌지만, 오직 차와 담배만은 끊으려 해도 끊을 수가 없어, 못 얻으면 괴롭기 짝이 없으니 고질이 된 것 같구나. 여기서 20여리 떨어진 곳에 술집이 있다. 문인 한 사람이 닭 잡고 기장밥 지어 나를 청하니 이 틀썸 자고 돌아올 생각이다. ²⁸⁷⁾

정학유의 일상적 차 애호도는 그의 차 소비량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가 안익스님에게 1842년 보낸 서찰에는 “비록 병의 뿌리를 뽑을 묘한 약제는 아니나, 다급함을 구해주는 훌륭한 처방은 될 만합니다. 앞뒤로 여러 스님께서 부쳐주신 것이 적지 않지만, 1년간 마시는 것이 몇십 근이 더 되니, 이것을 어찌 계속 보내줄 방법이 있겠습니까?”²⁸⁸⁾라고 하여 차를 약용 목적 이상으로 소비하고 있음을 말

286) 신위, 『警修堂全藁』 책4, <代畫十三則 并序> (송재소 외 역, 앞의 책, 87쪽)

287) 박제가, 『貞菴閣集』, <寄稔廩菴等> “萬事俱除去, 惟茶與鼻煙, 欲祛不得, 不得則成痴甚矣, 猶有癖焉. 此去二十餘里, 有杏花村. 有一門人, 具雞黍邀余, 當信宿而歸矣.” (박제가, 정민 외 옮김, 앞의 책, 348쪽)

288) 『西山一門客大菴寺諸禪師簡札帖』, <謝益上人經窓> “雖非拔本之妙劑, 可爲球烈之良方. 前後諸法侶寄惠, 不爲不多, 以一年所吞, 不下累十觔, 此豈可繼之術耶.”

하고 있다. 같은 편지 내용 중 “올 봄 곡우 전에 만 좋은 차를 반드시 이 병든 이를 위해 염두에 두어 주신다면 그 감사함이 마땅히 어떠하겠습니까?”²⁸⁹⁾라는 표현 또한 단순히 차를 약용으로만 이용하지 않음이 나타난다. 표면적인 명목으로 병을 칭하고 있으나 ‘곡우전의 좋은 차’를 지목하여 요청한다는 것은 일상에서 기호적 측면으로 차를 유용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학유의 차소비는 황상의 시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김정희의 편지를 받고 운포선생을 애도한 <봉완당서곡운포선생(奉阮堂書哭耘浦先生)>에서 운포와 지인들이 함께, 한 해 동안 마신차가 한 석(碩)에 가까울 정도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박영보는 <남다병서(南茶并序)>에서 본인의 차 애호 정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내 삶은 다벽에다 수액을 더했는데 나이 들어 뺏속까지 삼시층이 박혔다네. 열에 셋은 밥을 먹고 일곱은 차 마시니 집에 담근 강초처럼 비쩍 말라 가련하다²⁹⁰⁾

이와 같은 박제가·정학유·박영보의 일상다반사를 넘어선 음다 습관에 대한 언급은 다사의 일상화를 반영한다 하겠다. 앞서 결명시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차를 얻고자 하는 그들의 글속에서 주로 본인들의 병을 칭하고 차를 구하는 성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배경을 살펴볼 때, 이는 그들의 지병과도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일상 속에서 항상적으로 다사를 유지하는 데는 차가 많이 필요했을 것이고 더구나 벽에 가까운 음다 습관이 더해져 보다 좋은 차를 얻고자하는 의지가 결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결명시문은 후기 지식인의 차의 약용으로의 이용도와 차의 일상화가 반영된 정보가 담겨있다.

2) 전문성

다사란 사람이 주체가 되어 객체인 차와 관련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다사 중 전다부분에 있어 중요한 삼요소인 차(茶)·물(水)·불(火)과 관련된 후기 지식인들의 관심사를 통해 실제 다사의 전문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89) 앞의 서찰 “今春雨前佳品，必爲此一痿人勉念，則其爲鑄感當如何。”

290) 박영보, <南茶并序> “我生茶癖卽水厄，年深浹骨三蟲堅。三分浪食七分飲。沈家薑椒瘦可憐。”

(1) 擇水

초의선사의 『다신전(茶神傳)』 <품천(品泉)>에서는

차는 물의 신이요 물은 차의 몸이다. 참된 물이 아니면 그 정신이 나타나지 않고 정제된 차가 아니면 그 몸체를 살필 수 없다.²⁹¹⁾

라 하여 차와 물이 긴밀하게 상관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역대로 차 관련 문헌에는 수질에 대한 내용이 어김없이 언급되어 있다. 이는 다탕(茶湯)의 질에 수질여부가 결정적 작용을 한다고 인식함에서 비롯되었고, 실제적 다사에서 물이 품평되고 경험되면서 재확인 되었다.

대표적으로 육우의 『다경』, 장우신의 『전다수기(煎茶水記)』, 명대 전예형의 『자천소품(煮泉小品)』, 허차서의 『다소(茶疏)』, 웅명우의 『나개다기(羅峴茶記)』, 앞서 소개한 『다신전』 <품천>의 기본 텍스트인 장원의 『다록(茶錄)』 등에는 차와 수질의 유기적 상관성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다. 『나개다기』에는 “차를 끓임에 있어 물의 공로가 제일 크다”하였고 『다소(茶疏)』에는 “정제된 차에 담겨진 향기는 물을 빌려서 발현되는 것이므로, 물 없이는 차를 논할 수 없다”고 하였다 명나라 장대복(張大復)은 『매화초당필담(梅花草堂筆談)』에서 “차의 특성은 꼭 물을 통해 반영이 된다. 8분정도가 차라면 10분 훌륭한 물을 만나야 10분의 차의 특성을 완전히 나타낼 수 있으며, 8분의 물로 10분의 우수한 차를 우릴 때는 차의 우수성을 8분밖에 보여줄 수 없다”²⁹²⁾라 하여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실제 다사에서 정다(精茶) 만큼이나 진수(眞水)를 추구했던 기록들이 확인된다. 이덕형의 <여이자상서(與李子常書)>에서는 다품에 앞서 수품 및 점다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헛차는 이때까지 호남에서 구했는데 많이 얻지 못해서 조금 나누어 보내니 잘 달여 마시고, 만약 다품을 논하려면 반드시 먼저 샘물을 맛보고 법대로 달여야 하네.²⁹³⁾

291) 초의선사, 『茶神傳』 <品泉> “茶者水之神, 水者茶之體. 非眞水莫顯其神, 非精茶莫窺其體.”

292) 장대복, 『梅花草堂筆談』 “茶性必發於水, 八分之茶, 遇十分之水, 茶亦十分矣; 八分之水, 試十分之茶, 茶只八分耳.”

293) 이덕형, 『漢陰文藁』 권10, <與李子常書> “雨前新茶, 曾求之湖南, 得之不數, 少許分上, 幸試

임수간의 <차방옹시윤직경(次放翁示尹直卿)> 3, 4구에도 양선차를 달임에 있어 품수를 고려하고 있다. 박제가의 다사와 관련한 시문에는 수품과 관련한 내용이 다수 확인된다.

.....

料道近山泉味好 가까운 산 샘물 맛이 좋은 것 떠올리곤
 一包龍井買斜封 용정차 한 봉지를 사봉에게 사노라.²⁹⁴⁾
 怪我平生不飲煙 이상하네, 내 평생 담배는 안 피워도
 頭綱美味嗜還偏 두강차의 좋은 맛 지독히 좋아하네.
 風爐活火松陰下 소나무 그늘 아래 풍로에 불을 붙여
 來試郵亭第一泉 우정의 좋은 샘물 시험하여 보리라.²⁹⁵⁾

<육차동지운려양역효발(六次冬至韻閩陽驛曉發)>시는 다수의 여행경험을 가지고 있던 박제가가 여행 중 여양역에서 주변의 물맛이 좋았던 것을 기억하고 용정차를 사서 시험함을 읊고 있다. 장소를 불문하고 좋은 물을 만나면 차를 달이어 시험해보는 그의 차에 대한 애호경향을 살필 수 있다. 그의 이러한 경향은 <사양진사 혜다(謝梁進士[德貞]惠茶)>시에서도 잘 나타난다. 진사 양덕정이 보내준 차를 가지고 제일 천이라는 우정의 물로 차를 시험해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좋은 차를 구하면 그 차맛이 잘 나타날 수 있는 제일의 물을 생각하고, 좋은 물을 만나면 그 물맛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차를 구하는 박제가의 다사 전문성을 살펴볼 수 있는 시이다. 또한 <차심척장편(次沈戚長篇)> 4구에는 비가 오고 난 뒤 차를 달여 새 샘물을 뽑냈었지”(雨後淪茶誇新泉)라 하여 수질(물맛)과 차와의 불가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신위는 <냉천정(冷泉亭)>에서 “묘미는 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에 달렸다”(妙不在茶 唯在泉)라 하여, 수품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홍현주의 차와 수질 관련한 시를 살펴본다.

之, 若論茶品須先泉味煎法.”

294) 박제가, 『貞藜閣集』, <六次冬至韻閩陽驛曉發> (정민 외 옮김, 앞의 책中, 121쪽.)

295) 박제가, 위의 책, <謝梁進士[德貞]惠茶> (정민 외 옮김, 위의 책上, 404쪽.)

樓好於斯宜速客 여기에 누각 좋으니 손님 초청함이 마땅하고
泉甘如許可無茶 샘물이 달기가 이러하니 차가 없어 되겠는가?²⁹⁶⁾

看山始悟詩如畫 산을 보고 비로소 시가 그림 같음을 깨닫고
試茗方知泉有功 차를 마셔보고 비로소 샘물의 공덕 알았네.²⁹⁷⁾

<부금건옹참판금석(赴金健翁參判(陽淳 元晦)唵席)>시는 김양순의 회갑에 지은 축시이다. 김양순 집안에 좋은 샘물을 맛보고 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의 시는 이경재의 금계산장을 빌려 열흘을 머물면서 홍성모와 함께 차운한 시이다. 여기서는 무악 약수로 끓인 차를 맛보고 비로소 수질의 중요성을 알았다고 하였다. 무악 약수의 물 맛 뿐만 아니라 차의 맛과 향에 수질이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다에 있어 품수(천)의 우열에 대해 많은 다서들이 공통적으로 물의 질은 맑고[淸], 살아있고[活], 가벼운[輕] 것을 우수한 것으로 기술하고 물의 맛은 달고[甘], 청량한 느낌[冽]이 있는 것을 우수한 것으로 기준삼고 있다. 특히 설수(雪水)와 빙수(氷水)는 위에서 기술한 냉렬함과 감미로움을 함께 취하고 있어 이들로 차를 끓이면 차의 맛이 우수하다고 전한다.

박영환(2010: 286-291)은 옛 사람들은 차를 우려낼 때 사용하는 빗물이나 설수를 가리켜 ‘천수(天水)’ 또는 ‘천천(天泉)’이라 하였음을 밝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설수(雪水)는 연수(軟水)로서 깨끗하고 시원하여 찻물로 사용하면 탕의 색이 곱고 밝을 뿐더러 그 향과 맛이 일품이어서 중국 고대 문인들과 다인들에게 찻물로 널리 애용되어 왔다고 하였다. 빙허각 이씨는 『규합총서』에서 소동파의 글을 빌어 찻물을 소개하면서 빗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소동파가 이르기를 봄비가 제 때에 오거든 그릇을 넓게 놓아 가운데 내리는 것을 받으면 달고 부드러워 가히 이름 지어 형용할 수 없으니 차를 끓이며 약을 달이면 아름답고 유익하다. ²⁹⁸⁾

이와 같이 옛 사람들은 빗물을 제일 달콤한 것으로 여겼고, 강남 매우시기의

296) 홍현주, 『海居詩集』, 不休卷, <赴金健翁參判(陽淳 元晦)唵席>

297) 홍현주, 위의 책, 又不休卷, <借李尙書 金雞山莊留一句與葯麓共次杜律>

298) 빙허각 이씨, 『閨閣叢書』, 권4, 「靑囊訣」, <神仙螢火丹>

빛물이 가장 달다고 전한다. 물에 대한 이해도와 취사선택은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다사 관련 시문에서도 다수 확인된다. 이는 실제 다사에 있어 지식인들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면이라 할 것이다. 설수를 취하여 차의 맛과 아취를 도모한 시문들을 살펴본다.

정태화의 <차동파전다운(次東坡煎茶韻)> 1구에는 “눈물로 달이는 풍미를 얘기해 무엇하리”(風味何論雪水烹)라 하여, 설수로 달이는 차 한 잔의 맛은 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수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신흠은 <한거사영(閑居四詠)>과 <시전아(示全兒)>에서 차를 달이는데 눈과 얼음을 섞어 끓이는 모습과 설수로 차를 달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신정은 <독야(獨夜)> 3, 4구에서 “추운 집에 눈물로 차 달이는 흥은 값비싼 장막 속의 따듯함에 비교가 되리”(寒齋雪水烹茶興 何似銷金帳裏春)라 하여 설수로 차를 달이는 것이 아취를 도모함을 전하고 있다. 남용익 또한 <익일 갱차연구운(翌日更次聯句韻)>에서 설수로 차를 달임이 본질적인 차의 맛을 도모하는 것 외에 아취 있는 흥이 나는 일임을 표현하고 있다.

.....

雪水煎茶興 눈물로 차 달이는 흥취
 山陰訪客心 산음에서 객을 찾은 마음이라네.
 偶然成彥會 우연히 선비 모임 이루어져
 相與吐英音 서로 꽃다운 얘기 토한다네.²⁹⁹⁾

박제가는 <차운시인 십수(次韻示人 十首)> 중 3수 7, 8구에서 “두만강 발원지의 눈으로 차 끓이니 강왕곡의 폭포 물도 부럽지 아니하네”(煎茶頭滿江源雪 不羨康王谷水懸)라 하여, 두만강 발원지의 눈 녹인 물로 달인 차의 맛이 우수하여 육우가 제일로 삼았다던 강왕곡의 폭포물도 부럽지 않다고 읊고 있다. 심상규의 <철명(啜茗)>을 보자.

雪乳霏霏磴碾寒 설유는 찬 멧돌에서 줄줄 흘러나오고
 松濤習習泛瑤盤 솔바람 소리는 짹짹 옥반에 넘치누나.
 蛾眉玉腕非無分 아미에 옥사발이 분수에 없는 것 아니라
 且作陶家雪水看 짐짓 도가의 설수풍류 따라 해보네.³⁰⁰⁾

299) 남용익, 『壺谷集』 권5, <翌日更次聯句韻>

시인은 송나라 도곡(陶穀)이 눈 오는 날에 아름다운 찻을 거느리고 눈 녹인 물에 차를 달여 마셨던 고사에 따라 눈을 녹여 차를 달임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차의 맛을 도모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아취 적으로도 설수가 유용했으리라 생각되는 시이다. 홍현주는 <납설수평다(臘雪水烹茶)>에서 수질이 좋은 통정과 미천보다 설수로 달인 차를 우위에 두었다.

.....

一椀頓開襟鬲關 한 사발 마시니 갑자기 답답한 가슴 열리네.
 桶井尾泉猶第二 통정과 미천은 오히려 둘째이니
 寒英正與渴喉合 차갑게 빼어난 맛 갈증 풀기에 알맞네.³⁰¹⁾

또한 이상적에게 차를 청하면서 보낸 시 <첩전운기우선걸다(疊前韻寄藕船乞茶)> 5, 6구에서 “도가(陶家)의 눈 가져다가 끓이게 할 뿐이지 번거로이 옥정 얼음 어이하여 쓰겠는가”(但令烹取陶家雪 何用煩思玉井冰)라고 하여, 홍현주가 설수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눈과 얼음은 모두 청량한 느낌의 냉렬한 것으로 차의 맛과 향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설수는 옥정의 얼음보다 번거롭지 않게 취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점도 표현하고 있다. 이상적의 <여구병첩한 당우소냉 신설장격 인제기상(余久柄怯寒 堂宇疎冷 新設障格 因題其上)> 둘째 수 3, 4구에서도 “만약에 세상맛의 농담을 따지려면 고주도 마침내 설수차만 못하리라”(若將世味商濃淡 羔酒終輸雪水茶)라 하여, 눈 녹인 물로 달인 차의 맛이 뛰어난 것을 읊었다.

雪片每當煎處見 차 달일때 언제나 설편(雪片)이 보이고
 松風更擬沸時聽 물 끓을 땐 다시금 솔바람 소리 들리는 듯. ³⁰²⁾

이 시는 신헌이 1838년 겨울 가족들과 함께 수파산(壽坡山)에 머물면서 지은 <추려삼십수(楸廬三十首)> 연작 중 제24수이다. 설수를 취하여 성령을 기를만한 좋은 차를 달임을 읊고 있는데, 매번 차를 달일 때는 설편이 보인다는 표현으로 볼 때 그의 설수에 대한 애호도를 확인할 수 있다.

300) 심상규, 『斗室存稿』 권2, <啜茗>

301) 홍현주, 『海居齋詩鈔』 권2, <臘雪水烹茶>

302) 신헌, 『威堂集』 <楸廬三十首> 24수 (정민, 앞의 책, 541쪽.)

조선 후기 지식인들이 다사에 유익한 물의 질에 대해 논한 시문 중 청(淸)·활(活)·(輕) 세 가지 기준을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임상원은 다사에 열(冽)과 활(活)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얼은 강물을 선호하여 차물로 취하였음이 다수의 시³⁰³⁾에서 확인된다. 그의 아들 임수간은 <차두보병적운(次杜甫屏跡韻)> 4구에서 ‘한류(寒流)’를 취하여 차를 달인다고 하였다. 이 또한 열의 성질과 류(流) 즉, 활의 성질을 가진 물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창흡은 <오대산기(五臺山記)>에서 상원사 금봉암의 샘물을 맛보고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많이 차지 않고 달고 부드러워 마시기 좋았다. 그 물맛이 상품인데 육우로 하여
금 차 달이게 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다.³⁰⁴⁾

적당한 차가움과 달고 부드러운 맛의 물을 차 달이기에 좋은 품으로 삼은 것이
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부터 좋은 물을 만나면 차를 달이어서 시험하는 등 차물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의 20세 때의 작품인 <미천가(尾泉歌)>와 21세의 작품인
<춘일체천잡시(春日棣泉雜詩)>에는 한양의 돈의문 밖의 미정과 북창동 근처 체
천의 물을 취하여 차를 시험하는 광경이 표현되어 있다.

玉盞溢兮終古流 옥같은 샘이 솟아 천고에 흐르니
瓊漿挹兮爽咽喉 맑은 약수 떠 마시매 목구멍이 상쾌하다.
爲試龍團治癖疾 용단차에 시험하여 목은 병을 치료하니
瑩如水精甘如蜜 투명하기는 수정이요, 달기는 꿀맛일세.
陸羽若來何處尋 육우가 만일 온다면 어디에서 샘 찾을까?
員嶠之東鶴嶺南 원교의 동쪽이요, 학령의 남쪽일세.³⁰⁵⁾

鴉谷新茶始展旗 어린 잎 막 돌은 백아곡의 신다
一包纔得里人貽 그 마을 사람에게 한 포를 가까스로 얻었다.
棣泉水晶淸何似 체천의 물이 하도 맑기에 한가로이
閒就銀瓶小試之 은병에 조금 끓여본다.³⁰⁶⁾

303) 임상원, 『恬軒集』 <風雪>, <煎茶卽事>, <次韻>, <日晚>

304) 김창흡 『三淵集』 권24, <五臺山記> “不甚冷冽而甘軟易接口。其味宜居上品，恨不令陸羽瀹茶也。”

305) 정약용, 『茶山詩文集』 제1권, <尾泉歌>

306) 정약용, 『茶山詩文集』 제1권, <春日棣泉雜詩>

다산초당을 배경으로 한 <약천(藥泉)>에서의 표현을 살펴본다.

玉井無泥只刮沙 옥우물 뽕은 없고 다만 모래 깔려 있어
一瓢料取爽餐霞 한 바가지 떠 마시면 찬하(餐霞)인 듯 상쾌하다.
初尋石裏承漿穴 처음에 돌 틈에서 승장혈을 찾았더니
遂作山中煉藥家 마침내 산속의 약 달이는 집 되었네.³⁰⁷⁾

.....

청·활의 성질과 단맛을 지녔던 미정과 청·활의 성질을 지닌 체천, 활과 열의 맛을 지닌 약천에 관한 시문 내용을 통해 정약용의 실제 다사에서 수품에 대한 전문가적인 안목을 알 수 있다.

莫是高禪卓錫劉 고승이 석장 꽂아 판 곳이 아니던가
松陰未許月星涵 소나무 그늘 짙어 달빛 별빛 잠기지 못하네.
汲深金碧統書味 깊은 샘에서 진리를 긴노라니 글맛이 통하여
灌頂醍醐悟佛心 정수리에 제호를 부은 듯 불심을 깨닫네.
泉水必甘非死氣 샘물이 달콤하니 죽은 샘물 아니고
海雲之雨不生鹹 바닷가라 하더라도 빗물은 짜지 않지.
若論天下煎茶品 천하의 차 끓이는 물을 논해보건대
第一康王此二三 강왕곡 물이 제일이라면 이 샘은 두세 번째는 되리.³⁰⁸⁾

신위의 1833년 작품인 <아후송석유천미감열 비범품야 급오음식다탕지용 시위 적거일희이 위부차시(衙後松石乳泉味甘冽 非凡品也 給吾飲食茶湯之用 是爲謫居一喜耳 爲賦此詩)>이다. 이 시에서는 차를 달이는데 물의 질과 맛을 고려하여 취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신위는 활의 성질과 감(甘)·열의 맛을 가지고 있었던 평신진(平薪鎭) 관아의 유천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박윤묵의 <급천자명 미심청열 한부여린우분상 수견지어시(汲泉煮茗 味甚清冽 恨不與隣友分嘗 遂見之於詩)>에는 시제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좋은 물로 달인 차를 이웃한 벗들에게 맛 보여줄 수 없음을 읊은 시이다. 이 시를 통해 품수의 이

307) 정민, 앞의 책, 160쪽.

308) 신위, 『警修堂全藁』 책20, <衙後松石乳泉味甘冽 非凡品也 給吾飲食茶湯之用 是爲謫居一喜耳 爲賦此詩> (송계소 외 역, 앞의 책, 132쪽)

론적 관심에도 지극했던 박윤목의 다사를 확인할 수 있다.

汲取潭泉似許清 샘물을 길어 오매 이다지도 맑으니
松風每愛沸茶聲 언제나 찻물 끓을 때 솔바람 소리 좋아라.
惠山較作尋常品 혜산천의 샘물은 아주 탁월하니
楊子甘辭第一評 양자강이 기꺼이 일등을 양보하지.
澈得三焦消痞滯 삼초를 맑게 하여 체증을 사라지게 하고
洗來兩眼發神精 두 눈을 씻어내어 신정을 말하게 하네.
玉壺縱有瓊華滿 옥 찻잔에 아무리 옥빛 차가 가득해도
恨不分嘗舊友生 벗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어 한스럽네.³⁰⁹⁾

김정희는 수질의 기준 요건 중 ‘가벼운(輕)’것에 집중하여 경수(輕水) 우위론을 주장하였다. 그가 남긴 소위 <수미변(水味辨)>행서에는 수질 평가와 뒷부분인 경수우위론이 구성되어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근래 사람들이 무거운 물을 좋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지한 망설이다. 무거운 물은 양금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때까지 때문이다. ³¹⁰⁾

가벼운 물을 우위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의 경중에 관한 관심은 이전시기에도 확인된다. 다음의 영조 재위시절 『승정원일기』에는 당시 중수우위론이 대세임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일기 영조 33년(1768년) 3월 24일 기록을 살펴본다.

주상께서 말씀하시길 차를 달일 때 어느 곳의 물을 쓰는가? 라고 하셨다. 이형이 말하기를 회통문에서 길는데 일찌감치 채비해두었습니다. 라고 하였다. …… 주상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에는 무거운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라고 하셨다. 이형이 말하기를 저울로 재서 무게가 무거운 것을 씁니다.³¹¹⁾

김정희의 수미변은 청나라 건륭황제가 옥천산 기슭에 세운 <옥천산천하제일천기(玉泉山天下第一泉記)>를 인용한 것이다. 이 옥천에 관한 문헌에 의하면 건륭

309) 박윤목, 『存齋集』 권14, <汲泉煮茗 味甚清冽 恨不與隣友分嘗 遂見之於詩>

310) “近人背以水之重者爲勝 是無知妄說 水之重 卽因水之泥濁.” (김명배, 『증보관 다도학논고』, 2009, 260쪽 재인용)

311) 『承政院日記』, 영조 33년 3월 24일(乙卯)조 “上曰, 煎茶用何處水乎? 履亨曰, 汲水於會通門, 曾差備矣. ……上曰, 水有重者云, 然乎? 履亨曰, 以衡量之, 以斤重者用之矣.”

황제는 차를 마실 때 반드시 물을 가려서 썼다고 한다. 중국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명천들을 찾아다니며 직접 물맛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은두(銀斗)를 가지고 다니며 물의 경량을 측정한 뒤, 그 결과를 가지고 천하 샘물에 등급을 손수 결정하였다고 한다. 건륭제가 북경의 옥천 샘물을 은두로 측정해보고 옥천의 물이 어리고 비중이 가장 작으며 똑같은 은두로 측정한 타 샘물에 비해 그 무게가 가장 가벼웠다고 평가하였다. 건륭제는 이에 서슴없이 옥천의 샘물이 차를 우려 마시기에 가장 적합한 물이라고 칭찬한 뒤 천하제일천(天下第一泉)으로 정하였다. 이외에도 건륭제는 『옥천산천하제일천기』에서 “무릇 산 밑에서 나오는 찬 샘물 중에서는 정말로 북경의 천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천하제일천이라고 정했다”고 하였다. 실제로도 옥천의 수질은 상등에 속하며, 이 물로 차를 우려내면 우려낸 찻잎에서 빛이 날 정도라고 한다.³¹²⁾

이와 같이 물이 가볍다는 것은 수질의 우위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며 차를 우려낼 때 또한 유효함을 알 수 있다. 김명배(1999: 251)는 김정희의 수품논의에 대해 “승설은 조선의 물에 관해서는 남다른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물에 관한 가치 판단 기준을 혁신하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하였다. 승설은 한강물과 양자강물의 수질을 동일시하였고, 중국과 조선의 수질에 대한 등위를 정하는³¹³⁾ 등 대내외적 수질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김정희의 수품에 대한 논의는 이론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적 다사에 물을 시험하여 차와 물, 각각의 등급과 품질까지 가늠하였다.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쓴 시와 과천에서 초의에게 보낸 편지, 북청에서 허련(許鍊)에게 보낸 편지글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領龍頷下嵌明珠 사나운 용의 턱 아래 박힌 여의주는
 拈取松風礪水圖 송풍간수도에서 따온 것일세.
 泉味試分城內外 성 안팎의 샘물 맛을 시험삼아 가려보니
 乙那亦得品茶無 제주에서 또한 차를 품평할 수 있을까.³¹⁴⁾

312) 박영환, 『명산 명사에서 명차가 난다』, 2011, 277-280쪽.

313) 후지츠카 치카시(2009 : 183)는 완당이 勝雪學人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며 북경 玉泉山의 물, 열하 耳遜河 강물, 제남 珍珠泉 샘물, 양자 金山泉 샘물 등 물에 대한 등위를 정한 원본 자료는 지금 내 서재인 망한려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였다.

314) 김정희, 『阮堂全集』 권10 ,〈汲古泉試茶〉

스님이 와서 초의의 편지를 받고 또 다포도 받았소. 이곳의 샘물맛은 바로 관악산 한 줄기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두륜산에 비하면 등급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한 서너 가지 공덕은 있다오. 그래서 급히 보내온 차를 시험해보매 샘맛도 좋고 차맛도 좋으니, 바로 한 조각 기쁨의 인연이었소. 315)

차편을 동정의 물로 시험하니 향과 맛이 더욱 빼어나네. 동정은 바로 우리나라의 강왕곡수라네. 이 차로 말미암아 샘물의 등급을 알겠고, 또한 다시 차의 품질도 알겠으니, 이 또한 하나의 기이한 일일세.316)

이와 같이 김정희는 이론적으로 수품에 정밀했을 뿐 아니라 다사에 실제 적용, 시험해 봄으로써 수품과 다품을 검증하였다.

조선 후기 지식인들은 수품 논의에서 차를 달이는 물을 취함에 있어 자정에서 새벽에 사이에 낀 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조희일의 <설수전다(雪水煎茶)> 1, 2구에는 “맑은 새벽 정화수 길어오는 번잡함 없애려 벽돌화로에 쌓아 놓은 눈 녹여 햇차 달이네”(淸曉無煩汲井華 磚爐貯雪試新茶)라 하여 차를 달일 때 일상적으로 새벽에 낀 정화수를 취하였음을 밝혔다. 이단하의 <복차가군제승축운(伏次家君題僧軸韻)>에는 “자정에 떠온 샘물로 차를 달이네”라 하였다. 물을 낀 시간에 따른 특성까지 고려하여 다사에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빙허각 이씨는 『규합총서』에서 찻물을 소개하면서 소동파의 글을 빌어 정화수에 대해 기술하였다.

정화수는 하늘이 아홉과 둘로 화곤하고 땅이 여섯과 둘로 위감(爲感)하기 때문에 천일위수(天一爲水)하여 사람이 먹으면 감열(甘冽)하고 유익하다.317)

허준의 『동의보감』 <수부(水部)>에는 새벽에 낀 물의 공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15) 김정희, 앞의 책 권5, <與草衣 三十六> “僧來得草緘, 又得茶包. 此中泉味, 是冠岳一脈之流出者, 未知於頭輪甲乙何如, 亦有功德之三四. 亟試來茶, 泉佳茶佳, 是一段喜懽緣.”

316) 김정희, 『모완첩』, <許先達侍史回傳> “茶片試之東井, 香味益勝. 東井是我東之康王谷水. 以此茶而知泉品, 亦復知茶品, 是又一奇耳.”

317) 빙허각 이씨, 『閨閣叢書』, 권4, 「靑囊訣」, <神仙螢火丹>

새벽에 처음 길은 우물물인 정화수는 성질이 순하고 맛이 달며 독은 없다. …… 정화수에는 하늘의 정기가 응집되어 떠있기 때문에 보음약을 달일 때나 단약을 제련할 때 쓸 수 있다. 청정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매일 이 물에 봄에 딴 차를 넣고 달여서 마신다. 머리와 눈을 맑게 해주는데 제일로 친다. 그 성질과 맛이 설수와 같다. 318)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후기 지식인들은 일반적 수품에 관한 관심뿐 만 아니라, 다사의 물을 취함에 있어서 높은 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다양한 서적의 유입과 수용을 배경으로 지식인들은 수품에 관한 이론적 지식에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실제 다사에 이를 적용, 시험해보는 과정을 통해 수질과 차탕과의 유기적 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2) 湯辨

다사에서 차 한 잔을 내기까지 좋은 수질 못지않게 고려해야 될 점은 찻물 끓이기이다. 이를 다탕(茶湯)이라 하는데 그 중요성에 대해 당나라 소이(蘇廙)는 끓인 물이란 차의 목숨을 맡은 것이어서 아무리 좋은 차라도 끓인 물을 함부로 한다면 평범한 차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였다. 일찍이 차를 즐기는 이들은 다탕의 변화를 읽어 물 끓이기의 알맞음을 가늠하였다.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다사관련 시문과 글속에서도 다탕의 변화를 읽어 그 알맞음을 가늠하고 이를 즐기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다탕 변화에 대한 집중도는 다사 경향의 유희적 성격과 전문성을 동시에 시사한다. 박제가의 <희방왕 어양세모회인육십수(戲傲王漁洋歲暮懷人六十首)> 중 관헌 서상수(徐觀軒) 편에는 다탕변화를 잘 읽는다는 것이 다사에 전문적 안목이 있음과 동일시됨을 알 수 있다.

磨墨清晨萬慮輕 맑은 새벽 먹을 가니 온갖 생각 경쾌하고
 爐烟不斷一簾橫 화로 연기 오리오리 주렴 가에 걸렸구나.
 煎茶獨許金成仲 차 끓임은 오직 다만 김성중을 인정하니

318) 허준, 『東醫寶鑑』 「湯液編」 권1, <水部> ‘井華水’ “새배처엄기른우물물, 性平味甘無毒. …… 井華水者, 天一眞精之氣浮結于水面, 故可取以烹煎補陰之劑, 及修練還丹之用. 今好清之士, 每日取以烹春茗. 而謂清利頭目最佳. 其性味同於雪水也.”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상수는 다사에 뛰어난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오로지 차 끓임에 대해 인정한 사람으로는 상고당 김광수가 있다. 그가 김광수를 꼽은 이유가 바로 탕 변화를 제대로 감별하고 있다는 것이니, 여기서 전문성을 알 수 있다.

탕의 변화 감별은 크게 물이 끓는 형태를 보고 분별하는 형변(形辨)과 물이 끓는 소리를 듣고서 분별하는 성변(聲辨), 물이 끓는 증기를 보고서 분별하는 기변(氣變)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선 후기 지식인들은 탕변에 있어서 특히 형변과 성변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상원은 <신라승입당 득자귀종(新羅僧入唐 得子歸種)> 3, 4구에서 “과리소리 지나면서 푸른 잎 뒤치고 어묵 지나면서 흰 거품 넘친다네”(蠅聲陟作翻蒼葉 魚眼才平漲白花)라 하여 성변의 ‘승성’과 형변의 ‘어묵’과 ‘백화’를 차를 달이는 탕변으로 표현하고 있다. <박모전다(薄暮煎茶)> 2, 3, 4구에서는 탕변을 성변의 ‘솔바람 소리(松颯)’와 형변의 ‘흰물결(白雪)’, ‘물굽이가 잠잠해짐(浪息)’ 그리고 기변의 ‘푸른 이내(靑烟)’로 자세히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탕변 살피기의 자세한 표현을 통해 그의 다사의 전문성이 확인된다.

조희일은 <설수전다(雪水煎茶)> 3, 4구에서 “깊은 탕관에서 물결 일어 처음 넘치고 찬 소나무에 바람소리 나더니 다시 멀어지네”(浪驚幽竇看初張 風入寒松聽更賒)라 하여 탕변을 형변의 ‘낭경’과 성변의 ‘한송성’으로 표현하였다. 특히 다당의 소리를 송풍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시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상용의 <지월설수전다(至月雪水煎茶)>, 이수광의 <음다(飲茶)>, 이안눌의 <동원즉사(東園卽事)>에서는 ‘송성(松聲)’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정구의 <왕상공손번 여기숙왕몽조위래구견 잉송시선급신다 차기운이사지(王相公孫蕃 與其叔王夢祖委來求見 仍送詩扇及新茶 次其韻以謝之)>, 서기수(徐淇修, 1771~1834)의 <영다(詠茶)>, 이상적의 <김소당혜부사산다급다호 개일본물야(金小棠惠富士山茶及茶壺 皆日本物也)>, <접암차부기향송다(蝶菴比部寄餉淞茶)>, 신기선(申箕善, 1851~1909)의 <소룡분혜만응오시차 사정사절(小龍分惠萬應午時茶 謝呈四絕)> 첫수에서는 ‘송풍(松風)’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당의 소리에 있어 소나무에 바람 스치는 소리를 애호

319) 박제가, 『貞菴閣集』, <戲傲王漁洋歲暮懷人六十首> 중 第四 徐觀軒.

하고 즐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변 중 ‘송풍회우성(松風檜雨聲)’이란 표현 또한 시문에서 다수 살펴볼 수 있다. 이는 송풍성과 회우성 즉, 소나무에 바람 스치는 소리와 전나무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가리킨다. 박제가의 <희방왕어양세모회인육십수>중 4수 서관헌(徐觀軒)편, 홍대용의 <연기>중 ‘음식(飮食)’조, 김정선의 <유관별록>중 ‘음식’조에는 ‘송풍회우(松風檜雨)’라는 표현으로 차 달이는 소리를 읊었다. 박영보는 <남다병서>에서 “석 달 동안 차를 마시지 못하다가 초의차를 접해 달이는 가운데 누워 ‘송우성(松雨聲)’을 들으니 군침이 흐른다”고 표현하였는데, 성변의 표현으로도 차맛의 우열을 가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태화는 <차동과전다운(次東坡煎茶韻)> 5, 6구에서 “처음엔 화로 에둘러 안개 김 오르고 이어 관에서 샘소리 일어 들리네”(初見繞爐騰霧氣 却聞傾罐作泉聲)라 하여 기변과 성변의 ‘천성’을 표현하고 있다.

김려는 <보이차(普洱茶)>에서 “돌 샘물 한 사발 끓이니 게눈이 향기로운 안개 뿜내”(石泉烹一撮 蟹眼噴香霞)라 하여 물이 막 끓기 시작했을 때 보이는 작은 물방울[蟹眼]과 그 속에서의 증기를 표현하고 있다. 박윤묵은 현재덕(玄在德)이 내국(內局)에서 숙직을 서던 중 자주 차를 끓여 보내오자 시로 답례를 하였는데 시구 중 탕변 표현에 대해 “불을 피워 끓임에 게눈이 생기니 솔바람 부는 곳에 흰 파도 경쾌하네”(活火煎來蟹眼生 松風趁處素濤輕)라 하여 형변의 게눈, 흰 파도와 성변의 솔바람소리(松風聲)를 탕변으로 읽고 있다. 그는 다른 시에서도 송풍성의 애호에 대해 “언제나 찻물 끓을 때 솔바람 소리 좋아라”고 하였다. 그의 일상적 다사에서 탕변에 집중된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조병현의 <자명 연구>는 임금과 신하들이 차를 달이며 돌아가며 지은 시이다. 어제에는 “게눈이 생기는 걸 자세히 바라보며 한 사발 차로 시 창자를 씻노라”(細看生蟹眼 一碗澆詩腔)라 하여 탕변을 자세히 살피며 차를 달이는 모습을 유추하게 한다. 신하인 조봉하는 “솔바람 소리 돌솥에 넘치네”(松濤沸石甕)라 하여 송풍성과 끓는 물결을 표현하였다. 효명세자(孝明世子, 1809~1830)의 <다관(茶罐)>중 1, 2구에는 돌화로에 말린 차를 쇠솥에 달이니 잘 달인 햇차에 ‘해안(蟹眼)’이 일고 향기롭다고 표현하였고, <다(茶)>중 1, 2구에는 쇠솥에서 ‘송풍성(松風聲)’과 ‘설성(雪聲)’이 어지럽게 나고 ‘해안(蟹眼)’이 일어나 완(碗)에 가득하니 향기롭다

하였다. 효명세자는 다탕의 형변에 있어 ‘해안’이 나타날 때를 적정한 끓기, 즉 향기로운 차를 얻을 수 있는 때로 삼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안은 성변에서 솔바람 소리와 눈 내리는 소리가 난 이후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김만기(金萬基, 1633~1687)는 <재첩(再疊)> 3, 4구에서 “물 끓는 차솥에는 어묵이 생기고 비 소리 어지럽게 들린다”(茶鼎沸魚眼 如聞雨聲亂)라 하여 형변을 ‘어묵’, 성변을 ‘우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박제가의 <삼수재야화(三秀齋夜話)>에도 다탕의 성변을 ‘우성(雨聲)’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약용의 <결명소> 중 “해안 어안은 옛사람의 즐거움이 한갓 깊은데”(蟹眼魚眼 昔人之玩好徒深)라는 표현을 통해 탕의 형변과 같은 감별이 단순히 좋은 다탕을 구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탕의 다양한 변화를 즐기는 유희적 성향의 목적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상은 <결명시>에서 “어안이 일어나고 송풍성이 들릴 때 욕심과 번뇌 가득한 내장을 서너 차례 씻어 내린다”(魚眼松風塵肚俗, 腸三廻四廻瀉)하여 형변의 ‘어안’과 성변의 ‘송풍성’이 확인될 때의 다탕을 알맞은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홍현주는 <납설수팽다(臘雪水烹茶)>와 <유산·동변 야과수부(西山東樊夜過遂賦)>에서 형변중 ‘어안’과 성변의 ‘송풍’을 표현하여 다탕을 설명하고 있다. 박제가 또한 <다관명(茶罐銘)>에서 다탕의 성변과 형변을 ‘송풍어안’으로 표현하면서 고금이 따로 없다고 하였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다탕은 엄밀하게 두 부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차를 우려기 위하여 맑은 물을 끓임을 의미하며, 하나는 물에 다양한 형태의 차를 넣어 끓이는 의미가 있다. 원래 다탕의 변화를 형변·성변·기변으로 감별하는 것은 가루차를 넣어 끓이는 후자의 의미에서 비롯되었으나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통상적으로 전자·후자 모든 경우의 다사에 표현되고 있다. 조선 후기 지식인들 안에서도 탕변의 표현에 있어 위와 같은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다. 탕변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 지식인들의 전문적이고 세밀한 다사 경향과 운치 있게 다사를 즐기려는 유희성 또한 확인할 수 있다.

(3) 火候

역대 차인들에게 좋은 다탕을 구하기 위한 다사 경향에 있어 품다, 품천 못지

않게 중요시된 것은 불 살피기였다. 이덕무는 『사소절』의 <동규>조에서 약을 달이고 차를 끓이는데 있어 물 조절과 불의 정도를 살피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에게 불 조절은 다사의 기본적인 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조현명의 <운산졸변익노래색별시(雲山倅邊翼老來索別詩)>를 살펴본다.

.....
 心驚宦海風濤立 벼슬길 풍파 심해 마음 놀라고
 興在糟丘日月消 술로써 흥겹게 세월 보내네.
 醉問茶奴香熟未 취해서 다동 부르니 아직 덜 익었다기에
 也須斟酌文武樵 모름지기 불의 세기에 마음 써야 하느니.³²⁰⁾

이 시는 다당의 완숙과 불의 세기 조절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탕후와 화후의 관계에 대해 명나라 전예형(田藝衡)은 화후와 탕후의 관계를 선후로 규정하였다.

사람들은 다만 탕후 살피기만 알고, 불 살피기를 모른다. 불이 타면 물은 건성으로 끓기 마련이므로 불 보기가 물 보기보다 앞선다.³²¹⁾

불 조절이 먼저 되어야 탕을 제대로 살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허균의 『한정록』 <청공>에는 진계유의 『미공다동(眉公茶董)』을 인용하여 불의 조절여부와 차의 맛, 탕변 중 성변을 들어 그 알맞음을 설명하고 있다.

차를 끓일 때 불을 너무 세게 하면 맛이 너무 써서 좋지 않다. 간수나 송풍 소리가 나는 정도로 끓이는 게 좋다. ³²²⁾

박지원은 『열하일기』, 『산장잡기(山莊雜記)』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에서 소리의 종류를 비교하면서 “차물이 센 불과 약한 불이 조화롭게 끓는 듯한 것은 듣는 이가 아취를 가졌기 때문이요”(茶沸文武此聽趣也)라 하였다. 이를 통해 연암이 탕변의 성변감별을 아취적인 일로 인식하고 있음과 다사의 불 조절에도

320) 조현명, 『歸鹿集』 권4, <雲山倅邊翼老來索別詩>

321) 전예형, 『煮泉小品』 <宜茶> “人但知湯候俟，而不知火候。火燃則水乾，是試火見于試水也。”

322) 허균, 『閑情錄』 권14, <清供> “湯不欲老，老則過苦。聲如澗水松風。”

능숙했음을 알 수 있다.

각안은 『다구명(茶具銘)』에서 청한한 본인의 삶과 다사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3, 4구에는 “이그러진 화로에 문무화를 피우고”(設苦窳爐 載文武火)라 하여 검박한 화로에 차를 달이면서 조화로운 불 조절에 힘쓰고 있음을 나타냈다.

물이 지나치면 물의 성미가 유약해지고 유약해지면 물이 차를 굴복시켜 다성을 발휘하지 못하며, 무가 지나치면 불길이 세어지고 세어지면 차가 물을 제압한다. 모두 중화가 부족하니 다가의 요지가 아니다.³²³⁾

명나라 장원의 『다록』 <화후>에서 언급한 문무화에 대한 기록으로, 다가의 요지가 문무화의 조화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문무화(文武火)의 조화는 다당의 완성도와 직결되는 표현으로 이를 얻기 위해서는 땀감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차를 달이는 땀감에 대해 『다경』에는 숯을 으뜸으로 하여 경신³²⁴⁾을 그 다음으로 쪄왔으며(其火用炭 次用勁薪), 소이의 『십육탕품(十六湯品)』에서도 숯만이 참다운 다당을 끓이는 데 있어 진정한 벗이라 하여 적격으로 쪄고 있다.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다사에서도 숯이 주로 선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태화의 <차동과전다운>, 박윤목의 <엄산현웅재덕 어내국직중궁자전다 일이위상 유시퀘아 작차시이사지 차요화>, 이상적의 <다연(茶煙)>과 <김소당 혜부사산 다급다호 개일본물야>, 윤정기의 <전다(煎茶)>에는 ‘활화(活火)’라는 표현으로 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숯불을 이르는 것으로 『자천소품』에는 당나라 이약(李約)의 이야기를 들어 활화는 숯불을 가리킨다³²⁵⁾고 적고 있다. 숯을 선호하게 된 배경에는 그을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차를 내는데 있어 땀감에서 나는 연기의 그을음은 다당의 맛과 향에 직접적 영향을 주므로 온전한 차를 낼 수 없음은 필연적 결과이다. 이러한 이유로 역대 다서에서 차를 달이는 땀감으로 숯을 선호하였다.

임상원은 <전다즉사>와 <와영(臥詠)>에서 각각 상수리나무 숯[櫟炭]과 소나무

323) 장원, 『茶錄』 <火候> “過于文則水性柔, 柔則水爲茶降, 過于武則火性烈, 烈則茶爲水制. 皆不足於中和, 非茶家要旨也.”

324) 勁薪이란 桑, 槐, 桐, 樞 등의 종류를 말한다.

325) 『자천소품』 <宜茶> “李約 云 茶須緩火炙活火煎 活火謂炭火之有焰者.”

[松木]를 땀감으로 차를 달임을 표현하였다. 박장원과 심상규, 홍현주의 시문에는 차를 달이는데 마른 나뭇가지를 사용했음이 확인되고, 숙선옹주와 정약용의 시문에서는 각각 소나무의 잎[松葉]과 솔방울[松子]을 취해 차를 달이는데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정약용은 솔방울을 화후를 조절하는데 이용하였는데 처음 솥을 넣어 찻물을 끓이다가 불기운이 세지면 솥을 꺼내고 솔방울을 이용하여 불의 세기를 조절하였다³²⁶). 명나라 전예형은 『자천소품』 <의다(宜茶)>에서 산속이라는 공간에서 차를 달일 때 솥을 구할 수 없거나 죽은 불일 경우 마른 솔가지를 쓰는 것이 묘책이라 제시하고, 추운 겨울에는 솔방울을 쌓아 놓고 차를 달이면 더욱 아취가 갖추어진다고 하였다.

신위는 <성주암(聖住菴)>에서 단풍잎[紅葉]을 태워 엮은 차를 끓여 낸다고 읊었는데 ‘송엽’과 ‘송자’, ‘홍엽’ 등의 사용을 통해 운치 있게 다사를 즐기려던 지식인의 정서 일면을 읽을 수 있다. 신유한의 <납월우이사출산(臘月偶以事出山)>과 홍현주의 <납설수팽다>, 윤희규의 <다설>에는 차를 달이는 땀감으로 ‘수탄(獸炭)’이 언급된다. 수탄에 대해 『진서(晉書)』에서는 ‘석탄을 가루로 만들어 짐승 모양으로 뭉쳐 놓은 것’이라고 하였고,³²⁷ 홍만선의 『산림경제』, <유숙화(留宿火)>에는 『거가필용(居家必用)』과 『신은지(神隱志)』를 인용, 다음과 같이 만드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

솥 10근과 철시 10근을 합하여 찢어 가루를 만든 다음 생부용잎 3근을 넣고 다시 찢는다. 그리고 찹쌀과 아교를 넣고 섞어 반죽해서 수탄을 만들어서 벌레 말리어 태우면 3일 동안 꺼지지 않는다.³²⁸

일찍이 수탄은 술을 데울 때 많이 사용되었음이 시문들 속에서 확인된다. 이로 볼 때 수탄은 지속력이 있는 은근한 불로 짐작된다.

(4)品茶

조선 후기 지식인들 안에서 차를 평한다는 것은, 원료로서의 차잎 자체, 제다를

326) 정약용, <茶山四景帖>중 5구 “松子拾來新替炭.”

327) 『晉書』, 外戚傳, 「羊琇傳」 참조.

328) 홍만선, 『山林經濟』 제4권, 「雜方」 <留宿火> “炭十斤, 鐵屎十斤, 合搗成末, 生芙蓉葉三斤, 再搗. 入糯米膠, 和捏作獸炭, 晒乾, 燒紅三日不滅.”

마친 건차, 우려진 차의 색·향·미·기를 감별하여 차의 품질을 평가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다사의 정밀함을 드러내주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저들의 시문을 보면 ‘다품’을 ‘품다(品茶)’, ‘시다(試茶)’, ‘품평(品評)’, ‘평다(評茶)’ 등으로도 표현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차를 기호음료로 마시는 수준을 넘어 그들의 다사 경향이 매우 전문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이다. 이덕형은 호남에서 생산된 햇차를 이항복에게 보내면서 ‘논다품(論茶品)’이라 하여 다품을 논하려면 수품을 확인하고 법에 맞게 달이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보낸다.³²⁹⁾ 다품을 논하기에 앞서 물을 맛보고 법대로 달이는 일이 선행되어야 정확하게 다품을 논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볼 때 이덕형뿐만 아니라 이항복 또한 평소 다사에 매우 정밀했음을 알 수 있다. 박장원의 <청평승문옥래방(淸平僧文玉來訪)> 4구에서는 “다품을 자세히 평하려니 향기 먼저 나는구나”(細評茶品口先香)라 하였다. 우려진 차를 통해 차의 품질을 평가할 정도의 전문적 다사 경향이 그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상원은 <우성(偶成)> 3, 4구에서 “오는 손님 앉혀놓고 다품을 자랑하고 『주경(酒經)』을 초하여 집안사람 가르치네”(茶品闕來誇座客 酒經鈔却教家人)라고 읊었다. 다품을 자랑한다 함은 손님을 접대하는 예의상의 차 접대가 아닌 객과 주인 모두가 다사에 깊은 조예가 있을 때 가능한 소통의 일면이라 할 것이다. 조현명의 <조기묵소(朝起墨沼)> 6구에는 “손님은 그림이나 차를 품평한다네”(客多評畫又評茶)라는 표현이 있다. 여기서의 객이 조현명 자신인지 제3자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생활 속에 이입된 제반 문화들의 향유와 함께 이루어지는 품평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신위는 초의가 보낸 준 차를 달여 마시고 그 맛이 너무 여리자 학원차를 함께 보관하여 초의차의 기미를 도왔다는 내용을 담은 <초의다미태는 고여구소장학원 차화균 동저일롱중 갱사진신상입이용지야 우성일시 장이시초의야> 시를 보냈다. 그는 이 시에서 ‘평품’은 옥우로부터 들어서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글을 통해 얻은 품평지식을 실제 다사의 차 보관에 적용시킨 신위는 해박한 이론과 실제적용이 뛰어난 다사 전문가였음이 확인된다. 김정희의 <급고천시다>에도 ‘품다’라는 표현이 확인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품에 일가견이 있던 김정희가 제주에

329) 이덕형, 『漢陰文稿』권11, <與李子常書> “雨前新茶, 曾求之湖南, 得之不敷. 少許分上, 幸試之, 若論茶品, 須先泉味煎法.”

서 샘플을 시험하면서 차를 품평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보인 이 시문은 그의 다사의 전문성과 일상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황상의 『치원소고』 권6, <개제> 마지막 구절에는 “차를 품평한 짧은 글을 산동에게 부친다”(品茶小草寄山童)라 하였다. 이 역시 황상의 다사 전문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윤정기의 <전다(煎茶)>에도 “한가로이 차의 품등을 비교해보려고 평상 가에서 솟불 피워 새로 길어 온 샘플을 달이네”(閒處試將茶品較, 牀頭活火煎新泉)라 하여 제대로 품평하기 위하여 좋은 물과 불을 갖추고 다사를 행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차를 평하는데 있어 그 내용은 색(色)·향(香)·기(氣)·미(味)로 나눌 수 있다.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다사 관련 시문 및 글속에는 네 가지의 항목 중 향과 미에 다소 집중된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차색에 대한 언급 부분부터 살펴본다.

정약용은 <미천가>에서 용단차를 미천의 물로 달이니 우려진 차색은 ‘수정(水精)’과 같이 맑고[瑩] 맛은 달다[甘]라고 평하였다. 1805년 혜장에게 보낸 걸명시 <기증혜장상인걸명>에서는 차를 우려낼 때 탕색이 맑은 것은 제대로 차를 법제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볼 때 정약용은 우려진 차색을 통해 법대로 제다되었는지 여부를 감별하였음과 탕색이 맑은 차를 좋은 품위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효명세자는 <다종> 1, 2구에서 “수정처럼 깨끗하고 옥처럼 차가운 맑은 한 잔 가벼히 떠서 차를 마시니 담박한 향이 도네”(晶潔玉寒一勻淸 啜茗輕揖淡香生)라 하여 우려진 차의 색과 맛, 향을 평하였다. 장원의 『다록』 <색(色)>조에서는 다탕의 색이 눈[雪]같은 것을 상품(上品)으로, 취색의 것을 중품으로, 황색의 것을 하품으로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맑은 차색은 상품으로 삼을 만한 기준이었다.

특히 차향 평가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청향(淸香)’을 품질이 좋은 차의 상징적 의미로 표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원의 『다록』 <향(香)>조에는 ‘청향’에 대해 설지도 너무 익지도 않은 것(不生不熟曰淸香)이라 소개하고 있다.

이정구는 <왕상공손번 여기숙왕몽조위래구견 잉송시선급신다 차기운이사지(王相公孫蕃, 與其叔王夢祖委來求見, 仍送詩扇及新茶, 次其韻以謝之)> 7, 8구에서 “청향에 시정은 더 많아져서 두 주련에 붓놀림 더욱 빨라진다네”(詩蕙淸香兼勝賦 雙珠多荷倏聯翩)라고 하여 잘 우려진 차 한 잔을 마시니 시작(詩作)하기 위한 시정

이 풍부해진다고 표현하고 있다. ‘청향’은 잘 우려진 차 한 잔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서기수의 <영다> 4구에는 “우전차 맑은 향이 이미 기쁘다”(清香已喜雨前聞)라 하여 우려진 우전차의 향이 맑음을 평하고 있다. 이는 차 맛을 보기 전에 맑은 향으로도 이미 기쁘다고 할 정도로 ‘청향’의 차탕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한주의 <우중전다(雨中煎茶)> 7, 8구에는 “한 사발의 차가 병과 갈증을 없애 주니 입안에 아직도 청향이 남았다”(一甌消病渴 牙頰尙餘清)라 하여 마시고 난 후 입안의 잔향이 ‘청향’임과 그 지속력을 표명하고 있다. 이유원의 <걸다신관주(乞茶申判樞)> 8구에는 “맑은 향기가 응당 장군 관아에 쌓여 있겠네”(清香應貯將軍衙)라 하여 품질 좋은 차의 상징과도 같이 ‘청향’이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신기선의 <소룡분혜만응오시차 사정사절> 첫수의 3, 4구에는 “솔바람 불어올 때 난 초 이슬 마시니 청향 배 가득 생김을 문득 깨닫네”(松風吹斷傾蘭露, 陡覺清香滿肚生)라 하여 잘 달여진 차 한 잔을 마시니 청향이 온 몸 가득함을 깨닫는다고 하고 있다. 이 역시 청향이 좋은 차를 상징하는 기호임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잘 우려진 차의 향기에 대한 다른 표현 하나는 이규경의 <종다의이청양변증설>과 이상적의 <납팔지의 신설초제 이약주다호봉향심동암승지초도>에서 확인된다. 이규경은 영남사람 심인구(沈寅龜)가 보내온 죽로차(竹露茶)를 맛보고 “달여 마셔보니 풀의 기미가 없이 담박한 향이 나는 것이 마치 중국에서 생산된 차와 같았다”(煎飲无艸氣味 澹香如中原茶)고 하여 향을 ‘담향’으로 표현하였다. 이상적은 동암 심희순(沈熙淳)의 생신에 약주와 다호를 가지고 가 올리고 차를 달이면서 “술 마시매 봄술 맛 묽은 것은 정말 싫고 차 달이매 설향 맑은 것 무척 기뻐라”(酌酒應嫌春味薄 煎茶怡喜雪香清鬢)하여 맑은 향의 지극함을 ‘설향’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차에 대한 평가 중 ‘청향’, ‘담향’, ‘설향’이 갖는 의미는 품질이 좋은 차로 잘 우려진 차탕의 참된 향기를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차 맛에 대한 평을 살펴본다. 송명흠은 <병천만음(瓶泉漫吟)>에서 좋은 물과 좋은 차, 좋은 솜씨가 어우러지니 차탕의 맛은 알맞게 쓰다고 하였다.

.....

山童汲寒水 산에 사는 동자 찬물 길어다가

石竈炙香茶 돌부두막에 향기로운 차 달이네,
 味向苦中得 맛은 알맞게 쓰고
 氣從靜處和 기운은 조용히 중화에 이르네.³³⁰⁾

정약용의 <신다(新茶)> 8구에는 “새로 길어온 샘물로 우전차를 끓이니 맑고 쓴맛이 더욱 자랑할 만하다”(喫添清苦更堪誇)고 하였고, <미천가>에서는 “용단차를 미천으로 달이니 그 맛이 달다”고 하였다. 이유원의 <죽로차>에는 “가슴속이 시원하고 잇몸에 단맛이 돈다”(胸膈清爽齒齦甘)고 하여 입안 깊은 곳에서 단맛이 회감함을 표현하고 있다. 육우는 『다경』 <오지자(五之煮)>에서 “입안에 들어갔을 때는 쓰고 삼킬 때 단맛이 나는 것이 차이다”(啜苦咽甘 茶也)라고 하였고, 장원의 『다록』 <미(味)>에서는 차의 맛이 달고 부드러운 것[以甘潤]을 상(上)으로, 쓰고 짙은 것[苦澁]을 하(下)라 하였다.

조선의 김창흡은 “차의 맛이 처음엔 쓰지만 나중에는 맛이 달아 우리의 삶과 같다”(君看茗飲苦 後味甘生)고 하였다. 이는 차의 맛인 ‘철고인감(啜苦咽甘)’과 인생의 ‘고진감래(苦盡甘來)’를 일맥상통하게 간주함이었다.

차는 고구사·만감후으로 불린다. 또 천하의 단 것에 차만한 것이 없어 이를 감초라 이른다. 무릇 사람들은 모두 차가 쓰다고 한다. 차가 달다고 하는 것은 차를 즐기는 자의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근래 채취하던 중에 여러 잎을 두루 맛을 보니, 유독 찻잎만은 혀로 핥으면 마치 묽은 꿀물에 잠깐 적신 듯하였다. 비로소 옛사람이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뜻이 억지가 아님을 믿게 되었다.³³¹⁾

이덕리는 『기다』에서 차의 단맛과 쓴맛에 대해 만감후(晩甘侯)와 고구사(苦口師)를 들어 설명하였다. 이는 우려진 다탕에서의 감별이 아닌 원료로서의 찻잎을 시험한 것이다. 그 맛을 구분한 내용으로 차의 별칭 중 차의 맛과 관련한 명칭이 근거가 있음을 직접 품평하여 설명하고 있다.

330) 송명흠, 『櫟泉集』 권1, <瓶泉漫吟>

331) 이덕리, 『記茶』 “茶有苦口師晚甘侯之號. 又有以天下之甘者, 無如茶, 謂之甘草. 茶之苦, 則夫人皆能言之. 茶之甘則意謂嗜之者之說. 近因採取, 遍嘗諸葉, 獨茶葉以舌舐之, 有若淡蜜水漬過者. 始信古人命物之意, 非苟然也.”

3) 종합 예술성

다사와 공시적(共時的)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문화 활동들과의 어우러진 경향은 앞서 살펴 본 바³³²⁾와 같다. 이는 후기 문화 예술계 경향 중 취미 생활의 다양화와 감상지학(鑑賞之學)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종합문화로서의 차문화 면모는 이 때 배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은 찻자리로 국한되어 다화(茶花), 다식(茶食), 다화(茶畵), 다담(茶談), 다악(茶樂), 분향(焚香), 다시(茶詩) 등이 거론된다. 후기 지식인들 안에서는 원예, 고동서화 감상, 거문고 등의 연주, 향 즐기기, 시작 등의 취미와 다사가 공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다양한 취미는 다사 현장에서 종합예술로서의 아취 있는 분위기 조성뿐만 아니라 다사의 내용을 더욱 품격 있게 구조하는 배경이 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던 이광사의 <내도재기>, 박지원의 <주영림수재기>전문과 신유한의 <해유문견잡록> 중 경운재에서의 생활 모습, 박제가의 <생원이행목묘지명> 중 이행목의 방안 정경과 문화 활동 묘사, 이규경의 <십이시취취>중 ‘묘시(卯時)’의 일상묘사 등은 위에서 열거한 제 취미활동들과 다사가 공시적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찻자리의 다문화(多文化) 배경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광사의 <내도재기>를 통해서만 서재라는 공간 안에서 상고당 김광수가 다사를 비롯한 종합문화적 활동들을 구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 배경 요소 중 탄금·분향·청상 등을 살펴 어떠한 배경하에서 다사와 시공간적으로 함께 이루어졌는지를 고찰하고 다사의 종합 예술성 특성을 규명한다.

(1) 찻자리와 彈琴

다사와 동반된 문화 활동에 등장한 악기는 거문고가 다수이다. 거문고는 원래 지식인들의 일상에서 늘 필수품으로 여겨져 왔다. 조선시대에 거문고는 진세(塵世)의 시름과 마음의 우울을 씻어주는 정인심(正人心)의 도구로 수용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자연에 화답하는 도구로 수용되어 동호인 집단 모임에서 여흥을 즐기는데 빠지지 않았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음악으로 자신의 정회를 펼치고 흥취

332) 본고 제II장 제3절 문화 예술계의 동향 참조.

를 즐기려는 경향이 더욱 강해져 지식인들의 풍류모임에 거문고가 이전 시기보다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³³³⁾

다사와 공시적으로 이루어진 거문고 연주는 주로 동호인 집단모임에서 행해졌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³³⁴⁾ 동호인 집단의 차문화에서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명환은 <제백낙초당(題白麓草堂)> 시에서 손님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전별의 서운함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

擁鑪披短褐 베잡방이 차림으로 화로 옆에 앉아서
隔竹喚新茶 대밭 너머 향해 햇차 가져 오라네.
琴豈因人罷 사람들이 떠나니 거문고 어찌 켜며
詩堪向客誇 손님들 향해서 시 자랑하리.³³⁵⁾

.....

손님들과 차도 함께하고 시도 지으며 거문고를 연주하는 등 즐거운 시간 보내고 사람들이 떠나자 그 아쉬움을 시로 담아내었다. 정래교의 <과영청 여주옹회이화정(過永淸 與主翁會梨花亭)>에서는 이화정(梨花亭)이라는 정자에서 수령과 함께 술을 마시며 거문고를 연주하고 산차(山茶)를 마시며 만남을 즐기는 모습이 그려진다. 조수삼의 <격동사유산사(激同社遊山寺)>에서는 시사의 벗들과 산사를 유람하면서 거문고, 바둑판, 다조(茶竈)를 준비하여 가는 모습을 읊고 있다. 여기서 거문고는 소규모 만남의 자리에서든 집단모임에서든 모두 전형적으로 흥취를 도모하고 즐기려는 풍류적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유람 길에도 휴대하는 필수품이었다. 박제가는 <홍담헌모정차원운 이수(洪湛軒茅亭次原韻 二首)>에서 “차향기가 고요히 불어 가더니 거문고 소리 똥똥 더디 오누나”(茶香吹去靜 琴韻泛來徐)라고 하였고, 이상적의 <송도(松濤)> 5, 6구에는 “거문고 저음으로 새 곡조 고르고 차술 처음 끓는 소리 맑기도 해라”(琴微細入新調曲 茶銚清分一沸聲)라고 하여 다사와 거문고 연주가 공시적으로 이루어짐이 확인된다.

333) 송해진, 「조선시대 문인들의 거문고 수용 양상」, 『李惠求박사 九旬기념 음악학 논총』, 이혜구 학술상운영위원회, 1998; 조유미, 「조선시대 금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38쪽 참조.

334) 본고 제Ⅲ장 제1절 「가전다풍」과 제2절 「동호인 집단의 차문화」 참조.

335) 이명환, 『白洲別稿』 권1, <題白麓草堂>

이와 같이 시문을 살펴 본 결과 시·공간적으로 다사와 거문고가 함께 등장한다. 거문고 경우 정인심의 도구로서 보다는 자연에 화답하는 도구로 수용되고, 마음에 맞는 벗들과 여흥을 즐기는 매개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차 또한 소규모 모임에서 소통의 매개로 활용되고 다사는 아취 있는 행위로 상징되었다.

(2) 飲茶와 焚香

차자리에서의 향 사르기³³⁶⁾ 모습은 후기 지식인들의 시문 속에서 확인된다. 의례적인 측면에서보다는 아취 도모의 형태로 차자리에서 분향이 나타난다. 향의 이로움에 대해 16세기 후반 일본의 건부용등(建部隆騰)은 <향십덕(香十德)>에서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感格鬼神 淸淨心身 귀신을 감격시키고 심신을 맑게 하며
 能除污穢 能覺睡眠 더러움을 없애고 잠을 깨우며
 靜中成友 塵裸偷閑 조용한 가운데 친구가 되고, 어지러운 삶에 여유를 주며
 多而不厭 寡而爲足 많아도 싫지 않고, 적어도 족하며
 久藏不朽 常用無障 오래 간직해도 썩지 않고 늘 사용하여도 좋다. ³³⁷⁾

향의 이로움을 기능적인 면과 정서적 측면에서 나타내고 있다. 허균의 『한정록』에서 인용한 명나라 오중선의 <소창청기>에 향은 청고(淸苦)한 분위기를 내는데 일조한다고 하였고, 명나라 진계유의 <미공비급(眉公秘笈)>에서는 사람의 생각을 그윽하게 한다고 하였다.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이운지> ‘향공(香供)’에서는 향의 정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의 용례와 효능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윽한 향은 물욕을 벗어나 높고 깊은 뜻을 지니고 앉아 도덕을 말할 때, 이 향을 피움으로써 마음을 맑게 정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³³⁸⁾

맑고 단아한 향은 새벽에 달이 떠 있고 주변의 조그만 소리에도 주의를 기울일

336) 焚香啜茗의 풍습은 명나라 때 江浙 일대에서 성행되었다고 한다. (김명배, 『다도학 논고』 II, 대광출판사, 2001, 110쪽)

337) 김동주, 『제9회 다도지도자 세미나집』, <향기문화의 이해>, 2008 재인용.

338) 서유구, 『임원경제지』, <이운지> ‘香供’ “幽間者, 物外高隱, 坐語道德, 焚之可以淸心悅神.”

때, 이향을 피움으로써 마음을 화창하게 하고 조용히 풍월을 즐길 수 있다³³⁹⁾

따뜻하고 윤기 있는 향은 밤늦게 책을 읽을 때, 이 향을 피움으로써 잠을 물리칠 수 있다.³⁴⁰⁾

아름다운 향은 사적인 대화를 나눌 때 이 향을 사름으로써 마음을 향기롭게 하고 생각을 왕성하게 할 수 있다.³⁴¹⁾

온화한 향은 글공부를 하면서 차를 마실 때 화로에 처음 향을 사른다. 자욱해질 때까지 향을 사르게 되면 향이 사람을 압도해 자리를 취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손님도 취하게 한다.³⁴²⁾

여기서 찻자리에 적합한 향으로 온화한 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과한 경우 향이 함께 한 이를 취하게 한다고 했는데, 무엇보다 찻자리에서의 향은 차향을 고려할 때 좀 더 세심한 선택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후기 조선의 지식인들 안에서 다사와 함께 한 향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어떤 정취를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신희은 이수광에게 보낸 시 <지일기지봉이수(至日寄芝峯二首)>중 1수에서 구체적 향로의 모습과 ‘용연향’이라는 향명(香名)을 언급하고 있다.

香添睡鴨籠涎逗 오리 모양 향로에선 용연향이 피어나고
茗潑風爐解眼團 풍로에 끓는 차는 둥근 게눈 맺힌다네.³⁴³⁾

서기수의 <익조부집 열용연향 팽우전다 개석자연 용계모필 추일본원색지 념원 명근체운(翌朝復集 燕龍涎香 烹雨前茶 開石子硯 用雞毛筆 抽日本兜色紙 拈元明近體韻)>시에서도 용연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서기수는 친구들과 용연향을 사르고 우전차를 달이며 시작하는 모습을 읊고 있다. 이와 같이 구체적 향명을 언급한 시문을 살펴본다. 정약용이 1805년~1806년에 혜장선사의 병풍에 쓴 <제장

339) 서유구, 앞의 책, “恬雅者四更殘月興味蕭騷, 焚之可以暢懷舒嘯.”

340) 위의 책, “溫潤者……夜讀, 焚以遠辟睡魔.”

341) 같은 책, “佳麗者……密語談私, ……焚以薰心熱意.”

342) 같은 책, “蘊籍者……就案學書, 啜茗味淡, 一爐初熱, 香靄馥馥, 撩人更宜醉筵醉客.”

343) 신희, 『象村稿』 권13, <至日寄芝峯二首>

상인병풍(題藏上人屏風)>에서는

비가 갠 날 창가의 책상에서는 독누향을 사르고 소룡단차 마시며, 미공 진계유의 『복수전서』 읽기를 좋아한다.³⁴⁴⁾

라고 하여, 차를 마시며 ‘독누향’을 함께 사르고 독서하는 정경을 표현하고 있다. 초의가 1834년 금석정(琴石亭)에서 김명희를 만나고 작별하면서 쓴 시인 <금호유별산천도인(琴湖留別山泉道人)>에는 ‘계설(鷄舌)’이라는 향명이 표현된다.

三秋高會窮憐歡 가을철의 좋은 만남에 더없이 기뻐
閑碾鳳團燒鷄舌 한가롭게 봉단차를 갈고 계설향 피웠네 ³⁴⁵⁾

이외 단순 향으로 만 표현된 시구를 살펴본다.

作客燕山歲月多 연산의 나그네로 오랜 세월 지났는데
鏡中霜鬢奈吾何 거울속의 귀밑머리 어이하여 희었는가
焚香讀易恁麼坐 향 피우고 『주역』 읽으며 현묘한 것 생각하고
啜茗談詩隨意過 차 마시고 시 읊으며 뜻대로 지낸다네.³⁴⁶⁾

이민성의 <봉차석루상공(奉次石樓相公)>시이다. 노년에 독서를 하며 향을 피우고 차를 마시며 시를 읊는 지극히 일상적 다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신익성의 <유금강소기(遊金剛小記)>에는 금강산 천덕암을 방문했을 때를 묘사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기공이 거쳐하는 천덕암은 그윽하기 이를 데 없고 아주 깨끗한데, 그 방장실을 보니 한 점 티끌도 없었다. 석이를 넣은 떡과 산과일과 송이에 햇차까지 주어서 향을 피우고 쉬었다.³⁴⁷⁾

344) 정약용, 『與猶堂全書』 권14 ,<題藏上人屏風> “晴牕棊几燒篤擣香 點小龍團 好看陳眉公福壽全書”

345) 초의, 『草衣詩稿』 권3, <琴湖留別山泉道人>

346) 이민성, 『敬亭集』 권7, <奉次石樓相公>

347) 신익성, 『樂全堂集』 권7, <遊金剛小記> “機公居天德菴, 幽絕精邈, 見其丈室, 一塵不染. 供石耳餅山果松蕈, 以新茗下之焚香憩息.”

산수유람 중 암자에 머물며 차와 다식을 대접받고 그 자리에서 향을 사르고 쉬었다는 내용이다. 이 때 향은 아취도모라기 보다는 고단한 객의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기능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채제공의 <중방신민약사(重訪新民藥肆)> 1, 2구에는 “자리 펴서 좋은 향 피우고 부슬비 내리는데 차 달인다네”(展席名香裏, 烹茶細雨間)라 하여 향을 피워 공간을 정화하고 차를 달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는 채제공이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 오가는 길에 신민둔(新民屯)³⁴⁸에 있던 약방을 거둬 들러 차를 마시는 장면³⁴⁹을 묘사하고 있다. 정학연은 <호옥전다(湖屋煎茶)>에서 “향을 사르며 느긋이 차를 달이노라니 정겨운 이야기는 연실을 새로 뽑아낸 듯하네”(燒香一炷煎茶遲 情話抽新似藕絲)라 하여 여유로움의 정취를 향과 다사가 도모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박제가는 <관현지사서생유전내방 5수(觀軒之子徐生有田來訪 五首)>에서 “마음 상해 차 마시며 향 사르던 나그네가 은빛 모래 금강가에 보이질 않는구려”(傷心啜茗焚香客, 不見銀沙錦水涯)라고 하여 서상수가 차를 마실 때는 분향을 항상 동반했음을 알 수 있다.

분향이 동반된 다사는 정서적 측면에 있어 분향의 기능과 겹쳐지면서 더욱 운치있고 여유로운 성향을 띄게 되었다. 분향은 다른 문화 활동들을 보다 정밀, 유현(幽玄)하게 하는 시작점이 되었던 것이다.

(3) 찻자리와 淸賞

찻자리와 청상에서는 원예물 및 꽃 감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³⁵⁰ 바와 같이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문화 생산 공간에 빠지지 않는 자연물 및 원예물은 다사와 제 문화활동의 운치 및 청한(淸閑)을 돋구는 구실을 하였다. 장훈의 <청과(淸課)> 34가지에는 위와 같은 기대효과를 ‘꽃 심기[種花]’, ‘대나무 옮

348) 요하의 상류인 거류하(巨流河)를 건너면 처음으로 마주하는 도시로 청나라가 심양에 도읍을 정한 뒤 새로 건설한 신흥군사도시이다.

349) 1778년 번암을 따라 사행 길에 오른 박제가의 시문인 <贈新民屯藥肆主人次上使>에서도 신민약사에서 다사가 확인된다.

安穩風沙擁小爐 바람 모래 잔잔한데 작은 화로 안으니
歲身眞似費公壺 몸 숨김 비장방의 호리병과 같구나.
新茶也解療寒疾 새 차로도 한질을 고칠 수가 있으니
不用君家煮紫蘇 그대 집 차조기는 삶을 필요 없다네.

350) 본고 제II장 제3절 「취미생활의 다양화」中 원예취미와 정원, 의원 조성 참조.

기기[移竹], ‘소나무 어루만지기[撫松], ‘연꽃감상[賞蓮], ‘국화 줍기[掇菊] 등의 원예취미에서 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다사가 이루어진 공간 중 정원 안에서는 정원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물과 원예물이 그대로 다사의 배경이 되어 다사를 더욱 운치 있게 하였다. 실내에서는 화분 및 작은 괴석 등이 배치되어 청한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다사가 이루어지는 자리에는 꽃 중 매화가 다수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신정의 <독야(獨夜)>를 살펴본다.

近臘梅花咲向人 선달의 매화가 사람 향해 웃으니
盡情燈火共相親 등불과 함께하여 서로 친근하니 정이 다한다.
寒齋雪水烹茶興 추운 서재에 눈물로 차 달이는 흥이
何似銷金帳裏春 어찌 값비싼 장막 속의 따뜻함에 비교가 되리.³⁵¹⁾

선달 밤에 혼자 차를 다리는 정경 속에서 매화가 함께하니 흥취뿐만 아니라 따뜻함이 배가됨을 읊고 있다. 이단상의 <구점견회(口占遣懷)>에는 대 그림자와 매화가 다사의 배경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靜裏看書味自長 고요 속에 책 읽으니 그 맛 더욱 길어지고
掩門孤坐點茶當 문 닫고 혼자 앉아 차를 달인다네.
床移竹影詩偏爽 대 그림자 진 곳 평상 읊기니 시편 상쾌하고
枕繞梅花夢亦香 머리맡에 매화 들렀으니 꿈 또한 향기롭네.³⁵²⁾

이 시는 진계유의 <미공비급>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나무[竹]는 사람의 뜻을 상쾌하게 하고 꽃은 사람들을 운치가 있게 하는 기대 효과를 충분히 잘 반영하고 있다. 조태억의 <미백진여뢰어과중(美伯嗔余懶於過從)>에는 “달빛 아래 차 달임이 술자리보다 좋아 함빡 웃는 매화는 진정 봄을 재촉하네”(月中烹茶勝飲醇 咲看梅意正催春)라 하여 늦겨울을 보내며 달빛 아래 차 달이는 정경이 매화꽃과 함께 그려지고 있다. 윤봉구는 <차증박치임(次贈朴穉臨)>1, 2구에서 “침상머리 매화가 차 연기에 피려는데 이별의 아쉬움에 맥이 풀려 말이 없다네”(牀梅欲發和

351) 申晷, 『汾厓遺稿』 권3, <獨夜>

352) 李端相, 『靜觀齋集』 권2, <口占遣懷>

茶烟 悄悄離愁正黯然)라 하여 방안 침상결의 매화와 일상적 다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심상규의 <야좌전다(夜坐煎茶)>에는 겨울 밤 등잔을 마주하고 차를 달이는 실내 정경이 표현되고 있는데 찻물을 끓이는 연기에 매화가 향기와 함께 피어남을 묘사하였다.

홍현주는 육유의 시에 차운한 57수의 연작시 중 <차설후(次雪後)>에 차운한 22수 5, 6구에서 “차가 따뜻하니 화로가 있고 매화가 피니 향기가 끼쳐오네”(茶溫 爐火在 梅放龕香聞)라 하였다. 홍현주의 누이인 홍원주는 <우차영명(又次永明)>1, 2구에서 “차익은 화로 연기 희미해지는데 매화향기 집안으로 깊이 풍기네”(茶熟 爐烟細 梅香閣影深)라 하여 차를 달이는 화로의 온기가 매화의 향기를 더욱 깊게 하고 다시 매화의 짙은 향기가 다사의 정경을 따뜻하게 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사의 장(場)에 매화가 등장하는 시문을 살펴보았다. 계절적 이유도 있겠지만 후기 지식인들의 찻자리에 매화가 다수 등장하는 것은 매화의 상징적 의미와 관련성이 깊다. 일찍이 선인들은 매화에 대하여 추위를 이기고 눈 속에서 피는 강인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추위 속에서도 풍기는 매화의 향기는 맑고 깨끗한 인품으로 상징된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강건한 줄기와 화사한 꽃은 옥과 같이 강하고 고귀한 성질로, 눈 속에서도 아름다운 자태는 봄을 미리 알려주는 선구적인 뜻으로 표현되었다. 특히 얼어 죽더라도 반드시 훌륭한 인품을 지닌 군자로, 강인한 절개와 지조로, 세속을 초월한 인격자로 상징되었다.³⁵³⁾ 이러한 표상들에서 오는 정경은 자연스럽게 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사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며, 함께 드러나는 의미 또한 더욱 품격 있는 취미로 간주되었다. 또한 시각과 후각을 통해 매화의 아름다움을 즐기려는 완상의 자리에 다사는 무엇보다 잘 조합되는 맑은 취미였던 것이다.

이 밖에 다사와 꽃 감상이 공시적으로 색다르게 펼쳐지는 현장은 이유원의 <가오노인환향 치수선화일분어거전 명복부읍다호 우야점계사 첩철일잔수 예시분경(嘉梧老人還鄉 置水仙花一盆於車前 命僕夫揖茶壺 遇野店溪舍 輒啜一盞水 睨視盆景)>시에서 확인된다.

携他花盆共歸輪 화분을 가지고 함께 수레 타고 돌아오는 길에

353) 매화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범효춘, 「한국 墨梅畵의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 이동원, 「墨梅圖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참조.

隨到茶壺火乞隣 도처에서 차 달이는라 이웃에게 불 빌리네 .
 閑劇那關鄉外地 한가함과 바쁨이 마을 밖의 장소에 어찌 상관이리
 去來無係老年身 오고 감은 노년의 몸과는 관계없네 .
 蒼葭在水云誰遡 푸른 갈대가 있는 물을 누가 거슬러 오르는가
 殘雪留簷使我巡 잔설이 처마에 있어 나로 하여금 돌아다니게 하네.
 眼福不能長入夢 잠은 없어 길이 꿈에 들 수 없고
 邨容依舊數椽貧 시골 살림은 여전히 빈한한 집일세.³⁵⁴⁾

이 시제에서 설명되듯이 이유원은 가오별장에 내려와 수레를 마련하여 수선화 화분을 수레 앞에 두고 차를 달일 수 있는 다호도 준비하였다. 그는 이동 중에도 차를 마시면서 수선화를 감상하였다. 꽃을 감상하며 차를 마시는 취미가 실내, 정원, 산수의 장(場)이 아닌 길 위에서도 이루어짐이 독특하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일상화된 차생활이 잘 담겨져 있음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시문을 통해 살펴본 결과, 다사 현장에서 자연물 및 꽃 감상은 단순히 다사 배경으로만 존재하지 않았다. 도리어 이들을 완성하는데 다사가 깊이 있는 미적 세계로 안내하는 분위기 조성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54) 이유원, 『嘉梧藁略』 5책, <嘉梧老人還鄉 置水仙花一盆於車前 命僕夫揖茶壺 遇野店溪舍 輒啜一盞水 睨視盆景> (송제소 외 역, 앞의 책, 278쪽.)

VI. 결 론

조선 후기 대외적 활발한 교류 속에서 명말청초 문인문화의 유입과 수용은 조선의 문화 예술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심에 있던 지식인층은 이전 시기와는 다른 문화역량을 진작시키며 문화의 성격과 경향을 변모시켜 나갔다. 18·19세기 조선의 차문화는 이와 같은 문화적 신조류 속에서 전개되었다.

본고는 18·19세기 조선 차문화가 중흥할 수 있었던 기반과 차문화 향유의 중심세력인 지식인층의 다사를 통해 조선 후기 차문화의 전개 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연구를 통해 조선 후기 차문화의 중흥 배경과 기반, 지식인 계층의 다사 인식 경향, 다사 전개 양상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 후기 차문화의 학적 경향은 국외로 부터의 서적 유입과 활발한 국내 유통, 장서 확보 등을 통해 가능하였다. 청나라와 일본의 다서 및 전적류를 통해 섭렵한 차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다사의 실체는 조선 내 풍토성과 기호성이 결합되면서 현실을 존중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조선 후기 지식인들 사이의 문예취미의 다양화는 각 사적 모임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모임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였고 다양한 형태의 문화교류는 이들을 내부적으로 더욱 결속시켰다. 다사가 전제된 다양한 문화 활동들의 동반은 오늘날 종합예술 성격의 차문화가 잉태되는 배경을 이루었다.

둘째, 조선 후기 차문화가 중흥할 수 있었던 기반은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으로 설명된다. 대내적 기반으로는 가전다풍(家傳茶風)과 동호인 집단 안에서의 다사 교류의 활성화이다.

조선 후기 문화 교육의 산실인 가정 내에서 면면히 이루어진 가전다풍은 차문화 향유 중심세력인 지식인들에게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훈습되고 습관화되면서 다사의 일상화를 이루었다. 이는 나아가 차문화 중흥을 공고히 하는 종적(縱的) 반석(盤石)을 이루었다. 18·19세기 지식인들의 동호인 집단 안에서의 다사 공유는 향유의 공간적 확대를 가져왔고, 차문화가 더욱 융성하게 확산되는 계기이자 오늘날 전체적인 다사의 내용을 문화적 총체로서 인식하게 하는 종합문화로서의 자리를 이루게 하는 전거였다. 동호인 안에서의 다양한 계층 간의 격의 없는 다사

교섭과 공유는 결과적으로 후기 차문화의 내연과 외연을 더욱 풍부하고 밀도 있게 만들었다. 이는 18·19세기 차문화 중흥의 획적 반석을 이루었다.

대외적 기반으로는 청(淸)과 일본과의 인적 교류를 통한 폭넓은 차문화의 경험과 다사 관련한 물적 유입이 자리한다. 사행을 통한 교류에 있어 다양한 차문화의 경험과 다사 관련 물품의 유입은 국내에 들어와서 그들의 사적 동호인 집단 안에서 공유되면서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특히 사행 길에 참여했던 지식인 경우는 차문화와 관련한 지식과 정보의 네트워크 측면이나 물적 측면에서 누구보다 차를 향유할 수 있는 우위의 자리를 점하였다. 교류 과정에서 노출된 당시 청의 일상적 차풍속과 자세한 다사의 모습은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차가 보다 일상물로 자리 잡게 하는 기저로 작용하였다. 일본과의 교류 속에 진행된 다양한 성향의 다사 노출과 차와 기물의 물적 유입은 후기 조선 지식인들이 중국에 편중 애호된 다사 견문 및 경험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대외적 차문화에 대한 노출과 경험은 후기 지식인들의 다사내용을 보다 다양하게 조직하고 확대할 수 있는 유효한 코드이자 차문화 중흥의 기반을 이루었다.

셋째, 지식인 계층은 차와 다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지식인들은 차에 대해 신체의 질병 및 증세를 완화, 예방하는 효과와 더불어 신체적 증세 완화에 이어지는 심적 안정 및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마음 수양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영초(靈草) 또는 선약(仙藥)과 동일시하여 속세에 초연한 정신세계를 획득할 수 있는 정신적 상징물로 인식하였다.

지식인들의 차에 대한 약리적 인식은 선험적 지식과 의학서 및 백과사전, 양생서 등에서 얻어진 지식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으며 주로 소화, 갈증 해소, 감기, 각성효과, 숙취 해소 등에 유효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용하였다. 특히 조선 후기에 집중적으로 보이는 ‘결명(乞茗)’과 관련한 시와 편지는 차의 약용적 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차와 다사는 약치(藥治)이상의 심치(心治)를 위한 방편이었고, 더 나아가 고답적 정신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매개로 인식되었다. 지식인 계층의 다사 성향 속에는 이러한 인식들이 투영되어 잘 나타나 있다. 차를 선택한 그들의 의식 속에는 음용물 가운데 약리적 기능과 함께 정신문화까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다사의 가치에 공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넷째, 18·19세기 지식인 계층의 다사 전개 양상은 전문성, 일상성, 종합예술성으로 확인된다. 전문성은 다사의 택수(擇水), 탕변 감별(湯變鑑別), 화후(火候), 품다(品茶)에서 더욱 정밀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조선 후기 백과전서적 성격의 총서출간과 전문적 다서 등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다.

지식인들은 일반적 수품에 관한 관심뿐만 아니라 다사의 물을 취함에 있어서 높은 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 전다에 있어 공통적으로 물의 질은 맑고[淸], 살아 있고[活], 가벼운[輕] 것을 우수한 것으로 삼았으며 물의 맛은 달고[甘], 청량한 느낌[冽]의 것을 우수한 것으로 기준 삼았다. 다수의 다서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물의 질과 맛에 대한 평가기준이 다르지 않았다. 특히, 설수(雪水)를 취하여 전다하는 경우가 다수인데 이는 차의 맛과 아취를 함께 도모한 것이었다. 정밀한 탕변 감별을 통해서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전문적이고 세밀한 다사경향과 운치 있게 다사를 즐기려는 유희성 또한 확인된다. 화후에 있어서는 문무화(文武火)의 조화를 다탕의 완성도와 직결시킬 정도로 강조하였고 이를 얻기 위해서 땀감 또한 중요하게 다루었다. 품다에 있어서는 주로 우려진 차의 색·향·미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는데 특히 향의 평가를 통해 차의 품질여부를 가늠하였다.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차에 대한 평가 중 ‘청향(淸香)’, ‘담향(澹香)’, ‘설향(雪香)’이 갖는 의미는 품질이 좋은 차로 잘 우려진 차탕의 참된 향기를 가리킨다.

18·19세기 지식인들에게 있어 다사는 일상생활과 유리된 문화가 아닌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이입된 일상의 생활문화였다. 양생 측면에서 양생적 심신의 살핌은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얻지 못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반복, 지속이라는 일상성의 생리와 부합하여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이입되었다. 일상 속 다사관련 양생 측면 추구는 단순히 차의 약리적 효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전다 과정에서의 집중, 조절을 통한 성정(性情)단련 측면 또한 반영된 것이다. 이는 일차원적으로는 무병(無病)하여 ‘연년익수(延年益壽)’가 목적이요, 전다행위를 통한 탈속적 아취는 후기 지식인들에게 일상속의 청취(淸趣)였다.

접빈객 측면에서 차가 등장하는 것은 차가 일상의 음용물이지만 다른 마실거리와는 달리 고유의 신성성, 품격을 갖춘 귀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손님 접대에 차가 올려지는 것은 단순 음료로서의 기능과 함께 다사정경의 아취를 통해 상대와 청담의 소통을 원하는 의지가 안배된 최적 음료로의 성격이 함의되어

있다. 목적성을 두지 않은 일상 속 자연스런 다사는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라는 말속에서 재현되었다. 일상 속에서 항상적으로 다사를 유지하는 데는 차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 자주 거론되는 ‘결명문’은 보다 좋은 차를 얻고자하는 의지가 결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차의 약용으로의 이용도와 차의 일상화 반영의 정보가 코드화되어 있었다.

다사와 공시적(共時的)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문화 활동들과의 어우러짐 경향은 후기 문예적 경향 중 다양한 취미의 분화와 감상지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종합문화로서의 차문화 면모는 이 때 잉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지식인들안에서는 원예, 고동서화 감상, 거문고 등의 연주, 향 즐기기, 시작(詩作) 등의 취미와 다사가 공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취미는 다사현장에서 종합예술로서의 아취 있는 분위기 조성뿐만 아니라 다사의 내용을 더욱 품격 있게 주조하는 배경이 되었다.

조선 후기라는 시기는 한국 현대사의 원점이자 현대적 상황의 원형으로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한 중요한 시기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의 차문화사에 있어서도 18·19세기는 이전 차문화 경향과는 다른 양상이 보이는 시기로서, 오늘날 한국 차문화 원형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 차문화 중흥의 견인차 역할을 한 몇몇 소수자 중심이 아닌 차문화 향유의 중심 세력인 다수의 지식인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이들의 일련의 다사 인식과 다사 전개 양상을 통해 현대 차문화에 드러난 두 가지 원형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생활문화로서의 일상성이다. 18·19세기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다사 전개 양상은 이전 시기의 다소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전개 양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들에게 차와 다사는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밀착된 문화적 기호품이자, 사교 현장에서 소통의 매개체로 자리한다. 이는 오늘날의 차문화 양상에서 확인되는 바이다. 다른 하나는 종합예술 성격의 차문화 현장이다. 18·19세기 지식인들의 개인적, 집단적 문예 현장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들과 다사가 공시적으로 동반되어 이루어졌던 사실은 오늘날 종합문화로서의 차문화를 배태한 전거이자 원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시공간을 초월하여 누군가와 한 공간에서 차를 함께 마신다는 것은 물리적 시간의 개념을 넘어 서로에게 심신의 여유로움을 구하는 의미가 더 크다.

조선 후기라는 시공간에서 이루어진 지식인의 차에 대한 인식과 다사의 행용은 약치(藥治)와 심치(心治) 모두를 도모할 수 있었다. 오늘날 ‘웰빙(Well-being)’, ‘로하스(LOHAS)’, ‘힐링(Healing)’으로 대변되는 몸(身)과 마음(心) 챙김에 집중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차와 다사는 더 이상 약치와 심치의 효과로 제한되지 않는다. 일상 속 여유와 대인 관계의 소통에 맞춰진 생활문화로서 정서적 공간으로서의 전방위적 적용이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I. 원전류 참고문헌 및 역주본

『茶經』

『大觀茶論』

『茶錄』

한국고전번역원, 『표점영인 한국문집총간』 시리즈
『四庫全書』, 文淵閣版 CD.

II. 관련 저서

강명관(1997), 『조선후기 여행문학 연구』, 서울: 창작과비평사.

_____ (1999), 『조선시대 문학 예술의 생성 공간』, 서울: 소명출판.

김명배(1987), 『일본의 다도』, 서울: 보림사.

_____ (1993), 『중국의 다도』, 서울: 명문당.

_____ (1998), 『다도학 개정증보판』, 서울: 학문사.

_____ (1999), 『한국의 다시 감상』, 서울: 대광문화사.

_____ (1999), 『증보판 다도학논고』, 서울: 대광문화사.

_____ (2001), 『다도학 논고』 II, 서울: 대광출판사.

김정희, 최완수 역주(1976), 『추사집』, 서울: 현암사.

김희자(2009), 『백과사전류로 본 조선시대 차문화』, 서울: 국학자료원.

도용, 권덕주 역(1986), 『考槃餘事』, 을유문화사.

류건집(2007), 『한국차문화사』(상·하), 서울: 이쁜아침.

_____ (2011), 『깍다양생기 주해』, 서울: 이쁜아침.

박영희(1985), 『東茶正統考』, 서울: 호영출판사.

- 박정희(2010), 『17~18세기 통신사에 대한 일본의 의식다례』, 서울: 민속원.
- 박제가, 안대회역(2008), 『북학의』, 서울: 돌베개.
- 박제가, 정민 외 옮김(2010), 『정유각집』(상·중·하), 서울: 돌베개.
- 빙허각이씨, 정양완 역(1975), 『閨閣叢書』, 서울: 寶晉齋.
- 서유구(1983), 『임원경제지』, 서울: 보경문화사.
- _____(1983), 『풍석전집』, 서울: 보경문화사.
- 송재소 외(2009), 『한국의 차문화 천년』(1·2), 서울: 돌베개.
- 송희경(2008), 『朝鮮 後期 雅會圖』, 서울: 다할미디어
- 이우준, 홍성남 편(1994), 『몽유야담』(상·하), 서울: 보고사.
- 정민(2007),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서울: 휴머니스트.
- _____(2011), 『새로 쓰는 조선의 차문화』, 서울: 김영사.
- 정약용, 김종권 역(1976), 『雅言覺非』, 서울: 일지사
- 정영선(1990), 『한국 차문화』, 서울: 너럭바위.
- _____(2000), 『다도철학』, 서울: 너럭바위.
- 조희룡(1999), 『조희룡 전집』, 서울: 한길아트.
- 주영하 외(2005), 『19세기 조선 생활과 사유의 변화를 엿보다』, 서울: 돌베개.
- 짱유화(2008), 『點茶學』, 서울: 보이세계.
- _____(2011), 『煮茶學』, 서울: 국차미디어.
- 최완수 외(1998), 『진경시대』, 서울: 돌베개.
- 한국학연구소 편(2001),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문화의식』,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허균, 민족문화추진회 편(1997), 『閑情錄』, 서울: 솔
- 허준 저, 동의문헌연구실 역(2007), 『동의보감』, 서울: 범인문화사.
- 후지즈카 치카시, 윤철규 외 옮김(2009), 『추사 김정희 연구(淸朝文化東傳の研究)』, 서울: 과천문화원.

Ⅲ. 관련 논문

- 강명관(1991), 「朝鮮後期 閭巷文學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명관a(1994), 「閭巷·閭巷人·閭巷文學」, 『한국한문학연구』 22, 한국한문학
회. 407-421.
- _____b(1994), 「후기 서울과 한시의 변화」, 『민족문화사연구』 6, 민족문학
사학회. 82-104.
- _____ (1998), 「조선후기 경화세족과 고동서화 취미」, 『동양한문학연구』
12, 동양한문학회. 5-38.
- 고준희(2002), 「다산 정약용의 修己治人觀과 茶生活」, 성균관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 구사회·김규선(2012), 「새 자료 卮園小藁와 黃裳의 만년 교유」, 『한국어문학
연구』 58집, 한국언어문학회. 311-341.
- 권석환(2006), 「중국 강남 지역 雅會文化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 『중국문
학연구』 32, 한국중문학회. 143-166.
- _____ (2007), 「중국 중세 문인 사대부의 雅集과 그 詩畫의 재현에 관한 연
구」, 『중국문학연구』 35, 한국중문학회. 131-165.
- 김경미(2002), 「탐닉과 몰두에의 자부- 상고당 김광수」, 『문헌과 해석』 18,
문헌과 해석사. 164-178.
- 김규선(2006), 「‘기증 추사 편지’의 내용」, 『추사연구』 제3호, 추사연구회.
109-138.
- 김규선·구사회(2012), 「『치원소고』를 통해 본 황상의 차생활과 19세기
차문화」, 『동양고전연구』 제46집, 동양고전학회. 195-215.
- 김명배(1996), 「다산 정약용의 茶道에 관한 연구」, 『韓國茶學會誌』 제2권 2
호, 韓國茶學會. 163-188.
- _____ (1997), 「초의선사의 茶道 연구」, 『韓國茶學會誌』 제3권 2호, 韓國茶學
會. 1-29.
- 김상현(1976), 「초의선사의 茶道觀」, 『史學誌』 제10집, 한국사학회. 53-73.

- 김수연(2012), 「다서에 나타난 차의 효능 연구: 중국과 한국다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죽(2009), 「추재 조수삼의 交遊 一考: 秋史·雲石과의 교유를 중심으로-」, 『추사연구』 제7호, 추사연구회. 113-141.
- 김영희(2004), 「초의선사의 茶道觀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태(2005), 「산문 작품을 통해 본 옥수 조면호의 문학적 지향」, 『한국한문학연구』 36, 한국한문학회. 417-449.
- 김재섭(2009), 「조선시대 차 생산과 소비에 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임(2001), 「조선시대 茶畫에 나타난 茶文化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2004), 「국제적 茶家로서의 李尙迪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형술(2008), 「조선후기 산수 인식의 변화와 山水詩 창작의 새 양상: 17C말-18C초 농연그룹 문인들을 중심으로」, 『韓國漢詩研究』 16, 한국한시학회. 299-336.
- 김희자(2008), 「五洲 李圭景의 茶茶觀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나남미(1997), 「조선후기 茶道思想 연구: 초의선사·정약용·김정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성화(2008), 「使行錄에 나타난 中國의 飲茶風俗: 17·18세기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근숙(2009), 「日本 草庵茶의 형성 과정을 통해 본 茶文化 구조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향미(2008), 「조선후기 실학파의 차문화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동춘(2004), 「草衣意恂의 茶道思想 연구: 東茶頌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0), 「초의선사의 茶道觀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말다(2009), 「茶人 정약용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희(2009), 「17~18세기 通信使에 대한 일본의 儀式 茶禮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철상(2008), 「경화세족과 沈象奎의 가성각」, 『국회도서관보』 45, 국회도서관. 106-111.
- _____ (2009a), 「유득공의 사서루」, 『국회도서관보』 46(1), 국회도서관. 94-99.
- _____ (2009b), 「서형수의 필유당과 서유구의 자연경실」, 『국회도서관보』 46(2), 국회도서관. 72-79.
- 백기란(2001), 「茶松子 茶詩 考察」,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정희(2008), 「19세기 博物學的 趣向과 繪畫의 새로운 경향」, 『한국문화』 4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49-73.
- 송해경(2008), 「草衣意恂의 茶道觀 研究: 東茶頌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박사학위논문.
- 송희경(2004a), 「조선 후기 雅會圖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4b), 「조선후기 정원아회도 연구」, 『한국문화연구』 6,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3-223.
- 신영주(2000), 「18·9세기 洪良浩家の 예술 향유와 서예 비평」,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6), 「17세기 문인들의 취의 구현과 서화 금석에 대한 관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경호(1998), 「조선 후기 시사와 동호인 집단의 문화활동」, 『民族文化研究』 31,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99-254.
- 심향옥(2009), 「草衣禪師의 茶禪修行에 관한 研究」,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명숙(2006), 「추사 김정희의 차문화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수경(1990), 「18세기 서울 문인지식층의 성향: 연암그룹에 관한 연구의 일단」,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유자(2009), 「조선후기 사대부의 書·畵 속에 나타난 차문화 연구: 다산과 추사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봉학(1991), 「18·19세기 京鄕學界의 分岐와 京華士族」, 『국사관논총』 제22집, 국사편찬위원회. 111-136.
- _____ (1994), 「19세기 京華士族의 생활과 사상: 혜강 최한기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2,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학연구소. 113-154.
- 유옥경(2011), 「조선시대 회화에 나타난 음주상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홍숙(2012), 「巨園 黃裳의 차생활과 交遊」,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진영(2004), 「조선시대 계획도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경(2011), 「橋山 李裕元의 茶事 연구: 「林下筆記」와 「嘉梧藁略」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을호(1963), 「全南 康津에 남긴 茶信契節目」, 『湖南文化研究』 제1집, 호남문화연구소. 31-38.
- _____ (1990), 「茶山の 茶와 禪」, 『東洋學論叢』 次山安晉吾박사회갑기념 논문집, 동 간행위원회.
- 이정아(2009), 「金弘道·李寅文의 차그림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차문화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일(1992), 「조선후기 사대부층의 사회의식-연행록과 해행총재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철희(2006), 「추사 시속의 ‘음식남녀」, 『추사연구』 제4호, 추사연구회. 239-262.
- 정민(2005), 「18·19세기 문인지식층의 원예 취미」, 『한국한문학연구』 35, 한국한문학회. 35-77.
- _____ (2007), 「조선후기 乞茗 시문을 통해 본 한국 차인의 멋」, 『한국차학회지』, 한국차학회. 63-86.

- 정봉구(2009), 「조선후기 한양의 원림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선(1996), 「고정에 수록된 차」, 『茶文化研究誌』 제5권, 韓國茶文化研究所.
- _____ (1998), 「韓國 茶文化의 中興祖論: 茶山 丁若鏞과 草衣意恂의 茶歷을 중심으로」, 『茶文化研究誌』 제7권, 韓國茶文化研究所.
- 정은희(2010), 「19세기 朝鮮 士大夫家 女性の 茶文化 研究」,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정미(2011), 「정약용의 다시와 차생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명희(2010), 「18·19세기 서울 문인지식인층의 고동서화 취미에 나타난 차 문화: 문인 아회와 아회도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빙빙(2008), 「『熱河日記』를 통해 본 18세기 중국문화의 양상」,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향옥(2006), 「오주 이규경의 ‘茶茶辨證說’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탁효영(2004), 「紫霞 申緯의 飲茶生活에 관한 考察: 『警修堂全藁』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9), 「紫霞 申緯의 漢詩 研究: 禪思想과 茶文化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IV. 기타 참고 도서

- 강명관(2003), 『조선의 뒷골목 풍경』, 서울: 푸른역사.
- _____ (2007), 『책벌레들 조선을 만든다』, 서울: 푸른역사.
- 과천문화원(2009), 『秋史燕行 200주년기념 金正喜와 韓中墨緣』, 과천문화원 .
- 김영미 외 공저(2007), 『조선 후기 지식인의 일상과 문화』,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랴오위친, 박현국·김기욱·이병욱(2010), 『황한의학을 조망하다』, 서울: 청
 흥
- 박영환(2011), 『명산 명사에서 명차가 난다』, 서울: 문현.
- 안대회(2005), 『산수간에 집을 짓고』, 서울: 들베개.
- _____(2007), 『선비답게 산다는 것』, 서울: 푸른역사.
- 왕충련, 김하림·이상호 역(2004), 『중국의 차문화』, 서울: 에디터.
- 원중거, 김경숙 옮김(2006), 『조선후기 지식인, 일본과 만나다』, 서울: 소명출
 판.
- 원중거, 박재금 역(2006), 『臥薪嘗膽의 마음으로 일본을 기록하다: 和國志』,
 서울: 소명출판.
- 이광주(2002), 『동과 서의 차 이야기』, 서울: 한길사.
- 이옥, 안대회 옮김(2008), 『연경, 담배의 모든 것』, 서울: 휴머니스트.
- 이종묵(2006), 『조선의 문화공간: 조선후기-내가 좋아 사는 삶』, 서울: 휴머
 니스트.
- 정동효(2004), 『차의 성분과 효능』, 서울: 홍익재.
- 허충순(2003), 『韓國의 茶蓆花』, 서울: 시선.
- 홍길주, 정민 외 옮김(2006),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생각창고』, 서울: 들베
 개.

V. 기타 참고 논문

- 김광섭(2009), 「금릉 남공철 산문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진(2010). 「조선후기 小品文과 養生」, 『동양한문연구』 제30집, 동양한문
 학회. 203-233.
- 김중오(2010), 「조선시대 藥茶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현미(2004),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 김효경(2010), 「조선시대 臥遊文化로 해석한 전통조경」, 서울시립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 민주식(2000), 「풍류 사상의 미학적 의의」, 『美學藝術學研究』 11, 한국미학 예술학회. 61-76.
- 박은순(2000), 「서유구와 서화 감상학과 『林園經濟志』」, 『한국학논집』 34,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9-239.
- 범효춘(1980), 「한국 墨梅花의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지영(2003), 「조선후기 중인층 풍류 공간의 문화사적 의미-서구 유럽 '살롱'과의 비교를 통하여」, 『진단학보』 97, 진단학회. 285-317.
- 송혜진(1998), 「조선시대 문인들의 거문고 수용 양상」, 이혜구박사구순기념 음악학 논총. 이혜구학술상운영위원회.
- 송희경(2007), 「조선시대 회화에 나타난 시동상의 유형과 표상」, 『미술사학보』 28, 미술사학연구회. 5-34.
- _____ (2010), 「사랑채가 있는 풍경: 조선후기 서재문화와 서재의 시각화」, 『동양고전연구』 38, 동양고전학회. 295-329.
- 신동원(2006), 「조선 후기 의약생활의 변화: 선물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미암일기』, 『쇄미록』, 『이재난고』, 『흙영』의 분석」, 『역사비평』 통권 75호, 역사비평사. 344-391.
- 신영주(2001), 「18·19세기 홍양호가의 예술 향유와 서예비평」, 『민족문화사연구』 18, 민족문화사연구소. 398-433.
- _____ (2005), 「『怡雲志』를 통해 본 조선후기 사대부가의 생활모습」, 『한문학보』 13, 우리한문학회. 387-414.
- _____ (2006), 「양란 이후 문예 취미의 분화와 그 전개 양상」, 『동방한문학』 제31집, 동방한문학회. 345-379.
- 안대회(2000), 「李用休 小品文의 美學」, 『동아시아 문화연구』 34,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73-300.
- _____ (2004), 「18·19세기의 주거 문화와 상상의 정원-조선후기 산문가의 기문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97, 진단학회. 111-138.
- _____ (2009), 「조정 박제가의 여행과 일상속의 국제교류」, 『동방학지』 제

- 145집, 연세대학교 출판부. 37-64.
- _____ (2010), 「18·19세기 조선의 백과전서파와 『화한삼재도회』」, 『대동문화연구』 제69집, 성균관대학교출판부. 419-445.
- 오원경(2003), 「鬪茶를 통해 본 宋代 茶文化」, 『중국학보』 48, 한국중국학회. 273-294.
- 유보은(2009), 「조선후기 西園雅集圖와 그 다층적 의미: 金弘道 작품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 제 263호, 한국미술사학회. 39-69.
- 이동원(2003), 「墨梅圖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소영(2008), 「조선시대 藥用茶에 대한 고찰」, 『남도민속연구』 17, 남도민속학회. 243-267.
- 이종목(2004), 「조선시대 臥遊文化 연구」, 『진단학보』 98, 진단학회. 81-106.
- 이하경(2010), 「마음수양의 현대화를 위한 차명상」,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형택(1996), 「문화현상으로 본 19세기」, 『역사비평』 37, 역사비평사. 58-72.
- _____ (2005), 「朝鮮使行의 海路 燕行錄: 17세기 東北亞의 歷史轉換과 實學」, 『한국실학연구』 제9호, 민음사. 1-35.
- _____ (2009), 「17~19세기 동아시아, 한·중·일 간의 지식교류 양상: ‘이성적 대화’의 열림을 주목해서」, 『대동문화연구』 제68집, 성균관대학교출판부. 7-23.
- 정봉구·한동수(2007), 「조선후기 漢陽의 園林에 관한 연구: 京華士族의 園林記文과 園林圖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대한건축학회. 81-92.
- 조유미(2009), 「조선시대 금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진재교(2003), 「경화세족의 독서성향과 문화비평: 홍석주가의 경우」, 『독서연구』 통권 제10호, 한국독서학회. 241-274.
- _____ (2004), 「이조 후기 문예의 교섭과 공간의 재발견」, 『한문교육연구』

- 12, 한국한문교육학회. 499-530.
- _____ (2006), 「책·독서·지식인, 그리고 異文化의 수용에 관한 보고서」, 『한국문화연구』 제10호, 이화여자대학교한국문화연구원. 417-430.
- _____ (2007), 「19세기 경화세족의 서문화: 홍석주 가문을 중심으로」, 『漢文學報』 16, 우리한문학회. 137-168.
- _____ (2008), 「동아시아에서의 서적의 유통과 지식의 생성: 임진왜란 이후의 인적 교류와 서적의 유통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제41집, 한국한문학회. 73-114.
- _____ (2009), 「18·19세기 초 지식·정보의 유통 메커니즘과 중간계층」, 『대동문화연구』 제68집,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81-112.
- 천기철(2003), 「조선 후기 서화감식론의 여러 양상」, 『효원한문학회연구』 10, 효원한문학회. 289-313.
- 최소자(1997), 「18세기 후반 『燕行錄』을 통해 본 조선지식인들의 對中國認識」, 『국사관논총』 제76집, 국사편찬위원회. 191-223.
- 허경진(1990), 「송석원시사 연구」, 『목원어문학』 9, 목원대학교어문학과. 35-58.
- _____ (1992), 「玉溪社 연구」, 『어문학연구』 2, 목원대학교어문학연구소. 127-146.
- _____ (2003), 「조선 후기 한문학에 나타난 상업문화」, 『동방학지』 제120집,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173-227.
- 허경진·천금매(2009), 「『并世集』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28집, 한중인문학학회. 273-308.
- 홍선표(1997), 「조선후기 회화애호풍조와 감평활동」, 『美術史論壇』 5, 한국미술연구소. 119-138.
- 황정연(2007), 「조선시대 서화수장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ABSTRACT

A Study on the Tea Culture of 18th and 19th Century Joseon Intellectuals

Han, Ki-Jung
Dept. of Living Culture &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tea culture of the late Joseon period, focusing on the background for the culture's revival during that time and the procedure of preparing and drinking tea by the intellectuals who were at the center of the culture. In doing so, it traces the literary tendencies of the intellectuals and the domestic and foreign influences on tea culture amidst the introduction of the late Ming early Qing culture as well as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within Joseon. It also tries to illuminate the basis for the revival of tea culture, and provides a diachronic overview of the tea drinking procedure by looking into the actual practices.

The inflow and acceptance of the late Ming early Qing literary culture brought a new change to Joseon's cultural and artistic realm. The intellectuals were at the center of this change and led the way to fostering new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trends. The tea culture of Joseon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was largely influenced by this new cultural wave.

The 18th and 19th centuries are considered to have been a revival period of tea culture. The background for this assessment lies in the fact that the enjoyment and appreciation of tea culture were expanded to a significantly larger population, albeit restricted to the intellectual class. The ripe and mature culture of the time also contributed to the spread of the taste and enjoyment in tea.

The domestic structural foundation for the revival of tea culture owed much to family tea traditions and the revitalization of cultural affinity groups. The cultural affinity groups sought cultural communication and the satisfaction of their cultural needs through various activities and exchanges, where their shared the lifestyle of tea drinking was the main medium. While family tea history was the vertical foundation behind the everyday enjoyment of tea, the exchanges shared within groups were a lateral foundation reinforcing the everyday practices as well as widening the sphere of tea culture. Also, foreign influences from exchanges with Qing and Japan set the stage for reorganizing and expanding the domestic tea culture in various ways.

The perception of the medicinal effects of tea by late Joseon intellectuals was based on a priori knowledge as well as information from medical books, encyclopedias and health management manuals. To them, tea and the tea drinking procedure were more than a way of medicinal treatment, but rather treatment of the mind, and furthermore the realization of a transcendental spiritual state.

The tea drinking procedure of 18th and 19th century intellectuals is found to largely consist of three elements: everydayness, professionalism and composite arts. To the intellectuals of Joseon, the tea drinking procedure was not separate from, but an integral part of daily living. The everyday aspect of the tea procedure not only involved pursuing health management through the medicinal effects of tea, but also the training of the temperament through concentration and control required in brewing tea. When offered to a guest,

besides being a beverage, tea was a way of laying the ground for noble dialogue through the pleasures of elegance and refinement. The aspect of professionalism can be found in different elements of the tea preparing and drinking procedure, including selecting the water, distinguishing the right level of boiling, controlling the fire and judging the quality of the tea. Such professional approach has much to do with the appearance of a series of books of encyclopedic material and professional articles written on the subject of tea. Tea drinking during the late Joseon period created a tasteful atmosphere for composite arts, bringing together various forms of hobbies synchronically. In turn, the tea culture became more elevated in dignity.

Today, having tea with someone has the meaning of seeking peace of mind and body, beyond the material conditions of time and space. Tea and the tea drinking procedure have taken on a different significance for modern day people desperately looking for a way to take care of the body and the mind. Therefore, it is called upon to incorporate tea into the culture of everyday life as a way of promoting emotional recovery and communication.